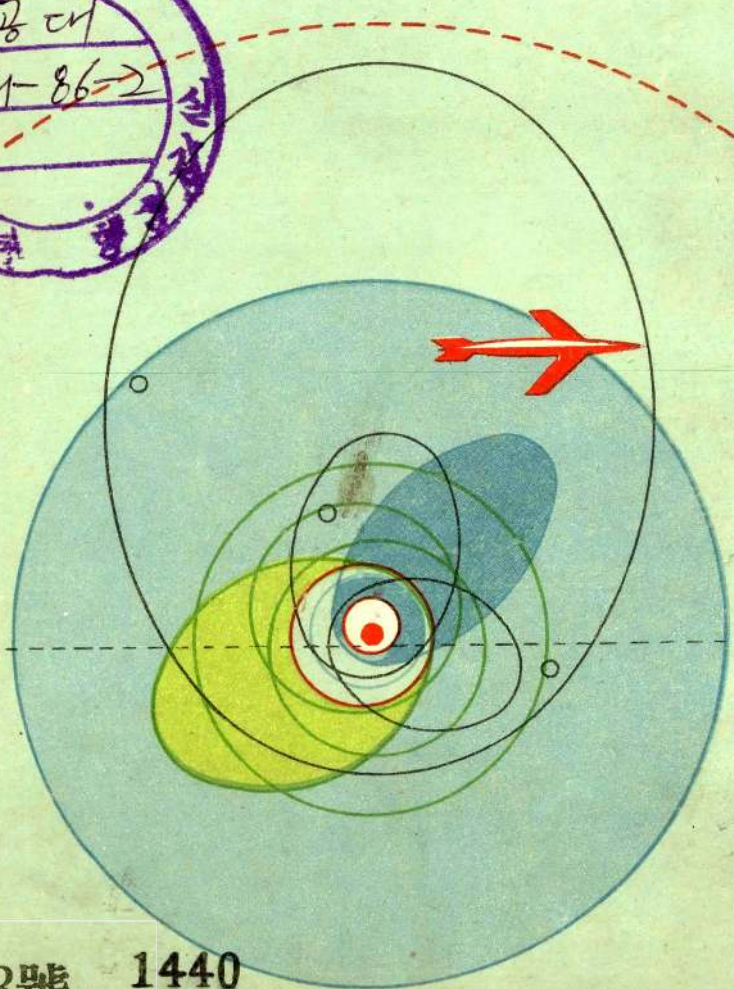


THE COMET

# 코메트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第23號

1440



1441

코메트·제 23 호 目次

△目次欄·願覽

李喜世 作

★着衣의 마야, 「裸體의 마야」(趣味의美術鑑賞)..... 李喜世 作

- ◇ 第三代大統領, 第四代副統領 就任式 및 第十一回 光復節 盛舉
- ◇ UN軍 總司令官 「델리제」大將 來韓
- ◇ 國府 空軍總司令官 王叔銘大將 來韓
- ◇ UN軍 休戰監視委員會團 美側代表 「키글」海軍少將 來韓
- ◇ 美第五空軍司令官 來韓
- ◇ UN 常任代表 林炳稷大使 空軍本部 禮訪

△卷頭言 V 軍人 과 軍紀..... 李鍾勝 (三)

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金貞烈 (四)

美軍事援助와 韓國經濟 衰成龍.....

「스이즈」運河問題의 危機..... 國際問題研究所提供 (二)

NATO와 SEATO의 將來..... 國際問題研究所提供 (二)

三詩 蒼穹頌..... 朴琦遠 (三)

隨筆 飛行機 發見..... 毛允淑 (八)

美空軍의 唯一한 黑人將軍..... 피터·켈리서 (六)

空軍發達史 (漫畫)..... (六)

「아랍」世界의 이모저모..... 李綠載 (七)

欄 東洋과 西洋의 交叉地..... 高永一 (三)

將 玉關情..... 高寬永 (一)

故賢一은 갔으나..... 丁海瑛 (三)

詩 愁心譜..... 최창열 (四)

放射線의 影響..... 外誌에서 (二)

하나의 大膽한 提案..... 카알·스파아츠 (三)

★海外喜劇漫畫選集..... 이저곳 (三)

★名言·言·俚諺..... 이저곳 (三)

★가위와 풀..... 이저곳 (三)

★特集 空軍과 航空의 날

航空日의 由來와 變遷..... 姜哲 (三)

航空은 이렇게 發達했다..... 外誌에서 (六)

하늘을 征服하는 사람들..... 로비르·힐마스 (六)

나의 空軍時代..... 尹天柱 (三)

航空日 回顧..... 金敬洙 (三)

나의 空軍時代..... 李鍾麟 (六)

종은 緣分..... 芮庸海 (六)

伊太利映畫의 近況..... 外誌에서 (四)

★海外토픽스..... 이거저기

戰爭과 國際法..... 朴觀淑 (四)

軍人과 宗教..... 嚴堯燮 (二)

現代詩의 難解性..... 金奎東 (二)

韓國古典解說..... 李明九 (六)

航空日 斷想..... 崔仁旭 (四)

우리의 와 하늘..... 朴榮濬 (六)

浩亭逸話 (史話)..... 徐泰憲 (二)

覆面의 騎士..... (二)

禁斷의 遊星..... (二)

키리만자로의 눈 (連載小說)..... E. 헤밍웨이作 이기석譯 (二)

★迎秋短篇選

廢墟의 獨白..... 柳周鉉 (一)

葉篇 一一題..... 郭夏信 (二)

不具者..... 崔泰應 (一)

〈趣味의 美術鑑賞〉

「着衣의 마야」, 「裸體의 마야」 고야 작 (Francisco Jose de Goya; 1746 ~ 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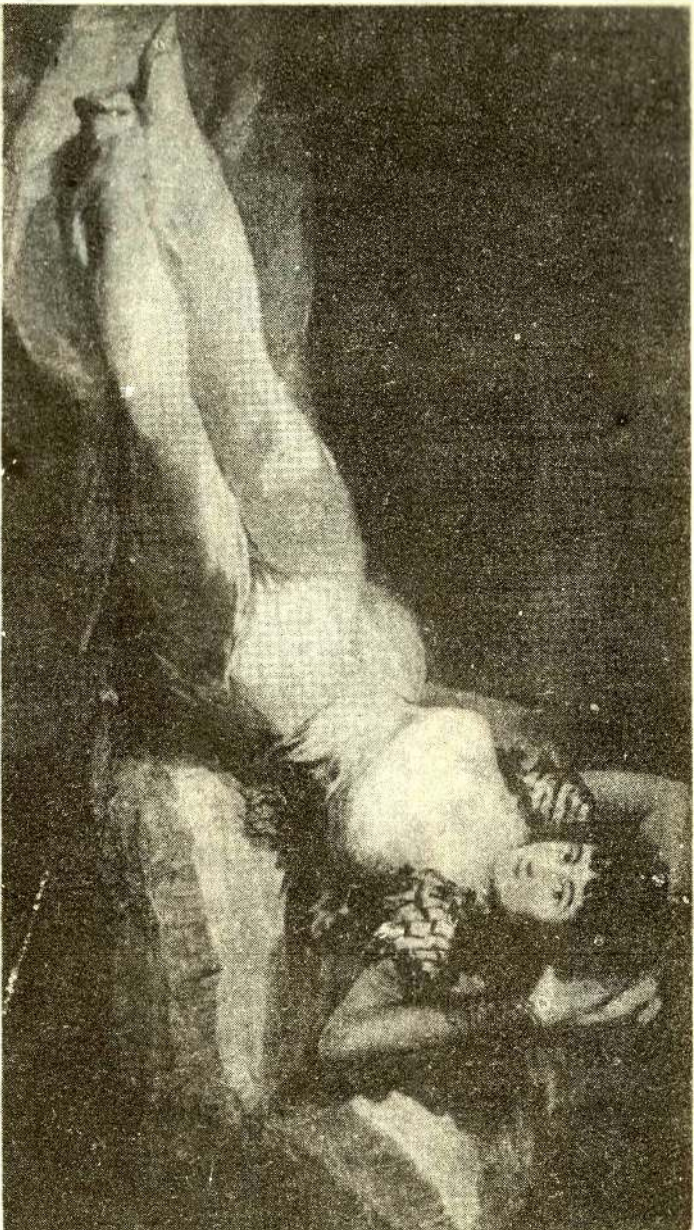
이 그림은 同形의 가까운 畫布에 하나는 着衣, 또 하나는 裸體로서 한 사람의 모형을 같은 소파아 위에서, 같은 보조로 드로워 같은 光線 아래서 그렸으므로 어떠한 關係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두 그림을 보면 着衣보다 裸體를 먼저 시작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누구를 그렸는지? 알바공夫人이 아닐까 하고 여자가 臆測으로 有名해진 그림이다. 왜 着衣와 裸體를 그렸는지는 몰라지 않는다.

수수께끼지만 主題에서 나타남과 같이 無名의 마야 卽스페인인 그時代의 女丈夫라고도 할 種類의 女子를 그린 것이 다. 이 女子가 입고 있는 짧은 上衣는 鬪牛師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黃에 黑, 아주 強한 色의 配合, 肉體를 鮮함은 것, 분홍의 더는 밑에 깔린 文字와 같이 고야가 얼마나 微妙한 光線의 效果를 손쉽게 表現했는가를 볼 것이며 그 아예 있는 肉體의 도드라짐(상 불임)을 充分히

解得하지 못하면 안 될 일이다. 얼굴도 뚜렷이 肖像畫 같이 그리지 않고 마음껏 大膽하게 본 (類)을 붙게 그렸으니 이時代로서는 奇想天外한 手法이라 하겠다. 고야는 상세한 寫實的 일을 하고 있었으나 결코 그것을 모두 나타내려고는 하지 않았다.全體의 諧調에 不必要한 것들은 勇敢하게 버린다. 이 버리는 것은 고야의 着實性이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 고야의 表現法이 確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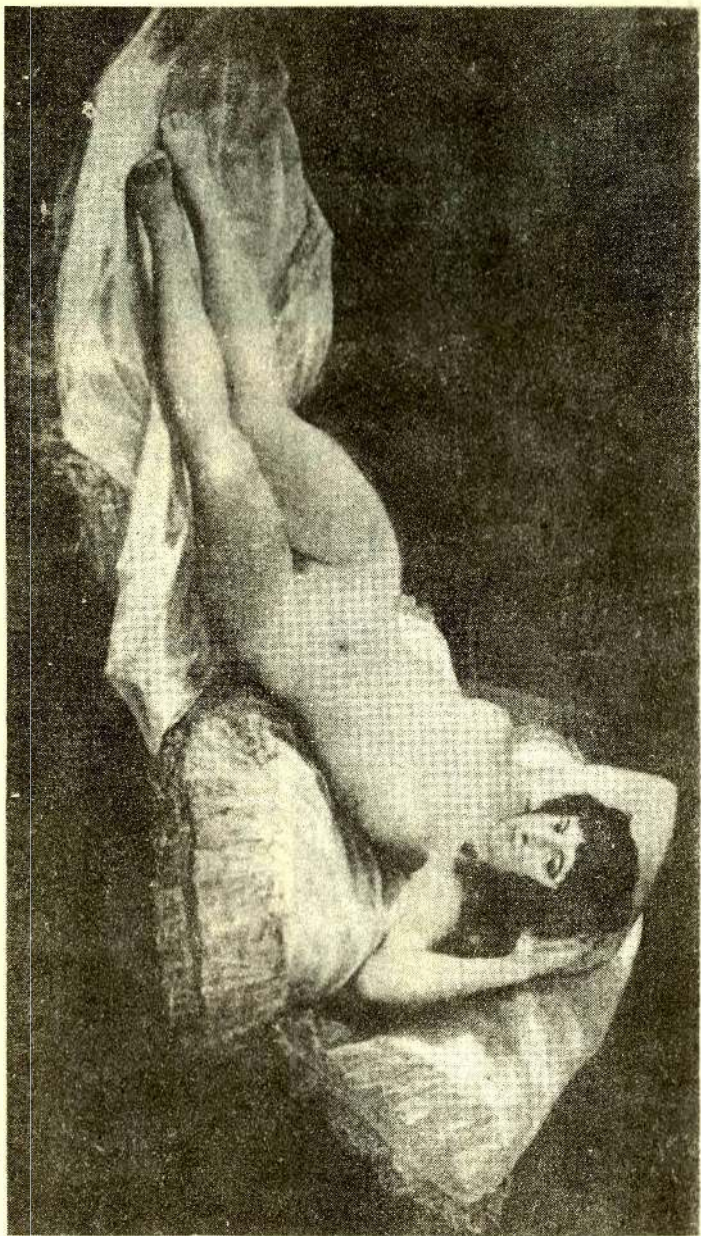
스페인의 畫家, 欄라스케스 및 엘브란드의 影響을 크게 입었다. 宮廷畫家로써 18고 末期의 宮廷趣味風으로 自然主義傾向을 強調한 近代縮畫의 先驅者이다. 主題는 肖像畫가 가장 많고 宗教畫, 風俗畫, 그밖에 版畫 등은 特別有名하다. 나폴레옹軍 侵入以後 프랑스 本으로도 가있다가, 一八二八年四月十六日 거기서 害死하였다.

〈趣味의 美術鑑賞〉



着衣의 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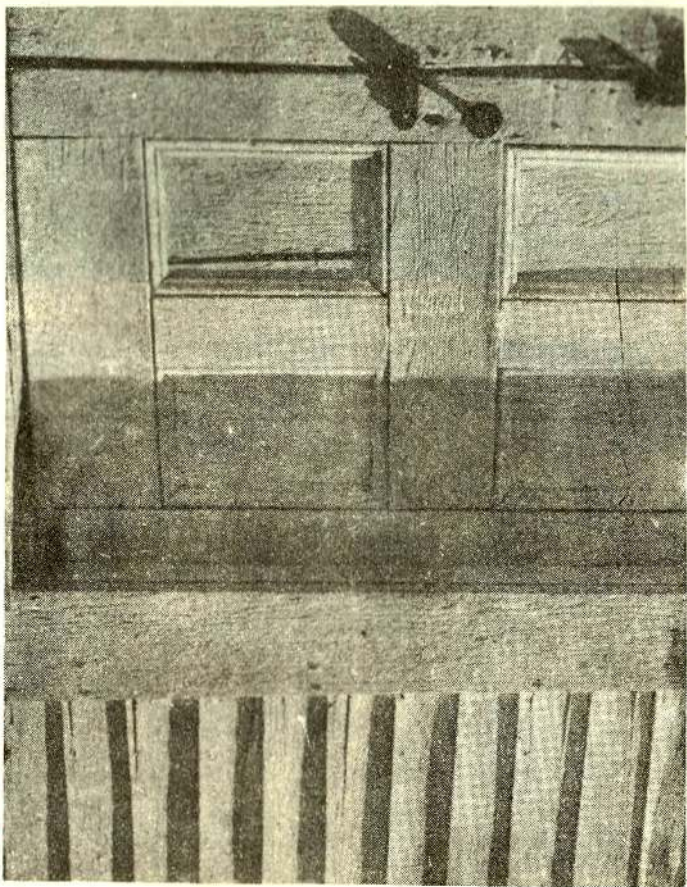
고야 작



裸體의 마하

고야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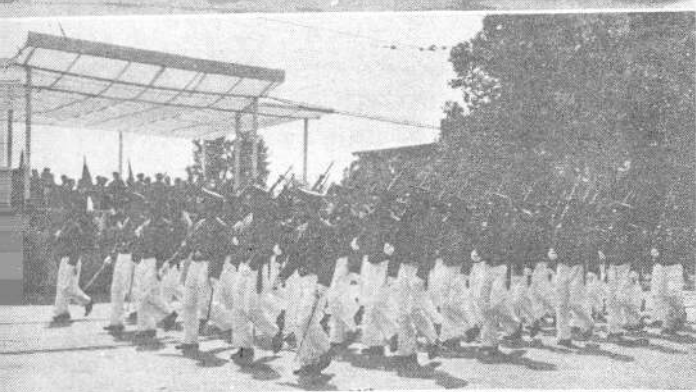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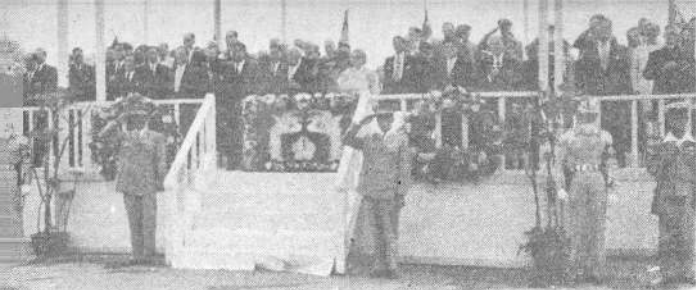
名作寫眞



教會의 門

第三代 大統領  
第四代 副統領

就任式 및 第十一回 光復節 盛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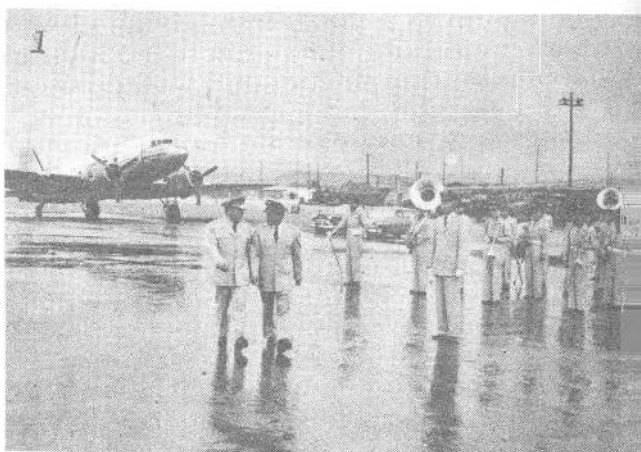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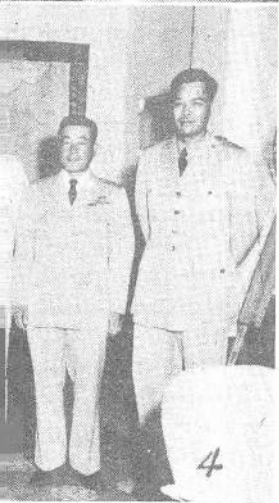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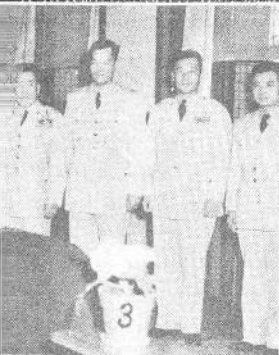
(上) 慶祝式典에서 查閱하시는 李大統領閣下夫妻와 張副統領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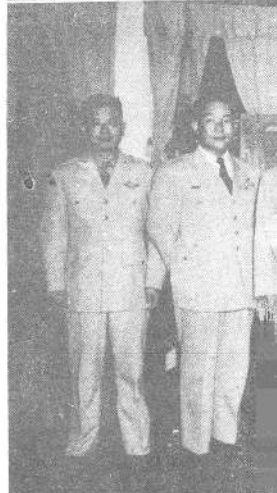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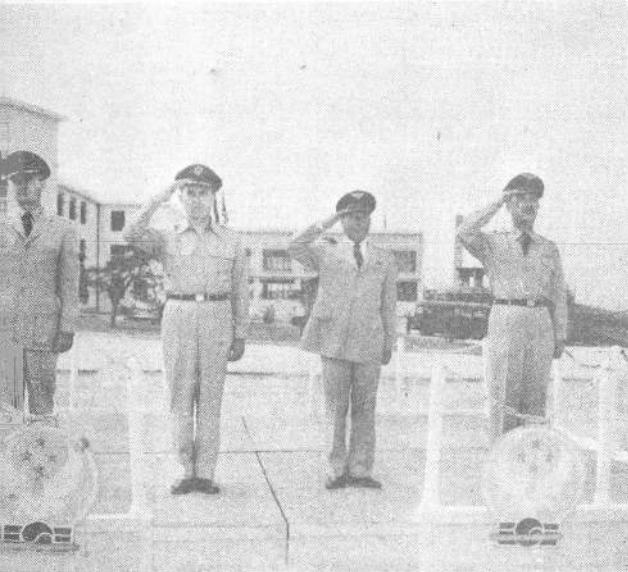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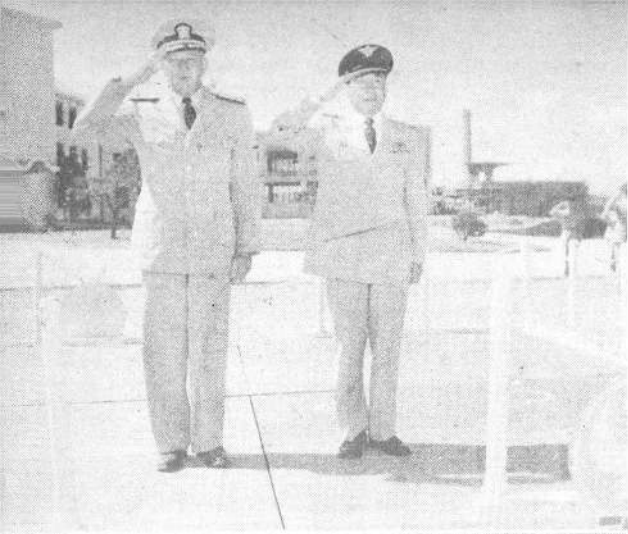
(中) 分列式에 參加한 空軍士官學校 生徒

(下) U.N.軍 總司令官「맹니찌」大將은 8月 2日 空軍本部를 初度 訪問하였다.

지난 7月 26日 金空軍參謀總長の 特別 招請으로 來韓—  
國府空軍總司令官 王叔銘大將은 作戰局長 雷炎均少將,  
報局長 衣復恩大領, 第五號트飛行團長 蔡名永大領, 專  
副官 張天立少領을 帶同하고 汝矣島空港에 到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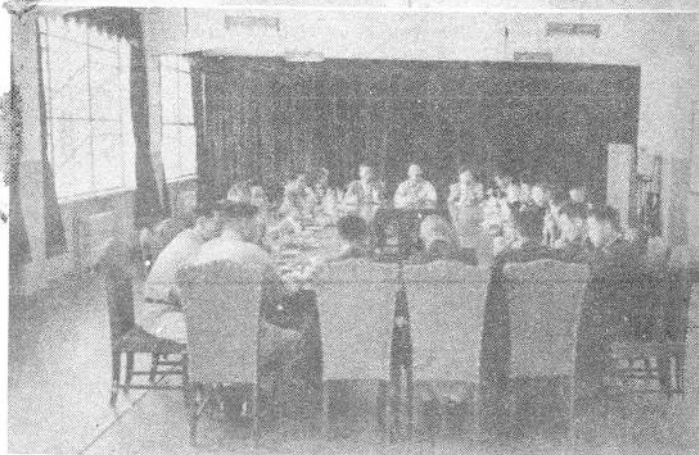
(1) 汝矣島空港에서 金參謀總長の 迎接을 받는 光景. (2) 同空港  
에서 王東原 駐韓中國大使의 案內로 華僑들의 歡迎을 받는 光景  
(3) 景武臺로 李大統領을 禮訪. (4) 國防部로 金國防部長官을 禮  
訪. (5) 同一行이 空軍本部에서 金參謀總長の 迎接을 받는 光景.





U. N. 軍 休戰監視委員團 美側代表「취달」海軍少將이  
 9月 6日 11時 空軍本部로 金參謀總長을 禮訪.  
 美第13空軍司令官으로 任命될 「에케-맨」少將은 9月  
 7日 10時에 空軍本部를 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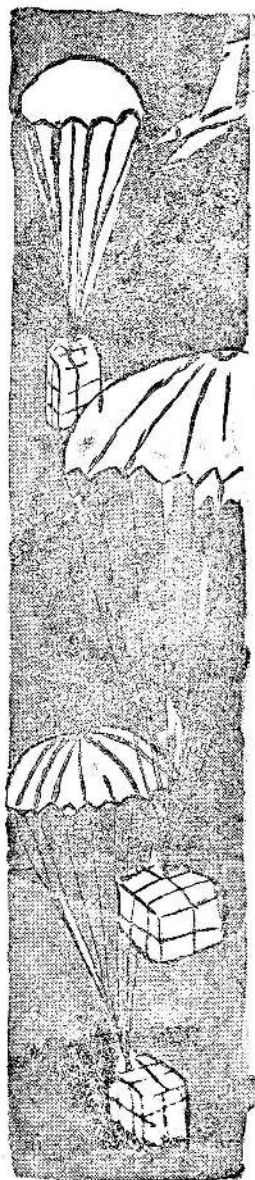
(上) U·N·常任代表 林炳稷大使가 空軍本部로 金參謀總長을 禮訪  
 (中) 在日 韓國僑胞 高等學校 野球團 一行이 空軍本部를 訪問、各級參謀의 茶菓歡迎會  
 (下) 美第五空軍副司令官「케에스·B·홍슨」少將은 十六日來韓하여 空軍本部를 禮訪하여 金參謀總長과 歡談

우리가 「航空日」을 지키는 意義는 모여서 떠들고 비행기가 드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自身을 볼보아서 앞으로의 發展을 위하여 決心과 計劃을 재롭게 하자는데 있고 또 國民全體가 團結하여 認識을 재롭게 갖이자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北韓傀儡가 涉駕하지 못할 空軍力을

갖이고 있다는 點은 國民이 다 잘 아는 일인즉 우리는 晝旻로 이에 對備가 充分하기를 期하여야 될 것이다。

今年부터는 航空日인 十月一日을 國軍의 날로 定하여 軍人은 勿論 全國民이 國防의 重要性을 알고 우리의 指針을 제우기 위하여 뜻있는 好로를 지내게 되었으니 國民諸位의 더욱 더 한 聲援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美·軍事援助와 韓國經濟



裴 成 龍

一、  
 지난 七月二十七日 韓國休戰 第三週年을 맞이 하여 金  
 用雨國防部長官은 韓國의 戰力強化의 必要性和 軍現代化  
 裝備의 火急性을 強調한바 있었다. 이것은 U·N에 對한  
 警告이었으니 北韓傀儡軍의 兵力及 裝備가 休戰當時와는

크게 달라져서 엄청나게 膨脹한것을 數字에 依하여 提示  
 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軍力은 相對的으로 強弱의 程  
 度를 測定하는 것이니 國防責任者로서 의 金長官의 그러  
 한 警告는 決코 偶然한 發言이 아닐것을 確信하는 바  
 이다.

筆者는軍關係者가 아니요、또 그 方面의 研究를 專門하는 사람도 아니니 我國國軍의 現況을 잘알지 못한다。 또 美國及 UN의 對韓軍事援助도 그 內容을 詳細히는 알지 못하나 韓國의 強大한 戰力維持와 美國의 對韓軍事援助도 그 軍事援助와 韓國의 經濟建設과 서로 서로 緊密한 關聯關係를 갖이고 있어 그 서로의 미쳐주는바 影響이 極히 深切한 것만은 알고 있다。『코메트』誌에서 本原稿을 請托하는 本意에도 깊이 感銘하는바 있어 다만 經濟關係만을 조금 적어 보기도 하는 바이다。

二、

UN及 美國의 前駐韓 經濟調整官 『우드』氏의 發言한 바에 依하면 美國의 對韓國의 每年消費는 約十億弗로 推定하였다。 對韓經濟援助를 約三億弗、또 對韓軍事援助를 約四億弗、美軍駐韓經費를 約三億弗로 보아서 軍事及 經濟援助總額을 每年 七億弗이라고 指摘한 것이다。 經濟援助보다는 軍事援助가 約一億弗程度로 많은 것이다。

一 이와 같은 每年 四億弗의 美對韓軍事援助가 매우 큰 것임은 누구나 認定하는 바이나 이것은 『우드』氏 自身이 指摘한 바와 같이 共產北韓으로부터의 새로운 侵略에 對備하고 있는 韓國의 處地에 있어서는 그러한 援助도 오

히 力 不足을 느끼는 것이 事實이나 不可避한 被援助인 것이다。 더욱 韓國國軍의 增強問題가 아니라 現狀을 그대로 維持함에 있어서도 全國家豫算의 約三分之一을 國防費에 充當하고 있는 處地이니 이 렇게 본다면 美國의 對韓援助라는 것도 그의 三分之一以上 훨씬 큰 部分이 國防費로 넘어가고 있음을 否認치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韓國經濟의 復興、建設에 있어서도 큰 影響을 입고 있는 것이니 韓國의 美國에 對한 軍事援助의 增強을 끊임없이 要請하는 것은 事情의 不可避한 發言일 것이다。

美國人の 말을 빌리건대

『歷史는 오늘의 韓國이 共產主義의 奴隸根性에 사로잡히는 妄想에 追從하지 않고 人類自由를 保障할 수 있는 經濟的體系에 立脚함으로써 能히 國民福祉를 實現시킬 수 있다는 것을 實地로 新生「아세아」數千萬人民들에게 例證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면 韓國만의 問題가 아니요 모든 自由主義國家들의 共同責任下的의 軍力存在하는 것을 指摘할 일 것이다。 卽 오늘날의 韓國 大軍備는 그 建設에 있어 많은 外國의 援助도 있었던 것이지만은 韓國은 넓은 自由世界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歷史的使命을 받은 것이다。 그 使命은 一九五〇年에서 一九五三年에 이르는 三個年 동안에 걸쳐서 共產侵略에 對抗하는 동안에 成就

한 課業에 못지않은 挑戰을 要請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共產再侵은 지난간 三年戰爭을 그대로 再演하고 或은 그 以上の 民族의 悲慘을 가져올것인 까닭이다.

韓國의 國防問題는 韓國問題의 범위를 떠나서 全自由 世界의 問題이니 韓國當局의 責任問題도 크겠거니와 全自由世界의 協助、援助가 없이는 그 大使命을 完遂할수 없는 것이다.

### 三、

지난 五月三日 當時 韓美經濟調整官이던 『우즈』氏의 發言(워싱턴 五月三日發 INS 合同)에 依하면 韓國이 二十一個師團의 軍隊를 維持할 必要가 있는限 美國은 莫大한 援助를 繼續하여야 될것이라 하였고 또 이어서 『만일 韓國이 大規模軍隊가 必要치 않게된다면』 現水準과 比等한 『儉素한 水準』위에서 自給自足이 可能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였고 또 『그러나 二十一個師團을 訓練하고 一練에 配置하면서 自給自足(筆者—經濟的?)』 한다는 것은 어려운 問題일 것이라고 附言하였다.

以上 發言을 檢討해 보건대 二十一個師團의 軍隊를 維持하는 經濟的自給自足은 얻을수 없다는 것이오 그만큼 大軍備가 必要치 않게된다면 겨우라도 儉素한 程度로 自給自足이 可能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即 小軍備가 아니

면 自給自足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援助의 多寡에 있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 다. 지금까지의 韓國經濟建設의 過程을 두고 말해보드 래도 財政에 依한 大軍費調達이 없었던들 經濟建設의 『립포』는 훨씬 빨랐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費用을 産業建設에 活用하는 効果도 期待할수 있었던 까닭이다. 現在의 大規模한 軍備를 維持하면서도 美國의 自由世界의 安全保障을 爲한 對韓軍備援助가 더욱 컸더라면 韓國의 어려운 財政에서 많은 國防費를 割出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같은 境遇는 今後에도 그대로 豫想되는 것이다. 큰軍備를 維持하고는 經濟安全을 얻을수가 없다. 다만 큰軍備를 維持하면서도 援助로서 維持費를 充當할 수 있다면 큰軍備를 維持하고도 能히 經濟的自立、經濟的安定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問題가 너무 무거운軍備에도 있지마는 또 援助가 軍備施設의 規模에 比하여 너무 적은데도 있다는 것이다.

### 四、

韓國의 經濟復興이라는 問題는 지극히 어려운 問題에 屬한다. 社會의 어떠한 部面도 아직 近代性을 가지지 못하여 近代와 前近代의 사이에서 彷徨하고 있는 形便이니 經濟關係도 그러한 存在의 範疇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다. 生産과 資本이 分離되어 資本의 生産的 役割은 매우 微弱하고 商業資本의 貨殖的 投機的인 氣風은 매우 濃厚한 것이니 이런 傾向은 韓國의 近代 產業經濟的發展을 爲하여는 매우 不利한 處地에 놓여있다. 거기에는 八、一五 解放에 依한 產業體系上的 混亂이 컸었고 또 六、二五 事變에 依한 三年戰爭의 破壞는 極히 慘酷한 것이었으니 이國防과 經濟建設의 二重의 큰 課業遂行은 도리어 그 하나도 오르지 어려운 狀態에 빠져 있는 것이다.

國防과 經濟建設에 있어 美國의 年計援助 七億弗이라는 것은 事實에 있어 巨大함을 否認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巨大한 援助가 所期の 目的을 뜻하는 바대로 達成치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外部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內部에도 있으며 그 內部의 理由도 外部의 理由에서 派生하는 바 있고 또 外部의 理由는 內部理由에 因由하는 바 있어 그 巨大한 七億弗援助의 効果는 容易히 거두어 지지 않는 것이다. 援助問題가 外交에 屬하는 바이요 또 軍事에 屬하는 바이어서 或은 形式에 흐르고 或은 體面에 사로잡히는 傾向까지 보여지는 것은 結局 援助效果를 縮減하는 하나의 큰 理由가 된 것이 아닐가도 생각되는 것이다.

前經濟調整官 『우드』氏도 機會있을 때마다 見解를 表明한 바이지만은 이二十一個師團의 大軍備를 어느 때까지 維

持하여야 될 것이냐 또 따라서 美國의 對韓軍事援助는 이 때까지 繼續되어야 할 것이냐 이러한 問題는 韓國經濟의 再建問題 또 美國의 問題의 對韓經濟援助에도 緊密한 關聯이 있는 것이다. 韓美兩國의 援助及被援助의 立場이 어느 때까지는 存續될 것이냐 恒久化할 수는 없으니 이點에 對하여 어떤 具體的 段階的인 完成計劃이 樹立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漠然히 大軍備만을 貪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함부로 縮少하는 것도 得策이 못될 것이며 經濟援助에 있어서도 一定한 年次計劃을 틀린 것이 實踐하는 못에서만 援助側의 援助計劃도 어떤 限界上에서 確乎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에 있어서는 年四億弗의 軍事援助 年三億弗의 經濟援助가 아무런 現實的인, 具體的인, 科學的인 設計도 없이 或은 많다 或은 적다는 추측구구식의 畧定事情을 免치 못하는 것은 크다란 遺憾事일 것이다. 要컨대 오늘날의 世界情勢에 依한 韓國의 要軍備的 現實이 一朝一夕에 變動되지 않을 것이라곤 본다면 그에 따라서 軍備의 規模와 軍事援助의 限度를 恒久的으로 策定할 必要가 있는 것은 아닐가. 卽 現實에 對한 確信은 갓임으로서 確定對策을 兩國의 合意로서 樹立할 必要가 切實하다고 보는 바이다. 이것이 確定된다면 그의 經濟再建對策에 미치주는 好影響도 매우 클 것으로 믿는 바이다.

五、

韓國이 美國의 巨大한 軍事援助와 經濟援助를 받되 어떤 權利義務의 限界가 確定하게 되지 않는 限、韓國主權의 獨立性이라는 것도 完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眞實한 內容일 것이다. 그 實質의 獨立性을 갖지 못하고도 오직 觀念上으로만 絕對獨立體와 같이 알고 모든 國家計劃을 더욱 完全한 面에로 推進하는 實務에 等閑한 것은 헛베가 불려서 實質에 힘쓰지 않는 弊端을 그 때로 存續하는 形式의 滿足에 不過한 것이다.

美國의 對韓國援助가 軍事와 經濟를 莫論하고 決코 無限으로 存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韓國의 現實이 一定한 計劃에 依하여 어느 目標에 到達할 確信이 서지 않고는 美國의 援助態度가 굳어질 수도 없는 것이니 이 點에 있어 韓國政府의 國防及 經濟의 計劃이 可能한 것만을 問題삼는 眞實에 도라가서 計算的으로 確立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다. 兩國의 目標가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韓國의 獨立 完成이라는 共通한 것이라면 거기 에 어떤 너나 의 間隔이 있을 수 없고 虛張이나 非現實의 體面에 拘碍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國家나 個人을 莫論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責任性의 불지 않는 것을 除外하고는 반드시 問題삼을 수 있는 것만을 問題삼고

計劃없는 期待나 原因없는 結果의 希望은 全然行動面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點에 있어 美國人의 韓國觀에는 相當한 不信이 內包되어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 면 서로의 交流乃至協同에는 여러 가지 難點이 없을 수 없고 그 不利는 오직 韓國及 韓國人만이 獨占하지는 않을 가도 생각한다.

要컨대 美國의 軍事及 經濟의 援助는 우리로서는 좀더 效率的으로 使用하기 爲하여 더욱 計劃化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거니와 韓國經濟建設이라는 問題를 全的으로 財政問題의 所管으로 보는 것과 같은 傾向을 떠는 것은 韓國政府의 經濟建設觀과 美國人의 韓國經濟建設觀의 사이에 있는 큰 差異가 아닐가 생각하는 바이니 이 點의 뚜렷한 一實證이 最近의 農業銀行의 誕生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國民經濟의 힘에 依하여 國家經濟의 確立을 期할 수 있는 것이 이르는바 民主經濟의 建設方向이니 『우즈』氏가 言明한바 『自己의 使命은 自己의 努力만으로는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이니 即 韓國政府의 眞實한 協心合力이 아니므로는 到底 援助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 韓國政府의 各部各處의 더욱 統一된 對援助政策이 民主經濟建設의 單一目標에 따라서 새로 策定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스에즈」運河問題의 危機

國際問題研究所 提供

1456

埃及의 「나일」이 歐羅巴와 亞細亞를 最距離로서 連結하는 國際水路 「스에즈」運河를 國有化함으로써 惹起된 緊張狀態는 날이 갈수록 惡化되어가고 좀처럼 解決 乃至 妥協의 方途가 보일것같지 않다.

「나일」의 國有化措置가 發表되자 燥急히 開催된 西方三 大國의 「런던」會議은 「스에즈」運河의 國際的 管理問題를 審議하기 위해서 八月十六日에 「런던」에서 二四個關係國 家會議을 開催할것을 呼訴한바 있거니와 當初에 豫想되던 바와 같이 埃及은 이에 參加를 拒否하였다. 蘇聯은 一

連의 遲延戰術이 西方側의 頑固한 拒否를 받은後 結局參加하기로 決定하고 「모로토프」의 뒤를 이어 새로 外相에 就任한지 오래지 않은 未熟한 外交官 「체피로프」外相을 派遣키로 決定하였다.

獨裁者 「나일」이 「스에즈」運河國有化를 發表한後 取한 行動과 蘇聯의 態度는 많은點에 있어서 相互一致하고 있으며 結局 「나일」의 同運河國有化措置는 蘇聯과의 事前 協議 乃至는 蘇聯의 暗示에 依해서 刺戟을 받고 取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疑訝를 낳게 한다 「나일」은 運河의 國



有化를發表한後 十八時間 동안에 三回에 걸쳐서 埃及駐在 蘇聯大使와 會談하였고 現在까지 五回의 會談을 가졌다. 그들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 가고 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西方側의 二四個國會議案에 대한 埃及의 態度는 蘇聯의 그것과 많은 類似性이 있는 것이며 두 나라 사이에 事前協議한 痕跡이 如實히 들어나고 있다.

蘇聯은 英國側의 二四個國會議案에 대한 代案으로서 會談을 中共을 비롯한 數個共產國家를 더 包含하고 또한 數個의 中性國家는 「아랍」聯盟 全國家를 包含하는 二二個國을 더 追加하도록 그 範圍를 넓히는 同時에 會議開催日字를 八月末日로 延期하자고 提案해왔던 것이다. 한편 埃及의 「나셀」亦是 이와 類似한 內容의 提案을 英國에 提示해왔던바 이는 前記蘇聯側提案과 함께 英國에 依해서 憤然 拒否되고 말았다.

두말할것없이 「스에즈」運河는 歐亞를 最短距離로서 連絡해주고 있는 唯一한 國際水路를 이루고 있음으로써 世界海洋交通을 위해서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으며 특히 英國과 佛蘭西를 爲해서는 生命線의인 存在인 것이다 英國은 地中海의 安全을 維持하고 그 東方에 있는 勞力圈을 確保하기 위해서 「스에즈」運河는 必須의인 것이며 佛蘭西亦亦 其 目的을 爲하기 爲한 有效한 管理를 위해서 「스에즈」運河는 絕對로 必要한 存在이다.

그러나 하층의 重要한 問題는 中東地區의 石油資源이다. 英國을 비롯해서 全歐羅巴는 그들의 國防力의 維持는 産業의 維持發達에 있어서 全的으로 中東地區의 石油에 依存하고 있다. 實로 中東地區의 石油는 全歐羅巴의 石油需要量의 五分之四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에즈」運河는 이와 같은 歐羅巴諸國의 國防과 産業에 必須的인 石油의 輸送路인 것이다. 「스에즈」運河를 通過하는 荷物은 年平均 一億屯이라 하는바 그 半以上이 中東地區의 石油을 積載한 油槽船이 차지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스에즈」運河가 埃及의 狂的인 獨裁主義者 「나셀」에 依해서 獨占된다는 事實은 全 西歐諸國의 國防力과 産業이 沈滯됨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英國統計學者들이 推算한바에 依하면 英國이 第一 中東의 石油을 잃게 되면 英國은 六個月內에 四百萬名이 失職狀態에 빠질 것이며 英國의 年收入은 六億弗이나 減少될 것이라 한다. 이는 英國의 經濟가 얼마나 中東地區의 石油과 깊은 聯關을 맺고 있는가를 表示하는 端的인 事實이다.

三八才의 獨裁者 「가말·압밀·나셀」大統領은 그의 運河國有化措置의 公式의인 理由로서 「스에즈」運河에서 들어오는 收入을 「아스완·댐」을 構築하기 위해서 使用할 것 이라고 말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最近에 西方側이 「아스완·댐」構築에 대한 援助提案을 撤回한데 대한 報復行爲로

서 取해진 것이라는 것이 定評이지만 「나셀」의 心中에는 單純한 報復을 위한 것 以上의 다른 目的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卽 그는 終局에 가서 西方側을 「아랍」世界에서 完全히 驅逐함으로써 「아랍」世界에 散在해 있는 西方側의 油田施設마저 嘍어버리려는 심보를 가지고 있음이 明白하며 이는 實로 西方側의 生命線을 끊으려는 行爲라 아니할 수 없다.

「나셀」의 劇的인 「스에즈」運河 國有化에 關한 決定이 發表되자 「카이로」放送은 『오늘날 우리 「아랍」人民들은 얼마나 榮光스러운 存在인가? 우리의 團結과 協力과 勝利는 羨望的의 이 되어 있다. 나셀大統領은 「스에즈」運河를 國有化함으로써 「아랍」民族을 國有化하였던 것이다』라고 意氣揚々하게 외쳤던 것이다.

한층 더 重大한 問題는 「나셀」의 運河問題를 圍繞한 態度에 대해서 其他의 「아랍」聯盟諸國家들이 壓倒的인 支持를 表明하였다는 事實이다. 「나셀」은 「스에즈」運河를 國有化하는 措置를 取함으로써 하르지체에 「아랍」世界의 英雄이 되었다. 「싸우디·아라비아」의 싸우드王은 「나셀」에게 親書를 보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埃及를 支持할 것을 約束하였고 「요르단」의 「주세인」王 亦是 祝賀의 電文을 發送하고 「나셀」의 勝利는 「아랍」民族主義의 將來를 하층더 有望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의 國旗가 將

次不當하게 盜賊當한 「팔레스타인」 땅위에 뒤날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이 埃及·싸우디·아라비아·레바논은 「아랍」諸國의 巨大하 石油會社를 國有化함으로써 그 收入을 利用해서 共通的인 經濟發展計劃을 위해서 使用할 것이라는 說이 머물고 있다.

한편 「나셀」의 運河國有化措置가 發表되자 英國과 佛蘭西는 크게 警惕하고 憤激한 나머지 兩國 共히 豫備軍召集을 斷行하는 同時에 海軍力을 東部地中海에 集結시키는 등 금시라도 埃及를 질것같은 武力示威을 베풀은바 있었거니와 이에 對한 埃及의 態度 자못 強硬한바 있다. 埃及는 「스에즈」運河를 다시 嘍질바에야 차라티 破壞해버릴 것이라고 威脅하며 「나셀」은 國家總動員令을 發佈하는 同時에 最後의 一人까지 싸울 것이라는 決意을 表明하였던 것이다. 또 「아랍」聯盟勞動組合은 埃及이 萬若 攻擊을 받는 境遇에는 中東全域의 西方側施設을 一切히 破壞하겠다는 決議를 可決하고 있다.

또한 中東地區에서 英國의 唱導로서 이루어진 「바그다드」協定の 加盟國이며 英國과의 親善을 維持하고 있던 「이라크」과 「이란」마저 埃及를 支持하는 態度를 取하고 있음은 英國을 하층더 깊은 「딜레마」속으로 바트치는 事實이라 아니 할 수 없다.

蘇聯은 始初부터 埃及의 措置를 極히 正當한 事이라고 讚揚하고 이를 支持하는 態度를 表明하였거니와 西方三 大國代表들이 「런던」에서 모여 八月十六日에 「二四國會議」를 開催할것을 呼訴하자 蘇聯은 前述한바 새로운 代案을 가지고 遲延戰術을 써보려 했으나 英國은 이를 斷乎히 拒絶하고 豫定대로 會議를 開催하겠다는 決意를 움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할수없이 「웨이로프」外相은 「런던」會議에 參加하기로 決定하게 되었다.

英國이 最近過去 七五年間의 占領에 終止符를 찍고 「스 에즈」地域에서 撤收를 斷行한 以來 美國·英國을 비롯한 西方諸國은 埃及 其他의 中東諸國과 더불어 舊時代의 支配·被支配關係에서 벗어난 平等한 關係에서 새로운 協力의 時代가 열릴것이라고 期待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四年前에 「화북」王을 쫓아내고 埃及의 政治革新과 腐敗의 是正을 부드렸으며 獨裁者로 登場한 三才의 青年 「가말·압델·나셀」이 걸어온 行狀은 언제나 西方側의 失望을 자아내왔다.

그는 蘇聯에 대해서 秋波를 던지며 必要以上으로 西方側을 非難함으로써 「아랍」人民들의 感情을 刺戟하였다. 그는 昨年 九月에 蘇聯과 武器來去를 시작함으로써 中東平和를 一觸即發의 危機로 몰아넣었으며 또 親西方의 인 「바그다드」協定(中東防衛機構)을 깨트리기 위해서 全力

을 다해왔고 또 最近에 와서는 西方側과 何等의 事前協議 乃至 通告도 없이 中共政權을 承認하였으며 또한 「아랍」聯盟國家들中에 가장 親英의 色彩가 濃厚하던 「요르단」에게 壓力을 加함으로써 英國과의 마지막 紐帶를 끊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나셀」이 「나일」江上流에 構築할것을 計畫하고 있는 所謂 「아스완」 댐 問題를 가지고 完全히 蘇聯과 接近하고 마치 三角關係에 선 妖婦와 같이 行動하기 시작할때까지도 西方側 特別히 美國은 아직도 「나셀」에 대해서 一縷의 希望을 걸고 그가 西方側에 머물름으로써 얻는 利得을 깨닫게 될때까지 기다리자는 忍耐를 繼續해왔던 것이다.

이제 이와같은 西方側이 「나셀」에 대해서 걸고 있던 一縷의 希望은 完全한 幻想이 없음이 틀어났다. 「나셀」은 「아랍」世界 나아가서 全 「모슬렘」世界의 霸權을 걸것을 꿈꾸고 있는 野心家요 幻想家임이 틀어났다.

이는 西方側을 위해서 커다란 挑戰이 되고 있는 事實이라 아니할수 없다. 「나셀」은 「아랍」世界에서 莫大한 影響力을發揮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單純히 그가 領導하는 埃及이 「아랍」聯盟全體에서 主導國인 位置에서 있다는 理由에서뿐 아니라 그는 特別히 今般의 「스 에즈」運河國有化措置를 契機로 해서 「아랍」世界의 英雄이 되었으며

「아랍」人民에 依해서 一大靈感的存在와 같이 推仰을 받  
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셀」을 가리켜 獨逸의  
「히틀러」냄새가 난다고 말하는것도 至當한 말이라 할 것  
이다.

그런데 한층더 重大한 問題는 이와같은 「나셀」의 野望  
이 昨年九月에 埃及에게 武器를 供給해 주기 시작함으로  
서 露骨化한 蘇聯의 中東地區에 대한 野慾과 野合을 이  
루었다는 事實이다. 蘇聯의 中東問題의 介入의 根本目的  
이 西方側을 中東地域에서 去勢함으로써 그 生命線的存

在인 石油供給源을 封鎖해 버리자는 데에 있거니와 이제  
이러한 蘇聯의 野慾이 「나셀」의 毒같은 심본와 結合을  
이룸으로써 西方側을 위해서 重大한 危險이 되고 있는 것  
이다.

西方側이 團結을 維持하고 이번 「스에즈」運河問題에  
勇敢히 當하지 않는限 「스에즈」運河問題는 西方側을 위  
해서 單純히 同運河自體의 喪失만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中東全體에서 去勢되는 契機가 되리라는 것은 容易하게  
想像할 수 있는 問題이다.

## NATO와 SEATO의 將來

### 國際問題研究所 提供

自由世界の 共產主義侵略에 對抗하는 集團防衛體制로  
서의 NATO(北太西洋條約機構)와 SEATO(東南亞  
條約機構)는 이제 蘇聯의 武力侵略의 意圖를 阻止하는  
本來의 使命을 어느程度 完遂한 結果 새로운 局面에 處  
한 冷戰을 위해서 改編을 斷行할 段階가 到來하였다.

NATO는 一九四九年에 「加盟國」의 一國乃至 數個

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發生할時 이를 全加盟國에 對한 攻  
擊으로 看做하고 即時 自動적으로 應戰한다」라는 原則  
위에서 創設되었고 SEATO는 一九五五年 九月 比國  
의 首都「마니라」에서 열린「마니라」八個會議에서 調印된  
「마니라」條約에 基礎를 두고 있는 東南亞地域의 集團防  
衛體制인 것이다.

이 두개의 自由世界의 同盟體는 그 性格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를 가지고 있으며 그 重大한 것은 NATO가 加盟國에 對한 攻擊은 이를 全加盟國에 對한 攻擊으로 看做하고 「即時」自動的으로 應戰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음에 反하여 SEATO는 다만 共產主義의 武力侵略이 있을 境遇에 條約締結國은 各國의 憲法上의 手續에 依하여 共同의 危險에 對處하는 行動을 取할 것을 規定하고 있을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兩者間의 性格上의 差異는 우리가 여기서 論하든는 問題가 아니다. 다만 SEATO는 그 根本的인 組織上으로 볼때 NATO에 比해서 弱體라는 評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이 成立한지 歷史가 짧은 反面에 NATO는 그 成立以來의 歷史가 오랜뿐 아니라 自由陣營의 強力한 團結을 象徵하는 集團防衛體制로서 過去에 蘇聯의 武力侵略意圖를 阻止함에 있어서 原動力이 되어 왔다는 것을 指摘하고저 하는 것뿐이다. 蘇聯이 現在 그의 對外政策上의 當面の 目標의 하나로서 NATO의 解體를 劃策하고 있음은 明白한 事實이며 이는 또한 前述한 바의 같은 NATO의 重要點을 말해주는 事實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西方側은 當面の 緊迫한 詳題로서 優先 NATO의 改編에 對해서 考慮를 加하여 왔으며 SEATO에 對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留意를 보이지 않았

던 것이다.

생각컨대 NATO의 改編論이 擡頭되게 된 根本原因은 昨年 七月의 「제네바」四巨頭頂上會談을 契機로 해서 表面化하기 시작한 蘇聯의 平和攻勢와 이에 따라 蘇聯의 對外政策이 새로운 伸縮性을 가지고 多角化한데 對應하려는 要請에서 由來하였던 것이다. 「제네바」頂上會談은 東西冷戰에 있어서 하나의 分水嶺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때까지의 蘇聯의 對外政策은 只今와서 蘇聯의 新指導者層이 完全히 非難·否定하고 있는 所謂「스탈린」方式에 依해서 遂行되었던바 그는 搖地不動하는 鐵의 帳幕뒤에서 西方側에 對한 武力示威와 脅迫으로서 一貫하였으며 따라서 兩大陣營間의 關係는 끊임없는 軍備競爭과 相互間의 勢力圈形成으로 始終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世界全體는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兩大陣營으로 確然히 分割됨으로써 軍事的으로 停頓狀態에 빠지고 숨막힌 듯한 緊張은 熾烈의 度를 加해왔다. 그리하여 NATO는 그와 같은 兩大陣營의 對立關係속에서 自由陣營의 團結을 象徵하는 強力한 組織體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頂上會談을 契機로 해서 表面化한 蘇聯의 微笑外交·平和攻勢는 冷戰의 様相을 一變시켰다. 冷戰은 그때까지의 軍事面置重을 揚棄하고 經濟戰·思想戰으로 轉換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冷戰第一期에 있어

서 共產側의 侵略意圖를 封鎖하기 위해서 自由陣營의 軍事防衛態勢의 完成이라는 本來의 使命을 完遂한 NATO는 그 面貌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局面에 突入한 冷戰에 對處하기 위해서 軍事而置重을 止揚하고 政治·經濟의 面에서의 紐帶를 強化하기 위한 措置가 있어야 되겠다는 要請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外部的인 情勢의 變化에 依해서 NATO改編은 促求되었거니와 反面 NATO內部에서도 그에 따라 여러 方面에서 脆弱點이 胚胎됨으로써 그 應急手術을 위해서도 NATO는 새로운 手術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승진 없는 事實이라 할 것이다. 元來 NATO는 蘇聯의 武力侵略의 可能性과 그에 對한 恐怖를 基盤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흔히 말하면 所謂「제네바」精神은 그와 같은 恐怖를 抹消해 버림으로써 NATO의 基盤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即 蘇聯이 全面的인 武力侵略을 取行할 危險性은 이미 解消되었고 自由陣營은 過去の 軍事面置重政策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17 -  
이와같은 思考樣式을 代表하고 있는 것은 社會主義者「기·몰레」首相이 領導하는 現佛蘭西政府이다. 일찍이「기·몰레」氏는 美國의 一雜誌記者와의 會見에서 美國의 對外政策을 非難하고 西方側 特히 美國은 그 政策에 있어서 軍事面에 過度히 置重함으로서 共產主義者를도 하

여금「平和」를 標榜하는 逆宣傳의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五 攻擊하는 同時에 美蘇兩國이 다같이 水素彈爆發에 成功한 以來 自己는 이미 蘇聯의 武力侵略의 威脅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實際에 있어서도 佛蘭西는 그의 歐洲軍을 北阿의 「알제리아」暴動事態를 鎮定시키기 위해서 들렸고 또 最近에는「몰레」首相과 「피노」外相이 몸소 莫府를 訪問하고 蘇聯首腦部와 한사리에 앉아 軍縮問題를 비롯한 世界緊張問題를 얘기한 바 있었던 것이다.

한때 大西洋의 北쪽에 位置하고 自由陣營의 蘇聯에 對한 軍事基地로서 美國이 그의 空軍基地를 保有하여 海軍의 一部를 駐屯시키고 있는「아이스랜드」는 그 議會에서 美國에게 그 駐屯軍을 撤收시킬것을 要求하는 決議案을 可決한 바 있었는데 그 理由로서 同決議案은 國際緊張이 緩和된 結果 同島에 美國軍을 繼續 駐屯시킬 必要性이 解消되었음을 指摘하였던 것이다. 結局 美國은 繼續해서 軍隊를 同島에 駐屯시키게 되었으나 이것이 NATO의 存立을 危殆롭게 하는 事實임에는 틀림없다.

NATO의 改編을 促求한 또 하나의 한층더 重大한 事實은 現在 中東을 비롯해서 世界到處에 걸쳐서 澎湃히 일어나고 있는 中立主義와 後進民族들의 覺醒하여 가는 民族意識이다. 蘇聯의 平和攻勢는 現在 後進國에 대한

經濟援助를 軸心으로 하고 遂行되고 있는바 過去 西方側의 支配下에서 呻吟하던 後進民族들의 覺醒하여가는 民族意識은 容易하게 刺戟함으로써 中立主義의 傾向으로 轉을며 나아가서는 自己陣營內로 抱稱해가지고 있는 것이다.

西方側이 이에 對抗해서 後進國에 대한 經濟援助를 效果으로 遂行함으로써 現在 世界全體를 風靡하고 있을 中立主義를 막고 後進國家들로 하여금 西方陣營에 머물르게 함은 무엇보다도 緊切한 當面の 課題인 것이다. 冷戰에 있어서의 結局的인 勝利는 어느편이 먼저 人間의 차음과 思想을 征服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ATO는 當然히 過去의 軍事面置重을 止揚하고 政治的 經濟的 面에서 西方側의 紐帶를 強化하도록 改編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中東과 「아프리카」의 民族主義에 依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英國과 佛蘭西가 美國에게 NATO 改編을 위한 壓力을 加하고 있는 重要한 理由인 것이다. 그들은 NATO를 이와같은 後進國에 대한 經濟援助의 발판으로 만들것을 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 美國과 其他 西方諸國을 사이에 改編에 관한 政策上의 分裂이 생길 可能性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美國의 國內輿論은 아직도 美國의 長期的 對外援助를 反對하는 傾向으로 흐르고 있다. 美國의 一九五七年度 對外援助額 四九億佛은 上下院에서 많은 論

難을 거듭한 結果 結局 十餘億佛의 削減된 額에 三七億佛로서 通過되었다. 이와같은 美國이 可一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려하는지는 疑問이라 아니할 수 없다.

NATO 改編을 위한 實際的인 첫 段階는 지난 五月四日부터 六일까지 佛蘭西「파리」에서 NATO 加盟 十五個 國外相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NATO 理事會에서 取해졌다. 同理事會는 冷戰의 새로운 樣相에 即應키 위해서 NATO를 如何히 改編할 것인가에 關해서 眞摯한 討論을 行하였으며 그 結果로서 蘇聯과의 平和的 鬪爭을 위해서 NATO를 改編하는 方案作成을 加奈陀·伊太利·諾威外相으로서 構成되는 三人委員會에 委囑하기로 合意를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歐羅巴의 NATO는 그 改編을 위한 實際的인 움직임을 이에 보이고 앞으로 改編을 위한 三人委員會의 方案이 如何한 것인지 注目を 끌고 있거니와 한편 東南亞細亞의 集團防衛體制를 構成하는 SEATO는 어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층더 깊은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昨年에 SEATO가 成立되던 當時에 우리가 가졌던 希望은 SEATO가 비록 그 初期段階에 있어서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의 不一致와 當面の 諸事情으로 困해서 亞細亞全域에 걸친 反共勢力的 結果를 招來하지는 못하였

고歐羅巴의 NATO와 같은 強力한 組織을 이루지는 못하였을망정 앞으로 SEATO가 絕對로 그와 같은 方向으로 發展해나가게 될 것이며 또 發展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亞細亞는 歐羅巴와 同樣으로 或은 그以上으로 共產主義侵略의 危險性이 存在하여 더구나 歐羅巴보다도 훨씬더 局部的戰爭의 危險性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바로서 亞細亞에 強力한反共集團防衛體制를 確立한다는 것은 強烈한 要望이었던 것이다.

西方強國들이 自己를 눈앞에 붙을 고기 위해서 亞細亞에 關心을 덜 두고있음은 人間의 常情으로서 看做될 수도 있는 問題이지만 이는 亞細亞의 安全 나아가서 世界全體의 安全을 위해서 慨嘆하지 않을 수 없는 事實이다.

특히 亞細亞는 아직도 軍事的으로 韓國을 爲始해서 台灣 印度支那 「버마」 등의 爆發的인 危險性들을 包含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強力한 集團防衛體制의 테들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나。經濟적으로 亞細亞는 西歐諸口에 比해서 아득하게 뒤떨어진 未開地이며 따라서 未開한 亞細亞人民들은 共產主義의 侵透를 위한 容易한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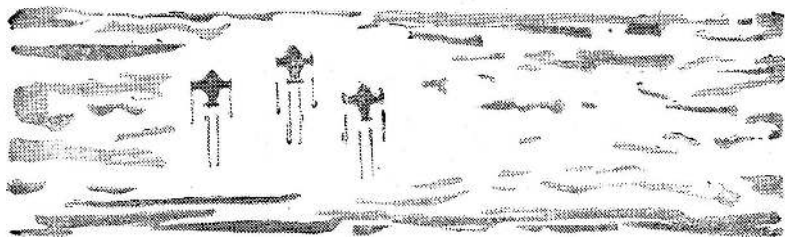
따라서 SEATO를 앞으로 擴張 強化하는 課題란 豈더 緊切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努力은 軍事的 經濟的 兩面에서 多같이 強力하게 推進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끝)

(二十七頁에서) 興奮에 가득하게 하였다. F-86, T-6에 依한 特殊飛行이 驚異와 感動으로 입을 벌린 參觀人들 앞에서 舉行되었고, F-86에 依한 音速突破飛行과 F-86編隊에 依한 對地攻擊 示範이 있었는데 漢江 모래沙場 위의 目標物에 命中彈을 퍼붓는 妙技에 天地를 위흔드는 拍手喝采 소리가 울려나왔다. 마즈막으로 落下傘降下와 H-19 헬리콥터에 依한 救出作戰으로서 하늘의 祭典은 幕을 내리었는데 百數十餘台의 各種航空機가 參加하여 九十分間에 걸쳐 一絲不亂하게 繼續된 同祭典은 參觀人들에게는 오직 感激과 興奮, 感嘆의 連續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參加한 飛行機는 H-19 헬리콥터를 除外하고는 全部 太極의 標識이 달린 韓國空軍機이었다.

이와같이 四二八年 가을 第一回航空日을 制定한 以後로 連年 盛大한 航空日 記念行使를 舉行하여 음에 따라서 날로 飛躍의으로 發展을 거듭하는 우리空軍의 威容이 해를 바꿀때마다 온겨레의 앞에서 誇示되었고 國民도 또한 해가 갈수록 航空에 對한 認識과 憧嚮을 더욱 새롭게 하여 國防上에 있어서의 空軍力의 重要性이나 現代 文明의 極致인 航空機의 發達相을 몸소目睹하고 體驗하게 되어 이나라 航空界發을 더욱 促進하게 되었다.

自由롭게 우리 하늘을 우리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오늘날 韓國空軍과 韓國航空界의 前途는 참으로 前途洋洋하다고 할 것이다。(軍事課提供)





△航空日祝詩▽

# 蒼穹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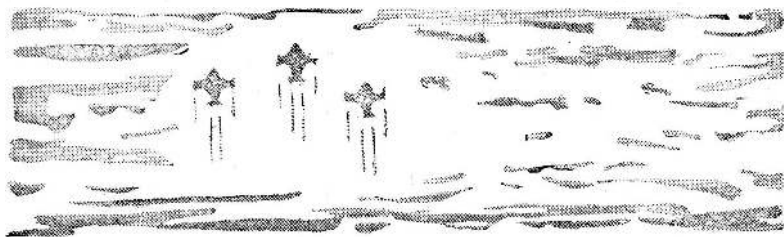
朴 琦 遠

宇宙를 縮圖할 푸른 意慾에 恒時 가슴은 부푸려  
 倏倏히 蒼穹을 아람하여 구름을 갈피하는 뜻이 가을처럼 드높다.

한갓 솟치고 솟구치어 두르름에 思索하는 東方의 하늘 끝  
 倏倏히 한점 세력 별을 探求하기에 오늘이 있어 燦爛하다.

太陽은 恩惠하여 일곱빛 黃金 꽃다발을 銀翼에 던져주면  
 大洋은 湧湧히 구비쳐 한幅 바다를 그림 하기에  
 落梅같은 地圖가 눈 아래 감돌았다.

여기 꺾지 못할 氣魄이 굳어간 機體는 고된 歷史위에 閃光을 点치고  
 으렌 風雨속에 굳센 矜持를 忍耐하기 씩씩함이 이도록 보람하는 蒼空



의使徒였다.

사람이 애써 하늘로 하늘로만 받드려 올리기에 뜻을 세우던 날  
과란意志를 차츰 하늘을 닮아 地球를 오름안에 두는걸 자랑삼는  
平和의 날개였다.

罪와 惡이 모두 땅덤이 위에서만 빛어지는 人間의 卑屈함을 박차고  
차라리 蒼穹에 날어 神의 뜻에 귀 기울리는 조출한 마음을 志操했다.

한때 따옥이 조용히 흘러 거디킴 없는, 九達의 길위에

가을 독수리 처럼 때로는

義앞엔 千仞絶壁도 劫나지 않는 엄정난 怒號를 불 뿜었다.

우러러 우러러 저렷듯 높은

星座같은 位置에

無數한 旗幅을 列지어 가는데

아— 自由의 姿勢에 눈이 부신다.

# 特輯

# 空軍과 항공의 날

## 航空日의 由來와 變遷

姜 哲

韓國人들만이 歷史上 最初로 서울 上空을 飛翔하다

人類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憧憬하여 二十世紀初

부터는 드디어 그 꿈을 實現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은、

日帝에게 나라를 強奪당한 우리 民族에게는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하늘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닥쳐올

航空時代를 豫見하고 하늘을 일터로 하겠다고 나선 우

리의 航空界 先覺者들은 不得已 外國하늘을 날려야만 했

고、또는 가진 苦楚를 겪어가며 飛行術을 배웠으면서

도 異國하늘마저 마음대로 날릴 수 없는 쓰라림을 언제

나 겪으면서 祖國 하늘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다。

八、一五 解放、日帝의 의사들이 풀리면서 그날은 드

디어 왔다、그러나 어찌 못하였으랴! 붉은 魔手가 祖

國하늘 北半을 뒤덮고 南쪽마저 뒤덮으려 할 줄이야!

그리하여 祖國解放과 더불어 祖國하늘을 마음대로 날리

겠다고 줄을 이어 돌아온 보라매들은、切迫한 國內情

勢와 祖國하늘의 防禦없이 뻗어오는 붉은 魔手를 막

을 길은 따로 없었던 現實을 直視하고、하루 速히 우

리 하늘을 지키기 위하여 憤然히 七人幹部를 中心으로

四二八一年初여름 航空部隊을 組織하였다. 그後 着着 土台를 搭아나아가던 航空部隊(當時 正式名稱은 陸軍 航空基地司令部)에서는, 四二八一年九月十三日附로 美 軍으로부터 最初로 L-10型 練習機 十台를 引受받아 金浦基地에서 金貞烈大尉(現中將)을 部隊長으로 하는 飛行部隊을 編成하고 그날부터 純全히 우리 손으로 이 를 組立한 다음 即時 飛行訓練을 開始하여 九月十五日 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感激의 날 九月十五日, 가을도 짙어가고 구름한 점 없이 드높게 개인 그날 金浦基地上空에서 韓國歷史上 最初로 純全히 韓國人들만이 操縱하는 飛行機 十台가 編隊飛行에 成功하여 自由스럽게 銀翼을 빛내면서 서 울 上空을 飛翔하므로써 韓國航空歷史上에 華麗한 첫 페이지를 裝飾하였다. 이날부터 우리 겨레는 그림던 祖國 하늘을 마음대로 날으게 되었고, 이와 아울러 이날 부터 默黙히 訓練을 거듭하여 온 우리 空軍은 祖國 하늘 을 지켜왔다.

第一回航空日是 四二八二年九月十五日

汝矣島基地에서 幕을 올린다

四二八一年九月十五日에 歷史的인 初飛行을 開始한 飛行部隊는 그後 十月에 引受받은 L-15 十台와 함

께 電願叛亂事件 鎮壓作戰에 參加, 四二八二年부터는 濟洲島暴動事件 釜津戰鬪等に 出動하여 活躍을 거듭하 여 왔는데 四二八二年九月十五日, 歷史的인 記念日의 첫幕을 맞이하게 된 當時陸軍航空軍司令部(陸軍航空基 地司令部가 改稱된것)에서는 뜻깊은 이날을 永久히 學 族的으로 記念하고 온 國民의 航空思想을 昂揚시키기 위하여 政府의 協力下에 이날을 航空日로 制定하고 第 一回航空日記念行事을 汝矣島基地에서 盛大히 舉行하 였다.當日 上午十時부터 舉行된 同記念式典에는 副統 領 李始榮、國務總理 李範奭、國會議長 申翼熙、國防 部長官 中性模、同次官 崔用德、其他 三府要員, 서울 市內 數萬名의 學生가 參席한 가운데 航空機展示, 空 中妙技等 多彩로운 行事가 盛大히 舉行되었다. 이날 展示된 航空機는 L-4, L-15等이었다.

第一回航空日을 치른지 며칠 안되는 四二八二年十月一 日陸軍航空軍은 陸軍隸屬으로부터 離脫되어 堂堂히 陸 海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空軍으로서 獨立하였다.

눈물과 感激에 찌던 第二回航空日

四二八二年十月一日에 獨立한 空軍은 날로 增強을 거 듭하여 오던中 四二八三年六月二十五日 戰亂을 맞이하 여 勇戰敢鬪하였으나 地上戰鬪가 不利하여 後退作戰을

★ 航空特輯

거둔한 韓國軍 및 UN軍은 洛東江 弓形 防禦線에서 最 後의 防禦陣을 構築하고 反擊作戰開始의 時機을 기다 리고 있었다. 이때에 또 다시 돌아온 航空日, 그러나 급할줄 모르는 우리空軍은 敵陣에서 下過 十餘KM 밖 에 떨어진 지 않은 大邱市內에 空軍本部가 자리잡고 있 었지만은 戰地에서도 이 意義깊은 第二回航空日을 多 彩롭게 祝賀하고자 萬般의 準備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空軍本部가 主動이 되고 國防部政訓局, 文總救國隊의 後援아래 大邱市 文化劇場에서 九月十五日十三時부터 金貞烈空軍總參謀長, 崔用德空軍士官學校長, 朴範集 空軍參謀副長, 金省三海軍參謀副長(國防部長官을 代 理하여 參席) 政府側에서는 趙炳玉 內務部長官等 貴 賓臨席下에 金基完空軍政訓監의 司會로 記念式을 舉 行하고 政訓局工作隊의 合唱, 文總의 詩朗讀, 戰況片 —스上映等으로서 十七時에 閉式하였다. 이 意義깊은 記念式이 舉行되는 途中 大韓民國陸海空軍總司令部에 서 十五日十三時四十五分에 發表한 UN軍 및 韓國軍反 擊作戰開始報道號外소리는 大邱文化劇場 周邊을 뒤흔 들었고, 感激과 눈물과 興奮과 希望으로 빛나는 第二 回航空日 記念式典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날부터 UN軍 및 韓國軍은 北進 北進을 거듭하여 우리空軍도 九月二十四일부터 서울地區로 復歸를 開始

하여 十月一日에 맞이하였던 空軍獨立第一回記念日은 서울復歸속에서 보냈다.

航空日과 空軍記念日の 併合

反擊作戰開始와 함께 傀儡軍을 擊滅하고 民族의 念願 인 祖國統一이 곧 成就되는 듯 하였느니 中共오랑캐의 侵入으로 再次 서울을 버리고 피난불나는 後退作戰을 繼續하여 南韓에는 男負女戴하여 自由를 찾아 南下하 는 避亂民이 汎濫하였다. 그러나 韓民族은 주저않지 않았다. 우리空軍은 이 後退時期에 있어서도 訓練에 訓練을 거듭하여 四二八四年八月一日에는 一個戰鬪飛 行團을 갖게 되고 智異山地區 共匪討伐作戰을 通하여 그 實力을 内外로 認定받는등, 四二八四年 가을은 對 敵軍單獨出擊作戰을 遂行하기 위한 準備을 갖추느라고 한참바쁜 때이었고, 各界各層의 國民들로부터 空軍의 強化를 冀願하는 航空機 獻納金이 連日 담지하고 있던 때이었다. 따라서 第三回航空日에는 特別한 行事가 없 었고 다만 國內各機關으로부터 新聞, 放送等을 通하여 航空日의 意義와 하부 速히 空軍을 強化해야 한다는 要旨의 激勵辭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 十月一日 當時 大邱에 자리잡고 있던 空軍本部 에서는 空軍獨立 第二週年記念日을 맞이하여 大邱市文

★ 航空特輯

化劇場에서 上午九時부터 來賓多數參席한 가운데 嚴肅한 記念式을 舉行하고 下午에는 各部隊 對抗 體育大會等과 國民航空思想昂揚을 위한 放送等 여러가지 行事을 舉行하였으며 또한 航空日과 空軍獨立記念日을 더욱 빛내고 意義깊은 날을 永久히 記念하여 全國民의 航空思想을 더욱 高潮시키기 위하여 航空日을 空軍記念日에 統合하기로 決定하였다.(이 事實은 當時 各新聞에 報道되고 있음)

이리하여 四二八五年부터 第四回 航空日 및 空軍獨立第三周年記念式典은 十月一日에 全國民이 慶祝하는 가운데 舉行되었다.

우선 四二八五年十月一日에는 南端 X X 基地에서 大規模의 記念式典이 베풀어졌다. 同式典에는 때마침 極東地區 視察中에 있던 美空軍長官 「핀헨터」氏가 이 式典에 參席次 東京으로부터 當基地에 到着하여 더욱 異彩를 띄운 가운데 李承晚 大統領을 爲始하여 咸台永副統領, 申翼熙 國會議長, 金炳魯 大法院長, 各部長官 및 陸海空軍各總參謀長, 그리고 「핀헨터」美空軍長官을 爲始한 美極東空軍司令官 「웨이랜드」大將, 美第五空軍司令官 「바카스」中將以下 많은 韓美高級將星 및 來賓들의 參席裡에 盛大한 記念式典이 十三時부터 同基地에서 베풀어졌다. 먼저 飛行機展示로부터 시작하여 空中

分列, 特殊飛行, 空地協同作戰 및 對地攻擊의 實況, 落下傘降下等 多彩로운 行事가 舉行되어 그동안 눈부시게 자라나온 우리空軍의 威容이 激讚을 받았으며, 이어서 格納庫 앞에서 韓美兩國操縱士들에 對한 勳章授與式이 舉行되어 李大統領은 空軍首席顧問官 「포드」大領以下 三명의 美空軍操縱士에게 金星乙支 및 銀星忠武功勳章을 授與하는 한편, 美第五空軍司令官 「바카스」中將은 金英煥大領以下 九名の 歴戰의 韓國空軍操縱士에게 銅星航空勳章을 授與하여 十七時三十分에 式을 마쳤다. 이날 式典에는 F-51 무스탕戰鬪機 T-6, L-4, L-5, L-19等 各練習機 및 連絡機와 C-46 輸送機가 參加하였으며 同式典에 參席한 數十名の 國內外 記者들은 韓國空軍의 發展相을 大의 國內外에 報道하였다.

이와같은 盛大한 第四回 航空日 및 第三回 空軍獨立記念日을 南端基地에서 舉行的한 우리空軍에서는 休戰이 成立된 以後 四二八六年十月一日의 第五回 航空日과 第四回 空軍獨立記念日을 우리空軍 파이롯트의 보급차리인 鎮海에서 가을 하늘도 질어가는 날 第二期士官生徒의 卒業式과 함께 舉行하였다. 式典에는 李大統領과 咸副統領이 美第五空軍司令官專用 四發機로 來賓하여 臨席하였고 서울로부터는 特別列車가 運行되었다.

# ★ 輯空特航

萬場의拍手를 받아가면서 滿面에喜色을 띄우고 鎮海基地의查閱台에登壇하신 李大統領 뒤에는 威副統領、孫元一國防部長官을 비롯한 政府要人、崔用德空軍總參謀長、白善燁陸軍參謀總長、朴天主海軍總參謀長、美第五空軍司令官「앤더슨」中將、유엔韓委 各國代表等 内外貴賓이多數자리잡고 앉아 앞으로벌어질盛大典式의幕이올라가기를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上午十時十分 東海岸 基地로부터飛來한우리空軍의 F-51 무스탕戰機編隊는 多島海 海上으로부터그勇姿를나타내어 太極標識도鮮明히查閱隊上空을飛行分列로지나갔다.

同二十分對地攻擊으로늘어가 南海上空에서攻擊態勢를갖춘 同編隊는 鎮海灣內에있는 小竹島에假設한目標物에對하여로켓彈、네이팜彈、機關砲를퍼부어百發百中 同島는瞬息間에불마다로化하였다.

壇上의모든觀衆들은 雷雨같은拍手를보내었다. 곧이어特殊飛行으로늘어가여러가지妙技를充分히보여주었다.

이로써이날의飛行行事は끝나고 十一時四十五分부터空軍士官學校校庭에서 第二期士官生徒卒業式이舉行되었다.

## 날은國民航空의

이와같이해마다 多彩로운行事を舉行하여오는가운데 四二八七年十月一日의 第六回航空日및 空軍獨立第五週年記念式典을서울 漢江人道樹上便 靜心公園을中心으로하여 舉行하기에이르자 이제航空日은完全히은저레가慶祝하는 國民航空의 날로化하고말았다.

이날 漢江人道橋를中心으로한 漢江 兩旁에는雲集한市民들로人山人海를이루었으며 유엔旗、太極旗空軍旗가나부끼는靜心公園查閱台에 李大統領夫妻를비롯하여 威副統領、卞榮泰 國務總理以下 全國務委員國會議員其他 韓美高級將星이多數參席한 가운데 式은 十時二十分부터開始되었다. 式은먼저當時國防部長官 特別補佐官이었던 金貞烈中將에對한 大統領個人功勞表彰狀및 大統領特別叙勳金星乙支式功勳章이 李大統領으로부터親授되었고、張德昌少將、金昌圭少將에게 銀星乙支式功勳章、金信准將、張盛煥准將、申尙澈准將、楊正秀准將外 六名에게 無星乙支式功勳章이各各授與되었다. 이어서 金得龍大領外 六名에게는國防部長官 個人功勞表彰狀을 第八十一地上裝備修理廠에는空軍參謀總長 部隊長表彰狀、朴忠勳中領外 二名에

★ 航空特輯

계는 空軍參謀總長 個人功勞表彰狀 尹錫俊少領外 五名  
에게는 民議院議長 感謝狀이 各各授與되어 오늘 數萬  
觀衆 앞에서 飛躍의 發展을 이룩하여은 空軍의 威  
容을 誇示할 수 있겠끔 한 功勞者들의 功勳을 높이讚  
揚하였다.

이어 「空軍의 強化가 더욱 要望된다는 것과 空軍이  
努力하여 모든 國民들앞에 이와같이 空軍力을 자랑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는 要旨의 李大統領 訓示가  
있은後 示威飛行으로 들어가 十一時八分을 期하여 姿  
態를 나타낸 F-51 二台에 뒤이어 T-6 編隊群(十二  
台), F 51 編隊群(五八台) 등의 分列式이 있었고 F-51  
四機編隊의 特殊飛行, 同 八機編隊의 對地射擊이 있어  
漢江 右岸白砂場 위에 架設된 目標物에 百發百中하는  
妙技에 觀覽者들은 恍惚하여졌는데 繼續하여 美空軍側  
의 贊助飛行에 들어가 F-86 세이버-젯트機 十二台  
의 編隊飛行, 同十二台의 編隊單縱陣, 同四台의 音速  
突破飛行, T-33의 編隊飛行, 韓國空軍에 依한 落下  
傘降下 등이 있는 다음 十一時五十七分에 盛大한 第六  
回 航空日行事는 幕을 내린 것이었다.

그다음 四二八年十月一日, 仲秋節 다음날이었던  
第七回 航空日에는 漢江兩岸에 實로 數十萬의 群衆이  
雲集하여 이제야 발로 온 겨레가 함께 慶祝하는 航空

日이 되었다는 感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그날 서울市  
內의 모든 車輛은 漢江기슭으로 모여드는 市民들을 이  
른아침부터 輸送하느라고 大混雜을 이루었다. 靜心公園  
查閱台에는 威副統領을 비롯한 三府要人은 勿論, 駐韓  
各國外交使節團, 韓美三軍高級將星 多數가 臨席하였고  
UN旗, 太極旗, 空軍旗가 隨히 거리었다.

드디어 正刻 十四時가 되자 F-86 세이버-젯트機  
二台가 漢江人道樹에 달라달라할 程度의 高度로 날며  
와서 爆音도 우렁차게 북섬속으로 瞬息間에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同 F-86은 美空軍의 贊助에 依한 것  
이 아니고 우리 空軍操縱士가 操縱하는 太極의 標識도  
鮮명한 우리 空軍의 飛行機였던 것이다.

七年前 L-4 十台로 서울上空을 飛翔한 것이 어제  
같지만 어느덧 韓國空軍은 時代의 最尖端을 걷는 最新  
銳戰鬪機로 裝備된 現代空軍으로 飛躍의 發展을 이  
루어 그 堂堂한 威容을 數十萬 群衆앞에 보여주고 있  
는 것이었다. 連이어 F-86 編隊群의 編隊飛行, 靑은  
銀色으로 말속히 丹裝한 T-33 젯트機의 空中分列 또  
T-6 및 C-46 輸送機編隊群 등이 連續的으로 查閱台  
앞을 지나갔다. 뒤를 이어 F-86, T-6 F-51 各  
編隊의 編隊單縱陣이 繼續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參觀人들의 눈에 오직 感激의 눈물과 (十七頁에 계속)





# 航空은 이렇게 發達했다

外 誌 에 서

1473

限없이 넓고 푸른 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 누구든지 날개를 달고 마음대로 날라보고 싶은 衝動을 느낄 것이다.

이와같은 人類의 하늘에 대한 憧憬은 아직文化가發達하지 않은 太古로부터 이미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은 希臘의 神話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오면 꿈이 드디어 飛行船을 낳았고 飛行機를 만들어 내어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航空時代를 가져온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航空機의 實現을 위해서 着實하게 걸기 시작한 것은 十八世紀末의 産業革命以後의 일인 것이다. 即 하늘에 대한 憧憬에 科學과 技術이 따르므로서 비로소 航空機는 發明된 것이다. 꿈만 가지고는 決코 훌륭한 發明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메오날도·다·빈치」와 같은 天才도 十五世紀에 태어났기 때문에 飛行機의 發明에는 조금도 寄與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 ★「몽골피에」의 氣球

太古의부터 사람이 꿈꾸고 있던 〃하늘을 날으는 技術〃은 새(鳥)의 흉내를 내어 날개를 利用해서 날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航空機分類에서 말하자면 重航空機를 發明하려는 努力이 있다.

그러나 人類를 처음으로 空中으로 上昇시킨 것은 重航空機가 아니라 空氣보다도 가벼운 氣球였다. 이 世界最初の 氣球을 發明한 사람은 佛蘭西의 「몽골피에」兄弟였다. 一七八三年十一月二十一日에 「필라르드·드 로지에」가 이것을 타고 人類最初の 飛行에 成功하였

# ★ 航 空

던 것이다.

그한달 後에 亦是 佛蘭西의 「샤르르」教授가 水素 「가스」를 넣은 氣球을 發明하여 두時間이나 飛行하므로써 사람들의 航空熱을 더욱 북돋우어 주었다.

## ★ 初期의 飛行船

氣球의 「가스」袋을 流線形으로 해서 空氣속을 進行하는데 便利한 形態로 하고 그에 動力을 달아서 自由로 飛하늘을 날도록 한 것이 飛行船이다. 十九世紀의 後半부터 歐羅巴各國에서 研究되었지만 動力으로서 電氣 「모터」나 蒸氣機關을 使用하면 機關이 무거워서 別로 큰 馬力의 것은 使用할 수 없어서 速度도 느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못하는 形便이었다 一八八〇년에 獨逸의 「볼페르트」가 처음으로 飛行船 用 動力으로서 가볍고 馬力이 나는 「카솔린」發動機를 使用하였다.

一九〇〇年 七月 二日、獨逸의 「쉴펠린」伯은 世界 最初의 硬式飛行船의 飛行에 成功하였고 一九〇一年 十月 十七日 當時 佛蘭西에서 航空을 研究하고 있던 「브라질」人 「산토·듀몽」은 自作의 軟式飛行船으로 「엠펠」塔의 周圍를 一周하므로써 飛行船의 實用性을

證明하였다.

이러하여 飛行船은 一九一五年頃까지는 飛行機의 좋은 敵手로서 널리 使用되었다.

## ★ 「리리엔탈」의 「글라이더」

重航空機의 分野에서 先驅者로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獨逸의 「리리엔탈」이다.

그는 一八九〇년에 「글라이더」를 만들어 언덕에서 뛰어 내려 「글라이더」의 性能을 여러가지 研究하므로써 마침내 出現한 飛行機의 技術的인 基礎를 確立하였다. 옛날부터 人類에게 큰 수수께끼였고 憧憬의 對象이었던 새(鳥)의 飛行은 決코 "神祕"한 것이 아니라 力學的으로 說明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 依해서 처음으로 解明되었다. 그에 이어서 英國의 「필처」、美國의 「샤뉴우트」、 「라이트」兄弟等도 「글라이더」를 研究하였다.

## ★ 「라이트」의 飛行機

「리리엔탈」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의 「글라이더」研究에 依해서、固定된 날개를 가지고 空氣를 飛行하는 境遇의 空氣力學的인 事實이 解明되었으며 한

便으로는 動力으로서 가법고 馬力이 나는 「카슬린」發動機가發明되었으므로 이 두가지를 結合해서 飛行機를 製作하면 반듯이 成功하리라라는 可能性은 二〇世紀를 맞이해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때 많은 研究者에 앞서서 世界最初の 飛行에 成功한 것이 美國의 「라이트」兄弟이다. 兄弟는 自作의 機體에 自作의 二〇馬力 「카슬린」發動機를 달고 一九〇三年 十二月 十七日 「노오스·캐로라이나」州 「키티·호오크」에서 이 歴史的인 飛行을 行하였다. 그 記錄은 第一回가 同生の 操縱으로 距離 三十七M、滯空 十二秒였고 最後의 四回에서는 兄의 操縱으로 距離 二六〇M、滯空 五十九秒였다.

「라이트」兄弟의 飛行보다 二個月 앞서서 美國의 「랭글리」博士는 美國政府로부터 五萬弗의 研究費를 얻어 「멘디」와 協力하여 五十二馬力の 星型發動機가 달린 꼬챙이 모양으로 생긴 飛行機를 完成하고 一九〇三年 十月 七日과 同 十二月 八日의 二회에 걸쳐서 「워싱턴」의 「포오트맥」江에서 試驗飛行을 行하였으나 두번 다 射出裝置의 故障으로 失敗에 끝났다.

그러나 그의 死後 一九一四年에 그의 友人들이 이 飛行機를 修理하여 「플로오트」를 달아서 飛行에 成功한 것을 보드라도 「랭글리」機는 世界最初の 飛行機가 될

번 하였으며 最初の 試驗에서 失敗한 것이 哀惜하다. 그리고 佛蘭西에서는 「클레망·아데르」가 一八九〇년에 製作한 四〇馬力の 蒸氣機關이 달린 飛行機 「에오르」號가 同年 十月 九일에 約五〇M의 飛行에 成功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世界最初の 飛行機라고 말하고 있지만 一般에게 認定되지 않고 있다.

★「보아잔」과 「파르만」의 推進式複葉機

飛行機는 一九〇三年 美國에서 發明되었지만 一九〇八年頃부터는 그 研究의 中心은 佛蘭西로 옮겨가서 性能도 크게 向上되었었다. 이 때에 가장 實用的인 飛行機로서 많이 製作된 것은 推進式 「프로펠러」(發動機의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것)을 단 複葉機인데 그 代表的인 것이 佛蘭西의 「보아잔」과 「파르만」이었다. 「파르만」複葉機는 當時 많은 世界長距離記錄을 樹立하였었다. 그러나 이 種類的 推進式複葉機는 速度가 느려서 (時速九〇M程度) 第一次大戰이 始作됨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다.

★「브레리오」單葉機

第一次世界大戰以前の 飛行機搖籃時代에는 前記한바

# ★航空

와 같은 推進式複葉機가 全盛이었으나 佛蘭西의 「브레리오」는 單葉機의 主張者였으며 그가 製作한 單葉機는 複葉機에 比해서 小型이고 輕快하여서 몇년이나 記錄의인 飛行에 成功하였다. 그 中에도 有名한 것은 一九〇九年 七月 二十五日에 行해진 自己自身の 操縱에 依한 世界最初의 英佛海峽橫斷飛行이다. 三十八KM、三十二分間의 飛行이었으나 航空史上에 남는 劃期的 飛行으로서 一九二七年에 있어서의 「린드버어그」의 大洋橫斷에 比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브레리오」單葉機는 一九一〇年 「샤베」에 依해서 처음으로 「알프스」를 橫斷하였고 一九一三年에는 「페구」에 依해서 世界最初의 「루우프」(空中回轉) 飛行에 成功하였다.

## ★水上機의 發明

飛行機의 車輪代身에 浮舟를 달고 水上에서 發着하는 型式 卽 水上機를 처음으로 完成한 사람은 佛蘭西의 「안리·파아블」인데 一九一〇年 三月 二十八日에 處女飛行을 하였다.

이어서 美國의 「커어티스」가 一九一二年 一月 二十六日에 亦是 浮舟가 달린 水上機로 飛行하였고 다음에

는 胴體와 浮舟를 兼한 艇體를 가진 飛行艇을 發明하였으며 一九一四年에는 双發의 大型飛行艇을 完成하여 水上機의 發達에 큰 功績을 남겼다. 따라서 一般적으로 그들 水上機의 祖上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고 美國에서는 「파아블」의 飛行은 着水에 失敗하였으므로 「커어티스」가 世界最初라고 말하고 있다.

## ★多發動機飛行機의 發明

世界最初의 多發動機飛行機는 現在 美國에서 「헬리올터」의 完成者로서 有名한 前露西亞人 「시코르스키」에 依해서 一九一三年에 完成되었다.

翼長二八、二M、全重量三、五〇〇kg라는 當時로서는 特別나게 큰 飛行機로서 一〇〇馬力의 發動機를 四臺 달고 있었다.

이 해에 八名을 싣고 一時間 四十五分을 飛行하므로써 他國에 比해서 뒤러져 있던 露西亞飛行界를 鼓舞하였다.

## ★第一次大戰中の 軍用機

一九一四年에 第一次世界大戰이 勃發한 當時의 飛行機의 世界記錄을 보면 速度는 時速二〇三·九kg、距離

는 一、〇二一KM 高度는 六、一二로서 漸次로 實用 段階에 까지 進歩하였으므로 軍用機로서 偵察과 爆 擊에 使用되었다. 戰況의 進展에 따라서 各國이 모다 飛行機의 改良에 非常한 努力을 傾注하였으므로 飛行 機는 눈부신 發達을 하였으며 大戰四年 동안에 물라볼 程度로 成長하였다. 卽이 동안에 飛行機는 完全히 어 른이 되었던 것이다.

大戰四年間의 進歩를 綜合해보면

(1) 性能이 全般的으로 顯著히 向上되었다.

(2) 大戰前까지는 飛行機의 用途가 確實치 않았으 나 大戰과 함께 戰鬪機、爆擊機、偵察機等 各各 그 用途에 따라서 設計하게 되었다.

(3) 大戰前까지의 各種型式이 淘汰되어 中期以後는 牽引式(「프로펠러」가 發動機의 앞에 있는 것)의 複葉機로 統一되었다. 單葉機는 構造上 複葉機에 比해서 不利하고 外形이 커지기 때문에 操縱性이 低下된다는 理由로 其의 使用되지 않았다. 戰鬪 機에서는 操縱性을 重要視한 結果 三葉機까지 使 用되었다.

(4) 大戰中의 急激한 消耗에 應하기 爲해서 生産이 工業化되고 生産能力이 急히 增加하였다. 例컨대 佛蘭西에서는 大戰參加後 四個月만에 是 月產 六〇

臺였던 것이 終戰時에는 月產 五、〇〇〇臺를 넘었 다.

(5) 한 때는 「셀펠던」 飛行船의 「런던」空襲도 行해 졌으나 結局 飛行船은 無價値하다는 것이 證明되 었다.

★ 輸送機의 出現

戰爭이 終熄됨과 더불어 各國에서는 大戰中에 많이 製作한 軍用機의 處置問題에 逢着하였다. 그리하여 爆擊機級의 大型機는 胴體를 發達해서 속에 客席을 만 들어 輸送機로 하고 이것을 使用해서 一九一九年頃부 디 旅客과 郵便物을 輸送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改造機로서는 經濟的으로 보나 設 備와 安樂의 度에서 보나 不完全한데가 많았으므로 各 國에서는 本格的인 輸送機를 製作하기 始作하였다. 이에 隨件해서 輸送機關으로서의 飛行機도 漸次로 本 格的인 것이 되어 그 「스피이드」를 武器로 하여 鐵道 와 船舶等과도 對抗하게 되었다.

第一次大戰後부터 第二次大戰前까지의 約二〇年 동안 各國에서 製作한 輸送機의 種類는 많이 있지만 그 中에서도 一九二五年以後의 約一年間을 代表하는 것은

★航空

和蘭의 「폭커」였으나 一九三五年以後의 代表者는 美國의 「더글라스」였다. 前者는 高翼單葉으로서 主翼은 木製 胴體는 木金混合構造였으며、後者는 低翼單葉 全金屬製로서 近代輸送機의 基礎形을 完成한 것인데 모다 本國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에서 널리 使用되었다.

★全金屬製 飛行機

飛行機의 構造材料는 第一次大戰이 끝날때까지는 木材가 主였으나 獨逸의 「용커스」는 第一次大戰이 끝날 무렵 (一九一七年) 오늘날의 飛行機와 같은 全「슈타르민」製의 飛行機를 만들어 飛行機構造史에 劃期的인 時代를 가져왔다.

★歷史的인 長距離飛行

第一次大戰後 飛行機의 活躍舞臺는 軍用에서 民間으로 一變하여 各國에서는 定期航空이 열리는 方便 各種의 新記錄을 目標로 눈부신 國際的인 爭霸戰이 展開되었다. 그中에서도 特別히 飛行家들의 冒險心을 刺戟한 것은 大西洋과 太平洋의 橫斷飛行이 있으며 一九二〇—三〇年頃에는 數많은 歷史的인 飛行이 있었다. 그러나 當時의 飛行機의 航續性能으로써는 五、〇〇〇KM

以上을 날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와 같은 大洋橫斷飛行은 冒險의 要素를 많이 지닌 것이었으며 많은 犧牲者를 내었으나 一旦 成功하면 世界의 英雄으로서 尊敬을 받고 凱旋將軍처럼 故國의 歡迎을 받았다. 主要한 飛行記錄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世界最初의 大西洋無着陸橫斷

時—一九一九年 六月 十四日

人—「올콕」大尉「브라운」中尉(英國)

機—「빅커스·비미」複葉機(홀스로이스·이글) 三

五〇馬力(二基)

「코오스」—「뉴우화운드랜드」에서 「아일랜드」의 「그

포인」까지 (三、〇五〇KM)

飛行時間—十六時間十二分

2、「뉴우유」·巴里間 大西洋無着陸橫斷

時—一九二七年 五月 二〇—二十一日

人—「찰스·A·린드버어크」(美國)

機—「라이안」NIP單葉機(「라이트·팔윈드」三二〇

馬力)

「코오스」—「뉴우유」·巴里間(五、八〇九KM)

飛行時間—三十三機間二十九分

3、南太平洋橫斷

時—一九二八年 五月 三十一日—六月 十日

八-「킹스프리트·스미스」中領、「울프」中尉外 二名  
(濠洲)

機-「폭커 F-7」三M單葉機(「라이트」二二〇馬力  
三基)

三基)

「코오스」-「오르렌드」(美國)에서 「호놀룰루」를 지  
나 「피지」島를 經由하여 「브리스베인」(濠洲)까지

(二、九〇〇KM)

飛行時間-八十三時十五分

4、大西洋逆橫斷

時-一九三〇年 九月 二二日

八-「코스트」、「벨몬트」(佛蘭西)

機-「브레게」19型 單葉機 (「이스파노」六六〇馬力

「코오스」-「바리」·「유우옥」間 (六、六〇〇KM)

飛行時間-三十七間時 十八分

5、北太平洋無着陸橫斷

時-一九三一年 十月 四-五日

八-「헌돈」、「뎡본」(美國)

機-「베란카·스카이로켓」單葉機

(「P·W·와스프」四五〇馬力)

「코오스」-日本 青森縣 淋代(사비시히로) 「워싱턴」

州 「웨낙치」間 (七、九〇〇KM)

飛行時間-四十一時間

★ 「오토자이로」의 發明

은 「프로펠터」를 하늘을 向하게 달아서 이것을 回  
轉하여 上昇하려는 考案은 十五世紀의 「페오날도·다·  
민치」以來 많은 發明家들이 試圖하였으나 發動機로써  
回轉翼을 돌려 그 揚力을 利用해서 飛行하려면 構造上  
에도 安定性과 操縱性의 面에서도 많은 困難이 있어서  
容易하게 成功하지 않았다. 「스페인」의 「후안·데·  
라·시에르바」도 그 研究者의 하나였는데 「헬리콥터」의  
研究中 回轉翼을 適當한 角度에서 空中을 달리게 하면  
바람을 받아서 自轉하는 것을 發見하고 이것을 利用하  
여 「오토자이로」를 發明하였다. 「오토자이로」는 「헬  
리콥터」와 달라서 回轉翼을 動力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  
에 機構가 훨씬 簡單하여 「헬리콥터」보다 먼저 成功한  
것이다. 「오토자이로」가 처음으로 飛行한 것은 一九二  
三年 一月 九日이었다. 그 後 「오토자이로」는 美國,  
英國 및 그밖의 나라에서 많이 製作되어 第二次大戰前  
까지 盛行하였다.

★ 「헬리콥터」의 完成

「헬리콥터」라는 것이 如何든 地面에서 뜬 것은 意外

★ 航 空

로 오래 전 일이며 一九〇七年에 佛蘭西의 「코르뉴」가 어느 정도의 成功을 거두었으나 初期의 「헬리콥터」는 보다 安定性、操縱性의 失敗로 쓸모가 없었다. 겨우 飛行다운 飛行을 하게 된 것은 一九三五年에 佛蘭西의 「브레게」가 製作한 것과 一九三七年에 獨逸의 「하인릿히·폭케」가 製作한 것과 一九三七年에 滯空 一時間二〇分 四十九秒 直線距離 二三〇KM、高度 三、四三〇M、速度 時速 一二三KM의 「레코오드」를 樹立하였다.

그러나 「헬리콥터」의 設計上에 惹起되는 許多한 難問題를 解決하고 眞實로 實用的인 「헬리콥터」를 完成한 것은 革命의 步聯을 避해서 美國으로 건너간 「시코스키」로서 그의 最初의 「헬리콥터」VS-300型이 처음으로 飛行한 一九四〇年 五月 十三日은 「헬리콥터」發達史上 가장 記念할 만 한 날이 되었다.

「시코스키」가 最初로 成功한 以來 特別히 美國에서 는 「헬리콥터」가 굉장한 힘으로 發達되어 飛行機에게서는 全然 바랄 수 없는 그 特殊한 性能으로 特殊한 用途가 開拓되어 가고 있다.

★ 「젯트機」의 歷史

「젯트」를 단 飛行機가 언제 누구의 손으로 完成되어

最初의 飛行을 行하였는가에 對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說이 區區하다. 英國에서는 「프랭크·호잇」이 發明한 W-1型 「터어보젯트」를 裝備한 「그로스터」E 28-39型 戰鬪機가 一九四一年 五月 十四日에 飛行한 것을 世界最初의 「젯트」機飛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 二年前인 一九三九年 八月 二十七日에 卽 波蘭을 侵攻하기 直前에 獨逸의 「하이켈」He-119型은 「터어보젯트」를 裝備하고 飛行하였으며 이어서 一九四〇年 八月에는 伊太利에서 「젯트」를 裝備한 「카프로니·칸피니」CC-2型이 飛行에 成功하였다.

一般的으로 世界最初의 「젯트」機 飛行은 「하이켈」機에 依해서 行해진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獨逸과 伊太利의 「젯트」機는 오늘날 널리 使用되고 있는 「터어보젯트」와는 다르며 말하자면 本格的인 「터어보젯트」가 完成될때까지의 過渡的인 製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터어보젯트」와 같은 原理의 「가스·터어빈」으로 「프로펠러」를 驅動하는 「터어보·프로」飛行機로서는 一九四九年 九月 二〇日에 英國의 「그로스터·리미티어」機에 「롤스·로이스·트렌트」型 「터어보·프로」를 달고 飛行한 것이 世界最初이다.



★ 앞으로의 항공

항공機는 「라이트」兄弟가 不過 五十餘年前에 世界 最初의 動力飛行을 行한 以來 二次에 걸친 世界大戰을 通해서 可驚할 發達을 하였다. 卽 航空機는 戰爭에 依해서 發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戰爭은 高速 高空 및 긴 航續距離를 가진 飛行機를 끊임없이 要求하였으며 그리하여 只今으로 부터 十年前만 하더라도 到底히 困難할 것으로 豫想되었던 超音速飛行은 오늘날 至極히 容易하게 行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從來의 「개솔린」發動機 代身에 「젯트」와 「로켓트」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音速 障壁을 突破한 오늘날의 航空機는 이제 音速의 障壁을 突破하려 하고 있다. 卽 飛行中에 操縱士와 飛行機가 燃燒해버리는 平常한 高速 速度限界에 到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限界는 時速 二,〇〇〇 「마일」程度에서 到達하는 것이다. 이 障壁도 不遠한 將來에 突破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航空에 革命을 가져올 것은 무엇보담도 原子力을 動力으로 하는 原子力飛行機일 것이다. 每十萬 「마일」의 飛行에 不過 「과운드」以內的 濃縮 「우라늄」을 消耗하는 이 原子力飛行機는 許多한

難問題에도 不拘하고 不遠한 將來에 出現할 階段에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다.

「젯트」, 「로켓트」의 動力에 이어서 原子動力의 出現은 非單 軍航空뿐만 아니라 民間航空에도 새로운 時代를 가져 올 것이며 마침내는 오랜 人類의 꿈인 月世界飛行과 宇宙旅行도 實現케 할 것이다. (끝)

물의女王「에스다」



美國映畫界의 물의女王 「에스다」·우일리아스는 近間 英國「론돈」에서 「一九五六年水中公主」를 六週間이나 開催. 이 水中公主에 水泳選手가 百名이나 出演한다고 한다.

사진은 王冠을 쓰고 練習하는 에스다

★航空

# 하늘을 征服하는 사람들

로버어트·윌매스

巨大한 技術陣이 今日の 「레스트·과일릿」  
를 支援하고 있다...

美國航空界에 있어서의 巨大한 國家的인 努力은 恰似 「피라미드」와도 같은 것이다. 그 넓은 基部는 「스미스」라고 하는 別로 눈에 띄지 않는 數 많은 사람들로서 構成되어 있으며 그들은 稅을 내면서 그 돈이 有益한 일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피라미드」의 絶頂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確實히 알 道理가 없다. 이들 「스미스」라는 平凡한 大衆 위에는 數萬의 科學者, 技術者 및 行政家들이 있고, 시그 위에는 「아인젠하워」(大統領), 「윌슨」(國防長官), 「윌스」(空軍長官), 「트와이닝」(空軍參謀總長)과 같은 政府의 巨物들이 있으며 또한 「보오잉」, 「커어러스-라이트」, 「벨」

과 같은 航空機會社들이 있다. 그 「피라미드」를 올라 가면 結局 絶頂에 到達하게 된다. 그것은 오직 少數의 사람들만이 자리를 찾아 할 수 있는 探究와 希望의 絶頂인 것이다. 只今 이 隣間에도 그 中の 한 사람은 다른 同僚의 어깨에 올라서서 坎도 넓은 하늘의 腹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대서인지 본 것 같지만 그의 이름이 「스미스」라는 것을 記憶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軍航空에 있어서의 國家的인 努力이 그 絶頂을 이루고 있는 것은 航空研究發展司令部(ARDC)에 依해서 運營되는 「캘리포니아」州 「에드워즈」에 있는 空軍飛行試驗所이다. 바로 이곳에서 奇妙한 모습을 한 X-3 試驗機와 같은 가장 最新의, 가장 有望한 飛行機틀

이果然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解決은 軍航空의 大膽한 實驗을 通해서 發達하고 있는 民間航空에도 亦是 크게 重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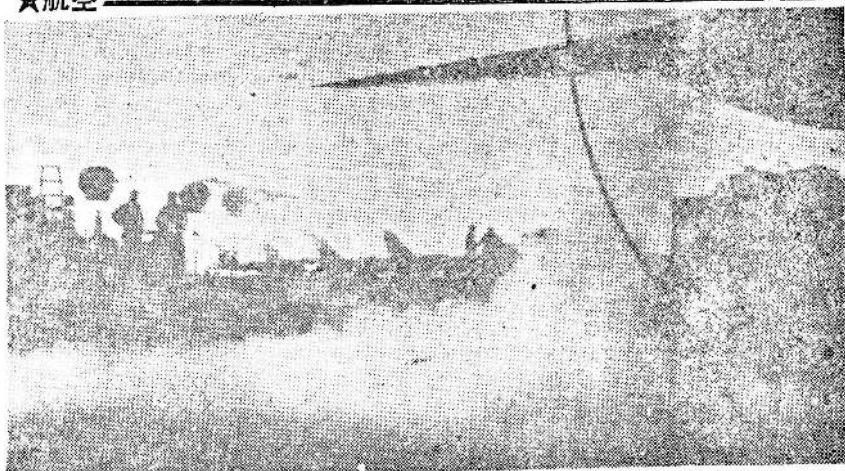
國會는 莫大한 豫算을 承認하고 審議하고 調査할 것이고 軍、民의 指導者들은 戰略을 構想할 것이며, 全國에서 가장 優秀한 技術者들은 驚異의인 것을 設計하고 完成할 것이다. 그러나 結局 그 모든 돈과 着想과 研究는 F-110, B-176 등으로 불리워지는 飛行機의 形態로 그 飛行試驗所에 出現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미스」라고 하는 或은 「프렌시스·J·켈리」나 「오비·머어렐」과 같은 名譽로 우먼서도 別로 世上에 알려 지지 않은 이름들 가진 數百名의 사람들이 그 飛行機를 操縱하고, 分解하고 다시 짜 맞추고 마침내는 그 무서운 決定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今週에 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三年 乃至 五年後에 우리 生死를 決定하게 될 航空機를 評價하고 있었다. 그러면 「켈리포니아」州의 「에드워즈」라는 곳은 果然 어떠한 곳인가?

月世界에 到達할 手段方法을 探究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드워즈」라는 곳은 한 훌륭한 「練兵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周邊을 暫時 살피면 마치 이미

月世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基地는 「로스·안젤스」北東쪽 約 100 「마일」밖에 있는 「모자브」砂漠변두리에 가로놓여 있다. 北西쪽으로부터 南東쪽으로 뻗은 地平線을 따라서는 「레하차피」、「센·가브리엘」、「센·버나디노」等 月世界의 모습울한 山脈이 가로놓여 있다. 砂漠의 大地는 넓은 누런 雪糖 빛을 하고 있으며 灰色에 草綠빛이 섞인 들쭉과 「그티이스·우울」의 가냘픈 수풀을 간직하고 있다. 基地 주변에서 불어오는 모래쉬인 바람은 施設物의 周圍에 流砂를 남기고 家屋과 自動車의 輪을 핥으며 지나간다.

基地의 周圍에는 「요슈어」라고 하는 美大陸에서 가장 神奇한 樹木이 서있다. 그 굵고 우물쭈물한 줄기는 一〇「피이트」가량이나 웃쪽 솟아있고 마치 손가락처럼 생긴 잎사귀가 달린 數많은 나무가지는 「그로데스크」하게 꾸불꾸불 뻗어 있다. 그 나무가지들은 마치 무엇인지 알수 없는 重大한 것을 向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으로 이 나무에 關해서 文獻을 남긴 探險家 「존·C·프레몬트」는 이 나무를 가리켜 「植物界에서 가장 쌀쌀한 느낌을 주는 나무라고 하였다. 이 나무는 피로운듯 한 「肥大한 몸집을 하고 있으며 도끼로 찍으면 呻吟하는 소리를 낼것만 같다. 이 나무는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그 成長은 年輪을 隨

★航空



《委明的曙光속에서 X-2 試驗機에게 燃料을 供給하고 있는 地上勤務員들》

伴하지 않  
 기 때문에  
 열마나 오  
 래된 것이  
 가는 아무  
 도아는 사  
 람이 없다  
 「에드워드  
 즈」에 있  
 는 「요슈  
 어」나무가  
 운데에는  
 「크리스  
 토」와 「유  
 다」의 時  
 代부터 자  
 라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壽齡하고  
 太古의 이  
 며 異常하

게 뒤흔드는 이 나무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悲痛하게  
 警愍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悲痛하  
 게 鼓舞해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 地方의 외떨어져 있다는 事實은 飛行試驗所가 그  
 곳에 자리잡고 있는 理由이다. 卽이 곳에는 다른  
 곳에 比해서 空中을 날고 있는 怪常하게 생긴 물건  
 을 볼려고 하는 好奇心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이다. 그  
 들의 理由는 淸명한 沙漠의 하늘은 一年中 三五〇일이  
 飛行에 알맞는다는 事實에 있다. 그러나 가장 큰 理  
 由은 三〇萬「에이커」에 達하는 그 基地안에 「라이저  
 스·드라이·레이크」라고 하는 唯一無二한 國家財産이  
 있다는 것이다.

이 「드라이·레이크」(乾燥湖水)는 世界最大의, 그리  
 고 가장 훌륭한 自然着陸地로서 面積이 六十五萬平方  
 「마일」에 達하는 그 表面은 完全히 平坦하고 거의 돌  
 과 같이 堅固하다. 最大限度로 積을 실은 重爆擊機가  
 그 湖床위에 着陸하여도 稀微한 「라이어」자숙만을 남  
 기 뿐이다. 그 위에는 아무런 障礙物도 없고 자갈마저  
 없을 程度이며 그 全體는 마치 粉가루처럼 잘 갈린 흙  
 으로 構成되어 있다. 一年에 두어 서너番 周圍의 沙漠  
 에 비가 내리면 그 湖水는 約一「피이트」깊이의 降雨  
 量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끊임 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廣大한 平地에서 물을 앞뒤로 밀어서 땅을 다시 平坦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한다. 普通 이 湖床은 試驗着陸에는 使用되지 않고 있으며 空中에서 困難을 當한 「와일롯트」를 爲해서 恒常 救命非常着陸地로서 準備되어 있다. 이 基地가 「젯트」 및 「로켓트」의 研究所로 使用되어 온 過去 十年 동안에 그 湖床은 數없이 많은 人命과 그리고 四億弗以上에 達하는 航空機를 救하였다. 그러나 六十五平方 「마일」의 廣大한 面積도 某種의 新型航空機를 爲한 着陸地로서는 아직도 不足한 形便이며 空軍에서는 現在 「라아저스·드라이·레이크」를 그 옆에 있는 「로스몬드」라고 하는 乾燥湖水和 連結시킬 것을 計劃中에 있다. 이것이 實現되면 그곳에는 기리二十二 「마일」에 達하는 非常滑走路가 생기기 될 것이다.

그 自然財産으로 因해서 「에드워즈」(空軍基地는 新型飛行機를 試驗하는 그 本來의 目的과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數많은 活動의 舞臺가 되어 있다. 그 곳에는 鐵路가 敷設되어 있어 「로켓트」를 動力으로 하는 셀매가 그 위에서 時速八〇〇 「마일」의 速度로 發射되고 있다. 그 셀매에는 尾翼, 主翼, 機體, 「과라슈우트」 液線型物體等 空軍에서 運動試驗하기를 願하는 것이 달려 있다.

그 곳에는 또한 어느 程度 그보다도 작고 低速의 鐵路가 있으며 裝備品이 아니라 人間이 砂漠위를 「로켓트」의 動力으로 推進되고 있다. 「존·폴·스텔」大領이 라고 하는 勇敢한 사나이가 가면 貴重한 生理學的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時速 六三二 「마일」의 速度로 疾走하는 途中에 急激히 停止한 곳도 바로 이와 같은 鐵路에서였다. 「스텔」大領이 停止하였을 때 黑色으로 變換한 그의 眼球는 一箇月 동안이나 繼續되었다. 「에드워즈」基地에 있는 이와 같은 鐵路上에서의 한 有名한 試驗이 일찍이 한 非協助의인 원숭이에 依해서 實施된 일이 있다. 한 技術者는 원숭이를 셀매 위에 革帶로 붙잡아 매놓고 「바나나」를 주어서 달래었다. 그러나 그 원숭이가 막 「바나나」를 먹기 始作했을 때 셀매는 砂漠위를 굉장한 速度로 半 「마일」이나 달려, 「바나나」는 원숭이의 얼굴에 散卓각으로 벗어져 떨어졌다. 그 稍後에 技術者는 그 원숭이를 가지고 亦是 같은 試驗을 하기 爲해서 그에게 또 하나의 「바나나」를 주었다. 그러나 原숭이는 그 「바나나」로 技術者의 머리를 후려 갈 것던 것이다.

이 基地에서 特히 寂漠하고 月世界와 같은 景致를 가진 「류우만·릿지」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큰 鋼鐵·「콩크리트」架가 서 있는데 그 위에서 「로켓트·엔진」

★航空

이試驗되고 있다. 「로켓트」가試驗發射되면 그爆音은砂漠저쪽數「마일」밖에서도 들린다. 「로켓트」가, 폭발장은 그선반(架)에서 빠져나갈려고 몸부림칠때는 밑에있는 움푹 파인「콩크리트」轉向裝置를 向해서 과달고힌 무거운 불이發射된다. 그리고 그「콩크리트」를 冷却하기 爲해서 發射中에는數千「갈론」의 물이 그위에 쏟아진다.

「에드워어즈」에는 四個의 政府機關과 二〇個의 航空機會社가試驗을實施하고 있는데 그中에는連絡員만을두고 있는것도 있고 基本的인 研究를實施하고 있는것도 있다. 一例를 들자면 「벨」航空機會社에서는 X-1 및 X-2와 같은 그有名한 「로켓트」飛行機를 「에드워어즈」에서 飛行試驗하고 있다. X-1機는 一九四七年에 最初로 『音의 障壁』을 突破한 것이며 X-2機는 現在 『熱의 障壁』에 接近하고 있다. 이 『熱의 障壁』이란 것은 飛行中 처음에 「과일롯트」가 그리고 그다음에는 飛行機自體가 불타버리는 高速度限界를 意味하는 것이다. 「벨」會社와 特히 「과일롯트」들은 慎重하게 前進하고 있다. 그들은 時速 二,〇〇〇「마일」程度에서 그障壁에 到達하는 것으로 豫測하고 있으며 이미 相當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空軍當局에서는 二十九個月前에 한臺의 「로켓트」飛行機가 時速 一、

六五〇「마일」에 到達하였는데 그後에도 決코 停止해 오지는 않았다고 發表하였다.

空軍의 飛行試驗學校도 亦是 「에드워어즈」에 位置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는 世界에서 가장 優秀한 「테스트·과일롯트」가 養成되고 있다. 한때 뛰어난게 훌륭하였던 第二次大戰時의 飛行機를 舊式化한 工業學의 發達은 舊式「테스트·과일롯트」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로 結果를 가져왔다. 이제 「테스트·과일롯트」의 任務는 單純히 飛行機를 五〇,〇〇〇「피어트」의 高空에 끌고 올라가 急降下를 하여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지 안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充分치 않게 되었다. 現代「테스트·과일롯트」는 如前히 훌륭한 飛行士야만 하는 동시에 또한 優秀한 「엔지니어」야만 하는 것이다.

新型機 한臺가 試驗飛行할때면 單一回의 飛行에서 두터운 教科書 한卷은 充分히 채울 수 있을만큼 많은 資料를 記錄 或은 傳達하는 無慮 二〇〇種에 達하는 器械을 裝備한다. 空軍에서는 그 「테스트·과일롯트」를 養成함에 있어서 六個月동안의 教育期間中 大學三,四年程度의 工學課程을 實施하고 있다. 몇가지의 最少 限度의 資格을 具備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空軍 「과일롯트」라도 그 學校에 다닐 수 있다. 卽年齡은 二十五歲以上 三十三歲未滿이래야 하고 少領以下의 階級을

가진 「과일롯트」로서 最少限度 一、五〇〇時間의 各種 飛行時間을 保有하여야 하며 代數、平面幾何、微分、飛行理論、航空機械學 및 空氣力學等에 精通하여야 한다. 가족으로 된 飛行輔와 먼지막는 眼鏡과 靑白色 「마홀러」만을 가지고는 아무 所用도 없는 것이다.

### ☆ 누가 「라이어」를 修繕하나?

「피라미트」의 絶頂에서 進行되고 있는 모든 活動과 그 밖에 言及하지 않은 數十種의 活動은 約一〇、〇〇〇名의 사람에 依해서 實行되고 있다. 그 中 不過 三、五〇〇名만이 空軍所屬員이고 나머지는 美國政府의 公務員建設請負會社社員, 및 航空機會社와 「제네랄·엘렉슈틱」, 「미네아폴리스·허니웰」, 「웨스팅하우스」, 「R·C·A」等과 같은 그 밖의 會社의 社員들이다. 이 複雜하고 巨大한 研究所에서는 오직 自己自身과 自己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어느날에 한 「과일롯트」가 「로켓트」飛行機를 타고 일찍이 世界에서 飛行한 그 누구보다도 빨리 날으겠지만 그 一〇、〇〇〇名中 九、九五〇名은 그 飛行에 關係하는 아무것도 볼오는 것이다. 嚴重한 警備를 하고 있는 基地의 營門을 通해서 「프레일러·슈퍼」이른 「캔바스」 밑에 무엇을 싣고 드러간다. 그것은 人

工衛星의 一部일지도 몰오고 電子頭腦일지도 몰으며 들 원숭이(狒)일지도 몰은다. 或은 液體窒素「탱크」일지도 몰오고 或은 單純한 機械道具일지도 몰은다. 그 誰가 알겠는가? 約九、九七五名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오는 것이다.

自動車와 마찬가지로 飛行機도 間或 그 「라이어」에 空氣가 빠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라이어」를 누가 修繕하는가? 空軍飛行試驗所의 굉장한 編成表에는 無慮 一二五個의 欄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職責 或은 職能을 代表하고 있다. 第一위에 있는 큰 欄에는 「司令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J·S 홀토너」准將을 말하며 勿論 그는 바탐나간 「라이어」를 修繕하지 않는다.

그것을 修繕하는 사람을 찾기 爲해서 「홀토너」准將의 欄에서 밑으로 十五個欄을 지나 右로 굽어서 다시 左로 가면 『第六五一五營備戰隊』라고 쓰인 欄을 發見할 수가 있다. 이 欄을 내려가면 本部大隊課、行政課、生産管理課 및 技術檢閱課等이 있고 다시 右로 굽어서 左로 가면 『第六五一五野戰整備大隊』라고 쓰인 欄이 있다. 이 欄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大隊本部課、電子課 및 「존·R·빌슨」大尉을 課長으로 하는 製作修繕課가 있다. 勿論 「빌슨」大尉도 바탐나간 「라이어」를



△沙漠의 地標인 「요슈어」나 「가」에 드워어즈」基地入口에서 있다 「에 드워어즈」는 美空軍에서 들썩로 큰 基地이다. V

修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벨슨」大

尉는 二十個 欄으로

區分되어 있는 課

의 編成表를 가지

고 있는데 그 중에

는 「R·M·포오

터」等 上士를 責

任 下士官으로 하는

欄이 包含되어 있

다. 「포오터」上士도

그 바깥나간 「타이

어」를 修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의 欄 밑에는 다시

八個 職責이 있으

며 그 마지막 것이

「타이어」 및 車輪

으로 되어 있다. 여

기에 그 「타이어」

를 修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더글라스·S·스미스」下士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합니다. 나는 十二個月 동안 一週에 五日 午前七時 三〇分부터 午後四時 三〇分까지 飛行機의 「타이어」를 交換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미스」下士官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하고 심중하고 더러워지는, 그리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겠지만 危險한 作業이다. 「스미스」下士官 「타이어」하 나를 交換하는데는 四時間이나 要한다.

B-36 重爆撃機에 使用하는 「타이어」는 重量이 五〇「파운드」나 되며 「스미스」下士官은 그 「타이어」를 取扱하는 데 助力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各種 「타이어」보다도 이 特殊한 「타이어」를 交換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타이어」는 適當히 空氣를 넣어서 부풀리면 每平方 「인치」에 不過 一五〇「파운드」

의 壓力밖에 加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自動車의 타이어는 約三〇「파운드」이다.) 高壓 「타이어」는 每平方 「인치」에 無慮 三〇〇「파운드」나 加해진다. 「스미스」

下士官은 이와같은 「타이어」에 空氣를 넣은 다음에 먼저 鋼鐵로 된 그 마한 유리(檻)안에 굴러넣고 그 다음에 그는 유리옆에 꾸부러져 空氣 「호오스」를 끼고 辮을

연다. 萬一 그 「타이어」가 힘이 없는 것이라면 爆發하



지 않지만 萬一 어떠한 缺陷이 있으면 爆發하고 만다. 그 鋼鐵로 된 우리는 爆發하는 境遇에 뒤어 날라갈 「프루」와 鋼鐵의 破片으로부터 「스미스」下士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스미스」下士는 「로켓트」飛行機 X-2에 對해서는 아무것도 몰으며 이 問題에 關해서 「스미스」下士와 相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間或 X-2機가 實驗飛行을 한 一、二週日後에야 비로소 그는 그에 關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 뿐이다. X-2機가 飛行할 때에는 四發의 B-50機가 그것을 腹部에 매달아가지고 數「마일」의 高度로 올라가서 떠버트린다. 暫時 그대로 落下하다가 X-2機의 「과일꽃트」는 그의 「로켓트·엔진」에 始動을 걸고 一定한 高度까지 上昇하여 一定한 速度에 到達한後 燃料가 떠버지면 다시 내려온다. 그는 湖床에 있는 着陸地를 向해서 時速約三〇〇「마일」의 速度로 滑空하여 二、三「마일」을 滑走한後 停止한다.

X-2機는 勇氣와 技術을 가진 「프랭크·에버데스트」中領이 操縱해오고 있으며 X-1機의 「과일꽃트」 「찰스·이거」少領과 마찬가지로 그는 國家에 큰 貢獻을 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相當히 有名해졌으나 X型 飛行機에 關與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밖의 勇敢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다.

X-2機가 飛行하기 前에 그 「엔진」은 地上에서 試驗된다. 그 「엔진」은 液體酸素와 「엘콜」로 움직이며 極히 危險한 裝置 속에서 作用한다. 試驗을 할 때에는 X-2機를 單단히 잡아매놓고 그 옆에 絶對로 남아 있어야 할 必要가 없는 사람은 모다 멀리 물러간다. 왜냐하면 「엔진」은 爆發할지도 몰으며 或은 큰 재는 구멍이 생겨서 옆에 서있는 사람에게 液體酸素를 뿌리게 될지도 몰으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을 完全히 열어볼게 하며 그 溫度는 華氏 「마이너스」二九七度에 達한다. (일마전에 「에드워드즈」에 있는 한 實驗所에서 는 어느 技術者가 液體酸素를 가지고 瞬息間에 뱀을 열어볼게하여 그것을 의용치로 매렸더니 가루가 되어 벗어진 일이 있었다.)

이와같은 危險을 무릎쓰고 한 사람이 X-2機에게로 걸어가서 머리를 드러낼고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注視한다. 그는 當年 四十八歲의 「윌람·M·스미스」라고 하는 「벨」航空機會社의 技師이다. 그는 단단하게 귀를 막고 「헬멧트」를 쓰고 있다. 「엔진」은 一五〇「메시벨」이나 되는 굉장한 爆音을 發生하는데 이것은人間이 감당할 수 있는 爆音보다 二十五「메시벨」이 더

★航空

한 것이다.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 「스미스」氏는鉛管에 새는 곳이 없는가를 살펴본다. 萬一 어떤種類의重大한故障을發見한境遇에는 이미 때는 늦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미스」氏의 몸동이는 如前히 X-2 機결에 남아있을 지를 모르지만 그의 목은 砂漠위로約二〇「마일」은 떨어져 나가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萬一 조금만 새는 구멍만을發見한다면 「스미스」氣는 生存해서 그에 關해서 報告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對한 對策이 講究될 것이다.

試驗이 끝나면 「스미스」氏는 비를거리며 飛行機의 輪에서 떠나간다. 爆音때문에 그는 病이 난 것이다. 그는 吐하고 싶을 만큼 속이 메스거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그에게 「스미스」氏, 當身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오직 다음과 같이 對答할 뿐이다.

「글세울시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 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스미스」氏는 「로켓트·엔진」에 關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지만 飛行機試驗을 할 때 超首速機에 裝置하는 YAPS 라고 하는 偏走·攻擊角度指示計에 關해서는 거의 白地라고 할 수 있다. 이 YAPS 는 뜻의로 된 두個의 조그마한 바람개비가 突出한 「플랫쉬타이트」만

한 器械이다. 이 바람개비는 그 「샤프트」와 「기어」組織을 가지고 飛行機가 날아갈 때 即空中을 「攻擊」할 때 垂直 및 水平 航路離脫의 角度를 記錄하는 것이다.

「에드워드」에는 過去 五年 동안 이 YAPS 에 從事해 오고 있는 當年 二十四歲의 職工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로버트·호운」이라고 한다. 그는 超首速機가 空中을 날고 있는 것을 그리 흔히 보지도 못하며 그가 取扱하고 있는 YAPS 가 언제 使用되고 있는가도 몰른다. 그는 지나가는 飛行機의 爆音도 稀微하게 들려오는 實驗室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意味에서 그 器械은 모든 努力의 槍 끝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이 器械은 飛行中에 第一 먼저 바람에 부딪치는 飛行機의 尖端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바람을 넣은 「라이어」를 鋼鐵우리에 집어넣고 있는 「머글타서·S·스미스」下士

## ☆늘라운 出生率

職工「호운」, 「로켓트·엔진」을 試驗하는 「스미스」, 「라이어」를 交換하는 「스미스」 이들은 보다 最少限度 飛行機에 關聯되어 있다. 「에드워어즈」에는 그 밖에도 끊임없이 바르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數없이 많다. 그들은 飛行機를 힐끗 쳐서 보는 일도 드물며 甚至於는 그것이 液體酸素로 움직이는 것인지 「개솔린」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或은 「코카콜라」로 움직이는 것인지도 몰르는 것이다. 이 基地에서 「오피레이숀·타워」의 責任者 다음으로 가장 바쁜 사람은 軍醫官인 「인드레·리나우드」大尉일 것이다. 「리나우드」大尉의 特技는 救急外科가 아니다. 「에드워어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뭇해서 그 數많은 저리의 이름은 그 곳에서 生命을 바친 「테스트·과일롯트」와 乘務員들의 이름을 딴 것이기는 하지만 飛行機가 墜落하는 일은 比較的 드물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 地方에서의 自動車事故로 生命을 잃고 있는 「리나우드」大尉의 特技는 産科學이다.

세계에 있는 그 어느 美軍基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에드워어즈」에서도 出生率은 놀라울만큼 높다. 基地病院의 産科入院室은 오직 軍人, 軍屬의 夫人들만이

使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數도 不過 一, 五〇〇名밖에 안된다. 그러나 一九五三年에 그들은 三一四名의 애기를 낳았고 一九五四年에는 三五七名을 낳았으며 昨年(一九五五年)에는 四三二名에 達하였다. 今年에는 近六〇〇名에 達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에 對해서 「리나우드」大尉는 어찌를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勿論 나도 왜 이렇게 出生率이 높아지는지 確實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젊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도취할 일이 있었습니까?」 「리나우드」大尉의 産科患者의 平均年令은 二〇~五歲이며 그들은 보다 매우 健康하다. 「리나우드」大尉自身만 하더라도 어릴애를 셋이나 가지고 있는데 넷째가 또 不遜 出生할 것이다.

이 基地에서 셋째로 가장 바쁜 사람은 아마 P·X 責任將校인 「월터·걸프리」大尉일 것이다. 그의 全事業은 一年에 百萬弗에 達한다. 月給日이 되면 손님을 P·X 「카운터」에 長蛇陣을 이룬다. 그들은 模型飛行機材料를 徵收히 많이 사가는데 이것은 一年에 三三,〇〇〇臺의 飛行機를 製作하는데 充時한 것이다. 그러나 基地에 있는 兒童들은 飛行機에 興味が 無다. 模型飛行機의 材料를 사가는 일은 別로 없고 大部分 어른들이 사가는 것이다. 그들은 職業이 極도로

# 航空

專門化되어 있기 때문에 F-103機 全體를 仔細히 드려다 볼려면 그 模型을 만들어 보는 것이 最善의 方法인 것이다.

「에드워어즈」에서는 相當히 많은 사람이 『家政』일에 從事하고 있다. 그것은 每日 관에 밖은 듯한 일이 아니라 環境에 對해서 活潑히 鬭爭하는 것이다. 그들의 問題는 基地가 바람에 날라가지 않도록 維持하고 모래(砂)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方途를 찾아내는 것이다. 猛烈한 暴風이 來襲하면 時速四〇乃至八〇「마일」의 強風은 莫大한 量의 모래를 날려 道路와 滑走路와 建築物에 쏟아 놓는다. 모래는 틈새로 門과 窓門, 안으로 날라드러가 貴重한 裝備品을 못쓰도록 만들고 食物과 衣類속에도 드러간다. 이와 싸우기 爲해서 救備士들은 모래를 막는 담을 세우지만 그래도 모래는 스며드러온다. 그들은 또한 덥분(叢)을 만들지만 그것도 바람에 刮여서 잘 자라지 않고 「더스트·바인더」를 가지고 땅에 물을 뿌리면 充足한 結果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臨時的인 措置에 不過한 것이다.

基地의 한 구석에 整備士들은 굉장한 힘을 들여서 풀이 잘 덮인 蹴球場을 만들어 놓았다. 모진 바람에도 不拘하고 썩은 살이 있어서 풀이 잘 자라고 있으며 자주 물을 주고 깎아주는 것만이 남은 問題라고 生覺될

것이다. 그러나 누런 雪糖빛을 한바다 위에 떠 있는 푸른 섬과도 같은 이 들(野)은 섬처럼 保護하여야 한다. 밤이 되면 砂漠에서 들뜨끼들이 살음살음 뛰어나와서 풀을 뿌리까지 喰어먹어 버리는 것이다.

이 蹴球場은 夜間競技를 爲해서 電燈을 設備하고 있다. 얼마전 일이다. 「에드워어즈」拳銃·小銃俱樂部 會員約一〇〇名이 어두어진 後에 臘銃을 가지고 그 들(野)에 湧었다. 조용히 그들은 「교울·라인」과 「사이드·라인」에 各各 列을 지어서 늘어진 다음 信號에 依해서 갑자기 電燈을 켜다. 그리하여 單 한번의 一齊 射擊으로 無慮 四五〇마리의 들뜨끼를 잡았던 것이다.

要컨대 「에드워어즈」空軍基地는 바람과 모래, 뜨겁고 번쩍이는 땅, 들뜨끼와 「요슈어」나무, 騷音과 煙氣, 에



△若陸直後の「메스트·파일롯트」「에버레스트」中領. S-2機의 굉장한 速度의 影響에서 아직도 完全히 回復되지 않았고 있다. V

기와 「로켓트」, 模型飛行機, 液體 「가스」와 실험를 타는 원숭이 그리고 우리(樞)안에 들은 「라이어」 등으로 특異하게 混成되어 있다. 그러나 如何든 新型機를 試驗한다는 그 根本目的은 達成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獻身과 熟練을 가지고 達成되고 있다. 그 一〇,〇〇〇 명의 사람에게서는 가장 強한 責任感을 養볼 수가 있으며 各者の 하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專門化되어 있고 아무리 滑走路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 할 지라도 結局에는 共通되는 目的에 適切히 合致되는 것이다. 「라이어 라이더」 修繕工이나 「유러」 運轉手나 甚至於는 P. X 事務員이 犯하는 失手라도 어떤 무서운 周圍環境의 連結을 通해서 인제는 人命의 喪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責任感은 어느 곳에서든지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實地로 飛行機를 整備하고 操縱하는 比較的의 少數의 사람들에게 갈 수록 더욱 強해지는 것이다.

「프렌시스·J·켈리」二等上士는 八臺의 F-86 戰鬥機의 整備을 責任지고 있다. 그의 밑에는 十六名の部下가 있어서 飛行機 한臺에 두 사람이 붙어 있다. F-86機는 勿論 試驗中에 있는 것이 아니며 多年間空軍에서 就役中에 있는 飛行機이다. 이들은 「追擊機」로 使用되고 있다. 卽 新型機가 試驗될 때에는 八臺

乃至 十臺의 F-86機가 空中에서 緊密히 그 뒤를 따라가면서 觀測하는 것을 「래디오」로 傳達하고 「레스트·파일롯트」에게 助言을 하는 것이다.

「켈리」上士는 이렇게 그의 하는 일에 對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 일로 옮겼을 무렵에는 의례히 아침에 일어나서 朝飯을 먹고는 아내에게 「구슬바이·키스」를 해주고 格納庫를 向해서 自動車를 몰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駐車場에 車를 두고 車에서 나와서는 땅 위에 머는 것을 吐하곤 하였읍니다. 그리고는 格納庫 안으로 드러가서 일에 着手하는 것이었습니다.」

「켈리」上士는 高度로 熟練된 技術者이다. F-86에 關해서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의 部下 十六名 가운데 單한 사람이 라도 失手を 하면 操縱士가 生命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의 熟練에 對해서, 또한 그에게 委託된 많은 生命과 二五〇萬「달러」價値의 航空機를 保存하는데 對해서, 그리고 땅위에 嘔吐하는데 對해서 國家에서는 「켈리」上士에게 每月 一九八·七四「달러」라는 報酬을 支拂하고 있다.

「켈리」上士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部下 十六名 가운데 半數는 아직도 未熟한 사

★航空

람을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優秀한 일꾼 七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七名 가운데 五名이 來月에 나가는 것입니다. 滿期除隊하는 것입니다.

그 中의 한사람은 「택시」를, 「밀워어키」에 가서 우라질 「택시」를 運轉하겠다고 합니다. 큰問題입니다.

「젯트」航空機의 整備士 한사람을 養成하는데는 一六、〇〇〇 「팔라」의 經費와 오랜歲月을 要한다. 그러나 四年이라는 服務年限이 차면 그는 除隊하고 만다. 空軍에서는 無慮 八十九%의 士兵이 四年後에는 數十億 「팔라」의 國費를 지닌채 除隊하고 있는 것이다.

「켈리」上士는 이렇게 繼續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그 작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家族이 있으며 空軍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는 그들을 扶養할 수 없습니다. 空軍에서는 그의 價値만큼 報酬을 주지 않습니다. 民間生活에서 그는 相當한 生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非單 돈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것에도 起因하는 것입니다.」

「켈리」上士가 「그밖의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第二次大戰以後에 空軍이——그리고 三軍 全體가——받은 妥善한 待遇를 意味하는 것이다. 언제나 저은 報

酬을 받고 있는 軍人들은 한때 最少限度 若干의 税金 免除을 받은 일이 있었다. 即 士兵의 俸給과 將校의 俸給은 一、五〇〇 「팔라」까지의 收入은 税金이 免除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一九四八年에 國會는 이와같은 例外를 除去해버리고 말았다. 「에드워어즈」에서는 그

렇지 않지만 많은 軍事基地에서는 既婚男子와 그들의 家族들이 荒廢한 오막사리집에서 사는 수 밖에 없는 데 民間人家主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過度한 積貫을 받고 있다. 軍人들은 한때 物資配給所와 P. X에서 물건을 割引해서 購入하므로서 그들의 적은 收入을 늘려 쓸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때 軍隊生活을 보다 더 愉快하게 하였던 이와같은 恩典도 지금은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上士는 그의 五名の 部下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면 다른 五名을 養成할 것이며 繼續해서 그의 말은 바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젯트」機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그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追擊機와 新型機를 操縱하고 있는 操縱士들의 境遇 도 어느 程度 「켈리」上士와 恰似하다. X-1機가 超 音速飛行을 할 準備을 갖추었을때 「벤」航空機會社에서 는 그 任務를 맡을 民間人 「테스트」과일롯트」를 求하였다. 그러나 風聞의 一五、〇〇〇 「팔라」라는 莫大한

報酬에도不拘하고 民間人은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찰스·이거」大尉가 X-1 機를 操縱하여 音의 障壁을 突破하였다. 「이거」大尉는 그 挑戰에 應하기 爲해서 그리고 六、一三八「말라」라는 그의 年俸을 爲해서 그 어려운 일을 行하였던 것이다.

그리나 操縱士들은 달리 그들의 努力에 對한 報償을 받고 있다. 卽 飛行에 對한 眞實한 사람은 그를 大部分을 滿足시키고 있는 것이다.

一部分의 試驗飛行은 興奮되고 危險한 飛行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製圖板위에서, 風洞안에서 많은 努力이 傾注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그 新型機가 날을 것이라고 굳게 確信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操縱士만이 生命을 내걸고 이것을 最終的으로 決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試驗飛行은 어느 程度 慣例的인 것이다. 新型機들은 六個月 동안이나 長期의 組織的인 一連의 試驗을 받으며 그 동안 많은 報告와 統計가 分析되는 것이다. 試驗飛行이 큰 事件이 되어서 「테스트·과일롯트」의 이름을 따서 한 거리를 命名하게 되는 일은 드물며 아마 一年에 三、四回밖에 없을 것이다.

☆致命的인 「파라슈우트」

砂漠위에서 이러나는 爆發과 크게 구비치는 煙氣의 最少限度 九十九%는 아무도 負傷을 입는 일이 없는 計劃된 正常的인 演習이다. 그러나 飛行機의 墜落 事故는 發生한다. 一般的으로 新聞의 한 구석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意味도 없는, 世上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發生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墜落事故의 한 이야기이다.

그의 任務는 特異한 것이었다. 「젯트」雷團機는 高度에서 着陸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에는 速度를 주리기 爲한 減速「과라슈우트」가 裝備되어 있다. 이「과라슈우트」는 飛行機의 바퀴가 땅에 닿은 다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境遇에는 그「과라슈우트」를 〇,〇〇〇「과이트」의 高度에서 열여서 그 結果를 살펴 보려는 것이었다. 萬一 飛行機가 飛行途中에서 急激히 減速된다면 그 操作은 空中戰에서 어떠한 價値를 發見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生覺되었던 것이다.

「리차드·J·하아머」라고 하는 大尉가 時速 六〇〇「마일」로 飛行할 수 있는 F-94C 機를 가지고 이것을 試驗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飛行機에는 「하아머」大尉가 試驗을 끝마친 다음에 「과라슈우트」를 빼어버릴 수

★航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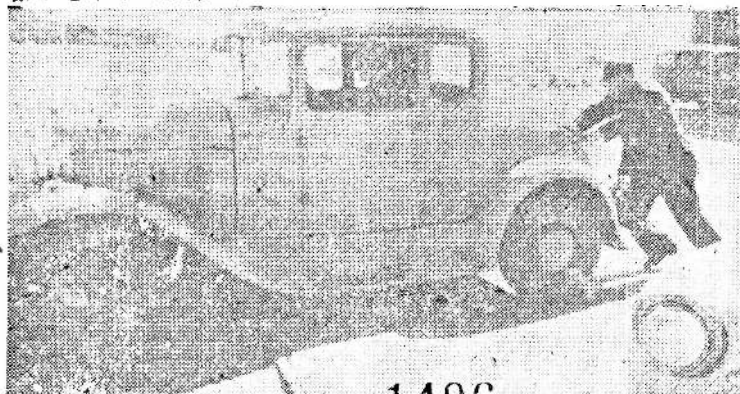
있도록 손으로 조작하는 投下裝置가 準備되어 있었다. 萬一 이 裝置가 들지 않는 境遇에는 「과라슈우트」와 飛行機를 連結하고 있는 「로오프」에 裝置된 조그마한 裝藥을 爆發시키므로써 「과라슈우트」를 處置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두가지의 裝置가 들지 않는 境遇에는 急降下와 巧妙한 操縱으로 「과라슈우트」를 「애프터버너」(再燃燒裝置)의 火焰속에서 불어 넣으므로써 아직도 「과라슈우트」를 處置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要컨대 慎重히 計劃된 試驗이었다.

「하아러」大尉는 飛行機를 물고 二〇、〇〇〇「피아트」의 上空으로 올라갔으며 그 위를 「밀버언·앨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大尉가 追擊機를 물고 가까이 따라가고 있었다. 「하아러」大尉는 「과라슈우트」를 열었다. 「과라슈우트」는 空中에서 미친듯이 흔들리기 始作하였으며 누가 生覺하든지 「하아러」大尉는 손으로 操作하는 그 投下裝置를 使用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作用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沈着하고 能熟한 操縱士였으므로 精神을 차려서 그 裝藥을 爆發시키려 하였음이 分明하다. 勿論 그가 어떠한 措置를 取하였는지 아무도 確實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裝藥은 爆發하지 않았다. 이때 「하아러」大尉는 그대로 時速約五〇〇「마일」의 速度로 湖床을 向해서 곧부터

질하는 것이었으며 그 바로 앞에서 飛行하고 있던 「앨트」大尉는 「래디오」를 通해서 그에게 큰 소리로 助言을 하였다

「하아러」大尉의 飛行機는 빙빙 돌면서 繼續해서 내려갔으나 그 致命的인 「과라슈우트」는 좀처럼 「애프터버너」의 火焰속으로 드러가질 않았다.

<X-2機의 「테스트·파일롯트」 「에버레스트」中 領은 寫眞에 보이는 것과 같은 舊式 「포워드」車를 運轉하기는 좋아하는데, 始動이 걸리지 않아서 假가 떨어 주고 있다>





機는爆發하여 火焰에 붙었다.

「엘트」大尉는 그 墜落과 거의 同時에 湖床에 着陸하였다. 炸臺는 燃燒하고 있고 炸臺는 操作되고 있는 그 炸臺의 飛行機는 옆에 나란이 미끌어져 나가고 있었다 「엘트」大尉는 停止하자마자 飛行機에서 뛰어내려 「하아터」大尉의 飛行機에게로 달려갔다.

「그것은 火災에 不過하였을니다. 火焰속에서 밖으로 내다보이는 飛行機의 唯一한 部分은 尾翼끝이었을니다.」

이렇게 「엘트」大尉는 當時를 回顧하고 있다.

「엘트」大尉는 「하아터」大尉의 飛行機의 다른 쪽으로 돌아 갔다. 異常하게도 그 쪽은 燃燒하지 않고 있었다 「엘트」大尉는 飛行機위에 올라가서 「플렉스글래스」로 된 「캐노피」를 통해서 「커피트」안을 드러다보았다. 그 안은 煙氣로 가득 차 있었으나 「하아터」大尉가 힘없이 氣絶한 듯이 머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엘트」大尉는 이와같은 非常時에 使用하도록 飛行機의 外部에 裝置되어 있는 「캐노피」放出裝置를 움켜 쥐었다. 그러나 그것은 作用하지 않았다.

乾燥된 湖床위에는 粉가루처럼 옅은 모래 以外에는 事實上 아무것도 없었다. 「엘트」大尉가 「캐노피」를 때려 부수기 爲해서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대

기도 없었고 돌도 없었다. 그는 맨주먹으로 그것을 부술려고 애썼으며 그러한 緊迫한 狀態가 아니었으면 그것은 보기에 우스운 光景이 있을 것이다. 그는 주먹으로 내리쳤으나 自己自身の 손만 傷하고 말았다. 그 동안에도 그는 안에 들은 「하아터」大尉를 살펴 보았다. 이제 붙은 그의 몸에 불기 始作하는 것이었다.

「엘트」大尉가 주먹으로 「캐노피」를 내리치고 있을 때 炸臺의 「절」車가 湖床 주변에서 時速 七〇「마일」의 速度로 飛行機를 向해서 달려 오고 있었다. 飛行機있는 곳에 到達하자 運轉手는 뛰어 나와서 그가 所持하는 唯一한 裝備品인, 주수방망이 만한 五〇「파운드」消火器를 들고 飛行機에게로 달려갔다.

「엘트」大尉와 그 절車 運轉手는, 붙은 漸次로 擴大되어 가는데 서로 相反되는 指示를 외치는 것이었다. 運轉手는 飛行機의 前面에 對해서만 消火器를 完全히 消耗하고 빈 容器를 「엘트」大尉에게 내주었다. 「엘트」大尉는 그것을 두손으로 들어올려 「캐노피」를 내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튀었다. 그는 繼續있는 힘을 다해서 「캐노피」를 내리쳤으나 亦是 消火器는 튀기만 하였다. 「그것은 마치 큰 「스프링」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到底 히 그것을 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絶望의 이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航空

그러나 方便基地에 있는 九、九五〇名의 사람들은 그事故가 發生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조용히 그들의 일을 繼續하고 있었다. 그 産科醫는 『스미스』夫人、木曜日에 다시 오십시오.』하고 말하였고, 『로버어르. 호운』은 YAPS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더글라스. S. 스미스』下士는 『라이어』를 交換하고 있었다. 『앨트』大尉와 飛行 運轉手를 除外하고는 이 事故를 目擊한 것은 湖床의 변두리를 따라서 서있는 함고 술름에 잠긴 『요슈에』나무 뿐이었다.

이때에 『하아터』大尉의 살에 불이 붙기 始作하였다. 飛行 運轉手는 自動車에게로 달려가더니 五 『갈론』 드리 『캐슬린. 켄』을 들고 돌아왔다. 『하느님 맙시다』 하고 『앨트』大尉는 어이없이 生覺하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이 들어 있습니다. 危險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運轉手는 외쳤다. 『앨트』大尉는 近五〇 『과운드』나 되는 그 『켄』을 들어 올렸다. 노이 들어올려 힘껏 내려쳤다. 『캐노피』는 깨졌다. 『앨트』大尉는 다시 한번 내려쳐서 구멍을 뚫고 안에 들은 煙氣를 나오게 하였다. 數秒만에 그는 큰 구멍을 뚫어 그 틈으로 『하아터』大尉를 고집어 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아터』大尉는 경감히

키가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앨트』大尉는 말하고 있었다.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크지 않다.

『그는 지금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앨트』大尉는 말한다.

『그의 두 발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아터』大尉는 살았다. 오늘날 그는 義足으로 잘 거러다니고 있다. 그는 少領으로 進級되었으며 不遜恩給이 붙어서 空軍에서 名譽除部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事故에 關係서는 아무런 記憶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二〇、〇〇〇 『피이트』의 高空을 飛行中에 『과라 슈우르』를 열은 것까지는 記憶하며 그 二週日後에 病院에서 깨어난 것이 生覺할 뿐이라고 한다.

그 墜落事故가 發生한 半時間後에 『앨트』大尉는 또 하나의 任務를 띄고 다시 空中으로 올라갔다. 機首에 YAPS를 裝置하고, 安全하게 空氣를 注入한 『라이어』를 가지고, 優秀하고 責任感이 강한 어느 上士가 精誠껏 整備해준 飛行機를 操縱하면서 넓고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날고 있었다. 밑에는 바람을 맞고 있는 基地가 멧없이 널리 展開되어 있다. 砂漠위에서 큰 煙氣가 솟아 올르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저기서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끝) 『라이프』誌에서



# 航空日斷想

崔 仁 旭

비행기를 부려서 하늘을 날은다는 것은 얼마나 멋쟁이의 일인가? 이는 곧 산 藝術이다.

그날 그날 義務的으로 飛行機를 조종하는 분들은 오늘도 또 피치 못할 課業에 倦怠를 느끼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의 생각인즉 小說을 쓰는 藝術行動 보다 飛行機를 부리는 藝術行動이 훨씬 더 부러운 것이다.

서재에 앉아서 原稿紙를 메꾸기 보다 新銳機를 타고 하늘을 날은다는 것이 얼마나 사나이다운 일이었

는가?

「孤島에서 그대와 함께」라는 映畫를 보면 海軍 航空隊의 킨슬레大尉가 말을 듣지 않는 자기 愛人 로살린드를 飛行機에 태우고 어느 孤島로 誘引하여 충추기를 請한다. 이러한 몇진 로맨스는 飛行機가 아니고는 도저히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좀 危險하다. 萬一해도 우리 操縱士들 중에 이런 짓을 模倣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問題는 간단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藝術作品

은 그것을 鑑賞할 때는 心醉를 해도 직접 自身이 그 藝術作品의 內容을 그대로 實踐에 옮기는 일은 좀체로 없다는 것이 定論이기 때문에 나는 安心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映畫는 鑑賞者에게 스틸과 興味를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場面을 取材했겠지만, 그 畫面에 登場하는 킨슬레大尉는 軍人으로서 軍人 中에 도 과이롯트로서의 씩씩한 氣象을 잘 表現했다고 본다.

愛人으로 말미암아 一時 愛機를 조종해서 脫線은 했을망정 그의 行動에는 젊은이로서의 潑刺할 氣象이 있었다. 사나이다운 勇敢性과 不屈의 意志가 있었다. 이것은 吾 敵에게 굴복하지 않는 武人의 精神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映畫가 보여 주는 虛構의 一面에 不過하지만 飛行機를 操縱하는 우리의 勇士들은 저마다 한사람 한사람이 그 百倍千배나 한 높은 氣

☆航空

象과 보다 큰勇敢性을 지니고 앞날의 꿈을志向해 가리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勇敢性의闊志를 지니고志向해 나갈 꿈은 어떤 것이겠는가? 한愛人을 태우고孤島로 가서 춤을請하는 일이 아닐 것이요, 잃어진 우리의疆土를回復할 일이다. 이것의 우리들의當面한 꿈이어야 하겠다. 愛人을 태우고孤島로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失地를 회복한다 음엔 그때는 어떤 애괴소드쯤도 이만한 소동쯤 있는 것이혹시는 없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戰後에 日本의 파이롯트들이 탄식한 말을 여터분은 아는가?

그것을直譯하면「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이 아니고 가을의 하늘」이란 뜻이다.

저 높푸른 가을 하늘을 우렐어 보고 일찌기 솔개처럼 날으던 몸들이

번번히 자기네의領空인데도 이제와는飛行機한臺 마음대로 날리지 못하는 설음을咏嘆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領空에 마음대로飛行機를 날리게 되었다는 이矜持를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日政三十六年の悲哀를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하며, 六·二五序戰에戰鬪機나 폭격機가 없을 안고敵陣에突入하던 그때를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航空史는 실로 여기서부터出發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젛트機가 있다. 젊은勇士들이 푸른 꿈을 안고 날마다 우리의 하늘을 날은다.

地上에는陸軍이 있다. 바다에는海軍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領空에는 우리(空軍)가 있다.

大韓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 그러나 우리의 자량이 어찌 여기

에서 그칠 것인가? 우리의 하늘을 빛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의 하늘은 이제부터 우리의 피우리의 맘으로建設해야 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十月一日空軍의 날을 앞에 두고)

兄弟·姉妹

兄弟는手足과 같고夫婦는衣服과 같다. 衣服은 때러지면 새로求할수 있으나手足은 끊어지면 다시이을수 없다.

(中國思想家莊子)

사람은 홀로 살기보다 남과같이生活하는것이 나은것이다. 항차兄弟·姉妹들과 같이 삶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希大哲人 소크라테스)

형아 아우야 네살을 만져보아 누손이 타났관비향차조차 같았는가, 한젓 먹고 같거나 있어 다른 마음머지마라.

(韓鄭散號 松江政治家·詩人)

# 우리와 하늘

朴 榮 濬



어떤나라는 안개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나라는 비때문에 흐린 하늘만이 보인다고 한다. 어떤나라는 눈때문에 얼어붙은 하늘만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때때마다 아름다운 하늘을 四節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늘이 어떤나라의 하늘보다도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한다.

하늘의 惠澤을 받은 나라다. 땅에 잘아 앉은듯 알은 지붕밑에 서라도 머일리 하늘만 바라보면 가

슴이 시원해진다.

하늘이 높고 시원해서 우리나라 집들은 그렇게 얇은가 보다. 하늘 가운데도 가을 하늘이 더 높고 더 푸르고 더 맑고 더 깨끗하다. 殘暑가 등골을 추이어도 하늘만 보면 시원해진다.

살기가 힘이 들어 한숨만 것다가 도 가을하늘만 쳐다보면 추름살이 피어진다.

그리운 사람을 멀리 그리다가도 하늘만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려 한다.

높은 하늘은 시원하고 푸른 하늘은 아름답고 넓은 하늘은 雄大하기 때문이다.

높은 하늘을 보면 올라가고 싶고 푸른 하늘을 보면 그위에 눕고싶고 넓은 하늘을 보면 그속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만 있다. 높이 올라가면 을을수록 높아만 보인다.

어렸을 때 밤을 따라 밤나무에 올라가 보았다. 땅보다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밤나무 가지로 올라가 보이는 하늘은 땅 위에서 보는 하늘보다 더 높은것 같았다. 하늘이 보고싶어 높은 산에 올라가도 하늘은 까마득 가까이진것 같지가 않다.

飛行機를 타고 산보다도 높이를 타고 보았다. 하늘이 손에 닿을것 같이 높이 올라 보았다. 그러나 하늘은 접히지 않았다. 더 아득해 보

☆航空

였다. 더 넓어 보였다

너무 높고 너무 넓어 도리어 무서움을 느꼈다.

하늘이 좋은 것은 역시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리라,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比할수 없이 넓기 때문이리라. 구름만 개이면 한결같이 과해서 번더쟁이 人間이 좋아할지도 모른다. 흰 구름이

안해,

세상에는 일곱가지의 안해가 있다 첫째, 사람을 죽일것같은 살기찬

둘째, 남의 것을 훔칠것같은 음친한 안해 셋째, 제 덕을 것은

차리고 일에는 게으르고 말소리만 높여서 자랑치는 주인같은 안해

넷째, 남편에게 자상스럽고 집안

일을 잘 돌보는 어머니같은 안해 다섯째,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거침없이 그리고 어테로나 마음껏

날아갈수 있는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늘 — 푸른 하늘 —

하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높으리라. 마음이 넓으리라. 마음이 투명체처럼 깨끗하리라.

骨肉의 정이나는 누의동생같은 안해 여섯째, 남편을 보고 마치 오래 못맞난 친구와 같이 반겨하는 벗과 같은 안해

일곱째, 남편이 때리던 욱하던 그 저참고 부종하는 종같은 안해

(印釋伽)

☆忍 耐☆

忍耐는 모든快樂의 根本이며 또 모든權勢의 根本이다. 將來의 希望은 忍耐에서만 얻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忍耐치 않은 사람

라.

우리나라는 하늘의 惠澤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도 하늘을 사랑할수 있다.

그러니 어떤나라 사람보다도 높고 넓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끝) — (筆者 小說家)

은 그 希望을 잃어버릴 것이다. (英 藝術評論家 러스킨)

★女子가 지켜야 할것은 두 男便을 섬기지않은 것이니, 男便이 있고 다른대로 가는것은 비록 萬乘의 威嚴이라도 빼앗지 못한다. (韓) 桃花郎, 新羅 第二十五代 眞智王時代 沙梁郡女

(임금이 桃花郎의 美貌에 반하여 그를 犯하고자 하니 이같이 抗答하였다.)

# 空軍發達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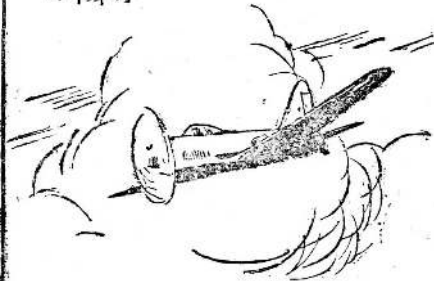
4282.10.1 陸軍練習으로부터  
獨立한 一軍으로서 空軍獨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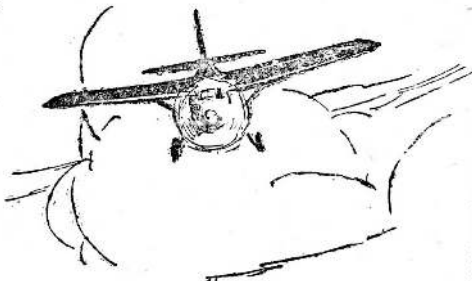
4281.4.1 空軍部隊創設幹部受  
7名이 陸軍步兵學校에 入隊함으로써  
大韓民國空軍 發達는 시작되다



4283.5.14 國慶의 誠金으로  
建國機 100 獻納式을 汝矣島基地  
에서 舉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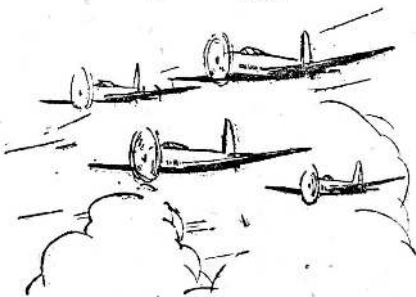
4281.9.15 最初로 入隊된 L-4  
10台로 丁史의인 飛行行을 升을上空  
에서 實施



4283.6.25 大.三五戰亂勃發의  
同時에 建國機 (T-6) 및 L-型機로  
敵陣 攻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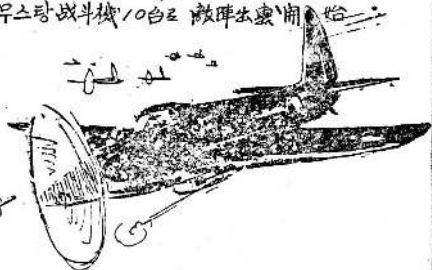
4281.10.21 聖順事件 作戰에  
飛行部隊 出動하여 活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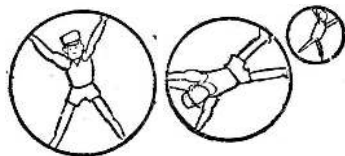
4285. 10. 28 東部戦線 陸軍  
第1軍団に對し 空地協同作戰開始



4283. 7. 3. 七月二日に 入輸機 F-51  
무스탕 戦闘機 10台を 敵陣上空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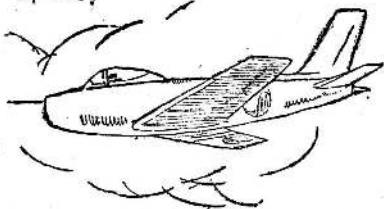
4286. 7. 27  
休戦中 同時に 空襲訓練開始



4283. 10. 24 飛行団が 平壤으로  
進出하여 作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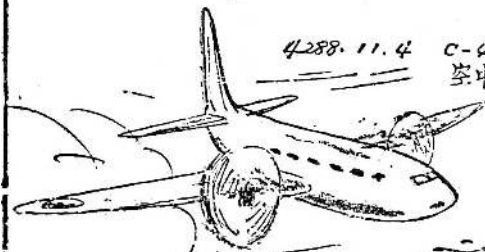
4288. 6. 20 最初に F-86a  
讓渡되어 韓國空軍に Jet 空軍으로  
取換



4284. 10. 11 東海岸基地에서  
工事的인 單獨空襲作戰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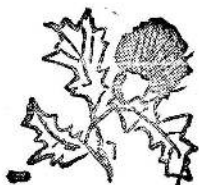
4288. 11. 4 C-46 輸送機は 各基地間  
空中輸送開始





# 나의 空軍時代

尹 天 柱



流配당한 罪人처럼 온 가족을 거느리고 하얗게 눈속에 과물친 濟州島 땅에 처음 발길을 옮겨 놓았던 일, 그후 二個月쯤 지나 空軍大尉로 임명을 받고 복무하게 된 일, 이 모든 사실이 아주 가차운 여섯날의 일 같으면서도 기실 五、六年이란 세월이 마치 꿈결처럼 흘러 갔다는게 사실이고 보며 잠잠 놀래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과거에 陸軍少尉를 지내본 일은 있었지만은, 空軍에 對해서는 아무런 知識도 없는 이른바 못내기인 내가 空軍本部的 重要計劃 參謀部에

補職을 받고보니 늘 가깝게 지내든 親知들로 부터 만나는 추족 (아니 자네가 웬일이야? 그런 곳에) 하고 몹씨 놀라는 表情을 보면 나로서도 그들의 表情에 同感하는 것과 같은 表情을 띄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애당초 일대대한 예비상식이 없었던 것은 勿論이 거니와 調査 研究할 材料도 별로 만만치 않은 處地였지만 Lincaln 이 남의 冊을 빌려 몇번 이고 밤잠 자지 않고 읽었다는 有名한 이야기 처를, 倥倥히 參考가 되리라 고 생각키우는 冊은 보고 들은 대로 막 우연이 드려 발뺌 할 것 없이

四角形과 直線등을 그리며 圖表한 장을 꾸미기에 식은 담을 내든 일은 오래 두고 잊지 못할 일종의 하나다. 曉星學校의 한구석에서 兵食도 언제나 너그러게 먹으며 잔혹가다가 회를 얻으면 막걸리 병을 가운데 놓고 친우들과 더불어 맹물러 앉았던 시절의 분위기를 음미하는 일, 살포시 취기가 감돌아도 정신발작 차리지 않아 군부에 끌려하다 새로 三時나 四時경에 허둥 지둥 집구석이라고 찾아들은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달콤하게 떠오르는 추억의 한 장면들이다. 그중에서도 언제나 생생하게 마음속 깊이 살아 있는 또한 가지 추억으로 분에 넘친 사명을 띄고 美國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본래부터 코호는 사람만 옆에오면 절절매는 내가, 업전의 體臭을 풍기면서 美國까지 다녀온 후론 허울까지 말숙하게(?) 변해진 것 같고, 그 위에도 신발을 전에없이 깨끗이 한

☆航空

다든지, 골장막걸리 타명만 하든  
식성이 맥주니 洋酒만을 골라 찾게  
된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美國  
값다운 보람이며 더욱이는 空軍에  
복무했든 더본이라 생각된다.

제한된 紙面에서, 자질구레한 것  
까지 낫낫히 기록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이  
것을 쓰자니 저것이 남고, 저것만을  
쓰자니 또 이것이 쑥 빠지는 식이  
되어서, 題目 그대로 「나의 空軍時  
代」라는 回顧談과는 동떨어지는 것  
이나 아닌가 싶어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그런데로 한가지 더 기입하자면,  
별로 남달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  
면서도 추위 사람음이 추겨 세우는  
바람에 못이져 空軍野球部를 창설하  
는데 있는 힘을 다 했고, 또 근기있  
는 열성의 보람으로 歷史가 우리보  
다 긴 육군야구팀을 制壓하든 일도  
있었다.

이렇게, 활발하게 군에 복무하든  
나에게 또한가지 길이 리이게 되었  
으니 그것은 본래의 내 本職에 關與  
하는 恩典을 입어 이제 다시금 大學  
敎鞭生活로 도라올수 있었다는 것  
이다.

여러가지 다난한 속에서도 上部의  
깊은 理解로서 出講하게 되니 그때  
입은 그 크나한 혜택은 내 평생을  
주고 있어서는 알릴 일일 것이다. 軍  
에 있는 나에게 그처럼 出講하도록  
便利를 봐준 上官을, 不便한 點이  
많은데로 講座를 맡기며 나의 本職  
을 찾게 해준 선배 선생님들에게 심  
심한 사의를 표해 맞이하는 바다. 또  
한 그분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  
도록 내 自身天職에 노력할 것은 勿  
論이다.

空軍을 나온지 벌써 半年이 지났  
다. 半年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서  
도 내 온몸에 배여있는 軍人정신은  
가시어지기는 커녕 軍복을 입을 때

보다 더 팔팔한 정신이 스며있어, 좀  
언짢은 行悖를 하는 軍人을 불라치  
면 크게 꾸짖고 싶고 또 「젯트기」소  
리만 드르면 무시로 하늘을 멍하고  
취다봐 지는 습관이 눈에 띄이도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이, 나와 空  
軍과의 깊고깊은 인연으로 해서 말  
미암은 것이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  
게 긍정할수 있는 일이다.

요지음, 활발한 우리 空軍의 발전  
상을 곳곳에서 보고 듣는대로, 무된  
나의 天性에 매를 치는것도, 앞날의  
는부신「空軍의 날」을 바라는 간절  
한 마음에서 라고 해도 좋을 것이  
다. (筆者 高大教授)

韓國 俚 諺

☆며누리 자라 시어미 되  
니 시어미 꼴 더 한다.  
☆말많은 집醬이 쓰다.  
☆뒋간과 사든집은 멀어야  
한다.

# 「航空日」回顧

金敬洙



「航空日」特輯 「코페트」原稿의 請  
托을 받았으나 題目이 「나의 空軍時  
代」라고 되어 있다. 나의 공군시절  
을 적어 보자면 적지 않은 紙面이 있  
어야 했기에 이번에는 「航空日」에  
關한 이야기를 씀으로써 編輯者의  
재촉을 면할가 한다.

「航空(記念日)」 「空軍記念日」이  
러한名稱과 內容의 記念行事가 六.  
二五 事變前에는 몇 차례 있었던 것  
으로 알고 있다. 事變으로 中斷되었  
던 이러한 行事가 復活된 것은 八五  
年 十月이었는데 그 규모도 대단했

었다. 그때 나는 公報關係를 擔當했  
었고 報道陣은 釜山發의 臨時列車로  
져 K-4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驛에서 飛行場까지는 트럭 픽스로  
져 來賓들을 날렸는데 時間的餘裕 없  
이 짜여진 스케줄은 來賓全部의 到  
着을 기다려 줄 수 없었다. 飛行場에

到着한 報道員들은 行事가 이미 始  
作되고 있으니 準備된 食事を 取할  
사이도 없이 式場으로 달려 갔었다.  
이렇게 쓰고 보면 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며 意味없는 것 같으나 이 事件  
(?)이 참으로 重大한 것이었다.

記者들이 이처럼 食事も 못하고

行事에 關한 取材을 하고 있는 동안  
에 釜山에서 온 一般來賓이 準備된  
食事を 다 먹어버렸으므로 記者에게  
提供될 것이 없어졌을 뿐더러 飛行  
場內에는 買食할 곳이 다곤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事理를 아는 記  
者들은 公報將校들도 같은 地境에  
있었기 때문에 別로 不平을 하지 않  
았으나 一部 억지를 잘 쓰던 記者들  
은 이 問題(?)를 CP에게 까지 抗  
議하였으며 式場 貴賓席周邊에서 때  
를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後  
도 얼마를 두고 이 事件은 空軍本部  
에서의 定例記者會見 때마다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해의 航空日 行事에는 記者  
用 食事 飲料는 처음부터 따로 PI  
O에서 準備해 가지고 行事 舉行地인  
K-110으로 가지고 가서 食事할  
場所도 따로 準備하여 一般來賓과  
는 삼엄한 구별을 하여 前年の 事態

☆航空

의 뒤푸리를 피하느라고 야단법석을 했었다. 결국 行事が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總評의 基準으로써 記者接待如何가 重要な 役割을 하였다.

지금도 行事準備에 있어서 P I O 는 같은 고종과 記者들을 爲한 과도(?)한 준비를 하고 있을 줄 믿는 데 이와 같은 事態는 K-4에서의 失手 아닌 失手로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어 現 P I O 들에게 송구한 생각이 든다.

八七年의 航空日 行事는 政府還都 後라 서울에서 舉行되었다. 場所가 서울이라고 해서 더욱 神經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지 않게 마음을 쓰린 것은 行事當일에 果然 市民이 어느 정도 動員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九月二十九日의 最終的인 行事擔當關係參謀會議席上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特別 行事關係記事가 아직

도 新聞에 報道되지 않은 點이 論議

되었다. 빨리 廣告라도 내라고 야단을 치는 參謀도 있었다. 한편 또 그

때에 나는 除隊가 確定되어 이미 國防部의 特命이 나있던터라 一部參謀

는 이 點에 結付시키어 責하는 이도 있었고 甚至於는 再召集하다는 등의

야유까지 나왔다. 나는 辯明하지도 않았으며 또 結果를 보면 알 것이므로

辯明할 必要도 없었다. 行事前에 나가는 豫備의 報道는 만일 어떠한

新聞에서 크게 取扱된다면 다른 新聞에서 이를 다시는 取扱하지 않

으므로 一時에 全新聞에 豫備記事가 掲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면 되도록 行事當일에 가까운 日字의 新聞에 掲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條件을 具備한 日字는 九月三十日인 것이다. 果然 서울의 모든

日刊은 四面잡으로도 紙面의 全體 또는 切半以上으로 空軍 및 行事의

紹介를 爲한 宣傳記事가 실려졌

다.

또 行事當일에는 一般市民 學生 등 參觀人이 式場인 漢江邊兩岸을 뒤덮

어 人山人海를 이루고 交通이 遮斷 되는 大盛況을 이루었다. 參觀人

의 動員이 如意치 않을 것을 두려워 하던 當局은 大滿足이었다. 勿論이

것은 空軍에 對한 市民의 사랑과 關心이 至大하였음이 背景이였겠지만

尹洛准尉의 非常한 活躍이 奏功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하여 行事

는 成功的으로 끝났었다. 나는 참으로 手苦했다는 上官 同僚들의 致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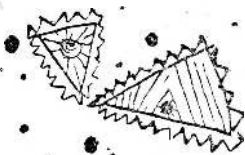
를 받으면서 10月1日附로 除隊가 되었다. (筆者 國會圖書館長)

英國 俚諺

☆暴飲家は 不斷히 自己自身과 生命을 攻撃한다.  
☆아이와 추정군은 참말한 介狀.  
☆청소한 衣服은 짧은 紹

# 나의 空軍時代

李 鍾 麟



누구는 더 幸福하다 드니 아무게는 더 不遇하다 드니 하지만 結局 人生 이란 喜怒哀樂의 連續線에 不遇한 것인 지도 모른다. 이러한 意味에서 라면 내 三十平生中 제법 人生을 體驗할 수 있었던 時節이 空軍에 服務한 期間이라 하겠다.

潮水처럼 밀려 내려가는 避難民들 에 끼어서 空軍, 추력에 몸을 실고 大邱까지 내려가 푸른 作業服에 作業帽을 얻어 쓰고 軍門에 발을 드려 놓 으면서부터 나는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다 맛보

았고 아직도 그 記憶이 腦裏에 生生 하니 말이다. 元來 體質이 虛弱하여 動作이 느린 데다가 눈치 없는 내가 軍隊生活을 하였으니 困難한 일도 많이 당하였지만 그 중에서 擔當 키어 려웠던 苦役으로 이따금씩 聲각 나는 것은 新兵教育을 받던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위가 酷毒하였다. 同僚 하나가 不寢 番을 서다가 피를 부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禍根이 되어 所謂 團體氣合이라는 名目에 못 당할 일 을 당하였던 것이다. 살을 여이는

때서운 바람이 눈보라와 함께 天幕을 휘날리는 새벽녘에 웃을 다 벗겨 고 맨즈바람에 그것도 先着順으로 뛰어 나오게 해서 내려 쌓인 눈 위에 『있드러 벨쳐!』를 시키는 것이 었다. 잔등에 소름이 쭙쭙 거치고 사지뿐만 아니라 잇발조차 와닥와닥 떨렸다. 땅을 짚은 손바닥은 눈속 에 파묻쳐 저리다 못해 감각을 잃고 허리는 끊어지며 그저 악 밤에 남지 틀 않았다. 五分, 十分, 十五分... 이제는 더 뻗되불 氣力없이 모든 것 을 斷念하였다. 그러나 그날 몸 에 別異狀없이 訓練을 하였다고 記憶하 니 錯覺이 아니라면 내 身體上的 하 나의 奇蹟이었다고 하겠다. 요사 이도 多少 過勞를 못 견디어 하던 일 을 中斷할가 망서리게 될 때에는 依例히 이 奇蹟을 내세운다.

지금의 나에게 空軍服을 입었던 時節이 分明히 즐거웠다 生覺된 다. (餘裕 없는 生活에 시달리고 일에

☆航空

덕매이며 한편으로 번거로운 雜念과 虛慾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면 서 이 險惡한 現實社會에서 生存權을 剝奪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되는 지금의 내 處境에 비해서 그 當時로 말하면 自己의 말은 바 職務만을 忠實히 遂行하면 何等의 威脅과 煩惱도 介在하지 않는 極히 마음편한 그날그날을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人間的으로 親熟할 수 있는 人들이 저지아니 있어 더러는 그들과 交分을 맺어 休日등을 利用하여 心身으로 레크리에이션의 社會를 갖질 수 있는 기쁨도 있었다.

日前에 偶然히 路上에서 飛行團에서 함께 勤務하던 兄을 만났다. 여더 해만에 軍服을 벗은 同僚를 만나서 반갑기도 하였지만 軍에 服務하였을 當時 그 누구보다도 不平不滿이 많았고 自己가 退步의인 生活을 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兄이 社會에 나와서는 果然 얼마만

큼이나 進歩된 生活을 하면서 滿足하여 하는가 궁금도 해서 소매를 잡아 끌고 어느 선술집에 자리를 잡았다. 술잔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열 말이 제법 불그스레해지자 말았던 兄은 如前히 떠들어 댔다.

「여보이 형, 그때가 좋았으, 사회에 나와보니 돈없는 늙은 그저 죽으란 법이야, 백목 가루를 마시면서 월급이라고 사, 오만 환 받아봤었자 자식을 하고 밤낮 요모양 요몰이거든, 빌어먹을 돈이 무엇인지 벌어야만 살게 마련이니...」 말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니 그렇게 나오고 싶어하던 사회에 나와서도 못살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때로 가실라우, 하하...」 「아냐, 아냐 그래도 군복 입었던 그때가 좋았으, 당신 책상밑에 종이 바둑판을 숨겨놔요, 오이루 펜실로 바둑 두다가 기합받은 일 생각하슈, 좋이다 당구다 하고 놀던 때가 한참

이었요.」

덜근히 술 오른 내 머리 속에서도 다시 맛볼 것 같지 않은 가지가지 줄거웠던 일이 走馬燈처럼 떠돌았다. 亦是 그때가 재미있는 時節이었다고 하면 다시 首肯하였다.

그러나 冷靜히 생각하면 너무 單純하고 刺戟없는 生活이었다고도 본다.

우리에게 時間과 精力이 얼마나 所重하다는 것을 意識的으로 迴避하려고 들지 않았던 가도 싶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어리석음으로 그 만큼 뒤떨어졌다는 입맛 쓴 結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東國大學 講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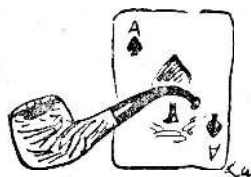
韓 國 俚 諺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받는 시누이가 더 미울다  
★ 시집살이 어렵다고 귀먹

어리 三年, 병어리 三年

# 중은緣分

芮庸海



을 모르는 내 변두에 화룡이 어져 편 셋트를 내어던지며 都大體 版을 짜 본일이 있느냐?』고 肉迫해 오던 젊은 組版工의 셋하야게 질린 얼굴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리운것 중 의 하나가 되었다.

허름한軍服으로 營內食堂에 들어 서려하는데 當番 下士官이 當身 뒤 요! 『나랏』하고 高喊을 치는 통에 憤함과 無安을 어찌할줄 모르는 이 은바나의 空軍時節의 첫날 記憶은 어제와 같이 새롭다.

動亂으로 本部를 大邱로 옮기고 어려운 고비이던 洛東江戰鬪를 치룬 다음이다 차츰 頭序를 잡아서 일을 해볼 作定이던 政訓監및 次監이던徐壬壽氏와 金敬浚氏가 當時 某日刊紙從軍記者로 있던 나를 잡아다 그런 辱을? 보이게 했던 것이다.

말아본 일은 士兵의 敎養을 爲한 空軍 위클리를 編輯하는 일이었다.

新聞社에 있었다고는 하나 社會部 의 令창이 記者라 活字號數 하나 제 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 編輯을 맡았 으니 일이 될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編輯이랍시고 題號를 먹여서 工場 (空軍高級副官室印刷所)에 넘기면 따 붙이 드版 紙面에는 주먹만큼씩한 活字의 亂舞가 奇觀을 이루었다. 그러나 體面을 수습해볼 양으로 이리뜯고 저리 뜯으며 時間 가는줄

이처럼 斷片的인 일들에 對한 記憶은 하나하나 새로운데도 정작 위클리가 創刊되던 때가 어느해 어느날이었는지 또는 얼마동안 그 編輯을 맡아 보았던 것인지는 초릿하여 生覺나질 않으니 妙하다.

그러나 當時 事務室 맞은편 冊床에 앉아 코메트 일을 보던 朴賢緝氏가 입고 있던 甲紗치마가 펴도 고을 던 일이라던지 어지간히 軍服에 먼 미가 나서 뜻뎡한 겨울 두루마기를 입고 땡기며 여러사람의 靚잔을 받던 일들을 生覺하면 甲紗치마가 먼 지 었던지 두루마기가 먼지 었던지 는 모르겠으나 위클리 일을 創刊後 한一年가까이는 보지 않았나 짐

☆航空

작된다.

어찌하면 一年이 채 차지 못했을 지도 모를 空軍時節이 었지마는 나로서는 띄우고 마음 푸군하던 時節이기도 했다.

더우기 그때는 거진다가 避難사티 多幸히 나는 故鄉이 洛東江 以南의 어지간한 山村이라 避難을 하지 않아도 좋을 處地였으니 그나마도 좀 낯은 편이어서 이따금씩 시골 人便에 철따른 채소나 음식이 오면 변변치 않은 부끄럼을 부릅쓰고 같이 노아 갖이던 樂도 있었다.

그때 위클러 二面의 英語講座를 맡아 보던 沈兄은 지금도 콩나물이랑 호박 고추를 삼베보자기에 쌓아 들고 가던 일을 잊지 않고 만날때마다 고마와 해준다.

非單 沈兄뿐만 아니라 그때 만난 좋은 緣分들과의 相交는 지금까지 도 가시지 않고 그냥 繼續되고 있다.

이까지 써내려 오노라니까 또한 분 생각 나는 분이 있으니 工場에서 造版을 보아 주시던 洪某氏이다. 約五十이나 되어 보일까 좀 甚한 酒戰症이 있었는데 몇번이나 版을 고쳐야 하는 要求에 도웃는 일할로 정말 잘해 주셨다.

지금도 그 工場에 그대로 계신지 ? 無心한 탓으로 失名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夜勤때마다 나오던 밀국수를 맛나게 나누어 먹던 造版臺의 수선한 光景들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爲先 여기서 安否나 傳해 드립니다.)

이러했던 내 空軍時節을 古談나 부메기라도 들추듯 回想의 붓을 어 부만 쳐야 할 程度로 오랜 이야기는 아니나 첫머리에 썼던 食堂 下士官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니 어 지간한 時間은 혼돈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나도 空軍위클러가 지금 오나고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 고 있다. (끝) (韓國日報記者)

★「나로테옹」三世의 家庭生活의 破滅은 「유제니」皇后의 끊임 없는 不平과 批評에 基因된 것이며, 「롤스트리」의 老後의 悲劇은 그 夫人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反抗에 起因한 것이며, 「링컨」의 家庭的 不幸은 夫人의 「히스테릭」한 行動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美 著述家·事業家 카네기)

★人生에는 順境도 있고, 逆境도 있다. 事業에는 成功도 있고, 失敗도 있다. 따라서 一家의 榮枯盛衰라는 것은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理致를 잘 理解하는 夫婦는 圓滿한 家庭生活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美 著述家·事業家 카네기)



(隨筆)



# 飛行機 밑미

## 金龍煥

내가 飛行機라는 것을 처음 알것은 大邱에 避難해 있을때 美八軍 心理 作戰課의 對敵 放送을 하는 双發機 였다.

胴體연구리에 큰 마이크를 달고 對敵宣傳매라를 실은 飛行機는 大邱 飛行場을 出發하여 三八以北 當時 共產軍이 占領하고있는 華川地區를 低空으로 도라다니며 매라도 뿌리며 放送도 하고 하여 敵陣 깊숙히 날터를 어갔다.

地上에서는 共產軍이 숨어있는 森

林을 유엔軍이 燒夷彈을 던져 태우고 있는 불꽃이 뱀의 혀바닥같이 이 산등저산등에서 어둠속에 널털거리고 있다. 이따금 敵軍이 쓰는 高射砲彈의 破片이 알미늬 飛行機胴體에 부닥칠때는 머리끝이 쫄뿔쫄뿔하고 肝이 콩알 만큼 저어진다. 그런데 그날은 무사히 도라오고 다음 두번째는 湖南地區 智異山方面의 共匪들에 對한 放送을 하기爲하여 날오는 亦是 같은 飛行機를 탔는데 이때는 물의 킨디술이나 뱀은지 처음부터 밑미

가 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窓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별안간 뭉클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吐할것 같아서 그냥 坐席에 드러누웠다. 이때 同乘한 美軍將校가 음직한 하트롱 紙封套를 줌으로 입에다 대고있으니 금시 胃속이것이 全部 쓰다져 나온다. 그때氣分으로 飛行機의 動搖는 마치 바다위를 航行하는 배와 꼭 같다고 生覺하였다. 如何問 비록 봉투는 입에 대고 있을망정 한번 내려다보니 바루 눈앞에 山봉오리가 솟아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智異山 봉오리라 하고 아드껴 준다. 이러하여 간신히 한時間을 걸려서 群山에 着陸하였다. 飛行場이라기 보다는 草原으로 되어있는 이 飛行場에는 금태우리의 正服을 입은 警察官들과 (아마 警察局長과 署長을 같이 보였다) 其他 高官(知事일까) 몇몇이 우리 飛行機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었다.

알고보니 이 地方高官들은 이 飛行機를 라기 爲하여 別서 다섯 時間 以上이나 晝間바람이 부는 (그때는 初春 아직 추울때다) 別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高官은 이 文明世上에 나서 飛行機도 한번 못타봐서 될소냐 하여 어떻게 八軍과 連絡이 되어 正裝을 하고 豫定보다 늦게 到着한 우리 飛行機를 다섯 時間 以上이나 北風原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것이 었다. 高官들은 好奇心에 찬 열골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부 앞을 다루어 飛行機에 오른다. 나는 멀미가甚해서 飛行機에서 飛行機가 돌아올때 까지 기다리기로 作定 하였다. 아까 말한바와 같이 우리 飛行機는 사람들을 便乘시켜 智異山 一帶를 求景시켜주기 爲하여 群山에 着陸한 것으로 다시 飛行機는 여기에 着陸할 豫定이 었다. 이리하여 飛行機는 다시 떠나고 나와

몇몇 같이 내린 사람은 하나밖에 設置하지 않은 美軍 陣營안에서 불을 쪼이며 놀다가 附近 部落酒幕에 가서 점심요기를 하고서 나時쯤 晝間後에 다시 飛行場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바람이 매우 甚하여 地上에 있어도 步步行하기가 困難할程度로 바람이 불었는데 空中에 든 飛行機는 얼마나 動搖가 甚하였는가 하고 生覺하니 아까 意氣揚揚하게 飛行機를 타는 그 시골 高官들 모습이 눈에 떠올는다.

이윽고 飛行機는 出發한지 卞네 時間만에 저쪽 하늘에 나타났다. 强風中임에도 完全한 滑走路도 아닌 草原에 용하게 着陸을 한다. 陣營가까히 까지 滑走해온 飛行機는 푸르페라를 멈추고 胴體옆구리 문이 열리며 乘降用 사다리가 나리고 放送을 하는 韓國人軍屬이 먼저 經快하게 뛰어 나리며 다음으로 시골 高官들은 나리지 않고 美軍人操縱士가 나타난다.

다. 그리고는 아무도 나리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뒤따라 내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내린 韓國人軍屬이 다시 사다리를 올라 안으로 들어가며 무어라 손짓을 하고 지꺼리니, 그때야 주먹같은 帽票와 금테를 두른 威風堂堂하든 署長님이 검은 「만도」를 옆에 끼고 비틀거리며 늑초가 되어 韓國人軍屬에게 부축되어 간신히 사다리를 내려온다. 다음은 또 하나 亦是 젊은 高級警察官인데 열골은 蒼白하게 死色이 되어 그려나 혼자서 사다리를 내려왔으나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환참 있다가 이번은 平服을 입은 中年紳士가 兩便에서 부축을 當해가며 흡사 슬취한 사람같이 겨우 제 몸을 지탱하며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道知事라고 한다.

이리하여 地方長官나 우리들 한번 文明世上에 날다고 子孫萬代의 자랑거리로 飛行機를 라기는 했는 데 처

음탈때의 그意氣揚揚한 모습과 나  
 탈때의 기어서 나리는 모양을 對照  
 해보니 나는 우슴을 禁할수가 없었  
 다。飛行機는 곧 大邱를 向하여 出  
 發하게 되어 있음으로 나는 지금 내린  
 사람들 보기에 도 제법 飛行機를 日  
 常으로 타고 멀리를 全然안하는 사  
 람처럼 自信있게 飛行機에 오르  
 는 하였으나, 大邱까지의 한時間을  
 올때모양으로 또 하토를 封套 封套  
 封套를 生覺하니 體面不顧하고 하  
 롱封套를 미러하나 열어가지고 자  
 리 에 드러누어 버리고 말았다。

(筆者 漫畫家)

隨筆



구름 위 에서

田 淑 禧

一九五五年 八月六日 제는듯한 여  
 림날이었다。 나는 가족들과 여러 선  
 배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어찌 釜  
 山에라도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오  
 래 버르던 길을 향해 여의도 空港을  
 出發하였다。 비행기가 위로 위로

올라가는대로 저 아래 땅 위에서 쳐  
 다보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  
 습이 차츰 초려져 갔다。  
 그러나 나는 이별의 감상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 나에게 닥쳐올 모  
 온든 미지의 땅, 미지의 사람들이 미

지의 사건들은 어렴풋이 그려보며  
 호기심 또는 희망과 같은 무언지 벽  
 찬마음으로 조그만 창밖을 내다 보  
 고 있었다。  
 하늘도 푸르고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땅도 푸르기만 했다。  
 비행기는 신기하게도 몽게몽게 기  
 기묘하게 피져 흐르는 구름속을  
 헤쳐나갔다。 마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구름위를 드라이브하는 기분  
 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경이 가까워  
 왔다。 마이크에서 富士山이 보인다  
 고 하여 내다보니 과연 그림에서나  
 詩에서나 보던 부사산이 머물러 내  
 눈앞에 참으로 그림엽서처럼 아름다  
 게 떠올랐다。  
 오후 六時 四十五分! 여의도 空  
 港을 뜬지 세시간 반만에 내가 탄 비  
 행기는 동경 하네다 비행장에 와 땅  
 었다。 여기가 東京! 십년전의 그  
 오비와 유카다, 요란하게 귀에 거슬

러던 게 다 소리 등을 문득 생각해 내  
며 머인 구름다리위를 쳐다 보았다.

천막 하나 쉬일 곳이 없는 여외도  
구항과는 달라, 이 하네다 비행장의  
시설은 눈이 부시다. 그 구름다리  
위로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마중을 나  
온 사람들이 인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도무지 하오리 유까다를 찾아 볼 수  
없게 신기했다.

동경서 하루를 묵은 다음 이른날  
나는 다시 P A A 에 몸을 싣고 오후  
여섯시 하네다 비행장을 출발해 하  
와이로 향하였다.

비행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  
들이 타고 있었다. 동양인은 나하  
나뿐이었다. 내 옆 자리에는 피상하  
계질은 화장을 한 오십여세나 되어  
보이는 마나님이 한분 앉아 있었다.

한 자리에 앉았으니 서로 인사물 하  
는데 그는 웬드릭 속에서 불야불야  
무엇을 꺼내더니 자랑스럽게 나에게

내어 보인다. 그것은 「Corresponde-  
nt」의 패스풀이었다. 나도 새로운 관

심에 생겨 어느 신문사 근무냐고 물  
었더니 자기는 세계 각국을 두루 다  
니며 소일하는 사람인데 그러자면  
기자증을 갖는 것이 다니는데 제일  
자유스럽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

게 맨저것 뿐이라고 솔직히 말하며  
웃는다. 영감님은 한계시냐고 물으  
니 그는 필적 뛰며 자기는 미쓰노라  
고 했다.

나중 세관 보고서에 물품 목록 쓰  
는 것을 보니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산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  
각국을 유람 하면서 재미있는 물건  
을 사 드린 것이 취미라고 했다.

나는 무의식중 그가 끼고 있는 커  
어다란 다이아 반지를 주의해 보  
았다.

알의 크기를 말한다면 십캐럿이  
거이 되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서루른  
내 눈에도 유리알로 보이지 진짜로

는 보이지 않았다. 어지간히 수다를  
잘 떨게 생긴 마나님이라 내 도록

옆에 앉아 쓸데없는 말을 시키면 어  
절가 하고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데 그는 「슬릴링-타아브릴」을 꺼내  
먹더니 이내 쿨쿨 잠만 자고 있어

무척 다행이었다. 그밖에도 이 비행  
기 안에는 창부 비슷하게 채린 여인  
들이 서너명 타고 있어 웃을 뻔은 다  
담배를 피운다, 왔다 갔다 하며 수  
선들을 떨고 있었다. 이들은 아마

동경에 주재하는 미군 상대의 위문  
단이라고 생각키웠다.  
많은 손님들이 부실히 자리를 정  
돈하고 난 다음 「스튜아테스」가 앞

에 나서더니 「라이프, 재킷」(Life)  
acket) 입을 법을 설명해 주었다.  
앞에 보니 과연 큰 주머니 속에 이  
救命쪽과와 그에 대한 설명서가 별

씨 제작기 하나씩 꽂혀 있었다.  
죽여 행 도중 만약에 비행기에 무  
슨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쪽끼

를 입고 거기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뛰어 내리란 말인데 나는 도무지 그  
 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저기가 모  
 하고 아름다운 구름속에 흩어져 散  
 蕪(산화)해 버리지 못했 그리 구  
 스텝게 살아 보겠다고 저런 우스꽝  
 스런것을 입고 뛰어 내리라는 생  
 각에 설명은 듣지도 읽지도 않고 그  
 냥 창밖 석양 하늘 아래 홀려가고  
 또 몽치는 구름들의 신비한 모양만  
 을 무심히 내다 보고 있었다.

웨일島の 달밤

비행기가 오후 여섯시에 하네다를  
 출발해 일곱시가 되자 차장이 또 앞  
 에 나서 이번엔 시계를 열시 십분전  
 으로 고쳐 놓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부터는 시간이 약 세시간 앞  
 서게 된다.

밤 두시 캄캄한데 비행기가 어느  
 Port에 가 조용히 내려앉는다.

한참자다 깨어 남들이 내리기에

물어보니 한시간쯤 여기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도 말아 내렸다.  
 여기는 「웨일」(WAKE)섬이라고  
 한다.

이차 대전에 귀익은 유명한 남쪽  
 의 조그만 섬, 이 「웨일」島の 땅위  
 에서 보는 내 마음은 어떤지 처량  
 한데가 있었다.

십년전, 우리 어린 학생들 지원병  
 들의 억울한 피가 의뭉운 조그만  
 섬 안에 얼마나 뿌려져 있고 사무처  
 있으랴 생각하니 진정 마음이 쓰리  
 기조차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위  
 전 밤 공기가 몹시 혼돈함을 느꼈다  
 거기에 달콤한 남양의 나무잎 향기  
 가 은은하게 풍겨 왔다. 이상한 큰  
 나무 두 그루가 이 비행장 안 십자  
 가를 포식한 조그만 「채플」 옆으로  
 서 있었다. 나는 하두 신기해 그 나

무아래로 타아 서서 육어진 이상한  
 큰 잎새들과 조그만 포도알같이 뭉  
 처진 열매를 만져 보았다. 향기는

바로 이 나무에서 풍기는 것이었다.  
 도무지 이름을 알수 없는 나무였다.  
 하늘을 쳐다보니 마침 구름을 헤치  
 고 달빛이 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 달을 쳐다 보며 지금 저 똑같은  
 달빛 아래 잠들어 있을 고향과 또 그  
 고향의 사람들이 문득 생각카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밤중에 南海  
 의 고도안 이상한 나무 아래 와서  
 있는 것이 마치 무슨 꿈같기만 했다.

비행장 여기 저기에는 굵고 하얀  
 모래알들을 뭉아 화단을 만들고 거  
 기에는 이름모를 이상한 나무를 남  
 양 식물의 그림자에서나 보던 그런  
 나무들이 커다란 잎새들을 달빛 아래  
 너울거리고 있었다. 무연지 신비하  
 고 두터운 마음이 들었다.

이 조그만 섬은 一七九六年 미쿠  
 인 「쥘린, 윌리암, 웨일」이라는 사  
 람이 발견한 이래 이 섬을 그의 이  
 름을 따라 웨일섬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곳은 불고기가 유명하며 가지각색의 큰 고기들이 수정같이 투명한 물속에서 노는것이 그대로 보인다요 한다. 이 비행장 안에는 가장 첨단적인 시설을 구비해 놓은 휴게실이 있었다.

그 휴게실 창 앞으로는 사면으로 돌아가며 바다속에서 잡아낸 형형색색의 조개껍질들, 꼭 「眞珠」라는 남양 영화에서 본 바다속의 고사리 같은 이상한 조개랑 산호, 진주조개 등이 진열되어 있어 남해의 정취가 그대로 풍겨 나왔다.

그 위로는 한국 「밭」에 열지색의 붉은 물을 꿈계 드린것이 커린대신 창마다 드리워 있어 또 다시 며얼터잠든 고향을 생각케 하였다. 여기서 한시간후 나는 다시 비행기에 올라 하와이를 향해 나르기 시작했다. — 끝 —

(女流隨筆家)

☆樂器같은 핸드·백☆  
로1마에서 考案된樂器의 핸드·백。音樂 좋아 하는 이태리의 女性間의 大好評이라 한다。 사진(上) 黃色의 가죽으로 만든 키1다型 (下) 노루가죽으로 만든 만도린型。



☆ 마가렛트公主 ☆

英國의 마가렛트公主는 今年 滿二十六才의 誕生日에 寶石으로 수놓은 「이아린구」에 高價인 「넷그레스」와 팔지, 그리고 꽃과 적은 圓板模樣으로 수놓은 「앵그」色의 「이부닌구·도레스」로 몸을 감았다한다.

# “아랍” “세계의 이모 저모

— 宗教 · 社會制度 · 風俗等을 中心해서

李 綠 載

## ☆ 沙漠山 回教

눈이 부시게 밝은 太陽과 茶色の 沙漠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黑髮 碧眼의 사람들이 사는 이 世界를 막상 接해 보면 누구나 驚異를 느끼게 될 것이다.

基督敎가 오늘날 아직도 歐州文化의 中樞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랍」의 世界를 支配하고 있는 것은 이 스타람敎(回教) 인 것이다. 猶太敎와 더불어 이 세계의 世界的 宗教는 「엘루사렘」에서發祥한 것이라 하는데 唯獨 이 世에서만

回敎가 壓倒的 多數의 信徒를 擁하고 있는데 對해서는 理由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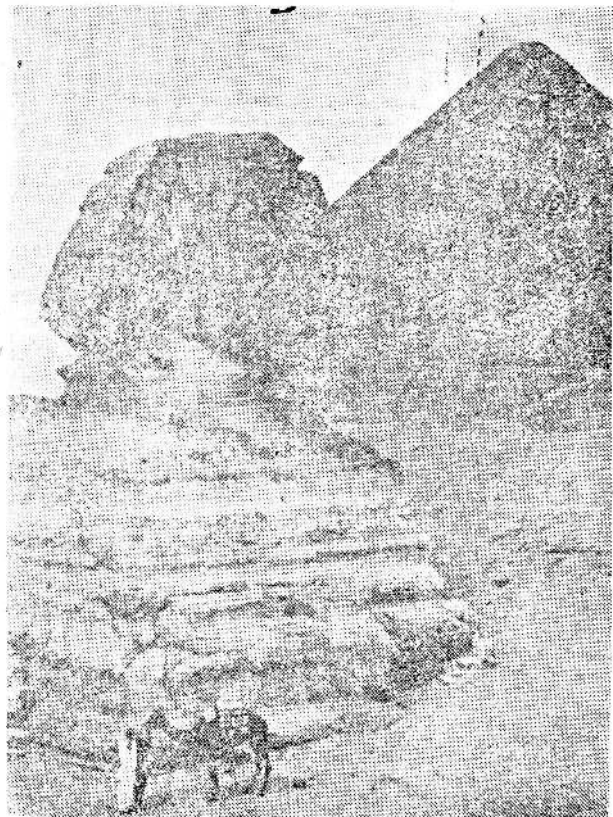
이 땅에 在留하는 某外國人士의 말을 빌리면 沙漠에서 生活하는 자가 아니면 回敎의 眞隨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卽回敎는 沙漠의 宗教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사하라 沙漠을 아나西亞細亞의 沙漠地帶를 거머보라! 살려고 하고 事實 살고 있는 것이 그 廣大한 時間과 空間 가운데서 오직 自己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白熱의 太陽아래서 누구나 죽음의 恐怖에 쌓이지 않을 줄을

것이다. 白晝의 酷暑가 日沒과 함께 사라지면 이윽고 별이 반짝이는 靜무른 밤하늘이 孤獨을 漸漸 孤獨에로 이끌어간다. 아니 그보다도 沙漠에도 느닷없이襲來하는 風雨의 무서움을 體驗한다면 어떤 사람이랴도 超自然的 힘에 依支하는 수 밖에는 生還의 希望을 갖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回敎의 信仰은 그와 같은 環境에서 이루어져 그 안에서만 眞는 者에게 生命力을 賦與하는 것이다』

아랍國의 어메를 가나 모음지기 人間의 集團生活을 하고 있는 場所에는 大小各樣의 「모스쿠」(回敎寺院)가 있다. 新築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랜 歷史를 그대모지녀는 古刹도 있다. 그 悠久함을 浮現같은 우리 人間生命과 比해볼 때 沙漠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一種의 宗教的 氣分에 捕捉되는 것을 免치 못할 것이다. 이렇전대 沙漠을 精神의 故國으로 삼는 「아라비아」인들이 朝夕으로 唯「絶對神」「아라」에 祈禱한 祈禱를 울리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祈禱에 參禮하라! 祈禱는 자는 것에 優先하느니라!」音聲도 朗朗하게 寺院의



< 「피라미」와 「스핀크스」의 壯觀 >

先塔近處에서 每日 아침 每日 밤 이와 같은 「아라비아」말이 들려온다. 이에 뒤이어 半時間이나 讀經하는 소리가 娑婆의 구석 구석까지 퍼져나간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오랜歲月을 滿한 鍛鍊에 緣由한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生理的으로 「아라비아」人들의 목성이 좋아서인지 알수없는 노릇이다. 「카트릭」教會의 鍾소리와는 또한 情趣가 다른 것이 있다.

回教徒는 하루에 다섯번 祈禱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모스쿠」를 찾아가 보면 반드시 몇몇 사람은 신을 벗고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은채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렀다가 다시 이마를 땅에 대면서 祈禱하는 것을 볼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大理石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金字로 된 「코란」을 펼쳐놓고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冥想에 잠겨있다. 家族同伴도 있어서 天眞爛漫한 아이들이 그런때 옆에서 새를 하는 등 잔란을 치는 風景도 볼수 있다.

回教徒의 所謂 「터키帽」에 청이 없  
는 까닭이 이 祈禱하는 格式으로써서 구  
린 것이라고 感嘆하고 있으면 異端者取扱  
을 받기 꼭 알맞은 노릇이다.

어는 사람이 그 天 勢徒에게 「코란」(聖  
典)의 英譯이나 佛譯은 없는가 하고 물으  
니 그는 卽席에서 「코란」은 唯一 絶對的  
이어서 外國語로는 翻譯될수 없습니다. 또  
이 그것이 要求된다면 그것은 譯書가 아  
니고 「코란」의 內容을 英·佛語로 解釋  
것만이 있을뿐입니다」라고 가르켜 주르  
라는 것이다.



### ☆ 아라비아어와 宗教

回教가 아랍世界的 精神의인 支柱를 이루고 있음은 말할것도 없으나 그것이 民衆의 生活를 支配하고 있는 證據는 常用되는 言語의 句節節에 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可司 推察할수 있다.

아라비아 말로는 「예스」라는 答代身에 『아라하나님의 뜻에 드신다면』 이렇게 말한다 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外國 商社가 「아라비아」 商人과 去來를 하는 데 『아라하나님의 뜻에 드신다면』 하는 式으로는 몇百萬弗 몇億弗의 契約을 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外國人 相對의 約束에는 亦是 英語나 佛語式으로 「우이」나 「우」이나를 明確히 하고 있다 한다. 여기 또 하나 누구나 곧 의할수 있는 「아라비아」語에 「마레 1 슈」라는 것이 있다. 그 意味로 말하면 英語의 「네버 어·마인」이라던지 그 어전수 없다 라고 하는 따위의 뜻이라고 하는 때 或者는 말하기를 中國語의 「沒法子」와 相通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自身이 어떤 難處한 立場에 있을 때 「마레 1 슈」하고 한다던지 다른 사람의

失手를 慰勞할 때 이 말을 쓴다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例컨대 雇傭人이 主人의 貴重品을 깨트려서 야단을 맞을 때도 그 雇傭人은 主人에게 「마레 1 슈」라는 말을 퍼부리한다. 이것을 『既往 既往 既往』는 어쩔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成服後에 藥方 文格이다』 이렇게 解釋한다면 雇傭人은 어지간히 유물 유물한 心思를 갖인 자라고 하였는 데 어떤 境遇의 意味는 前者와 多少를 리는 모양이다. 卽 그 物品이 깨지는 것은 前世의 宿緣이니 할수 없다는 天命이라 만나 할까? 그런 宗教의 背景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亦是 그네들의 完敎의 觀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겠다.

絶對唯一의 神의 힘에는 사람은 拒逆할 수 없기 때문에 自然 「어쩔수 없다」고 하는 宿命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前記한 境遇에 있어서 主人도 언제까지나 雇傭人을 야단만 칠수 없게 되는 것은 事實이다 沙漠이라는 自然的 環境에서 살기 위해서 이 環境에 順應하지 않으면 안 된다. 回教에 있어서 絶對 依의 觀念은 그런데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제가 빛이면 빛이 는대로 비가 내리면 내리는대로 그리고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放任하지 않는 限人間은 오직 自殺行爲를 犯하는 것이 된다. 萬若에 또 그러한 順應의 生途를 取해도 죽임은免할수 없다고 한 것 같으면 天命이라고 諦念하는 수 밖에 別道理가 없을 것이다. 「메이쓰」라는 말만 대추(聚)와 울만 먹으면 廣大한 沙漠을 長久한 時日에 걸쳐 旅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아라비아」사람들의 遊牧放浪時代의 苦難 가운데서 自然的으로 생긴 觀念이라고도 볼 것이다.

그러한 環境 順應主義는 오늘날 文明社會를 運轉하는 境遇에는 「無爲」 「無氣力」과 混同되기 쉬우며 또 實際 그렇게도 있다.

古代文明의 뜻을 피제한 아랍世界가 十 八世紀末에서 第二次大戰에 걸쳐 그 無氣力에 隨伴된 後進性을 免치 못하였음은 決코 偶然한 事實이 아닐 것이다.

「아라비아」人과 무슨 約束이나 依賴를 할량이면 그들은 依例히 「보쿠라」라는 말을 잘 쓴다. 이것은 「來日」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約束한 일이 없을수  
 一週日假로 지나는것은 普通이다. 모  
 른것이 이런 식이니 進歩發展은 바랄 수  
 없다. 性味 急한 사람이면 立場 차를 뵈  
 일이다. 그럴때면 그들은 또 依例히 異口  
 同聲으로 「슈와이」라는 말을 잘 쓴다.  
 이것은 「덜비지 말라 徐徐히 하자」라던가  
 「조급씩」이라는 뜻인데 이와같은 말들  
 은 저 大自然속에서 적은 人間이 하잖은  
 힘으로 버티고 있었자 별수없다는 이것亦  
 是 順應思想의 表白이라고 할것이다. 悠  
 久한 自然을 背景으로 한 中國인들이 究  
 竟 쓰는 「漫漫的」과도 같은 語感이다.  
 그러나 誤解해서는 안될것이 한가지 있  
 다. 아랍의 세계는 聖典「코란」에 依하  
 여 規律과 同時에 칼과 暴力에의 寬容  
 도 있기때문에 放心이 안된다. 이것이 西  
 歐人の 눈에는 本能的이며 傳統的인 凶暴  
 性으로도 보이는 모양이다. 거리에서 아  
 랍인과 싸움을 하는것은 絶對 難해야 한  
 다고 말하는사람도 있다. 教祖「마호멧트」  
 가 오른손에 「코란」권손에 칼을 들고 周  
 邊의 諸族을 制壓한 歷史를 回顧해 보면  
 首肯되는바 있는 것이다.

### ☆ 男子의 天國

아랍의 세계는 男子의 天國이기도 하다  
 男子專制는 「마호멧트」가 定한 戒律인지  
 어쩔지는 알수없으나 婦女子의 地位가 絶  
 對적으로 낮은것은 事實이다.

「마호멧트」傳에 依하면 富商의 未亡  
 人에게 사랑을 받은 「마호멧트」는 婦人에  
 게는 決코 橫暴하지는 않았으며 勿論 오  
 늘난의 「아라비아」人들의 家庭生活에 있  
 어서도 妻에게 暴力을 行使한다는 이야기는  
 들을수 없다.

婦人의 地位가 낮다고 하는것은 婦人의  
 社會的 政治的 發言力이 極히 적은 때문  
 이다. 今年一月十六日 公布된 埃及의 新  
 憲法에는 婦女子에게 投票權은 認定하였  
 으나 被選舉權은 認定하지 않았고 있다. 오  
 리 이런類는 將來의 問題일것이다. 그보  
 다도 覺醒한 婦人들의 社會運動의 第一目  
 標는 무엇보다도 저 「하렘」의 解消이며  
 一夫一妻制의 確立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무릇 文明社會에 있어서 一夫多妻主義  
 로 通하고 있음은 婦女子에 對하여 過酷  
 하며 侮辱的이라고 一部 婦人層이 품은 氣

炎을 吐하기 始作하였으니 婦女子들의 權  
 利獲得의 時期가 到來함도 歷史的인 必然  
 일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氣運에도 不拘하고 回  
 教徒의 男子는 妻의 同意가 있으면 妻  
 랍의 아내를 거느릴수가 있다. 教祖「마  
 호멧트」는 夫人이 열이나 되었다하니 一  
 般 信徒가 妻사람의 아내를 가졌다고 해서  
 異常한것은 없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男子의 財力如何에 달려있다 한다. 왜 그  
 러냐하면 妻사람의 아내를 認容하는 回教  
 의 戒律도 妻사람에 對한 肉體的 物質的  
 精神의 으로 平等한 待遇를 한것을 回教男  
 子에게 規制하고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普通常識으로 判斷할때는 大端히 困難한  
 問題로 생각된다.

回教徒는 猶太教徒와 같이 같은 回教徒  
 끼리 아니면 絶對로 結婚할수 없다. 그  
 且 結婚은 宗教廳에 登錄하고 나서 二、三  
 箇月後에 正式으로 式을 올리는것이 常例  
 로 되어있다. 卽 約婚期間도 있는셈이  
 되는데 여기서 또하나 特異한 慣習으로는  
 披露宴에 新郎은 男子 손님만 新婦는 女子  
 손님만 따로따로招待한다. 그리고 婦人

의 일같은 우리가 間或 寫眞같은데서 보  
는바와 같이 「베일」로 가려서 他人에게  
는 보이지 않는다.

아내를 벗이나 테리고 사는 男子는 構  
造가 같은 家屋을 벗이나 準備하지 않  
던 안된다. 그리고 이 居住區域에 다른  
男子는 가까이 갈수 없다. 勿論 西歐式  
「파타리아」에 婦人을 同伴하는것은 外  
交官일찌라도 있을수 없다. 그래서 某國  
의 大使婦人인 한 瑞西女子의 生活를 某  
外交官婦人이 評하기를 「그것은 生活이  
아니고 單純히 生存에 不適하다」고 말하  
는 것이다.

이와같은 「하렘」制度는 經濟的 理由도  
있고해서 오늘날은 次次로 그 拘得을 만  
지 않게 되어 塞리아共和國에서는 官吏는  
거이 다 一夫一妻制라고 한다. 그러나 또  
를직이 지금도 이것을 嚴格히 지키고 있  
는곳은 回敎의 聖地「싸우디 아라비아」程  
度라고 볼것이다. 그러나 婦人들의 「베일」  
은 지금도 어찌거나 볼수있으며 回敎婦人  
의 寫眞을 無斷히 찍는다는것은 冒險에  
가까운 일이다. 街頭에서 시끌리 寫眞機  
를 드려댔다가 逢變을 當한 旅行者의 이

야기는 어찌를 가나 드물수 있는 이야  
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씨리아」의 首都  
「다마스쿠스」에 有名한 「오마얏트」寺  
院이라고 하는 回敎의 「모스쿠」가 있는  
데 某外國人이 언젠가 이것을 가메라로  
찍을려고 하자 다했없이 그 近處에 있던  
「씨리아」軍人들에게 包圍되어 道理없이  
寫眞機를 때아끼 形勢에 直面하였다. 理  
由는 婦人을 찍은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저렇듯 是非를에 그 外國人은 「絶  
對로 婦人은 찍지 않았다. 그 證據로 찍  
었다 안적었다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生필된을 고집내내 보여 겨우 難을 免했  
다고 한다.

果然 男子의 天國도 異敎從에게는 不自  
由千萬이라고 할것이다. 이런點으로 보아  
서는 基督教徒가 많은 「레바논」 그중에서  
도 特別 首都「베이루트」에서는 比較  
的 自由스럽다. 그러나 亦是 異敎徒로서  
回敎婦人과 가까이 지낸다는것은 駱駝가  
바늘구멍에 드러가키 보라도 어려운 모양  
이다.

### ☆ 執務時間과 休日

「아라비아」人이라 해도 全部가 回敎徒  
는 아니다. 더욱이 「아라」神에 對하여  
祈禱만 올린다고 해서 아무일도 하지않는  
것은 아니다. 벌써 現代文明은 「아라비아」  
人들의 大部分을 定住化시키고 있는것이  
다. 따라서 그들도 各種 職場에 勤務하  
고 業務時間을 지키고 있다.

爲先 「아라」世界的 政府機關을 드러내  
보면 業務開始時間은 午前八時로 되어있  
다. 그러나 그時間에 出勤하는 사람이라  
고는 기껏해야 守衛나 小使 或은 給仕같은  
사람들이며 官吏로 呼稱되는 사람들은  
出勤時間도 一定치 않다. 終業은 午後二  
時라고하나 規定대로 하면 하루 六時間勤  
務하는 것이 되나 實際勤務時間은 四時間  
乃至 五時間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官廳과의 本일은 午前中에  
빨리 해지우지 않으면 끝상이 나지않는  
形便이다.

各國外交機關은 大體의 으로 午前九時에  
서 正午까지와 午後四時에서 五時까지 二  
회로 나누어서 執務하고 있다.

一般會社나 商店도 이에 准하고 있으나 商店은 밤 일광시까지 는 열고 있다.

映畫館이나 劇場은 午後三時 六時 九時 이렇게 三回 上演하고 있는데 國際港인

「베이루우르」에서는 異例的인 現象으로 「파」라던지 「까파」레」 또는 「나이르를

림」 같은 것은 午後九時에서 午前四時까지營業을 하고 있다. 그러니 年中 長時間인

하고 있는 곳은. 新聞社나 호텔程度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新聞도 日曜日과 月曜

日은 休刊하는 것이 많으며 發刊한다 하더



<아라비아인들의 汽車旅行>

라도 賣店이 休業하고 있기 때문에 新聞이 손에 안들어 올 때가 있다. 勿論 配達制 度 같은 것은 볼 수 없다.

그러면서도 比較的 높은 生活水準을 維持할 수 있는 것은 稅金이 低廉한 것과 人口

가 적은 德掃이라고나 할 것이다. 거기서 輸入의 赤字는 石油利權으로 牽制할 수 있

는 國家가 많은 것이다. 다음에 그들의 休祭日은 宗教에 따라서

相違하다. 回教는 金曜日 猶太教는 土曜日 基督敎는 日曜日이 休日이다. 그밖에

回教의 「라마단」(斷食日) 이라던지 基督敎

나 猶太敎의 祭日도 있어 이것을 全部 뒤는 날

로 計算한다면 아랍世界는 休祭日뿐으로 一

年이 지나간다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는 時間과 曆은 大部分 西歐式으로 되어 있으나

「씨우디아라비아」만은 回教曆을 嚴修하고 있

다 한다. 이런關係로 「씨

우디아라비아」에서는 外來客는 時間과 日程에 相當히 慎重을 期하게 되는 것이

다. 그 까닭은 回教時間으로 마지던 日沒이 零時인데 午後三時에 만나자고 約束을

하였다면 그것은 午後七、八時頃 만나자는 것이 되며 現在로서 來年 초하루라고

하면 그것은 今年八月一日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또한 事務를 보는데 있어서 數字는 自然 쓰게 되는 것인데 아랍世界에서는 算數

文字와 「아라비아」 數字를 併用하거나 「아라비아」 文字만을 쓰는 때도 있다. 거

기다가 「아라비아」語는 右쪽에서 부터 왼쪽으로 橫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數字

를 쓰는 境廻에 混同도 생기는 수가 많은 것이다.

또하나 흔히 볼 수 있는 慣習으로는 水煙草(나루기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유리

병 주둥이에 담뱃대 표가리 같은 것을 附着시켜 솟물을 올리놓고 맥 맥 피우는 것

인데 손님이 찾아오면 自己가 피우던 口

무管으로 된 물뿌리개를 돌려가며 피우는 것으로 接待한다. 때로는 손님에게 「아라비아·키·피」도 내지만 흔히 六筒처럼 생

간유라벌에果汁을 넣어서 마시고 이따금씩 마시다가 손님이 오면 이것을茶 代身으로 勸하는 것이다.

「테바논」같은 데서는 電話같은것은 普通하거나 電燈지만 「싸우디 아라비아」에서는 交換磁器를 통해서 불터내는 舊式인 것이기 때문에 通話하기까지 한두시간은 걸리며 急한用務에는 아무 所用도 안된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이 세계에서는 「슈와이 슈와이」(천천히 천천히)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 飲食物과 禮節

아랍세계를 紹介함에 있어서 飲食物을 勸할수는 없다. 그것은 多種多樣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對한 癖은 너무나 特異한 것이기 때문이다.

爲先調味料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네를 에 있어서 酢와 기름 그리고 소금이 基本으로 되어 있다. 酢는 果物이 많이 産出되는 地中海 周邊의 나라에서는 梅子汁으로 만들며 食油도 올리브油를 쓰기때문에 淡泊하다.

再昨午 「인도네시아」의 「반롱」에서 開催되었던 「아세아·아프리카」會議에 아랍國에서도 많은 代表가 出席하였었는데 中共의 周恩來가 이를 맞아 歡心을 살려주고는 날 저녁에 中國料理로 宴會를 베풀은바 있었다한다. 相當한 料理가 나왔을것이 想像되는데 여기에 出席하였던 「테바논」代表는 後日「世界的으로有名하다」고 하는 하지만 稱제로 우리 口味에 맞지 않았다」라고 述懐하고 있다.

아랍人들의 味覺神經이 반듯이 纖細하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沙糖이나 醬油와 調味料는 일에 變수도 없는 모양이다.

이런것으로 미루어 아랍諸國의 손님을 맞아 드릴 機會가 있을 外務當局은 애초에 그들 口味를 考慮하는것이 無難한것이다. 그러던 다시 料理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들은 宴會를 베푸는데 있어서 먼저 「아라쿠스」酒라는 食前酒을 내놓는다. 그것은 密柑껍질같은 香氣가 나는데 製法은 獨特한式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구라스」에 부어 놓고 氷水를 치면 冷해진다. 「아라비아」人들은 그것을 消化가 잘된다고 勸하는데 常用한다면 胃中毒이 되

는것은 틀림없을것이다.

다음에 十七·八점이나 되는 煎菜와 印度의 「차파티」와 같이 고물이 안뜬은 밀가루떡이 나온다. 크기로 말하면 直徑이 七·八寸이나 되는 둥근 떡이다.

煎菜의 種類는 「라부니」(오일올트), 「홀」(生강낭콩), 「하모스」(삶은黃豆)

「와스리에」 「다부리」미나리와 비슷한 것으로 만든 사라다 「미잘」(호풍 또는 鹽豆類) 「자이쓰운」 酢물친(오리보일매), 「리후트」무와 호박을 酢로

진것) 그밖에 季節마다 生野菜若干이다 勿論 닭의 肝을 기름에 튀긴것이라던지

외고기를 기름에 튀긴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로 珍奇한것도 아니다. 生野菜

있자귀에 시름한 「라부니」를 말려서 먹는것이 라던지 익히지도 않은 生강낭콩을

그대로 까먹는 따위는 처음 먹어보는 사람으로서 是전디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진짜 料理로 말하면 種類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련해 머리통만 하고 속

이 빈 「미이트·분」이나 鱈魚 鯛魚 같은 生鮮을 煎 것이 있고 名物로는 닭을 통째

로 こん 것이거나 煎 것이다.

그리고 여기사람들은 埃及米를 잘 먹는  
다. 그런데 이 밥을 짓는 이 기름도 지  
고 고기도 섞고해서 부드러운 中國式燒飯  
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會食이 終了될 무렵에는 菓子도 내놓는  
다. 참쌀과 沙糖으로 만든 洋菓子같은 것  
도 있다. 그러나 무어라해도 豐富한 果物  
을 잊어버릴수는 없다. 密柑만큼씩 한 오



### ☆ 越南의 賞金 ☆

南베트남에서는 국제예산의 均衡方案  
을 提示하는 市民에게 賞金을 支拂하겠  
고 約束하였다.

南베트남「財務省」에서는 政府官吏나 民

間民을 莫論하고 政府支出의 緊縮方案을  
提示하는 사람에게는나 또는 不正官吏 적반  
者에게 賞金을 支拂할 것을 約束하였다.

### ☆ 미스·과무島 ☆

과무島는 激戰地인 記念는 極  
大島에서 戰後十一年이 過  
去에 미스·과무島에서 戰  
日에 今今年의 當選金  
東旅行의 得得

작스럽게 한꺼번에 마시면 못쓴다 한꺼번  
에 마시면 胃가 傷할만큼 쓰디쓴 물이다.  
그들은 흔히 그 남은 찌꺼기를 접시에 부  
어 그것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運命判斷을  
하는 것을 食後의 座興으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食事禮節을 簡單히 살피  
보기로 하자! 爲先 첫째로 아랍인의 家  
庭을 訪問해서 椅子에 앉을때 다리를 먹  
겨서 앉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었어 놓  
은 발끝이 마주 앉은 사람을 蔑視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飲食을 啜적 소리를 내면서  
먹으며 飲料水를 마실때는 조금씩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마시는 것이 招待를 기쁘게  
생각하고 즐기는 禮節이라 하니 이야말로  
洋食을 먹을때와는 正反對라 할 것이다.  
끝으로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便所를  
드러다 보면 훌륭한 洋食住宅에서는 水洗  
式인데 테두리가 없고 구멍하나로 되어 있  
다 바닥은 「다이무」나 大理石으로 깔았  
는데 뒤편에 반드시 水道꼭지 아니면 물  
병이 놓여있다. 用便을 하고 나서는 물로  
씻어버릴뿐 종이를 使用치 않는다는 때  
원손만을 쓰기 때문에 回致徒는 食事할때  
絶對로 원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

바  
닷  
길

毛  
允  
淑

이 마음 가는 곳 그 바닷길엔

저 달이 내려 나를 어루만지고

바람 연하게 섬 기슭을 돌아

내 치마 기슭에 입 마춘다.

그리움에 부딪치는 저 물살들은

은빛 금빛으로 황홀한 비를 뿌리고

그때 떠난 때 마음 안에

가 버틴 그리움이 다시 피어 오른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가벼운 사랑이.

아아 生의 헛됨다—버리고

나 홀로 가고 싶어 저 영원의 길로

별과 달 무리지어 사랑이 무는

저 푸른 꿈의 집 산호의 城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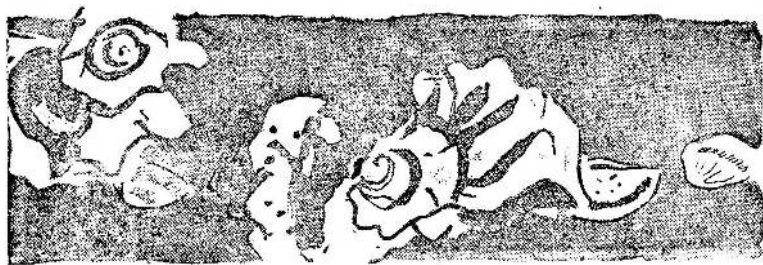
사랑도 희망도 다—함께 가자.

모진 빗바람 너를 미워해도

오라 눈물의 빛나는 밤을 맞아서

달이 홀로 노젓는 바다로

松島에서





# 美空軍의 唯一한 黑人 將軍

「벤자민·O·데이비스」准將

피터·켈리셔

(그)

날은 바로 中共軍의 砲臺가 中國本土沿岸에서 不過五「마일」떨어져 있는 金門島의 國府軍砲臺와 다시 한번 砲火를 交換하고 있을 때였다.

「事態는 若干 激化하는군.」

하고 美空軍의 한 大領이 말하였다.

「萬一 中共軍이 臺灣이나 澎湖列島를 攻擊해온다면 우리는 自由中國政府와의 相互防衛協定에 依據해서 自動的으로 이에 應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金門島나 馬祖島만을 占領하는 境遇에는 우리의 參戰與否는 「아이젠하워」大統領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如何든 「벤·데이비스」將軍이 JOC를 指揮하게 되면 事

態는 尙 激化될 것이다.」

JOC는 臺灣을 防衛하고 있는 自由中國空軍과 美空軍의 戰術統制所이며 一旦有事時에는 美第十三機動部隊 司令官 「벤자민·올리버·데이비스」(二世) 准將이 JOC를 指揮하게 될 것이다. 中國本土와 臺灣사이에는 一〇〇「마일」 넓이의 海峽은 美第七艦隊가 活動하기에는 너무 좁기 때문에 共産軍이 空中攻擊을 加해오는 境遇에는 當年 四十三歲의 「데이비스」將軍으로 하여금 極東에 있는 그는 一星將軍도 比肩할 수 없는 重大한 責任을 지게 할 것이다.

「데이비스」將軍은 또한 의 特色을



△「데이비스」將軍夫妻▽

지니고 있다. 그 特色은 한때는 그의 上官部下, 自由中國人들의 好奇心을 샅샅이 묻으지만 이제는 平凡한 것으로 變하였다. 卽 그는 美空軍에서 最初의 唯一한 黑人將軍이라는 것이다. 그는 美

國歷史上第二의 黑人將軍이다. 只今은 退役하였지만 그의 父親이 最初의 黑人將軍이었다.

「테이비스」將軍은 키가 六「피이트」—「인치」이며 體重이 一七五「파운드」인데 그 특박은 姿勢로 그의 키는 더욱 크게 보인다. 짧게 깎은 그의 머리카락은若干 亂髮의 姿를 보인다. 50년에 수업을 길고 있고 눈심과 눈심사이에는 訓練機의 墜落에서 입은 傷處가 있다.

그가 二十三年前에 「웨스트·포인트」陸軍士官學校에 드려진 以後에 입었을지도 未를 다는 傷處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테이비스」將軍은 그의 「블리블랜드」에서의 中學時節에 關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無意識中에 모은 問題에 對한 그의 態度를 明示하였다.

피나는 新聞配達을 하였다. //

하고 그는 過去를 回想하였다.

「어느 日曜日」에 우리는 幹部에 二「센트」를 벌었는데 그때 우리는 다른 新聞配達하는 少年들보다 훨씬 興味적이거나 지않으면 안될만큼 競争이 甚하였다. 어떤 때에는 新聞을 팔기 爲해서 자는 사람

을 깨워야 할 때도 있었다. 新聞을 파는 秘訣은 競争을 물리칠 수 있을만큼 興味적이거나는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말할 손님이 화를 낼만큼 일러서는 안되었다. //

오늘날 臺灣에서 「테이비스」將軍은 이와 똑같은 積極성과 재치를 必要로 하는 亭態에서 훨씬 더 冷靜한 競争에 直面하고 있다. 海峽 건너편에서는 中共軍이 「렛트」機를 收容할 수 있는 긴 滑走路를 가진 飛行場을 五個所나 新設하였다. 이를 飛行場에 있어서 美國과 極東의 聯合國空軍보다 二對一로 優勢한 共產空軍(스聯, 中共 및 北韓)은 數時間以內에 「렛트」機를 配置할 수 있는 것이다.

共產空軍力은 三, 〇〇〇臺의 MIG (스聯)이 現在 中共에게 供給하고 있는 MIG-17 新型機를 包含하여, 一, 〇〇〇臺의 IL-28 輕「렛트」爆擊機 (美國의 B-29에 該當한다), 二〇〇臺의 TU-4 (美國의 B-29에 該當한다) 및 約 一, 〇〇〇臺의 舊式戰闘機로 推算된다. 우리는 全體的인 比率에 있어서 優勢하며 보다 더 現代의 支援機를 가지고 있고

美第七艦隊의 機動性있는 攻擊力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軍은 다른 하나의 큰 利點을 가지고 있다. 卽 그것은 亞細亞에 있는 全共產空軍力이 한 中央集權의 司令部 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이다.

聯合國空軍力의 統制가 分割되어 있다는 것은 如前히 極東에 있는 空軍의 難點이며 이것은 臺灣에 재치있는 人物이 必要한 하나의 理由인 것이다.

昨年六月에 「테이비스」將軍은 空軍機에 依한 臺灣의 空中防衛를 責任지는 司令部를 設置하라는 命令을 받았다. 이것이 第十三空中機動部隊로서 同地域에 있는 모은 美國戰闘機隊를 統制하고 JOC를 통하여 十五個飛行大隊에 達하는 自由中國空軍을 訓練하고 또한 그와 協調하고 있는 것이다.

交戰狀態가 아닌 平常時에 있어서 第十三空中機動部隊는 比律賓의 「블라아크」基地에 있는 第十三空軍의 隷下部隊이다. 이 第十三空軍은 「하와이」에 있는 太平洋空軍의 隷下部隊이며 太平洋空軍은 太平

洋軍司令官「필릭스·스덜프」提督의 麾  
下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메이비스」將  
軍은 「라이만·메이니쎈」大將의 極東軍  
司令部에 있는 極東空軍의 管轄區域인  
「오끼나와」나 韓國으로부터 補給物資를  
얻고 戰鬪機大隊를 配當받고 있다.

그러나 萬一 臺灣이 交戰狀態에서 美國  
의 戰術地區로 化한다면 第十三空中機動  
部隊는 第七艦隊의 「스튜어트·H·잉거  
솔」海軍中將과 그의 副司令官인 「해롤드  
·W·그렌트」空軍少將이 指揮하는 美臺  
灣防衛司令部의 支配를 받게 될 것이다.

「메이비스」將軍의 任務는 臺灣에 있는  
美空軍部隊가 언제 戰鬪에 參加해야 하는  
나하는 時機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은 「잉거솔」提督이 決定하는 것이다)  
一旦 決定이 내렸을때 그것을 實踐하고  
指示하는 것이다.

그의 指揮本部는 綠色, 紅色 및 琥珀色  
의 數많은 電燈으로 裝飾된 臺北의 「푸우  
즈벨트」路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步哨가  
警備하고 있는 한 灰色建物안이 TOC室  
일 것이다. 이 곳에서 「메이비스」將軍은  
攻擊과 防衛任務를 指定하고 美國과 自由

中國의 戰鬪機隊를 하나의 攻擊刀으로 統  
合하는 命令을 내릴 것이다.

統合이 「메이비스」將軍을 비롯하  
여 軍服을 입은 모든 黑人들에게 個人的인  
意義를 가져온 것은 不過 七年前의 일이  
다. 即 「트루만」大統領은 軍隊에 있어서  
의 黑人과 白人部隊와의 分離를 終熄시키  
고 그 統合을 命令하였던 것이다. 그의  
父親이 陸軍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空  
軍에서 黑人의 指揮者가 되어 있는 「메이  
비스」將軍은 그의 燦爛한 武勳과 훌륭한  
人品과 魅力의인 夫人을 가지고 境界  
線을 突破하였다.

그는 缺點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軍人이다. //  
이렇게 臺北에 있는 한 海軍將校는 말  
하는 것이었다.

(데) 이비스」將軍의 軍人으로서의 個  
性은 「웨스트·포인트」에서 誕

生하였으나 그 個性은 그 곳에서 거의 死  
滅된 듯하였다. 「메이비스」將軍은 「웨  
스트·포인트」를 卒業한 네번째의 黑人  
이었다. 그가 士官學校에 入校한後 滿一  
年 동안과 그後에도 繼續적으로 그는 無言

의 冷遇를 받았었다. 公用以外에는 그 어느  
士官生徒도 그에게 말을 건너지 않았으며  
그는 혼자서 房을 쓰고 있었다. 다른 士  
官生徒들이 事實이 아닌 그의 點數를 늘  
여서 그를 退校시키려는 한 組織의인 企  
圖가 當時에 生徒隊長이 있었던故 「버어  
트·C·리차아드슨」中將에 依해서 挫折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메이비스」將軍은 끝까지 참고  
努力해서 一九三六年度에 卒業한 二七六  
名中에서 三十五位를 찾아하였다.

前 「웨스트·포인트」教官이며 現在 現  
개의 별(星)을 달고 있는 한 將軍은 그에  
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그는 내가 본 그 어느 士官生徒보  
도 가장 模範의인 生徒였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記憶하고 있다. 그는 똑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決코 變질로  
써지 않았다. //

士官學校의 卒業班때에 「메이비스」將  
軍은 飛行訓練을 爲한 筆記試驗에 合格하  
였으나 陸軍航空隊에는 黑人部隊가 없고  
黑人部隊를 創設한 計劃도 없었다는 理由로  
그의 志願은 拒絕당하고 말았다. 그리하

어 그는 步兵將校가 되어 한동안 「알라바마」州의 「러스캐기」大學 (黑人大學)에서 ROC (豫備將校訓練團) 教官으로 있었다. 日本이 眞珠灣을 攻擊하기 六個月前에 그는 「퀸사스」州 「프로트·다일러」에서 當時 第四機甲旅團長이었던 그의 父親의 副官으로 있었는 데 그때 航空隊로 부러 突然 그에게 身體檢査를 받으러 오라는 招請이 있었다.

黑人만의 한 戰團飛行大隊을 組織하려는 政策上의 決定이 있었던 것인데 當時 美國에는 單한名도 黑人의 陸軍操縱士는 存在하지 않았다. 一九四一年 五月에 「테이비스」將軍과 그 밖의 十二名의 士官生徒가 「러스캐기」陸士飛行場에서 最初の 黑人飛行班을 構成하였다. 其中 「케이비스」將軍을 비롯해서 六名이 卒業하였다. 不過 二週日 동안에 그는 大尉에서 少領, 少領에서 中領으로 뛰어올라갔으며 操縱訓練을 일으켜 六個月만에 그는 新設된 第九十九戰團飛行大隊長에 任命되었다. 急速度로 發展한 當時였지만 이것은 急한 일이었다.

指揮權을 가지고 있고 그部隊의 唯一

한 正規陸軍將校였으나 「테이비스」將軍은 그의 部下將校들과 同等한 操縱訓練 「레벨」에 있었다. 現在 空軍에서 中領으로 活躍하고 있는 그중의 한사람은 이렇게 當時를 回顧하고 있다.

우리는 軍服을 입은 民間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嚴格한 紀律을 을바드게 認識하지 못하였다. 어느날 우리가 演習에서 特別 좋은 成果를 達한 後였다. 查閱途中 그는 「스토오브」뒤에 「오렌지」 曠地에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發見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部下들에게 飛行機의 操縱을 가르치고 있었는 데 그 까짓일이 무슨 相觸이 있는냐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相觸이 있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도 讓步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第九十九戰團飛行大隊은 하나의 試驗으로 生覺되고 있었으며 「테이비스」將軍은 그 試驗을 반듯이 成功시켜야 하겠다는 決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第九十九戰團飛行大隊은 北阿作戰에 參加하기에는 너무도 늦게 海外에 派遣되었었으나 「시실리」島上 陸作戰時에는 爆擊

機를 護衛하고 地上을 掩護할 수 있었다. 「안지오」上空에서의 한 熾烈한 空中戰에서 第九十九戰團飛行大隊은 獨逸戰團機를 十五臺나 擊墜한 일이 있었다.

(그)

「미시간」州 「셀프릿지」基地로 부터 伊太利로 이 끌어 온 全黑人的 第三戰團飛行戰隊를 指揮하고 있었다. 後에 第九十九戰團飛行大隊도 이에 所屬하게 된 第三三戰團飛行戰隊는 六個月 동안에 編成되었던 것이다. 그後부터 第三三戰團飛行戰隊의 戰團機들은 第十五空軍의 爆擊機를 護衛하여 「반칸」諸國, 「플렌드」, 「루마니아」 및 獨逸의 長距離 離出擊을 敢行하였다. 「테이비스」將軍이 陣頭指揮한 伯林에 대한 一, 五〇〇 「마일」의 出擊에서는 獨逸의 292型 「젯트」機 四臺와 「프로펠러」戰團機 四臺를 擊墜하였던 것이다.

「테이비스」將軍은 第二次大戰中에都合二四時間에 達하는 戰團飛行에서 六〇回의 出擊을 하였다. 第三三戰團飛行戰隊는 그가 護衛하는 戰團의 爆擊機도 敵에게 주지 않았다. 同戰隊는 그 伯林에

對한 出擊에서와 樹功으로 大統領部隊表  
彰을 받았다. 「데이비스」將軍自身은 「실  
버 스타아」(銀星勳章) 「리저언 오브  
메리트」(功勞勳章) 및 「에어 메달」  
(航空勳章)을 받았다. 「데이비스」將軍  
이 勳章보다도 더 고맙게 여긴 것은 爆擊機  
의 搭乘員들이 「파아」에서 第三三二戰團  
飛行戰隊 操縱士들을 만나던 그들의 勇을  
일차 안고 술을 사주는 것이었다.

「當身들은 第三三二戰隊사람들이요? 우  
리는 언제나 當身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  
소」  
하고 依例히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다.

終戰後에 거의 모든 黑人空軍將兵은 「오  
하이오」州 「폴립버스」郊外에 있는 「덕  
크번」空軍基地로 轉屬되었는데 「데이비  
스」將軍은 同基地司令官兼 飛行團長으  
로 있었다. 그리하여 一九四八年에 軍隊  
內에서의 人種分離를 終熄시키라는 命令  
이 내려져 「데이비스」將軍은 그 變更을  
포우다는 命令을 받았다. 그와 「잭크·마  
하」中領은 空軍의 統合案을 起草하였으  
며 그것은 一九四九年 五月에 發効하였다.  
한 黑人少領은 이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職業的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우  
리가 「잭크레이스」(布袋競走)와 六〇「야  
아드」競走에만 制限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  
마일」競走와 「마라톤」에서도 競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데이비스」將軍은 「알라바마」州 「락  
스웰」空軍基地에 있는 空軍作戰大學에  
드러갔다. 卒業後에 그는 正式大領으로  
進級하였는데 그러한 正式進級은 八年만  
에 처음이었다. 韓國戰爭이 勃發한 十日  
後에 그는 「펜타곤」(美國防省) 作戰參謀  
副長 밑에 있는 戰團機課長에 任命되었다.

最近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그의 課가 「젯  
트」戰團機의 作戰에 어떠한 戰術上的 貢  
獻을 하였느냐고 質問한 적이 있었다. 「테  
일·카아네기」의 「人間處世學」으로부터  
「아놀드·로인비」의 「世界文化史」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讀書을 하고 있는  
「데이비스」將軍은 「로인비」의 말을 알  
기 쉽게 換言해서 「카아네기」가 들었으  
면 愉快하게 生學하였을 다음과 같은 말  
로 그에 對答하였던 것이다.

「戰術은 一線에서 이루어지고 後方에  
서 確認되는 것이다.」

그는 韓國과 日本을 거쳐서 오늘날 가  
장 危險한 戰線, 臺灣에 到達하였다. 그  
는 「젯트」戰團機의 操縱士로서 韓國休戰  
中에 第五十一戰團遊擊飛行團을 指揮하고  
있었다. 그後 그는 東京으로 건너가 極東  
空軍의 作戰局長職에 就任하였다.

一九五四年 十月의 어느날 그가 參謀會  
議에 參席하고 있을 때였다. 한 士兵이  
그에게 「멧세이지」를 가져왔다.

「只今은 안되, 나중에 보자.」  
하고 「데이비스」將軍은 若干 귀찮  
듯이 말하였다.

그래도 그 士兵은 잃어볼 것을 固執하  
였다. 「데이비스」將軍은 그것을 잃어보  
았다. 그리고 窓門밖을 내어다 보면서 말  
하였다.

「千萬 勿박연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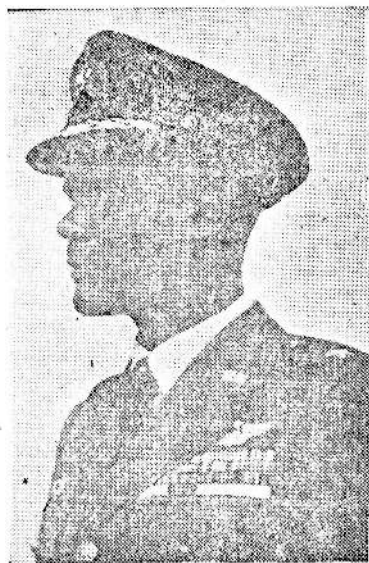
그 「멧세이지」는 그가 准將으로 進級  
된 것을 發表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가 별(星)을 얻게 된 것은 그해  
에 美國의 正副統領選舉가 있고 따라서  
黑人將軍을 任命하는 좋은 機會였기 때문

아라는 所開이 必然的으로 떠들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비스」將軍은 後日에 어떤 사람이 臺灣에 黑人司官이 存在한다는 것은 좋은 反共宣傳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깨를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 글세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

(東) 京의 「제이조·마찌」區에서 「데이비스」將軍과 그의 아내 「아가타」女史(前敎員)는 한 셋집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이웃에 사는 美國人과 日本人은 그의 門前에 // 「제이조·마찌」最初의 將軍이라는 看板을 세워놓았다.



// 「데이비스」將軍과 우익과 달은 點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의 「세단」車를 빌려탈 수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 이렇게 그의 한 이웃사람은 말하였다. 「더스케기」와 伊太利에서 「데이비스」將軍을 紀律에 嚴格한 軍人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다른 면도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일을 할 때에는 決코 讓步하지 않는 軍人의 模範이었다. 그러나 마듯한 社會의 雰圍氣는 그의 個性의 다른 면을 누하였다. 極東空軍將校俱樂部會員들은 一部 將校들이 故意로 迴避하였던 것을 發見하였다. 卽 그것은 「데이비스」將軍 夫妻가 매우 滋味 있는 사람이라 는 것이다. 「데이비스」將軍은 八〇點의 「콜프」를 쳤고 뛰어난 「댄서」였으며 「브릿지」(「트럼프」 놀이)의 一種)를 세 갈 하였다. 戰爭

美空軍 最初의 그리고 唯一한 將軍 「벤·데이비스」(二世) 准將

「데이비스」將軍 夫妻가 매우 滋味 있는 사람이라 는 것이다. 「데이비스」將軍은 八〇點의 「콜프」를 쳤고 뛰어난 「댄서」였으며 「브릿지」(「트럼프」 놀이)의 一種)를 세 갈 하였다. 戰爭

中에는 「진·사이트」(銃器의 照準裝置)를 檢査하고 郵便物을 分類한 일이 있는 그의 夫人은 어딘에도 볼을 알고 「데이비스」將軍夫妻에는 어딘애가 없다) 「브릿지」는 男便보다도 더 잘 하며 技藝事業 運動을 展開하기도 하고 婦人들이 몸이 편 언젠까지 그의 옷이 가장 아름다웠다.

「데이비스」將軍은 一個月以內에 그 機能을 發揮한다는 命令을 가지고 臺灣으로 派遣되었다. 그는 首都 臺北에 混雜한 都市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廳下에 있는 五〇〇名의 將兵을 爲한 宿舎, 食堂, 事務所 或은 通信施設等에 對한 準備는 全然 되어 있지 않았다. 「데이비스」將軍 廳下에 있는 한 大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 나는 二十三年 동안 空軍에서 일해왔지만 當場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短時日內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第十三空軍中機動部隊는 豫定대로 그 機能을 發揮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데이비스」將軍은 二十四時間을 繼續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無限한 精力家이다. 한때 中國立法院의 特別

措置나 蔣介石總統의 直談命令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生學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스」將軍은 必要한 것이 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期於코 얻고야 말았다.

自由中國人과 親해질 수 있는 「데이비스」將軍의 能力은 蔣總統夫妻에까지 미치고 있다. 일찍이 蔣總統은 그를 가트키 臺灣을 爲한 賢明하고 多幸한 人選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美空軍의 한 高級將星은 「데이비스」將軍은 外國政府에 派遣된 美國顧問官을 가운데 그들이 합쳐 인하고 있는 國民들로부터의 要請에 對해서 // 노오(否)라고 말할 수 있는 드문 顧問官이다. // 라고 말하였다.

平常時에 있어서의 「데이비스」將軍麾下部隊의 戰鬥力은 一個 「세이버젯트」大隊을 超過하지 않는 것이지만 臺灣海峽 附近에 있는 中共軍의 飛行場과 마찬가지로 迅速히 增援部隊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더 많은 「세이버젯트」나 或은 原子彈을 積載할 수 있는 F-84 G 「선머스트리크」機를……飛行大隊은 三、四個月이나 韓國과 「오끼나와」로 부

더 오는 部隊에 依해서 交替되고 있다.

(第)

十三空軍機動部隊가 存在한다는 事實은 自由中國人의 勇氣를 크게 북돋우어 주고 있다. 今年初에 그들은 元來 中國空軍司令部로 使用할 豫定이었던 新築地帶를 第十三空軍機動部隊에게 讓渡하였다. 「데이비스」將軍夫妻는 臺北郊外에 있는 中國式과 美國式을 單한 아담한 住宅에 살고 있다. 中國人들은 큰 거리에서 그 住宅으로 通하는 鋪裝하지 않은 道路를 // 「데이비스」將軍路 // 라고 불우고 있다.

美國戰鬥機들이 臺灣上空을 訓練飛行하고 있을 때 한便에서는 自由中國空軍機들이 中國本土를 偵察하고 있고, 偵(鳥)上空에서 MIG戰鬥機들과 小規模의 空軍戰을 하고 있으며, 海峽에서 中共船團을 捕捉, 改擊하고 있다는 事實은 容易히 理解할 기 힘든 일이다. 현재 大戰으로 爆發할 지 몰르는 이 // 小戰 // 은 「데이비스」將軍의 任務가 얼마나 重大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麾下將兵에게 充分히 認識시키고 있다.

// 아무리 못내기들이라 드 그들은 強한

使命感을 가지고 있다. // 美空軍의 한 歷職의 將校는 말하였다.

「데이비스」將軍은 食堂에서 將兵들과 한 「질」의 「커이피」를 나누면서 그의 // 使命感 // 을 이렇게 要約해서 말하였다.

// 우리는 마침내 亞聯人들이 多年間 中國共產主義者들과 더불어 能熟하게 해온 일을 現存하고 있다. 우리는 自由中國人들과 어깨를 나란히 訓練과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裝備를 가지고 그들을 教育하고 있다. 그것은 每日의 日課인 것이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友邦軍隊를 養成할 때까지 그들과 더불어 오래 일하면 할수록 訓練된 將兵의 數는 늘어난 것이다. M.A.G (軍事援助顧問團)과 더불어 우리는 自由中國人에게 더욱 「이니스 어티브」를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

// 臺灣이 우리의 軍事顧問團이 派遣되어 있는 그밖의 地域과 달른 點은 현재 戰爭이 突發할지도 몰르는 이곳에는 即時 戰鬥作戰의 體制를 確立할 수 있다는 點이 다. 그리고 우리는 臺灣을 防衛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內個人的 生覺으로서 는 우리가 이곳에서 強力한 軍事力을 維持하

고 있기 때문에 中共은 臺灣을 攻奪하지 않  
 으리라고 生覺한다. 그러나 그들은 앞바  
 다에 있는 섬(島)들에 對해서 砲擊을  
 加해왔으며 앞으로 그들은 中共本土沿岸  
 의 新設飛行場에 飛行機를 移動하여 이들  
 섬에 對해서 小規模의 空中作戰을 開始  
 할지도 未은는 것이다. //

// 타이커어(虎) // 왕이라는 別名으로 有  
 名한 自由中國空軍總司令官 王叔銘大將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

// 우리는 서로 理解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한 家族이 되어 이 友誼는 各階各  
 層에 한결같이 濃으로 있는 것이다. //

한 美國의 四星將軍은 「메이비스」將軍  
 이 臺灣에서 // 非常한 能力 // 을 誇示하였  
 다고 讚揚하였고 모하나의 // 美國의 四星  
 將軍은 그것은 「메이비스」將軍의 生涯에  
 있어서의 苦難에 幸福한 終止符를 찍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둘째의 四星將軍은 다시 이렇게 附  
 言하는 것이었다.

// 終止符는 그의 苦難에 찍힌 것이  
 지 그의 生涯에 찍힌 것은 아니다. 그의  
 生涯는 이제부터 始作되는 것이다. //

— 끝 — 「컬리어즈」誌에서

### ☆ 死亡한 婦人 蘇生 ☆

「메일론」市 病院當局者들은 一 의사가  
 死亡하였다고 斷定하고 死體公示所에 보  
 낸 一 婦인이 數時間後에 甦醒할 수 있었는  
 諸狀況을 조사중에 있다. 「웨일·볼시」女  
 史는 (四十四方) 거리에서 넘어진 후 入  
 院하였는데 의사는 同女史가 사망하였다  
 고 確證하고 病院車로 市시체공시소로 보  
 였는 것이다. 그러나 公示所에서 근무한  
 순경은 「볼시」女史를 甦醒시키에 勇으려고  
 할때 살아있다는 情狀을 보고 곧 病院차  
 로 病院에 返送하였는데 그 즉시 건강을  
 회복한결과 奇蹟이 奇蹟된 것이라 한다.

### ☆ 比國處女の 行進 ☆

비올린 傳統의 「비린다와」를 입고, 파츠  
 임으로 만든 「구리」하트」를 쓰고 「계  
 손」市內를 行進하는 比律賓의 處女들. 이  
 것은 지난번 계손市에서 開催된 故게손

初代 大統領의 生日 七十八週年 祝典에서  
 行하여진 行進의 하나이다.







# 故賢一은 갔으나

空軍少領 丁 海 瑛

六月절이 접어들면 과탈계 트인 하늘을 보고 골내 잊어버릴수 없는 향수에 마음이 젖은 한다.

어느듯 休戰 三年이란 무의미한 세월이 쓸살같이 지나쳐 버린 눈앞의 현실은 매양 嶽山 安易와 狡猾과 妥協만을 일삼는 것뿐이얌인가, 南北統一의 宿願을 이룩하기도 前에 恠히 他界의 客이 된 젊은 古人을 追悼하는 念 더욱 간절해 지며 작우란 떠오르는 그의 心 싱한 모습과 추억은 어느때 보다 六月 절이 닦아오면 더욱 뚜렷해 지기만 한다.

그가 散華한지 만 三年이 되는 이제 그 以前에 있었던 옛이야기들을 적어 보자는 부질없는 뜻은 행여 한 戰支의 晚話가 여러 戰支의 精神生活에 좀더 나아가선 은 겨레의 健闘意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가 해서이다.

// 골내 잊이 못할 날 //

禮紀四二八六年六月十三日, 이날역시 大關嶽에는 덕장구름이 마치 담벼락 같이 까맣게 끼어 용히하게 개인상 싶지 않았다. 잠시 東海쪽으로 과탈계로 인 하늘이 엷보였으나 十時를 접어들면서 부터 점점 더 日氣는 惡化조로 변해가기만 했다. 이틀은 戰友중엔 //

할도 포 [Cranell]이군 // 하더 사뭇 붙을 러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江陵前進基地에서 連日를 夜일무를 遂行하고 있었던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氣象의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지 않은 障害을 받았다.

六月五日부터 이날까지 氣象的 理由 때문에 戰鬪는 事實上 中斷되여 온 것이다. 그런데 十一時가 될무렵 오늘도 (Cenel)이라는 전담이 아난가, 이때에 모두를 意氣銷波하였다. 나는 이날 (Ichsan)에 있었으므로 賢一을 내房으로 데려왔다. 때마처 泗川基地로 다녀온 李總哲中尉(지금 은 少領)가 선뜻 들어온다. NOKI(TAPC)에서는 李德浩 中尉(지금 은 少領)가 와 있었다. 서로 반가워 잡는 握手가 交換되였다. // 야선물중 내 놓아라 // 대뜸 故人이 할말이다 李中尉는 서슴치 않고 들고 온 「텍」에서 MILKYWAY 二개를 끄집어 낸다. 나는 꼭 손을 잘라서 賢一더러 // 자네 것이 더 크다 // 했다. 이렇게 해서 셋이 호호한 단溝를 나누고 있는데 解消되였다

將 兵 欄

出擊準備을 하라는傳達이 청청벽벽같이 날려온게 아닌가? 故人은若干焦燥한 눈치로 房을 나섰다. 이렇게 헤쳐진後 아마 한時間은經過하였으리라. 이 미點心을 먹 고났다 그 하면서 그는 HELMET을 들고 나가 막 나서는 Casnet 모동으로 사라 지려하였다. //야 賢一아 // 이렇게 쫓는 말에 그는 勳을 아보고 웃는 얼굴을 지운다. // 오늘 돌아올때 寫眞찍어 줄께 // 나는 적지않은 好意에서 한 말이였다. // 애그만 두라야 // 대령 제편에서 달갑지 않은 눈치가 압인가? 나는쉬이 이것을 알아채고 多少無色해 했다. 그날은 하루 金直爽中尉( 지금은 大尉)의 百回出擊이 있는날이라 많은 ○市民이 歡迎次 나온 자부가 되어있었다. 현대 故人은 그 編隊員이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記念攝影이 무척기 로 있을 판국이다. 出擊가는 길에 寫眞찍는 일은 꺼려했지만 돌아온길에 撮影하는것은 싫지않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랬는 지 잠시머뭇하다가 // 그래 // 하고 살아 겠지만 嗚呼 그러나 그의 첫거절이 절대 적인것이 되고말다니 참 골잡은 노릇이었 다. 얼마후 많은 市民들이 編隊長 金中尉

의 百回出擊을 歡迎하러 나와 기다리는데 設置의 飛行戰艦 초라하게(적어도 우리를 눈에 그렇게 비쳤다)와서 내리는게 아닌 가 허겁지겁 引擎을 끄고도 編隊長은 내릴줄을 모른다. 한사람의 編隊員을 잃고 돌아왔으나 自己는 百回出擊의 榮冠을 쓰고 歡迎을 받아야 하느니, 眞實으로 피로 운 戰勝의 倫理였으리라. 무릇 靑史에 빛나는 東西將星들이 이렇게 貴重한 눈물을 뿌리고 足히 개가들 노래하여 온것일까? 잠이상야웃한일이였다. 戰友들은 저마다 編隊長 金中尉를 끌어내리고 추며질로 激動하는 것이 아닌가? 모두 말뚱말뚱한 눈물을 하고 있었다. 누구하나 故人의 戰死을 告하고져 않는 것이리라. 그러나 암하러는 그마음을 저시는 눈물이 작구만 흘러 내리는것만 같았다. 來日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가 나가서 復讐하여주마, 이렇게 내가카리는 측은한 마음이 있을것이 다.

〔最後의 攻擊〕

故 金大尉가 散華한곳은 韓國軍 第一軍 團前面인 杆城上空이였다. 遲遲하던 休戰會談이 거의 決定的段階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山嶽地帶인 東部戰線一帶는 彼我的 進退가 거의없었다. 따라서 이持久戰이 敵의 利點은 큰바있었다. 晝間에는 동굴 속에 파묻혀 있다가 밤으로 攻擊해오는것이라든지 假裝目標을 造作하는 일이라든지 나아가서는 高射砲를 裝備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每일처럼 三, 四編隊가 出擊하는곳이었지만 이렇게 敵地는 날로 變모하고 있는것이 分明하였다. 마침내 休戰協定이 오늘來日하구 익어가자 敵의 행패는 더욱 甚해가는 것이였다.

그날도 支軍 Mosquito (T-6)는 目標指示의 任務를 마우고 高度 4000feet에서 유유히 떠돌고 있었다. 金大尉編隊와 無電으로 連絡이 되였다. 四機의 Fighter 는 目標上空을 크게 한바퀴 돌면서 Mosqy [10에서 아로키는 目標을 認했다. 바루 1600 高地稜線上에 있는 敵의 野砲陣地였다. 高度는 700이다. // 攻擊準備 // 編隊長의 命令이 無電으로 내린다. 이속고 長機는 急降下로 目標을 겨누어 퍼린다. 故人은 바루 다음차떼에 急降下했다. 이때 敵진지는 산산히 은가루를 뿌린듯 했다는데 눈에 새빛한 光彩가 波濤처럼 빛

거렸다 한다. 이는 飛行에 危險을 敵의 企圖로서 最近에 生겨난 敵의 陽動이 었다. 한때 異常하게도 크게 急降下 하던 賢一飛行機의 왼쪽 날개가 마치 은행나무 잎처럼 떨어던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어느 틈에 敵의 砲彈이 날라와서 主翼支柱를 때린 셈이었다. 그러니 重武裝을 하고 急降下 하던 飛行機라 어느 틈에 뛰어내릴 틈을 얻볼 겨를도 없이 그냥 愛機와 더불어 墜했어 돌아 땅위에 爆破되어 瞬間에 火焰을 뿌리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目標에서 苦干 떠러진 山中턱이라 한다. 三番機는 그즉시에 불겨들이 없었겠지만 四番機는 이慘相을 目擊하면서 攻擊을 繼續하였다 고 한다. 이렇게 一回의 攻擊이 끝나자 눈에 불이 나게 걸린 그들이 몇 번이 구 몇 번이 구 그上空을 旋回하면서 攻擊을 되풀이 하였는 두말할 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골장 남때까지 그대로 攻擊만을 계속하고 싶어 했을런지도 모른다.

(爲人)

이제 나는 故人의 사담됨을 多少라도 傳하기爲해서 그가 生前에 좋아하던 일과 즐겨하는 몇가지 일들을 적어가면서 그의 孤

寂한 環境의 一端을 紹介할때가 되었다.

詩

// 나 보기가 녀겨워 가실때에는  
코이 보내 드리우리다.

寧邊의 藥山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

그가 즐겨 暗誦하던 詩句는 비단 素月の 것만은 아니었다. 只今은 남치當하여 가진 金岸曜先生이 空士에 나오심으로 해서 子先 그의 가슴을 불길럭 놓은 // 진달래꽃 // 이 地味한 그의 體臭처럼 되어 버린 셈 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이듬이여!

虛空중에 헤어진 이듬이여

불러도 主人없는 이듬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듬이여

그가 이같은 詩들을 暗誦하는 솜씨는 매우 세련된바 있어서 노상 들는이의 心琴을 울려주는 것이면 야릇한 힘이 作用하였다. 이는 作故한 後로 알려진 일이다.

살살이 故人 혼자 잔치해 들 수밖에 없었은 身元에 關한 事緣만이 곧잘 그 神秘性을 發揮해준 발판이 된거라고도 지금의 나

는 믿고있다.

그가 낳은 곳은 平壤近郊였으나 일찍 아버지를 日本 땅에 여이고 어린 누이동생과 어머니를 슬하에서 의롭게 자랐다. 中學時節로 말하면 平元線상에 있는 舍人場에 位置하였으니 順坦치 못한 理由였을 것이다.

드디어 어머니의 권유로 15세의 문해에 結婚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단하나의 아들을 保全하기爲해서 陰陽으로 애 쓴 어머니의 心情은 果然 어떠한 것이였을까? 우리가 敢히 헤아릴바 못되리라 하지만 그後 얼마도 못가서 波란은 激蕩해졌다고 한다. 도시 自由없는 땅 어린마음에도 精神的인 不滿만 날로 자라서 어려운 家庭살림에

그마음을 불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드디어 그는 外形上으로는 離婚을 當하다 싶이 하면서 單獨越南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當時의 混亂된 以南社會가 그를 반겨 맞아줄 리는 없어서 동경하든 進學代身에 實業(유리) 商界에 投身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勿論 그러나 中에는 速記學校를 다닌다 自習을 한다 하고 들들이 工夫에 沒頭하면서 二年이 되는 歲月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자 空士校에 應試할 生覺으로

手續하는중 甲洙라는 本名代身에 賢一이라는 이름으로 世上에 나왔다가 것이다.

以上이 그의 葬儀式에 오셨은 의숙(盧氏)의 말이다. 나는 當時에 하루 어리둥절하여서 새로 接한 그 事緣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미처 깨어볼 念도 못내었을 뿐더러 親友하던 自體가 쑥스러운 일 같은 느낌을 예우어 볼수가 없어서 醜態였던것을 記憶한다. 그러나 이제 그가 生前에 愛誦하던 詩句들을 通해서 足히 그 道理解해 볼수 있는 일만이라도 여간 다행한 일 아니나.

// 傳說바다에 솟추는 밤물결같은  
점은 귀뿔머리 휘날리는 어련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것도 없는  
사질받치는 안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지고 이삭줍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

//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리야 // 이때에 그의 朗讀하는 柳揚은 最高調에 達하는 것이다. 或은 // 나는 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귀여운 의아를 나는 王이로소이다 // 본가 // 그날이 오면 // 하고 絶叫하는 詩句의

음음이 타든지 只今 生覺해 보면 모두가 그의 지난날을 발판으로 하고 現實을 꿰뚫어는 울부짖음으로 一脈相通하는 야릇한 힘을 나타顯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가 각 別이 좋아하기는 朴斗鎭氏나 朴木月氏의 詩였다. 只今도 나는 그가 速記體로 매겨 놓은 이분들의 詩帖을 保管하고 있지만 여기에 一々 別記한 거문도 없으므로 다만 그가 좋아하는 詩의이나 풀어 보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그의 片紙를 받아본 이는 이 詩의를 目擊했겠지만 그字源인적은 바루 제미언字다. 어느때가 日本放送을 듣고 있던 中 나는 이런 質問에 接한 일이 있다 // 비를기가 좋으나 제비가 좋으나 // 구이떨때에 故人이 살아 있다면 아마 서슴치않고 제비라 하였으리라. 그後로 겨울이 가고 江南갔던 제비가 도라온것을 본적마다 나는 異相한 思念에 잠겨군 한다. 이미 아득해 진 잊혀진 오늘에 敵陣上에서 散華한 故人이 이제금 제비와 같은 차림새로 나의 周圍를 徘徊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그것이다.

// 살아서 설던 죽음

죽어스매 이내 앉서럽고  
언제 무덤속 완히 비쳐술

그런 太陽만이 그리우리

( 朴木月氏의 墓地頌의 一節 )

이 句節은 왜 그렇게 되풀이해 의웠는지 마침내 戰場터에 때부서터기문 무려놓고  
사뭇 太陽이나 실컷 맞고있으리 .....

( 노래 )

詩와 노래는 아주 매놓을 수 없는 位置라 하였다. 하지만 詩想과 聲帶와는 아주 判異한 條件임으로 이들의 兼備를 期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故人은 別名처럼 해 팔바가지라 할만큼 變속한 편은 아니지만 여간 상상한 코와 날센 눈살을 가졌다. 키는 一m七十內外로 꼭 참할 程度인데 일단 舞臺에 오르면 노래는 마치 雄辯이었다 은뿔을 쥐어짜듯이 바르르떨며 불러대는 가락은 제아무리 무뎠던이의 가슴도 누여 놓고야 마는 것이다.

// 비를피는 능나도 언제나 그리운 섬

푸른잔디 위에서 기라에 슬기며  
자랑의 노래 부르든 그날 그때가 그리워  
夕陽빛 붉어지면 그때가 그리워  
고슬버들 드린섬 언제나 그리운섬 //

이렇게 한곡조 뽑고나면 박수와 再囀이 쓸아진다. 비단舞臺에서뿐 아니라 그는 일

마나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모질고 고된  
時間일수록 足히 그 때 값어치는 상당한  
指數를 보여 주었다. 故人을 끼고 읊은 것이  
詩요 부른 것이 노래다. 이제 그때 가장  
유쾌하던 몇몇 노래는 지금도 우리들 同期  
間에 골 잘 불리어 지고 있다. 그중에 世  
상에 알려지지 않은 노래로

// 파릇한 봄날의 물에

능글꽃 필적에

봄나비 한마리가

날려왔다.

나는 나비의 마음을 알수 없어도

나비는 나의 마음을 아는가 보다.

파릇한 봄날의 물에 능글꽃 필적에

봄나비 한마리가 날려왔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들인가? 이런 노

래들 누가 짓고 누가 작곡했는가? 는 건 허  
우리의 알배 아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날  
라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賢一이가 볼  
려낸 노래로 足한 것이다.

봄날의 물에 나비와 같이

아름다워라 任아 추는구나

가슴에 못인 잠미꽃은

팔장개 펴며

그리워라 내任이여

銀鑲의 WALTZ

이렇게 노래만은 사뭇 즐겁고 輕快한 것이

였지만 名實相符하게 한번 놀아본 겨를도

없이 若冠二十六歲를 一期로 못내 가시발

길을 더듬어 가시나니.....

끝으로 나는 그가 우리들 기억에서 永永

### ☆ 小麥 肉類에 키 큰다 ☆

日本官吏들은 日本人의 身長을 西洋人  
과 같이 크게 發育시키기 위하여 濠洲人  
의 定食을 연구차 三日 東京으로 부터 空  
路「시드니」에 비래하였다. 日本 衆議院

議員(中島)氏 食糧機關官吏(우니지마)氏  
및 日本製粉業者代表 高橋氏 등은 앞으로  
數週日間に 亘하여 濠洲의 小麥工業을 시  
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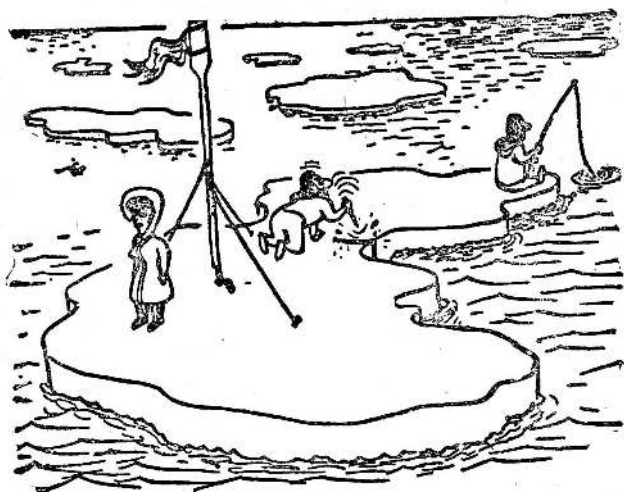
中島氏는 日本人은 現在 米食을 少量으  
로 濫取하고 小麥과 肉類를 多量으로 攝

하여날수 없음과 같이 그는 우리들 마음속  
에 깊이 相觸하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 그  
가 읊어 주든 詩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그  
가 불려주는 노래가 우리들 입가에 넘나드  
는 한 우리는 결코 그의 죽임을 헛되이 하  
지는 못할 것이다. 기억도 南北이 統一되  
는날 只今은 우리가 保管中인 그의 遺品  
들을 以北에 계신 어머님에게 傳達하게 될  
때 모를지이 우리는 그 자리를 흰꽃으로 나  
마 수놓아야 할일이 안이겠는가? 이는 오  
로지 우리 同期間의 같은 團結과 韓國空軍  
威力에 寄與할 우리의 使命을 完遂하는 일  
에 있다 할 것이다. (끝)

4299.6.13

少領 丁 海 英 謹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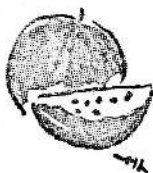
取하도록 敎示을 받고 있다고 言明하였  
다. 日本의 初等學校 아동들에게도 빵이  
無料로 提供되고 있다.  
日本人의 身長을 보다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連載>

# 韓國古典解說

(二)



## 李生窺牆傳

(이생이 담너머 엿본 이야기)

### 李 明 九

개성인 옛 송도(松都)에 이생이란 총각이 있어 낙타교(駱駝橋) 근처에 살고 있었다. 나이는 十八, 타고난 성품이 뛰어났으며, 시(詩)에 대한 재주도 비상하였다. 학문에 뜻을 두어 당시 국학(國學)에 다니며 공부하였으되, 길에서도 시를 읊으곤 하였었다. 한편 선죽리(善竹里)에는 큰 귀족 최씨(崔氏)가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나이 十五, 六才된 딸 최랑(崔娘)이 있었다. 그 아릿다운 모습은 이부 말할 수 없었으며, 자수(刺繡)의 솜씨가 능난할 뿐 아니라 또한 시부(詩賦)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풍류 재자 이생이요

요조 숙녀 최랑이로다

그 재주 그 인물을 보면

가슴 속마져 후련해 지네

라고 노래까지 지어 읊으게 된 것이었다.

이생은 책을 옆에 끼고 학교에 다니었는데 그 길은 최씨집 북쪽 담 밖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담 밖에는 수양버들 수십그루가 아름답게 늘어서 있어 이생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곤 하였었다. 하루는 역시 그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우연히 그 담 안을 엿보았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들은 봄을 마치하여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벌이나 나비들은 다루어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듯하였다. 그 곁에는 조그마한 누각(樓閣)이 있어 꽃숲 사이에 은은히 비치어 있었다. 그 다락에는 구슬로 꾸민 발을 반이나 가리우고 비단 장막은 나즈막히 드리운 가운데에 어여쁜 한 처녀가 앉아 있었다. 그 손을 놓다가 지친양 바늘을 멈추고 손으로 턱을 꼬이고 그윽한 눈이 바라보고 있더니 시 한편을 읊으는 것이었다.

홀로 사창(紗窓)에 비기니

수 놓기도 귀찮은데

은갓꽃 초터진 속에선

피프리만 노태하네

헛되이 앉아있어

봄바람을 원망하니

말없이 바늘 멈춰

이러 생각 저러 생각

X X

길 위에 저 총각은

귀집 도련님고

푸른 옷넙은 피에

수양버들 비치었네

어찌런이늬이 시어지어

나는 제비 되었으면

주렴을 나죽히 벗어나서

진답위에 솟아 앉으리

이생은 이시를 듣고 마음이 몹시

간질간질 하였으나 그러나 답은 높

고 들은 깊숙하여 어찌할 도리도 없

어 그저 가버리고 말았었다. 학교서

돌아올 때 한 피를 내어 흰 종이

에 시 세 수를 써서 기왓 쪽에 매어

담안으로 던지었다.

무산 육육봉에는

안개만 절경이 쌓여

반이나마 나타난 뉘러

불고도 푸르른 언덕이로세

고운넝 외로운 꿈을

피롭히지 마르고서

구름과 비 뉘를 들어

양대 위에 나리어라

X X

타문군을 보려는

사마상여라

하고 많은 사랑은

넘쳐 흐르네

붉은 담 머리 위의

아릿다운 복사꽃

바람에 날고 날려

어느 곳에 떨어질꼬

X X

좋은 인연일꼬

도시 나쁜 인연일꼬

헛되이 시름에 쌓여

날이 가고 해 바뀌네,

수불 여덟 시외 구절

중매 노릇 이미 이뤄

언제나 고운님 만나보아

즐거움을 나누우리

최랑은 시녀 향아(香兒)를 시켜

그것을 가져다 보니 곧 이생의 시였

다. 피똥고 거듭 읽어 보고 마음에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조고

만 종이에 또한 글자 여덟을 써서

던지니, 즉

將子無疑 昏以爲期

(그대는 의심치 마르시고 오날

저녁으로 기약할 합시다)

이생은 그 언약과 같이 날이 저물

자 최랑을 찾아갔다. 도화나무 한



가지가 담 밖으로 배쳐 있는데 무  
엇인지 간드러지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었다. 가차이가 보니, 그것은  
그네 줄이였으며 대 광주리를 달아  
드리워 있었다. 이생은 그 줄을 잡  
고 올라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 마  
침 달은 등산에 솟아 꽃 그림자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맑은 향기  
는 끝없이 아름다웠다. 이생은 마치  
신선 세계에나 들어선듯 마음 속으  
로 즐겁게 생각은 하였으나 한편  
이러한 정다운 일이란 비밀의 일인  
지라 두려워 머리카가 곤두스는 듯도  
하였다. 좌우를 둘러보니 여자는 향  
아와 더부러 꽃 숲 속에 있어 서로  
꽃을 꺾어 들고서서는 한결에 자리를  
깔아 놓고 있었다. 이생을 보고 향  
긋이 웃으면서 먼저 지 두 구절을  
 읊으는 것이었다.

복사나무 가지 가지

꽃들도 탐스럽고

원앙의 잠자리엔

달빛도 어여피랴

이생은 이 노래를 받아 그 다음  
을 읊었다.

다른 날에 봄소식이

소리없이 흘러나면

무정한 비바람에

그 아나 가련한가

여자는 이 노래를 듣자 낮빛을 고

치며

『저는 본시 당신과 더부러 부부가  
되어 기리 출거움을 함께 맺고져 하  
는데 당신은 무슨 말씀들이 다지도  
급히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일지  
라도 마음과 뜻은 태연하거늘 장부  
의 의기로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까.  
꽃날 이러한 규중의 일이 제여나가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일이 있  
드라도 제가 몸소 당할 작정입니다  
향아야 방에 가서 주과를 가져오너  
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추위는 적적  
하여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생은 여기가 어찌나고 물었다. 여  
자는

『이곳은 북쪽 뜰 가운데에 있는 조  
고만 누각 밑입니다. 제가의 밭이타  
부모는 저를 띄어나 사랑하셔서 연  
못가에 따로 이러한 집을 지으시고  
봄철을 마지하여 꽃들이 난만히 피  
게 되면 시녀와 함께 여기서 출거이  
늘게 하신답니다. 부모님 계신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 비록 웃고 이야  
기를 하여도 그리 쉽게 들리지는 않  
는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아름다운 술을 한  
잔 달이 이생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오늘의 출거움을 노래하  
는 시 한 편을 읊으는 것이었다. 이생  
도 그에 화답하였다. 시 읊음이 끝  
나자 여자는,

『오늘의 일은 결코 작은 인연이 아  
니오니 저를 달아오시어 출거움을

이루도록 하시지요』

말을 마치자 북쪽 창으로 들어갔으며 이생도 또한 좃아 들어갔다. 방안에는 계단이 있었으며 계단을 올라가니 과연 다락이 있었다. 방안에 차려놓은 문방책상은 모두가 맑고 도어여뻤으며 한 벽에는 연감접장도(烟江疊嶂圖)와 유황고목도(幽篁古木圖)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가 명화(名畵)이며 누구의 지은 바인지는 모르나 그림 위에 시가 써여져 있었다.〔詩는 省略한〕

한쪽에는 따로이 조고만 방이 하나 있어 장막이나 금침이 또한 깨끗히 차려있었다. 장막 밖에는 사향(麝香)이나 난고(蘭膏)를 다리는 향내가 나고 서로가 빛나고 비치는 모습은 황홀하여 마치 대낮과도 같았다. 이생은 처녀와 더불어 그 즐거움을 다 하였으며 드디어 이삼일을 그에 머물렀었다.

하루는 이생이 최랑에게 말하였다.

『성현의 말씀에 부모님이 계시면 나가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방향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안을 못드린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읍니다. 어버이께서는 필시 문을 비껴 바라볼 것이니 어찌 사람의 자식된 도리라 하겠음니까』

여자는 추연하여 울다 하고 답을 던져 보내주었다. 이러한 이후부터 어머니 찾아가는 저녁이라곤 없었다. 하루 저녁은 이생의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로 말하면 바야흐로 성현의 인의(仁義)의 말씀을 배우고져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즈음은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이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이냐. 필시 경박(輕薄)한 놈이 되어 담을 넘어 나무를 함부로 꺾는도다. 일이 환히 나타나고

보니 사람들이 모두 내가 자식을 염히 가르치지 않는다 나무래며 한편 그 여자도 말하면 높은 귀족의 집이라 필시 너의 미친 짓으로 하여 그 외가문을 더럽히고 사람 집에 죄를 얻음이 또한 저지 않은 일이라다.

『어는 빨리 영남(嶺南)으로 내려가 일꾼을 거느리고 감농(監農)이나 하소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리하여 바로 이른 날 울주(蔚州)로 쫓겨 내려가고 말았다. 최랑은 저녁마다 꽃밭에서 기다렸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종시 오지를 앓었다. 최랑은 그가 혹시 병이나 알른가 하여 향아로 하여금 이생 집이 웃에 가서 가만이 알아보게 하였다. 이웃사람 이야기는 이생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간지 이미 수개월이라는 것이었다. 최랑은 이말을 듣자 바로 병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리 저리 병석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보니 음식이 입에 들지 않을

히며 받은 갈기갈기 흐른 말이요  
 고운 살결은 까칠하게 말려들었다.  
 부모는 이상히 여겨 그 병상을 물으  
 나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부모  
 들은 최랑의 대바구니를 슬며시 두  
 저보았다. 그리하여 최랑이 그 전날  
 이생과 주고 받은 시를 얻어 내었다  
 그리고는 무릎을 쳐 놀라며  
 『아뽀사 하마드면 우리 딸을 잃어  
 버릴뻔 하였구려.』  
 하고는 이생이 누구인가를 묻게 되  
 었다. 이에 이르러서는 최랑도 다시  
 감출 도리 없어 가는 소리로 겨우  
 부모에게 말하였다.  
 『길러 키워주신 은혜가 깊은 어버  
 이에게 어찌 숨기오리까. 남녀의 서  
 로 느끼고 기뻐함은 인정의 극히 중  
 한 것이므로 옛 노래나 글에도 이에  
 대한 찬송이나 경계한 말이 하나들  
 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포류(蒲柳)같은 가냘픈 몸으로서 남  
 녀의 의(義) 아닌 즐거움을 반성치

않고 파오를 범하여 사람들의 웃음  
 을 입이며 방탕한 짓을 하였으니  
 죄는 이미 가득 찼으며 추치를 가  
 문에 미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생을 한번 여윈 뒤로는 천가지 원한  
 이 쌓여 풀어지게 된 약한 몸으로  
 수심에 쌓여 홀로 있음을 견디려고  
 하오니 정든 마음은 날로 깊어가고  
 따라 병세도 날로 위중하여 거의 죽  
 을 땅에 이르러 장차 중한 귀신이  
 될 듯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  
 약에 저의 소원을 이뤄주시면 남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옵고 혹 그렇지  
 않아 저의 정성에 어긋나면 죽음이  
 있을 뿐이읍니다. 그리하여 이생과  
 더부러 다시 저승에서 만나 따를 것  
 이고 맹세코 다른 가문을 좇지는 않  
 으렵니다.』  
 이에 이르러 부모는 이미 그 뜻을  
 짐작하고 다시는 병 증세는 묻지 않  
 고 여려가지로 달래어 그 마음을 위  
 로하고는 매작(媒妁)의 예를 갖추

어 이생집에 보내었다. 이생의 아버  
 지는 최씨의 문벌을 물은 뒤에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  
 고 바람을 내었다 할지라도 학문에  
 정통하고 인물도 그만하니 다른 날  
 대파에 급제하여 이름은 세상에 들  
 념을 바랄뿐 아직 그리 급히 혼사  
 를 구하지 않겠오』  
 이 말을 매자는 곧 돌아와 고하니  
 최씨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한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귀백도  
 령의 재화(才華)가 사람에게 귀여났  
 다 합니다. 지금은 비록 공손하드라  
 도 장차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속히 즐거운 잔치의 날  
 을 정하여, 두성이 합침이 좋지 않  
 겠읍니까』  
 매자가 그러한 말로 이생 아버지  
 에게 고하니 이씨는  
 『나도 또한 어려서부터 책을 잡고  
 공부할 한다 하였으나 나이는 늙어  
 도 아무 이루운 것 없고 노복들은

도망가고 친척이라 도움도 없어 삶  
이 거칠고 생활이 가난합니다. 그러  
하니 귀족 백에서 어찌 가난한 신비  
로 써 사위를 삼겠다고 하십니까.  
이 필시 일 종와하는 사람이 나의  
집을 지나치게 칭찬하여 귀택을 속  
이려는 것이 아니겠으니까」

매자가 돌아와 고하니 최씨는 또  
사람을 보내어

「남재외 모든 예물이나 의복 등은  
저희들이 모두 가져올 것이오니  
오직 좋은 날을 가리어 화족의 날을  
정하심이 어땠겠습니까。」

매자가 이와같이 전하니 이씨는  
그 간절한 정에 다소 마음을 풀터고  
사람을 울주로 보내 이생을 불려 올  
려, 그 뜻을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한 편을 지었다.

깨어진 종 등줄 등줄

다시 모일 때 이르나

은하수 오작들도

고운 때를 돕는도다.

이제야 월하 홍승(月下紅繩)

굳게 굳게 끌어 매어

봄바람 산들 불세

두견새를 현망 마라

최랑도 이 이야기들 듣고 병 또한  
겨우 낫게 되었다. 또한 시한 수를  
지었으니

나쁜 인연이란

이 좋은 인연인가

옛날의 굳은 맹세

이제야 이루어나

어느 때 님과 함께

저가 마를 끌어 올고

아이야 날 일켜라

꽃 비너를 다스리련다.

이에 길일을 가리어 드디어 혼매  
를 이뤄 다시 정을 잇게 되었다.

부부가 된 후 두 사람은 서로 사  
랑하고 존경하기를 마치 손을 대하  
는 듯 하였다. 이듬해 이생은 대파에

갑제하여 빛나는 벼슬에 오르니 그

이름이 조정에 빛나게 되었었다. 그

러자 신촌년(辛丑年 高麗恭愍王十年

을 가리킨)에 홍건적(紅巾賊)이 서

울을 노략하며 상감께서는 경복안

동으로 피하시고, 도적들은 집을 불

사르고 인축(人畜)을 살육하여 부

부 친척이 서로 보준치 못하여 동서

로 호러져 목숨을 도망하였다. 이생

도 가족과 함께 깊은 산골에 숨었더

니 한 도적이 있어 칼을 빼어들고

따르는지라, 이생은 겨우 몸을 빼어

벗어났으나 최랑은 도적에게 잡히고

말었다. 도적이 최랑을 어지럽게 하

고저함에 최랑은 크게 꾸지저

「악귀 늑마 나를 먹으려느냐 내

차라리 죽어서 시랑(豺狼)의 밤이 될

망정 어찌 개되지같은 늑의 짝이 되

리오」

그러자 도적은 노하여 칼로 죽이

고 말었다.

이생은 거치른 들에 숨어 겨우 목

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이 이미 다 섬  
멸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의 옛  
집을 찾으니 날리통에 불에 타버린  
구 없었다.

다시 최랑의 집에 이르니 집안이  
황량하여 쥐새의 울음만 들려 슬픔  
을 스스로 이길 수 없었다. 최랑을  
처음 만났던 소루(小樓)에 올라가  
는물을 거두고 기러 탄식하였다. 어  
느듯 저녁이 되어 쓸쓸히 홀로 앉아  
지나간 행복을 생각하니 꼭 꿈과도  
같았다. 한밤중이 거의 되자 달빛은  
조미하게 집을 비취는데, 남하를 결  
어오는 소리가 들리어 왔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곧 최랑이었다. 이  
생은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는 있  
었으나 사랑함이 지극하였는지라 다  
시 의심치 않고 급히 물었다.

「어찌에 되었다가 이리 생명은 온  
전히 하였오」

최랑은 이생의 손목을 잡고 기러  
탄식하며,「그사이 자기의 설어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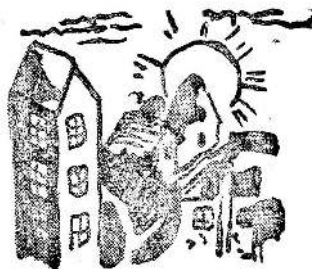
을 말하고 다시 살림을 이어나갈 것  
을 말하였다. 이생 또한 그 말에 즐  
겁고 감격하여 서로 그 동안의 그림  
던 정을 풀고 산골에 갈추어 두었던  
재물을 찾아 집을 수리하고 두 집  
부모의 시체를 거두어 오관산(五冠  
山) 기슭에 예를 갖추어 합장을 하  
였다. 그 후 이생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호터졌든 노  
부들도 다시 모이며, 이로부터 이생  
은 인사(人事)에는 조금도 뜻이 없  
어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최랑과  
더부러 혹은 시를 읊으고 화답하며,  
행복한 생활에 어연간 수년이 지났  
다. 하루 저녁은 최랑이 자기는 그  
만 가야한다고 호느껴우는 것이 있  
다. 이생은 놀라 그 이유를 물으니,  
「명수(冥數)는 회할 수 없는 것입  
니다. 천제(天帝)는 제가 당신과 더  
부러 그 원분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  
고, 또 이렇다할 죄도 없음에 저를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 당신과의 남  
은 정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 인생에 머무러 산 사람을 속일  
수 없답니다.」

그리고는 시녀에게 술을 내여오게  
하고 옥루춘(玉樓春) 한 곡을 노래  
하는 것이었다. 한가락마다 눈물을  
흘림에 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생 또한 비감하여 백년  
을 같이 산 후, 같이 흙으로 도라가  
기를 청하나 최랑은

「당신의 목숨은 아직 더 남아있고  
저는 이미 귀록(鬼錄)에 이름이 올  
라 오래 보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그리워하여 규축에  
벗어나면, 비단 저에게 죄가 나릴 뿐  
아니라, 화는 또한 당신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남은 해골이  
어느 곳에 호터져 있사오니 저를 불  
상히 여기시거든 비바람에 띄이지  
않게 거두어나 주십시오.」

서로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최랑은 몸조심 하옵소서」  
말이 마쳐자 그 자취는 점점 사라져  
아즈 없어지고 말았다. 이생은 그  
때를 거두어 어버이 무덤 옆에 장사  
를 지냈고 장사를 마친 후 이생 또  
한 최랑 그리운 마음에 병이 들어  
수개월이 못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  
고 말았다.

(筆者 成均館大學 教授)



戰  
爭  
과  
國  
際  
法

朴 觀 淑

一、戰爭의 意義

戰爭은 여러가지 見地에서 또 여러가지 角度에서 考察하여 그 定義를 내릴 수 있으나 法的 見地에서 본다면 한 마디로 國家間의 武力에 依한 鬪爭關係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戰爭은 國家間의 鬪爭關係이다. 따라서 國家와 個人과의 鬪爭이나 個人과 個人과의 鬪爭은 戰爭이 아니다. 또 一國家內에 있어서 正統政府와 叛亂軍 사이에 武力에 依한 鬪爭가 버러지더라도 이것은 國內的인 內亂 또는 叛亂關係에 지나지 않으며 戰爭은 아니다. 그러나 正統政府를 相對로 하고 武力鬪爭을 展開하고 있는 叛亂軍이 本國政府 또는 外國으로부터 交戰團體로서의 承認을 받게 되면 그 叛亂軍은 內亂이 繼續되는 동안 一時的

으로 戰爭의 主體로서 認定되며 따라서 그 內亂關係는 一時的으로 戰爭關係로 認定된다. 그런 意味에서 戰爭은 原則的으로 國家間의 鬪爭關係이지만 例外的으로 一國家內에 있어서의 正統政府와 交戰團體와의 關係도 依準하는 關係로 된다. 다음에 戰爭은 國家間의 武力을 中心으로 한 鬪爭關係이다. 勿論 最近에 와서는 戰爭樣式이 많이 變遷되어 戰爭은 過去처럼 單純한 武力戰에 그치지 않고 武力以外에 經濟力、思想力、宣傳力 등의 要素가 相當히 加味되고 따라서 戰爭은 武力戰인 同時에 經濟戰、思想戰、宣傳戰으로서의 性格을 띠게 되어 所謂 國家總力戰의 樣式을 갖게 된 것 만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現今에 있어서도 戰爭이 亦是 武力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는 點은 變함이 없으며 武力鬪爭이 아닌 鬪爭關係는

戰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지를 所謂「冷戰」이라는 말이 流行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武力에依하지 아니한 對立狀態를 말하는 것으로서 法的으로는 無意味한 것이다. 끝으로 戰爭은 國家間의 鬪爭關係 또는 鬪爭狀態이며 個個의 鬪爭自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戰爭은 開始로부터 終了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武力鬪爭이 連續되는 것은 아니며 途中에 鬪爭自體는 中斷되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戰爭關係는 繼續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戰爭途中에 休戰協定이 成立된다 하더라도 武力에 依한 鬪爭 即 鬪爭行爲는 中止되지만 戰爭關係는 終了되지 않는다. 戰爭關係는 다시 正式 講和에 依하여 비로소 終了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戰爭은 開始로부터 終了에 이르기까지의 一連의 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個個의 鬪爭은 「戰爭」이 아니고 「鬪鬪」이며 말하자면 複數의 鬪鬪가 합쳐서 하나의 戰爭關係가 成立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戰爭은 國家間의 武力에 依한 鬪爭關係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戰爭은 여러가지原因에 依하여 또 여러가지 目的을 爲하여 發生되고 遂行된다. 따라서 戰爭은 侵略戰爭, 防衛戰爭, 紛爭解決을 爲한 戰爭, 制裁를 爲한 戰爭等 여러가지로 區分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意味에 있어서는 모든 戰爭은 國家間에 一定한 紛爭이 發生하고 이 紛爭이 當事國間의 平和的인 方法에 依하여 解決되지 않을때에 當事國이 이를 自己의 意思대로 解決하기 爲하여 武力을 使用할때에 發生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런 意味에서 戰爭은 國家間의 紛爭解決을 爲한 最終的인 그리고 가장 強力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侵略戰爭이라던가 自衛戰爭이라던가 또는 制裁를 爲한 戰爭 같은 것은 一見 紛爭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侵略戰爭도 結局에 있어서는 一國家가 다른 國家에서 一定한 要求를 提出하고 이것이 受諾되지 않을때에 侵略行爲로 나오는 것이 普通이므로 亦是 紛爭과 關聯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自衛戰爭이나 制裁를 爲한 戰爭도 侵略行爲를 防衛하기 爲한 또는 이를 制裁하기 爲한 行爲이니 만큼 亦是 紛爭과 關聯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넓은 意味에 있어서는 戰爭은 國家間의 紛爭解決을 爲한 最終的인 自力救濟行爲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二、戰爭의 禁止와 犯罪化

흔히 人類의 歷史는 戰爭의 歷史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만큼 戰爭은 頻繁하게 이려났던 것이다. 그런데 歷史的으로 보면 大體로 第一次世界大戰까지는 國際法上으로 戰爭은 禁止되어 있지 않았다. 勿論 國際法の 始祖라고 불리우며 있는 휴고-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以來로 여러 學者들이 戰爭은 適法한 戰爭과 不法한 戰爭으로 區分하려고 努力하였고 또 不法한 戰爭을 禁止하려고 努力하였으나 結局 그 努力은 水泡에 도라가고 國家가 一定한 目的을 爲하여 戰爭에 呼訴하는 것自體는 不得已한 것이라고 하여 法的 規制의 範圍밖에 放置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대에 있어서는 다만 戰爭이 開始된 後에 있어서의 武力行使 即 加害手段에 對하여서만 어느 程度의 禁止 乃至 制限을 하는 데 不過하였다. 即 主로 人道主義의 見地에서 非交戰者에 對한 攻擊禁止 一定한 武器의 使用禁止, 無防守地域 및 非軍事目標의 砲擊爆炸禁止, 捕虜, 傷病者의 保護等を 規定한 것이 그 例이며 이러한 加害手段制限法規는 一九〇七年에 相當히 廣範圍하게 成文化되었다. 이와같이 一次大戰 前에 있어서는 戰爭開始自體는 統制하지 못하고 다만 戰鬪行爲에 對하여서만 어느 程度의 統制를 加하였는데 이러한 方法으로서는 到底히 戰爭의 弊害를 根本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음은 勿論이다.

그런데 一次大戰이 끝나자 이번에는 한기를 더 나아가 戰爭自體를 禁止하려는 傾向이 생기게 되었다. 即 一九一九년의 國際聯盟規約에서는 國家間에 紛爭이 發生하면 國際聯盟理事會, 總會 또는 仲裁裁判이나 司法裁判에 提訴하여 解決하도록 規定하였고 또 國際聯盟規約에 違反하여 戰爭에 呼訴하는 國家가 있으면 이에 對하여서는 全聯盟國이 共同的인 制裁를 加하도록 規定하였다. 또 一九二八年에는 所謂 不戰條約이 締結되어 戰爭의 拋棄를 宣言하고 國家政策의 手段으로서의 戰爭(即 侵略戰爭을 包含)과 紛爭解決을 爲한 戰爭 및 一切의 武力使用을 禁止하였다. 그리고 一九四五年의 國際聯合憲章에서도 紛爭의 平和的 解決과 侵略行爲에 對한 共同的 制裁에 關한 規定을 좀더 強化하여 戰爭防止에 努力하고 있다. 또 이外에도 여러 個別的인 安全保障條約, 不可侵條約이 締結되어 戰爭自體를 禁止하고 있다.

이와같이 一次大戰以後부터는 國際聯盟規約를 비롯한 여러 條約에서 戰爭自體에 呼訴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으며 따라서 現今에 있어서는 武力使用은 오직 國際聯合憲章 第五十一條에 依據한 自衛權의 行使인 境遇와 同憲章 第八章에 依據한 侵略行爲에 對한 集團的 制裁를 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完全히 禁止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自衛를 爲한 武力使用과 制裁를 爲한 武力使用은 그 自體가 積極的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侵略戰爭 또는 紛爭解決을 爲한 戰爭을 前提로 하여 이를 防衛 또는 制裁하기 爲한 受動的인 武力行使이므로 이것은 侵略戰爭과 紛爭解決을 爲한 戰爭만 禁止되면 存在할 餘地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現今에 있어서는 事實上 戰爭은 그 어떠한 것임을 莫論하고 모든 것이 禁止되어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國際聯合憲章에서는 全文 百十一條에 亅하는 老大한 條文中에서 戰爭이라 는 文句는 그 前文의 冒頭에서 「……: 戰爭의 慘禍로 부터 將來의 世代를 救하고……:」라는 한마디만 使用하였을 뿐 그 外에는 全혀 使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戰爭은 完全히 否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第二次世界大戰을 契機로 하고는 다시 한가끔더 나아가 戰爭 特히 侵略戰爭은 이를 犯罪化 하려는 傾向까지 생기게 되었다. 即從來의 國際法에 있어서는 國內法과 달라 不法行爲와 犯罪의 區分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戰爭도 다만 條約上으로 禁止되어 있었을 뿐으로 이에 違反하면 다만 事後에 被害國을 救濟하여 주는 데 끝쳤고 加害國에 對하여 刑罰을 加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戰後에 加害國이 被害國에 支拂하는

賠償도 刑法上의 罰金보다는 民事法上의 損害賠償으로서 生覺되었다. 그것이 最近에 와서는 戰爭 特히 侵略戰爭은 그 違法性이 重大하고 被害國뿐만 아니라 國際社會全體에 큰 威脅을 주고 害惡을 끼치는 것이므로 마치 國內法上에 있어서의 殺人이나 強盜에 該當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犯罪로 規定하려는 傾向이 생겼고 더욱이 이번 二次大戰後에는 事實上 侵略戰爭을 敢行한 獨逸과 日本에 對하여서는 그 戰爭責任者 即 侵略 戰爭을 計劃 準備 開始 遂行한 者들을 戰爭犯罪人으로서 裁判하여 處罰을 하였다 即 獨逸 뉴른베그(Nürnberg)에 있어서의 國際軍事裁判 廷에 依한 린덴드롬(이하의 獨逸首級戰爭犯罪人의 處罰과 日本 東京에 있어서의 東條以下 首級戰爭 犯罪人의 處罰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現今에 있어서는 戰爭은 다만 條約上으로 禁止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特히 侵略戰爭은 一般的인 條約違反과 區別하여 犯罪로서 規定하고 그 責任者는 處罰의 對象으로 되어 있다. 勿論 戰爭犯罪人의 處罰은 嚴密한 法理論의 見地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難點은 없지 않다. 即 戰爭은 國家의 行爲인데 그 責任을 個人에게 지울 수 있는나냐의 問題, 最高責任者 한 사람을 處罰하면 모 르되 上部의 命令에 依하여 取한 行動에 對하여 責任을 지을 수 있는나냐의 問題, 戰爭犯罪人의 處罰은 只今까지

處罰法規가 없었으므로 罪刑法定主義에 對한 違反이 아  
 나냐의 問題等이 그것이다. 勿論 이러한 몇가지 點에 있  
 어서는 理論的으로 充分히 檢討하여야 할 餘地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侵略戰爭이라는 行爲는 그 自體가 國內法  
 上的 殺人이나 強盜以上으로 더 큰 罪惡이라는 것은 到底  
 否 認할 수 없을 것이고 또 現在 各國家의 法的 確信도  
 이 點에 있어서는 完全히 一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獨逸과 日本에 있어서의 戰爭犯罪人處  
 罰의 先例는 적어도 戰爭의 犯罪化를 指向하는 國際法의  
 決定的인 傾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三、國際聯合憲章下の 戰爭

109 -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現在에 있어서는 戰爭은 一般의  
 으로 禁止되어 있고 特別히 侵略戰爭은 犯罪으로서 認定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武力의 使用이 容許되는 것은 다만 國  
 際聯合憲章에 依한 自衛權의 行使의 境遇와 侵略者에 對  
 한 集團의 制裁의 境遇에만 局限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自衛를 爲한 武力使用 및 集團의 制裁를 爲한 武力  
 使用은 從來의 戰爭과는 그 性格이 全然 相異한 것이다  
 即 自衛를 爲한 武力使用은 他國으로부터의 侵略行爲를  
 防衛하기 爲하여 取하는 不得已한 措置이며 이 措置도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嚴格한 統制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自衛權의 行使도 現在에 있어서는 從來  
 에 있어서처럼 無制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데까지나 國際聯合의 統制下에서만 一時的으로 許容되는  
 데 不過한 것이다. 또 集團의 制裁를 爲한 武力使用도  
 各國家의 自由意思에 依한 個別的인 武力使用이 아니고  
 侵略者에 對한 警察行爲로서 國際聯合의 指示와 決定에  
 依한 行爲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武力使用은 國際聯  
 合에 依한 集團安全保障의 테두리 內에서의 行爲인 것이  
 다. 이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從來의 戰爭의 概念은 國  
 際聯合의 集團安全保障의 概念속에 發展으로 解消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現在에는 國家의 武力行使는  
 오직 國際聯合憲章의 範圍內에서만 集團安全保障을 爲한  
 措置로서만 容許되어 있는 것이다.  
 故으로 이러한 戰爭概念의 變遷에 따라 一言하여야 할  
 것은 中立概念의 變遷이다. 中立概念이란 元來 戰爭이  
 紛爭解決方法으로서 認定이 되고 또 戰爭이 直接 이에 參  
 加한 當事國간의 利害關係事項으로 認定되었을 때의 概  
 念으로서 交戰國에 對한 第三國의 公平과 無援助를 그  
 中心內容으로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戰  
 爭自體가 禁止되고 또 戰爭은 곧 國際社會全體의 重大한  
 利害關係事項으로 認定되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局外에서  
 中立을 維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國際聯合憲章에 依한 集團安全保障體制下에 있어서는 戰  
 爭概念과 同時에 中立概念도 또한 그 자취를 감추어 버  
 리게 된 것이다.  
 (筆者 梨大教授)



軍

人

과

宗

教

업  
요  
섭

軍人이라고 해서 宗教가 特別히 必要하다 或은 必要없다는 論理는 成立이 안된다. 軍人이거나 아니거나 그職務如何가 宗教의 必要如何를 規定지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고로 軍人과 宗教라는 題目이 論理에 맞지 아니하는 題目같으나 그러나 特別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意味에서 無意味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 自身은 軍人生活을 하여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軍人과 같은 心情으로 싸워 가며 사려 간다. 「니체」 같은 有名한 哲學者는 戰爭이 이터났을 때 大學教授를 지버치우고 銃을 드렸다. 그리고 有名한 社會學者요 經濟學者인 「막스·베버」教授는 軍人生活에서 人間을 理解하였다. 戰爭은 수많은 文學作品·美術作品 其他의 藝術作品을 만드려 내었다. 또한 文化面에 있어서 또 國民生活 全體에 있어

서 急激한 變化를 이르킨다. 이렇게 軍人生活이란 어떠한 커다란 충돌 가운데서 사는 生活이다. 또한 人間으로서서는 가리움이 없는 人間 그대로의 狀態에 놓여 있는 生活이 즉 軍人生活이다. 이러한 生活속에서 우리는 宗教와의 關係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宗教는 人間을 바로 보는 데 있다. 人間이란 限없이 더러운 것이다. 극히 利己的인 것이다. 「로마스·합스」는 人間을 극히 더러운 싸우려고만 하는 狀態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表現하였다. 아모리 人間이 잘났다고 해도 아모리 人間이 훌륭하다고 해도, 아모리 그 人間이 든다. 잘났다고 해도, 아모리 그 人間이 地位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그 人間을 장식한 한개의 장식품에 不過하다. 日帝時代에 그 무지무지하던 軍人과 警察官도 八、一五가 되어 그 軍服裝이 人形에 걸쳐 놓은 衣服같이 되고 말때 그 人

間도 별것이 없었다. 어느 親舊가 말하기를 自己가 高職에 있을때 모든 사람이 肅然거리기에 자기를 보고 肅然거리는데 아렸더니 그 職을 그만두고 나와 한 市民이 되고 보니 누구하나 自己를 尊敬하지 않더라고 쓸쓸하게 말함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사렸다」라는 책을 쓴 故 鄭景玉教授는 말하기를 人間의 知識이란 거지가 누더기 옷을 이분것과 같으라고 말하였다. 이것저것을 따서 꾸며 놓은 것이 人間의 知識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시 繼續하여 말하기를 人間은 다 벗겨 벗고 沐浴湯에 드러가 있는 그대로가 人間이라고 말하였다. 다 벗고 나면 人間은 마찬가지이다. 「막스 베버」는 이 다 벗은 狀態의 人間을 軍人生活에서 보았다.

宗敎的으로 말하면 人間을 다 벗겨 놓으면 人間은 다 罪人이라는 結論에 到達한다. 이것을 軍人生活에서 더욱 쉽게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 「베버」의 經驗인 듯하다. 이렇게 人間을 罪人으로 볼때 이러한 人間에 轉멸을 느끼고 또 이러한 人間狀態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心理狀態를 가지게 된다. 人間은 人間그대로를 滿足하지 못한다. 人間의 理性은 또 다시 더러운 自己의 人間性을 一面 肯定하면서 또 이를 否定하려고 한다. 즉 自己狀態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즉 人間의 理性이다. 여기서 人間의 理性은 完全者 혹은 最高의 價値者인 하나님을 向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宗敎狀態에 드러가는 人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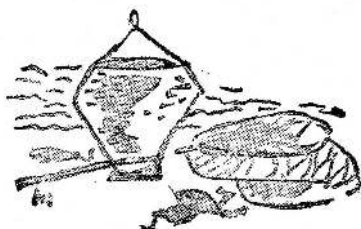
둘째로 軍人生活은 위에서 말한바대로 急激한 變動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急激한 變動은 새로운 歷史를 創造한다. 文化的으로 社會的, 政治的으로 모든 면에 세로 위저거나 人間的으로도 세로 위저는 歷史가 이루어질 수 있는 場所가 軍門이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바대로 강한 충동에서 變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서 軍人의 生活은 뛰어오르는 飛躍이 생겨진 다. 즉 宗敎的인 것으로 뛰어오르는 비약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具體的 事實에 있어서 軍人의 生活은 虛無主義的인 自暴自棄의 傾向이 많다. 이것이 즉 民族의 悲劇이다. 나라의 기둥이 썩어져 드러가는 悲劇이다. 青年들 머리엔 理性이 없거나 떨어지는 墮落이다. 이것이 果然 民族의 悲劇이요 人間의 墮落이라면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이것이 深刻한 우리의 問題이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하나의 具體的인 問題는 軍人은 戰爭時에 敵을 죽이는 것인데 이러한 行爲와 宗敎的信仰과 合致되는가의 問題이다. 이것이 즉 宗敎와 戰爭問題이다. 이 問題는 다루기 썩어할 問題이나 結論만을 말한다면 宗敎는 個人的인 면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戰爭이란 民族倫理問題이고 個人倫理問題가 아니다. 그런으로 이러한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結論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軍人의 높은 理想을 가질 때 民族의 理想이 實現된다. 軍人이 健全할때 民族의 將來가 健全하다. 이 理想과 健全이 어데서 오겠는가? 배부른 밥에서 취하는 술에서 그러치 않으면 돈에서 오겠는가? 그러치 않으면 階級章에서 오겠는가? 이것에 대한 對答은 讀者自身이 생각할 解答이다. (筆者 牧師)

# 東洋과 西洋의 交叉地



## 【내가 보고 느낀 香港】

우리空軍에서 처음으로 往復約 二千六百「마일」이나 되는 香港에 渡洋飛行을 하게된 歷史的인 飛行에 飛行時間이 不過 몇時間 안되 는 未熟한 本人의 一行의 一員으로 參加키로 決定되었을 때 生後 初有의 일임을 생각하니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先任將校任의 指導 아래 無事히 任務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感慨가 새로워지며 짧은 海外旅程이었지만 그래도 보고 듣고 느낀 가지가지의 記憶이 走馬 燈처럼 腦裡를 맴돌고 있습니다. 허나 마음만 앞설뿐 筆舌로서 表現을 다하지 못한채 未熟함을 무릅

쓰고 「코메트」誌를 通해서 將兵여러분에게 感慨의 一端을 披汀하고자 합니다.

☆ 美戰術空軍

基地「沖繩」

「오끼나와」

出發日字인 六月二十四日 새벽

六時 申攸俠大領任 金良昱中領任

等全員이 「부리」

평」室에 모였으나

氣象不良으로 뒤

第五飛行團空輪戰隊

空軍大尉

高

永

一

늦게出發하게 되었다.

基地指揮所 앞에는 團長任을 비롯하여 여러參謀께서 우리들의 出發을 기다리고 있었다.

豫定時間보다 約 四時間後인 午前 十時五〇分 우리들의 壯途를 祝福해 주시는 여러분의 歡送을 받으며 全機 無事히 離陸하여 一路 目的하는 OKINAWA로 機首를 잡았다.

飛行途中 氣象이 如意치 못하여 各機는 計器飛行狀態로 雲中飛行을 하였으나 日本九州南端의 「鹿兒島」를 左로 멀리 바라볼수 있는 곳에서 부터 점점 구름이 트이기 시작하니 OKINAWA를 희미하게 볼수 있는 地點부터는 구름을 點點히 볼수 있을뿐 맑은 날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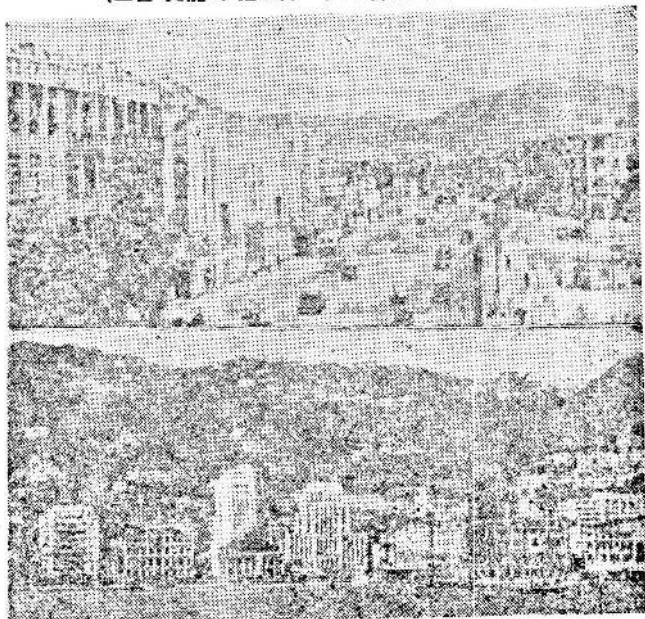
目的하던 OKINAWA 上空에 이르러 秩序整然하게 자리잡은 家屋과 新裝路를 내려다보니 二次大戰時의 激戰場이라고 말할수 없을만큼 復

舊되어 警嘆하였다.

OKINAWA의 KADENA基地에 全機 無事히 着陸하고 보니 그 基地야말로 戰術空軍基地로서의 面目을 如實히 보여 주는 훌륭한 設備、建物、그리고 周圍環境等이 갖춰져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을만큼 充實하였음을 느꼈다.

南쪽 多을게 바람에 습기가 있어 風이 끈적끈적하였다. 그곳 基地指揮所에 들어서 보니 울긋불긋한 옷차림의 美國女性과 어린애들이 보여

〈上은 九龍의 繁華街 下는 香港의 政治中心地〉



美國本土의 어느 空港과도 같은 風景이었다.

☆ 椰子樹그늘진台北



〈OKINAWA의 오마사리업〉

OKINAWA基地를 離陸하였다.  
全員은 晝食을 마치고 午後 늦게

었다.

그 때문에 二十時에야 自由中國의 臨時首都인 台北基地에 到着하였다. 當地駐在의 金弘一大使를 비롯하여 僑胞 몇몇분 그리고 中國空軍의 台北基地團長이 우리를 一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며칠을 두고 우리를 一行의 到着을 기다리고 있었던

中國의 名物인 三輪車는 到處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自由中國將兵이 自轉車로 退勤하는 것을 無數히 보았을 때 거기서도 그들의 決意를 짐작할 수 있었다.

模樣이다. 우리空軍과 똑같은 任務와 重大한 課題를 앞에 두고있는 中國空軍, 다시 말하면 우리空軍의 北進南北統一과 自由中國의 本土解放이라는 같은 課題를 目前에 두고 있는 自由中國空軍將兵을 對하며 스스로 반가움과 同志的인 友誼가 북바쳐 올라오며 아울러 그들의 嚴格한 軍紀를 目擊하고 그들의 本土解放의 氣慨와 굳은 決意를 엿볼 수 있는 듯

自由中國의 首都이면서도 우리나라 서울에 비해 高級車가 적은 것을 또한 보았을 때 그들의 儉素한 生活面과 아울러 自立經濟確立에의 努力을 찾아볼 수 있어 매우 부러웠으며 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民官軍이 合心合力해서 失地回復 本土解放을 至上課題로 삼고 있음을 如實히 目擊하였다.

거리에 그늘진 椰子樹는 南洋의 情緒를 풍경주었으며 商店에 가득찬 「바나나」「과인애플」, 그리고 수박

中國空軍將校宿所에서 一泊한다 음 翌日 일찍이 出發할 豫定이였는데 通信裝置의 一部를 CAT에서 借用하는 關係로 十二時十分에 台北基地를 離陸 一路 香港으로 向했다.

은 우리들의 口味를 담복 뜯어 주

☆ 異國情緒 그윽한 香港

最終目的地인 香港 K A I T A K 基地에 全機 無事히 着陸한 것이 十 五時 三十分이었다.

이 곳은 國際적으로 알려져 있는 英國 殖民地의 단 하나인 K A I T A K 空港은 前面이 D I A M O · N D H I L L 다른 한쪽은 바로 港口의 기슭에 接해 있으며 또 한쪽은 絕壁에 둘러쌓여 있는 것이 恰似 우리나라의 橫城飛行場 같아서 着陸에 注意를 要하였다.

飛行機에서 내리자 香港駐在韓國 領事館의 副領事께서 우리를 一行을 迎接해 주셨다. 諸般 整理가 끝나자 副領事의 案内로 全員の I M M I G R A T I O N O F F I C E 로 가서 旅券의 調査와 書類記入等의 手續을 끝내고 稅關課로 거쳐 自動車로 飛行場에서 約三마일이 되는 九龍市內 金門酒店(Golden Gate Hotel)으로 向하였다.

그 곳에서 申大領任과 副領事로 부

러 여러 가지 注意事項을 들었다. 이 곳의 風習 言語等 詳細한 말씀을 들은 다음 旅裝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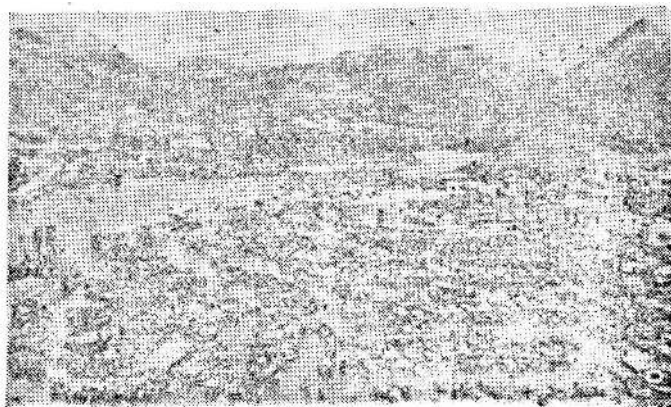
그 호텔은 서울의 半島호텔보다 저였으나 規模와 施設이 굉장하였다.

## ☆ 香 港

「極東의 寶國」 「世界의 交叉路」다시 말하면 「東洋과 西洋의 交叉地」가 香港이다. 어쨌든 香港은 觀光客의 中心地이며 貿易의 中心地 產業의 中心地 交通의 交叉地로서 매우 重要な 英國의 直轄殖民地이다.

西紀一八四一年 阿片戰爭末에 中國은 香港島를 英國에게 讓渡했으며 뒤이어 一八六〇年 九龍本土도 借用 契約에 加算되었다.

英國統治下에 따라 九龍本土의 岩石만의 섬은 非常한 重要性을 띄우게 되어 世界에 있어서 最大의 物資 集散地로 變했다. 香港은 로맨스와 冒險을 聯想케 하며 그 이름마저 대



△村落이론 잔크선(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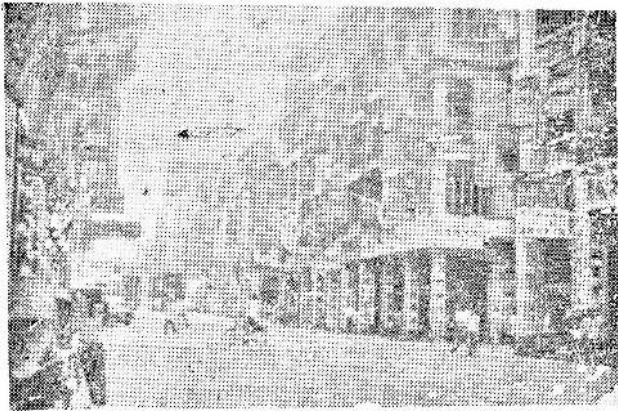
우로 맨티하고 異國情緒的이다. 香港의 뜻인즉 芳香의 港口를 意味하고 本土의 九龍은 아홉마리의 龍을



意味한다.

芳香의 港口와 아홉마리의 龍을  
比해 그 어느쪽이 더욱 로맨틱하며  
胃險의이며 스틸이 있겠는가?

△中國人 商街▽



香港은 뉴-욕市와 런던市보다는  
적은 곳이나 世界各國人이 살고  
出入하며 摩天樓를 矗狀케 하는 高層建  
物이 즐비하여 우리를 異國人의 눈  
을 恍惚케 하였다. 香港과 九龍에서  
中共人의 사는 附近까지는 매우  
가까운 距離임으로 한시간의 汽車로  
달수 있다.

民衆의 通俗의인 信仰과 概念에  
反해서 香港은 退步한 곳이 아니고  
가장 流行의 尖端을 가는 곳이며 世  
界 어느 一流都市에도 못지않게 現  
代的이다.

香港의 道路는 깨끗하고 잘 補修  
되어 있었으며 最新式 美英의 自動  
車가 거리에서 흔하게 눈에 띈다.

反面 中國을 表象하는 人力車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特異한 한가지는 女子  
들의 運轉을 許多하게 보았으며 自  
動車 뒤의 白板上 紅色으로 「學字」  
를 써붙인 車를 흔히 보았다. 그곳  
사람에게 質問해 보니 運轉免訴 없이  
運轉을 배우는 사람들이라 한다.

또하나 特異한것은 中國人 商店에  
서는 에누리물 三分之二以上하는것  
이 普通이다. 에누리를 하지않고서  
는 물건을 샀다는 맛이 안나는 모양

이다.

九龍과 香港 사이에서 많은 「장  
크」船을 볼 수 있는데 삼림을 배안에  
서 하며 그들은 出生해서 生涯를 마  
칠 때까지 배에서 지낸다고 한다.

그들의 最高의 希望과 最後의 希  
望이 子息을 얻는배의 船員으로 기르  
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를테면 그들  
의 一生의 所願이 大船의 船員이 된  
다는 것이라 한다. 그럼으로 매서번  
돈은 上陸하여 銀行에 預金한다고 하  
며 그들의 預金額이 또한 無視 못할  
程度의 額數라 한다.

☆ 그들의 風習

香港은 煙草와 술을 除外한 어떤  
것이던 輸入이 許可되어 있다. 各者  
의 職業選擇은 自由이다. 中國의 祭  
日과 儀式의 大部分은 몇十年이나  
이어나래는 信仰과 慣習에 根據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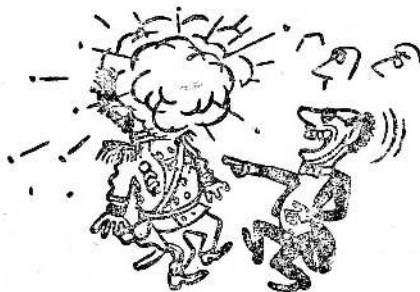
中國人들은 大部分의 祭日에는 爆竹  
(Fire Crackers)을 울리며 大事  
를 출진다 한다. 이 모든 커다란 祭  
典에 있어서 吉兆의 動物인 龍, 獅  
子 一角獸가 包含되지 않고서는 그  
儀式이 完全한 格式에 맞았다고 볼  
수 없을 程度로 그러한 動物들의 模  
形을 많이 볼 수 있다. (續)



1



2



3



4



5

<現代詩의 理解와 鑑賞>

# 現代詩의 難解性

알기쉬운 詩와 어려운 詩의 限界

金 奎 東



1

시(詩)를 사랑한다거나 시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말어도 정작 현대시(現代詩)를 깊이 이해(理解)하고, 이것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價値)를 바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한쪽의 추상화(抽象畫)를 대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렇게 생김 사람의 형체(形體)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어도 역시 무슨 뜻인지 저만 아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그림이나 음악(音樂)이나 시(詩)나 모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워서 그것이 지니는 바 내용(內容), 즉 작품의 의미(意味)가 이해되어서 어떤 공감(共感)을 자아낼 수 있어야 훌륭한 예술이지 자기 혼자만 아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를 만들어 냈

자 아무 소용(所用)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옳은 주장(主張)일 수가 있을까!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고 또 직접 그림을 그리든 그림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도 이것을 바라마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예술작품(藝術作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주변에 넘쳐서 있는 실용적(實用的)인 물건과는 달라서 어디까지나 미적가치관념(美的價値觀念)의 테두리 위에서만 음미(吟味)되고 검토되어야 할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작품의 본질(本質)에 대한 옳은 파악(把握), 즉 작품의 물질성(物質性)에 대한 교양 있는 안목(眼目)이 서 있어야 그것을 옳게 형수(亨手)할 수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감상해 낼 수가 있다는 말이다.

간판 그림은 「피카소」나 「마티스」의 그림에 비할 나위도 없이 많은 때

중의 만족감(滿足感)을 채워줄 수가 있으며 교향곡(交響曲)은 좀처럼 그 표(票)가 팔리지 않아도 유행가(流行歌)는 표가 잘 팔린다는 정도를 넘어 서연제나 극장(劇場)이 대만원술이 된다.

시(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레테」나 「하이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反面)에 오늘날 세계적인 시인들인 「T. S. 엘러」나 「스켈더」 혹은 「바레리」 「부이스」 같은 사람들은 천연 대중의 애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감상객(鑑賞客)이나 청중(聽衆)이나 독자가 양적(量的)으로 훨씬 적은 현대회화(現代繪畫)나 「심포니」나 현대시(現代詩)는 예술의 이름에 해당(該當)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가령 수자적(數字的)으로 제일 많은 청중(聽衆)을 차지하는 음악이 가

장 훌륭한 예술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음악의 영역(領域)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간판공(看板工)이 그런 나체화(裸體畫)가 최고외 예술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를 일이며, 또 시(詩)의 부면에 있어서는 유행가사(流行歌詞)나 동요(童謠)를 전문으로 쓰는 사람이 그 최고의 예술가가 되고 말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정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그림을 음악을 또는 시를 제작할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도 만들어 내야 할 의무(義務)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태(倦怠)스러운 고역일까 보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예술품이란 보통에서 떠난 물건일게 분명하다. 보통(普通) 있을 수 있는 소재의 집적(集積)이나 보통 있을 수 있는 거리의 화제(話題)를 제 아무리 아름답고 운색채(色彩)나 음(音)이나 언어(言

語)로서 형상화(形象化)하여 보았을 자 그것은 벌써 과거에 있어온 그 모든 예술의 추종(追從)이나 모방(模倣)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의 되풀이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유행가사(流行歌詞)가 시가 아님은 그것이 강열(強烈)한 창조정신(創造精神)을 갖고 있지 않은 때문이라 하였다.

상식(常識)을 노래하는 것도 웃어운 일인데 어찌 시인(詩人)이란 동물 이 인간외 원시적(原始的) 유치(幼稚)한 감정이나 본능(本能)만을 노래 부를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란 원래 감정적 동물이란 사실로 해서 인간이 지닌바 지성(知性)이나 이성(理性)을 완전히 거부(拒絶)해 버리려는 태도는 극히 몽매하고 무식(無識)한 사람의 생활태도(生活態度)가 아닐 수 없다.

지성(知性)이란 다투어 인간에 있어서외 교양(教養)을 말하는 것일

러이다.

교양의 도(度)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千差萬別)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계층(階層)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으로 넓은 지식(知識)과 교양을 아울러 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잘것없이 지적(知的) 분별을 갖지 않은 몽매한 사람들이 수많은 분포(分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의 예술가란 현대에 있어서 항상 구단적(極端的)이라고 볼 수도 없을만큼 지성(知性)의 첨단(尖端)을 가고 있는 인간이다. 그는 실로 고독(孤獨)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혼자만 지적인 성장(成長)을 하고 있음으로써 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취미(趣味)나 사상(思想)에 응해 주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다.

그로록 높은 차원(次元)위에서 있는 것이 현대지성(現代知性)의 지도

자인 화가(畫家)요 음악가요 시인(詩人)인 동시에 작가(作家)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높은 지성들에 의하여 창작되는 작품은 보통있는 지성(知性)들이나 그 이하의 차원(次元)위에서 쓰는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분별하고 검토하는 일은 현대 예술을 이해(理解)하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첫째가는 중요한 일류이 될 것이다.

## 2

옛날 사람들은 줄(絃)이 하나뿐인 악기(樂器)를 쳐도 울수 있었으나 현대인(現代人)은 교향악(交響樂)과 같은 모든 악기가 총동원된 음악에 비로서 감탄하는 것이며 무성영화 시절의 사람들은 「로」가 없어도 그 것을 얼마든지 즐길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벌써 그럴수가 없게 되었다.

문명(文明)의 발달이란 것은 매우 가속도(加速度)적인 것이다. 그것은 어지간히 어리병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기증(眩氣症)을 자아낼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물질문명(物質文明)의 발달은 인간의 문화를 겸하여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속도(速度)로 발달하는 문명의 세계에 있어서 어찌던 시(詩)만이 홀로 一九세기의 상태에 오래 머무러 있어야만 옳단말인가?

一九세기 이전의 시인(詩人)들의 예술은 단순하고 알기 쉬웠는데 현대에 사는 시인들의 예술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즉 전자는 지적 차원이 훨씬 낮았는데 비하여 후자(後者)는 비약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것이 높아졌다.

一九세기 인간(人間)의 감정을 오늘날 이해(理解) 못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나 현대인(現代人)의 높은 감정을

지적훈련(知的訓練) 없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일세 분명하다.

「미메」의 그림은 알 수 있으나 「세잔느」 「프호」 「마티스」의 그림은 좀 어려울세 분명하며 「케 1레」의 연애시나 「케리 1」의 애상시(哀想詩句)는 족히 감상해 낼 수 있는데 「바테리」의 「해변의 모지」 같은 시집은 무슨 소린지도 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때문일까?

一九세기에 살던 인간의 사고(思考)는 복잡하지를 많고 비교적 단순(單純)했던 데 비하여 현대인의 사고는 헤아릴 수 없이 복잡(複雜)하며 또 그 사고 자체(思考自體)의 형태(型態)가 고차원적(高次元的)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인의 복잡한 감정적 체험(感情的體驗)이나 사고(思考)의 특수한 형태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말때, 一九

세기식의 교양 밖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현대시(現代詩)의 의미(意味)를 파악할 수 없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술——즉 그림이나 음악이나 조각(彫刻)이나 건축(建築)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서정주(徐廷柱)의 「화사집」은 멋이 있는데 이상(李箱)의 시나 박인환(朴寅煥)의 시는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들도 시인(詩人)의 축에 끼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R씨는 우리 나라에서도 일류간다는 신문의 편집책임자였다.

일류신문을 편집한다는 소위 「인테리」급의 R씨 조차가 「김소월」 「서정주」를 이해하면서 그보다 훨씬 생명적(生命的)인 요소를 그 작품속에 담고 있는 「박인환」을 몰라보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정주」의 시세계(詩世界)를 지배

하고 있는 사상이란 것은 다름아닌 一九세기의 자연주의(自然主義)인 것이다. 그는 一九세기의 인간의 고뇌(苦惱)를 영원한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듯 싶은 인상(印象)을 풍겨주는 시인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시가 인생과적(人生派的)인 계열의 그것으로서서는 우리 시단에서 그 누구의 그것보다도 완성(完成)에 가까워 보이는 것은 그의 뛰어난 시의 「테르넵」 때문이 아니면 아닐 줄 믿는다.

시에 있어서의 음악적 요소가 「서정주」에게 있어서는 영원불멸의 가치관념(價値觀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정주」의 시는 벌써 오늘날의 예술인수가 없이 되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케 1레」나 「슈 1벤트」나 「베 1로벤」이 살던 시대의 예술이지 오늘날의 기류에서 오늘날이란 특수(特殊)한 사회의 제약(制約)과 발달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생활 감정(感情)에 자극(刺戟)을 가해주는 예술작품일 수는 없는 것이다.

「서정주」의 시(詩)가 아무런 깊은 공감(共感)을 독자에게 자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서정주」의 「이메」를 갖고, 보다 완전(完全)에 가까운 시작(詩作)을 해놓은 시인(詩人)들이 고금동서에 수두룩한 것이 아니냐?

3

역사(歷史)는 흘러 가는 것이고 시대(時代)는 재로워지는 것이며 문명(文明)은 발전하여 가는 것인 것이다.

「르네팅스」의 「휴메니즘」은 「르네팅스」시대의 인간관(人間觀)이어야 하며 문호(文豪) 「톨스토이」의 종교주의(宗教主義)는 「톨스토이」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겨냥한 의미(意味)가 있는 「이즘」이었다.

그럼으로 어떠한 예술작품(藝術作品)이나 문학작품(文學作品)을 음미할때에 그 작품 하나만을 그 시대적 배경(背景)에서 볼 따서 어떤 독립(獨立)된 것으로 생각하고 감상하거나 읽는다는 데서 비극(悲劇)은 혼이 야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병(病)이 바로 「톨스토이」나 「췌스피어」와 똑같은 생각 또는 똑같은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무모한 뜻을 품는 「동키호테」의 군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케-레」와 똑같은 「스타일」로 시(詩)를 쓴다는 「김소월」의 시풍(詩風)을 그대로 살려서 노래를 짓는다는 것은 하등의 존재이유(存在理由)가 없다는 사실(事實)보다도 먼저 「김소월」이나 「케-레」가 오늘날의 사람 아니고 지난간 역사속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다면 구태여 남은 것에 생명(生命)의 근원을 찾아 헤멜 이유가 어찌 있을까 보냐?

정말 야심이 있다면 오늘의 「케-레」, 오늘의 「김소월」이 가 되어 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들의 예술의 소재(素材)는 매일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적사건(社會的事件) 또는 변모해가는 문명의 인상(印象)속에 얼마든지 널려져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주위에 파생(派生)하는 이러한 못 현상(現象)를 에 대하여 예리(銳利)한 눈초리를 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예술은 좀더 현실(現實)과 사회의 반영(反映), 내지 비평(批評)으로써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발휘(發揮)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새 세대(世代)의 인간은 재 세대의 미학(美學)을 배워야 하며 새 시대의 응화관념(ideoplasty)을 통하여 사물을 관조(觀照)하는 태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서 신문(新聞)이 사

회가 놓은 산물이라고 할진대 예술도 인간이 창조하는 사회적 산물인 것이 세롭다.

예술가는 언제나 세 시대의 인간을 그리되 그 인간상(人間像)을 통하여 시대(時代)와 현실에 대한 비평을 망각(忘却)할 수가 없다.

고도한 비평정신(批評精神)이야말로 예술의 가장 높은 생명이자 가치라고 한다면 비평정신(批評精神)——즉 시대정신이 결핍된 문학작품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예술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이데」를 갖고 농부(農夫)가 밭을 갈듯이 한없이 시(詩)를 써갈 하등의 의무도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

시는, 문학은, 예술은, 시대와 함께 또는 역사적 사회현실과 함께 좀더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표정(表情)만이 아니라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품질질 모르느 주관적(主觀的)인 영

탄(詠嘆)만을 일삼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아주 달라져가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시인(詩人)을 내어 버린 채 아득히 저 혼자만 달아나 버리고 만다.

보통 사회 사람들 도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서 뒤떨어지기를 겁내하는데 시인이 홀로 현대문명의 소음을 피하여 화조봉월(花鳥風月)의 내 고향산천을 찾아 영구히 하향(下鄉)하고 말았어야 쓰겠는가.

그러느 시대이고 그러했다. 한 시대의 예술정신이란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렬하고 대표적(代表的)인 저항정신(抵抗精神)인 것이다. 반항(反抗)하는 정신이 그 저류(底流)에 숨지 않은 예술은 산 예술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예술은 또한 스스로 비판적(批判的)이며 즉물적(卽物的)이며 동시에 객관적(客觀的)인 모양을 갖추고 존재해 왔던 것이다.

4

가마귀가 울리고간 그림자 같은 혈액 속에서 무력 무력 두버섯이 움터 오른다.

밤.....

피아노의 음향처럼 쓰나타를 형성하는 인간들의 숨소리.

가마귀는 불면증이 싫다고 한다.

가마귀는 나의 폐장속에 불안의 외자를 준비하라고 한다.

화농(化膿)한 혈관의 광채  
두버섯같은 인간들의 안구(眼珠).

밤.....

야행열차의 숨소리처럼 침침히 다가오는 가마귀의 날개 소리

그때 가마귀는 밤의 포수의 조준(照



「準」속에 자기의 위치를 잃고 말았다.  
가마귀를 치던 불행한 「츠아라스터」  
러」

이러한 밤은 가마귀와 더불어 인간들은  
은 되도록이면 「나」를 잃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이 불행작 「밤의 가마귀」 —

우리들은 이 작품을 읽을 때 「로맨  
티스트」들의 시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질(異質)의 어떤 감흥을 맛보  
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인은 원래가 시속에서 인생론  
적(人生論的)인 의미를 구하는 시인  
들과는 달리 시에 있어서 말의 가치  
(價値)라든가 그 조형성(造型性)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미학(美學) 위  
에 전 새로운 시인이다.

다시 말하면 「술리얼리즘」의 집착  
(執着)을 그 정신세계에 있어서 다분  
히 받은 시인으로서 오늘날 우리 시

단의 「모더니즘」 운동의 첨단을 걷고  
있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인의 「밤의 가마귀」는 또  
하나의 다른 작품 「그것은 전쟁인 것  
이다」 등과 더불어 그 「이메지」가 어  
두운 작품으로서 유별난 느낌을 주고  
있다.

「밤의 가마귀」는 「밤의 가마귀」 바  
로 그것일 수도 있겠으나 보다 우리들  
의 어두운 사회 현실이나 또는 어떤  
현대인(現代人)의 내면 세계(內面世  
界)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인 때 만일  
그렇게 해석된다고 한다면,

『밤…… 야행열차의 숨소리처럼 침  
침히 다가오는 가마귀의 날개소리』  
는 날로 불안과 공포를 더해가는 현  
대문명의 병적증후(病的症候)를 말하  
는 것이 될 줄 믿는다.

불안(不安), 동요, 끝없는 혼란(混  
亂)—— 그리고 화화(火花)처럼 피어  
오르는 전쟁의 부르짖음이 「밤의 가마  
귀」의 귀중한 「테」마」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독버섯같은 인간의  
안구」는 너무나 사물을 존재론적(存  
在論的)으로 파악하려는 이 시인의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구절이라고 하  
어도 좋을 것이며 동시에 극히 즉물  
적(即物的)인 이 시인의 표현방식(表  
現方式)에 우리는 대리석의 차가움 조  
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서정주」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현  
대인(現代人)의 안구가 독버섯으로  
보일 수도 천연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서정주」나 「유치  
환」의 경우는 그 시정신이 참혹한 현  
실을 향하여 저항(抵抗)하거나 충돌  
(衝突)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도피  
를 계획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  
을 부정(否定)하는 상태에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이다.

흔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올른  
지도 모른다.

죽어떻게 인간의 안구가 독버섯으  
로 보일 수가 있는 나요——? 사실 그렇

다. 인간의 안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안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버섯으로 되어버릴 수가 없으며 또 독버섯이 인간의 안구가 될 수도 없는 일이 다.

그러나 이 시인은 「밤의 가마귀」의 그림자와도 같은 냉정한 현실의 혼돈(混沌) 속에서 인간의 안구를 독버섯과도 같이 느꼈다는 것이다.

흥사히 독버섯과도 같이 뜬 아난사탑들의 안구—— 그러한 안구들의 교착(交錯) 속에서 불안은 야행렬차와도 같이 밀려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불면증(不眠症)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니—체」의 사상조차를 어루만져보는 권태(倦怠)롭고 불안스러운 밤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 125 —  
一 明) 밑에서 이 시인은 사고생활(思考生活)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나 이것은 시인 자신의 현대인으로서의 정서

(情緒)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 시인의 작품에서 캐취할 수가 있다면 다른 모든 구절의 뜻과 그 종합(綜合)으로서 이루어지는 시의 전체효과(全體效果)를 쉽사리 감상하고 음미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시를 완전히 이해해 낸다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또다시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명과 문화(文化)의 완전한 이해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문명에 대한 정확한 통찰(洞察)과 이해(理解)가 없을 때에 문명을 그 모체로 한 시를 어찌 충분히 이해해 낼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주의적(利己主義的)으로만 자기만족을 구하고 있는 듯 싶다.

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문화의 방향에 대한 아무런 통찰(洞察)도 없으면서 다만 어려운 소리만을 쓴다는 구실 밑에 현대의 시인들을 향하여 육

설과 야지를 퍼붓는 것은 참으로 참피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체로 자기기, 잃어서 알 수 없는 시는 나쁜 시, 혹은 잘되지 못한 시라 정해 버리는 것이 왕왕 우리가 목격하는 시의 독자들이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 지식조차 쌓지 않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노라고 얼골만 찡그리는 동안에 자신의 교양과 정신은 뒷거름질만 쳐 간다.



「현기증」나는 활추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들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물은 육체의 파편들을 굶어 본다.

기체처럼 작열하는 작은 심장을 추진한 옥음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모지사  
이사이  
숨가쁜 젓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  
절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임광의 조수에 밀  
려  
이제 흰 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  
개를 과다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  
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지 오랜 유역 —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 나  
비는  
또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부러 대결  
하여 본다.



이것은 필자의 작품「나비와 광장」  
이다. 이것이 현대시의 계층(階層)에  
들수 있을지 어떤지 알수 없으나 나  
의 시작행위(詩作行爲) 가운데서는  
어떤 표말(標末)이 될수 있었던 작품  
인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소개한다.  
이 「나비와 광장」은 전기한 「밤의  
가마귀」에 비하여 훨씬 난해할지 모  
른다.

한마리의 나비가 폐허의 광장을 날  
아가고 있다. 그 나비를 바라보면서  
여러가지의 환상(幻想)과 상념(想念)  
이 생긴다.

그 연약한 나비는 어찌면 물결치는  
환상과 어둡고 슬픈 상념을 지닌 시  
인(詩人) 자체의 변신(變身)이거나 한  
조그마한 육편(肉片)과도 같은 것인  
지도 모를 것이다.

헛기증(眩氣症), 돌진(突進), 과  
원(破片), 안막(眼膜), 차단(遮斷),  
진공(進空), 소기, 이동(移動), 인광  
(燐光), 지점(地點), 지표(地標), 종  
점(終點), 대결(對決) 등의 언어(言語)  
는 그러나 어린 생명체(生命體)로서  
의 나비의 영상(映像)을 꾸미는데 무  
척부자연스럽고 거칠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시의 언어를 필수만  
있으면 우리가 쓰는 일상 회화(日常

會話) — 그중에서도 과학적(科學  
的)인 언어로서 정돈해 볼려는 그러  
한 욕구를 갖고 있는 때문으로 해서  
자연 이렇게 언어를 선택해 놓은 것  
이다.

시의 과학(科學) — 그것은 겨우  
오늘에 와서 제창될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학사(文學史)도 시의 비  
평(批評)도 시의 언어도 좀더 과학  
에 접근해 졌어야 옳을 일이 아니겠  
는가 생각된다.

나는 또한 시의 사회성(社會性)을  
무척 존중하는 탓으로써 현실(現  
實)과 사물에 대한 즉물주의적(卽物  
主義的) 태도를 버리지 못할뿐만 아  
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추구해 갈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법은 「리얼리즘」의 수법(手法)이  
아닌 「이미지즘」 및 「다다」와 「솔리  
얼리즘」 등 시운동의 발전선상에서 어  
떠까지나 시가 나아갈바 「코—스」를  
모색해 볼려는 것이다.

독자는拙작(拙作) 「나비와 광장」  
에서 한마리의 연약한 나비의 안막에  
비치는 오늘이라는 현실(現實)의  
기류(氣流)가 얼마나 험하고 불안한  
것인가를 이 작품을 통하여 느낄수만  
있다면 대체로의 감상은 충분한 셈이  
될 줄 믿는다. (筆者·詩人)

# 하나의 大膽한 提案

— 合同參謀本部를 廢止하고 參謀本部를 設置하라 —

美空軍豫備役大將

카알 · 스파아츠

筆者 「스파아츠」 將軍



美陸海空軍 相互間의 豫算、任務 및 武器를 圍繞한 紛爭은 美國會로 하여금 심층을 느끼게 하고 있다.

前美空軍參謀總長 「카알 · 스파아츠」 大將은 이 紛爭을 終熄시키는 方案으로서 根本的으로 舊獨逸參謀本部和 恰似한 美參謀本部를 組織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이 提案은 큰 論爭의 對象이 되어 있다. 美三軍에서는 一部將校들은 이 提案을 支持하고 있는

反面에 一部는 이를 猛烈히 反對하고 있다.

★ ★ ★  
軍事問題에 가장 精通한 美國上, 下院議員들間에는 美軍事相互間의 反目을 終熄시키기 爲하여 早速히 어떠한 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確信이 漸次로 增大되어가고 있다. 그리고多數의 議員들間에는 어떠한 措置를 取할 것인가에 對해서도 合意를 보고 있다.

그들은 現在의 合同參謀本部(Joint Chiefs of Staff)를 廢止하며 그 代身에 參謀本部(General Staff) 制度를 創設하라고 提議하고 있다.

이것은 所用없는 區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事實上 그것은 結局에 美國의 存亡의 差異를 가져올 수도 있는 明確한 區別인 것이다.

現在의 合同參謀本部는 陸海空軍 및 海兵隊의 指導者들이 美國이 關聯되는 戰爭에서 누가 어떠한 戰略과

戰術과 武器를 使用할 것이나에 對하여 各已 그 軍의 見解를 提出하고 그 것을 擁護하는 場所이다.

現在提案되어 있는 參謀本部도 亦

時 陸海空軍 및 海兵隊에서 選拔된 資格 있는 高級將校를 로서 構成된 企

劃機關이 졌지만 그것은 陸海空軍 및

海兵隊로부터 分離되고 完全히 獨立

된 機關일 것이며 오직 參謀本部總長

과 國防長官 그리고 最高司令官인 大

統領에게만 責任을 지게 될 것이다.

現在의 合同參謀本部는 今明問에

始作되는 假想戰爭에 對한 戰略과 戰

術에 合意를 보는데에는 이렇다할 特

殊한 困難은 없었다. 그들의 말성은

誘導彈「로켓」및 그 밖의 各種無線

機操縱裝置等 未來機을 爲한 武器를

發展시켜야 하는 必要性에서 生겼다.

各軍은 그 將來의 規模 構成 및 重

要성이 그 武器에 依해서 決定되기

때문에 그러한 武器를 發展시키기를 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合同參

謀本部를 構成하고 있는 各軍參謀總長들은 모든 사람이 歡心을 살려 고 하는 나머지 같은 種類의 武器를 發

展시키기 爲하여 科學的 才能, 生産

技術 및 戰略物資에 對한 軍相互間의

競爭을 許容하였다.

그 結果는 印象的인 것이 못되었다

美國은 國防을 爲하여 一年에 三五〇

億弗을 쓰고 있다. 이 額數는 聯邦政

府 總歲入의 거의 切半인 것이다. 그

러면서도 上院調査委員들은 軍當局者

들로부터 美國은 誘導彈의 發展과 甚

至於는 戰略空軍力에 있어서 까지도

蘇聯에 뒤떨어져 있다고 있다는 말을 들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證言은, 앞으로 數年 동안

美國이 現在의 不足을 補充하고 蘇聯

에 뒤떨어지지 않기 爲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同時에

經濟學者들은 果然 現在의 支出率이 自由社會에서 無限히 持續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해서 疑心하고 있다. 이 問題에 對한 唯一한 解答은 「적은 돈을 가지고 큰 戰力을 얻어야 한다」는 것 같다. 勿論 이것은 現在와

같이 各軍으로 하여금 競爭的이고 重

復된 武器發展計劃을 爲해서 稅金을

浪費하도록 放置해서는 達成될 수 없

는 것이다. 그리고 各軍의 辯論者는

될 수 있지만 同時에 그 辯論을 判決

하는 審判官은 될 수 없는 現合同參

謀本部의 各軍參謀總長들은 勿論이

浪費를 終熄시킬 수 없는 것이다.

參謀本部設置를 反對하는 常套의 人

主張은 獨逸이 그것을 試驗해본 結果

兩次大戰에서 敗戰하지 않았느냐 하

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獨逸이 그

參謀本部로 말미암아 敗한 것이 아니

라 그것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敗한

것이다. 兩次大戰에서 그들은 優勢한

軍事力과 經濟力에 壓倒當하였던 것이

다. 그들의 資源에 비추어 볼때 그들

은 아주 잘 해나갔던 것이다.

### 通話機 없이도 電話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안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같은 新電話室이 最近 美國의 一電話會社에서 完成했다.

이 電話室은 지금과 같은 電話機는 없고, 그 代身에 完全防音裝置



를 한 室內에 「마이클로홀」과 「스피카」가 숨겨 있을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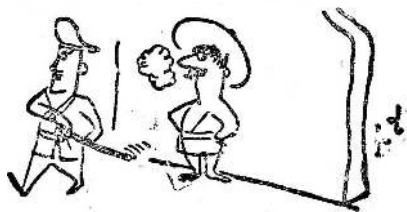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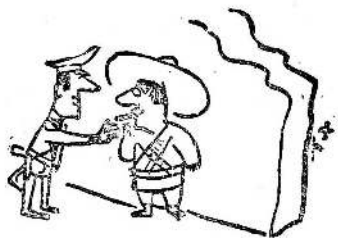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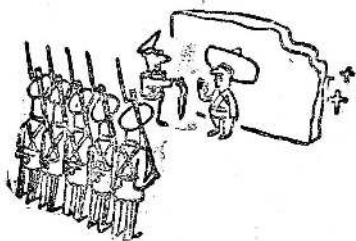
이 新電話室은 美國의 民主黨 全國大會가 行하여진 「시카고」에서 試驗的으로 使用해 보고 評判이 좋으면 大大的으로 採用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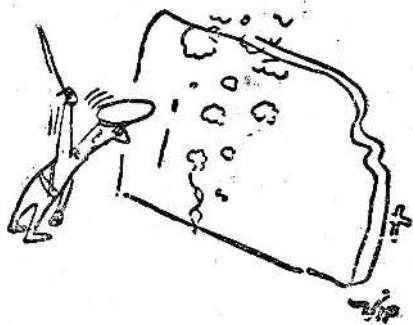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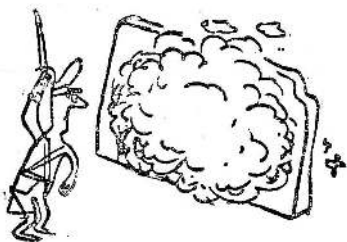
더욱이 第一次大戰에서 獨逸參謀本部는 根本的으로 地上軍司令部の 役割을 하였고 海軍이나 그 當時에는 比較的 重要하지 않았던 空軍에 對해서는 微弱한 支配力을 行使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第二次大戰에서는 「히틀러」가 繼續해서 參謀本部를 支配하였으며 「게링」의 空軍은 參謀本部の 支配를 받지 않고 直接 「히틀러」에게 報告하였던 것이다.

第二次大戰에서 聯合軍은 獨逸軍보다 훨씬 統一에 接近하고 있었다. 아 이전하워「將軍은 北阿와 歐羅巴에서 陸軍은 勿論 海軍과 空軍도 指揮하였다. 그는 三軍을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三軍이 深刻하게 다시 自說을 主張하기 始作한 것은 終戰後부터이다. 現在 그들은 이 以上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深刻하고 값비싼 段階에 到達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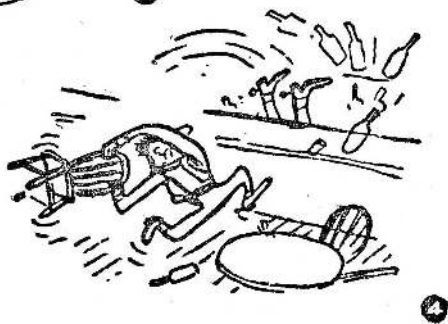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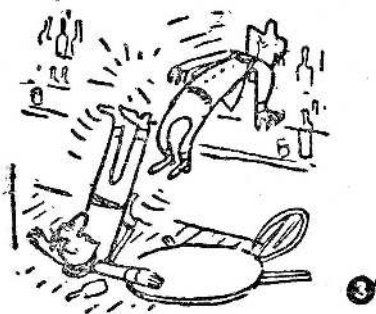
「타임」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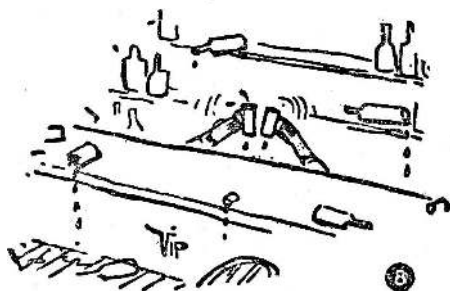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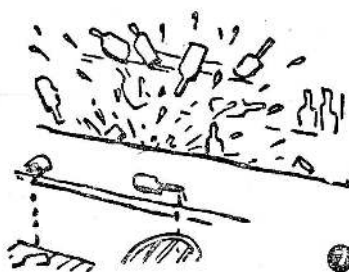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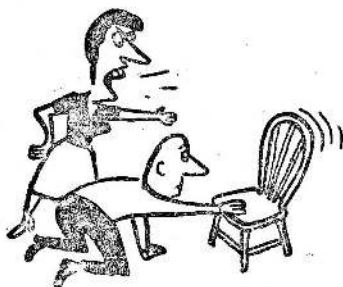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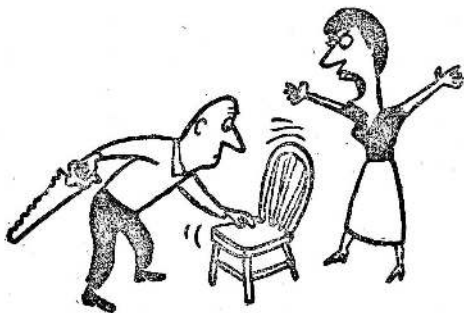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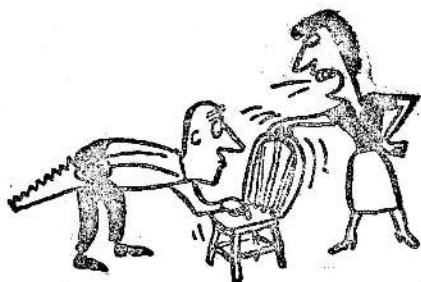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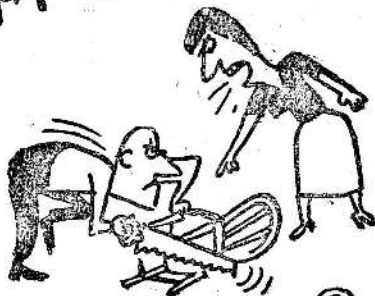
③



④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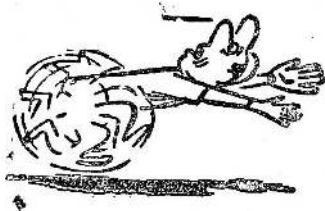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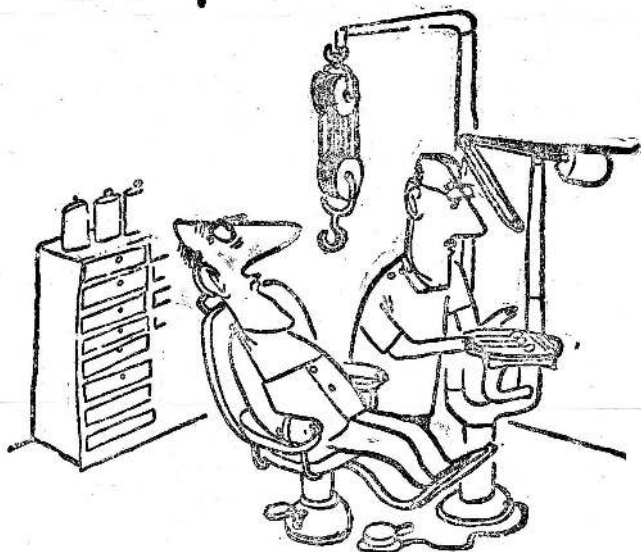
7



8

155





# 情 關 玉

— 漢詩에 나타난 後方의 女인과 戰線의 兵士 —

大尉 高 寬 永

北風만이 불창이 몹시 덜그덕 거리는 어느 날의 밤이었다. 이 불속에 웅크리고 앉드려서 책을 읽다가

불철듯李白作「長安一片月」이란詩句에 접했다. 저지 않은 느낌이 있었다.

戰爭으로 말미암아 男便을 밀러

뺏기고 獨守空房에 掃衣하고 있는 女人의 애주른 얼굴이 生影같이 드러났다.

同時에 現下我國의 情形이 이에

못지 않을 것을 生覺하니 더욱 感傷의

임을 免하지 못하였다. 그런 理由로

그후 몇일동안 斯類의 戰爭에 對한

漢詩를 애써 찾아보게 되었다. 數首

얻어 읽고나니 명은 가슴이 스스로

慰籍되는 느낌이 있었다.

其中 몇首를 例學해 볼까 하는바 主

로 唐代의 作品을 擇했다. 이 時代에

는 外征이 끊이지 않았었고 唐 詩의

黃金時代라고 하기 때문에 戰爭에서

取題한 優秀한 作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其中 後方의 女人의 玉關에 關

친 애주는 情은 實로 무엇보다도 거센 것이었다.

現下我國의 後方 女人의 前 兵線에 걸친 그것과 잘 通하는 將

點이 있었으리라.

以下 數首 例學하여 그 事情을 더

듬어 보기로 한다.

먼저 李白의 作인 「長安月」부터

長安一片月 萬戶掃衣聲

秋風吹不盡 總是玉關情

何日平胡虜 良人罷遠征

아직 安祿山이 反旗를 들기 前에

玄宗皇帝는 唐의 國威의 伸張을 圖

謀하기 爲하여 軍隊를 밀러 國境에

보내었다. 一便 當時의 重臣들은 帝

가 外征을 좋아하는 機會를 타서 功

을 세우고저 散漫하게 大軍을 움직

였음으로 民意아닌 戰爭이 確實했는

것 같다. 詩에도 그 點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西藏에는 吐蕃이라는 外蠻이 當時

모르는 反面에 人民은 나날이 苦勞  
진탕속에 빠져들었을 것은 判然

君臨하고 있었기에 玄宗은 이것을  
討伐하고자 甘肅方面에 많은 兵丁을  
보냈을 것이다。玉關이라 함은 玉關  
門 只今の 甘肅省 熾煌에서 西方에  
通하는 關門이었다。이 戰場이야 말  
로 荒涼極한 沙漠으로서 마음을 즐  
겨 줄 것은 아모것도 없고 다만 悲壯  
한 邊境風景뿐이 었으며、中國本土  
의 西方의 끝인 이 玉關門은 이 世上  
과 저 世上의 境界라고 하여 玉關門  
을 通한 西方의 遠征兵士는 또 다  
시 內地에는 生還하는 者 없다고 까  
지 여기고 있었는 것이다。  
勿論 李白은 如斯한 戰場에 臨하  
여 본 적은 없었지만 兇惡하기 짝  
이 없는 邊境從軍에서 아득한 故鄉  
에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勇士  
들에게 적지않는 同情을 하였을 것  
이다。

王者는 歡樂에 빠져 깨우칠 줄을  
다름은 것이었다。이 소리를 長安의  
一限에서 들은 그는 그 다디미소리

之事였으니 民間에 怨聲이 나날이  
높아졌는 것이다。  
元來 모든것에 對하여 「我不關焉」  
主義였던 李白도 이와 같은 民間의  
怨聲을 듣고 玄宗의 政策에 全然無  
關할 수는 없었는 것이다。  
上例한 詩를 읽고 當時 長安의 情  
景을 腦裏에 그려 본다면、玄宗의  
命令下 거의 全部의 男子가 펠러 胡  
國戰線에 끌려가고 남아있는 長安의  
妻子들의 마음은 정말 暗澹하기 짝  
이 없었을 것이었다。都邑이라고는  
하지만 極히 閑寂한 것으로 於焉間  
여름도 지나고 落葉지는 가을이 오  
니 長安의 風景은 一層 哀色 지러졌  
다。때 마침 낮과 같이 밝은 가을날  
이 하늘 높이 걸쳐있고 여기저기에  
서 들려오는 다디미소리가 쓸쓸한  
가을 바람의 구비구비에 실려오는 것  
이었다。遠征의 男便에게 보낼 옷을  
다름은 것이었다。이 소리를 長安의  
一限에서 들은 그는 그 다디미소리

앞에서 본바의 掃衣人 中의 一人이  
겠으나 戰線이 어찌였는지 不詳이고  
다만 唐의 兵士의 妻라는 것만은 確  
實하지만 戰線의 守備를 하고 있는  
男便에 外套를 지어 보냈다는 妻의  
詩가 있으니

沙場征戍客 寒苦若爲眼  
戰袍經手作 知落阿誰邊  
蓄意多添線 含情更着綿  
今生已過也 重結後生緣  
大意를 取해 본다면  
荒涼한 戰線에서 싸우시  
는 인、寒苦에 或이나 잠  
못이룰까 보아 손질로 外  
套를 꾸미었읍니다。

將 欄

將 欄

將 欄

將 欄



이것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알기에, 꾸미는 곳마다 온마음 다 드리고 속도 푸근히 많이 넣었지요. 이世上은 이것이 끝이야. 날까요 죽어서 後生에 또 緣分이 되었으면……

實感的인 作品이다. 律詩이기 때문에 對句가 四節로 되어야 함에도不拘하고 그렇지 않다. 全然 素人의 作인듯싶다. 더욱이나 平民階級の 所産이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如何間에 일어나 悲感的인 作品이라? 特別 끝의 二句는 그 위에 表現할 것 없이 痛切한 울부짖음이라고 할 것이다.

一 便 僖宗皇帝 때 其外의 出征兵士에게 宮中으로부터 袍千領을 賜下한 事實이 있었는데 宮女들로 하여금 그 袍를 裁縫케 하였는 것이나, 其中 一宮女가 詩一首에 金襴一領을 副送하였는 바 一兵卒이 그것을 받아 입고 그 袍中에서 앞의 詩一首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豪華스러운 慰問品이 問題가 되어, 皇帝는 그 宮女와 一兵卒을 結婚시켰다는 逸話도 傳하여 지고 있지만 如何間에 寒苦로 困하여 陣中에 衣類를 送達하는 詩가 많았다. 이것은 詩가 많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事實이 많았던 까닭이 아니런가?

또 一首 例學하면

芙蓉露冷月微微 小院風情鴻雁飛

聞道玉門千萬里 秋深何處寄寒衣

作者는 朱秦玉이라는 婦人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인지는 未詳이고 大意를 取해 보면 蓮꽃의 이슬이 차거운 달빛에

어려니

小院의 바람도 맑고 기러기도

날아갑니다.

玉門은 千萬里라고 들었소마는

지나가는 가을 寒衣를 어느 곳에

보내오면 좋을가요.

이 詩가운데의 玉門이라 함은 亦

是 玉門關을 말한다.

以上 몇首의 詩에 後方에

남은 女人들의 人生觀이 如實히 表現되어 있음을 알겠다.

一旦 出征한 男便은 生還할

可望性이 全然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誠心誠意衣

類를 지어 보내는 當時의 後方女人

들의 애꾸은 心情을 잘 엿볼수 있는

바이다.

前九年 後三年 程度는 아니었지만

玉關의 出兵도 꽤 오래 繼續된 模樣이다. 歷史에는 그런點이 안 보이나

詩에 나타나고 있으니 즉

玉關征戍久 空關人獨愁

寒露濕齊管 別來蓬鬢秋

作者는 蘇頌으로서 玄宗皇帝時代

人이다. 事實에 立脚하여 將士의 妻

의 心境을 노래한 것이다. 大意를

드려 보면

玉關의 守備 오래인데

獨守空房에 지름도 많소

뜰의 靑苔위에 내린 서리

흐터지는 귀릴머리에 가을이 지

러가오

寒露濕苔는 眼前的 實景인데도 이  
것을 身上的 髮髮로 象徵한 것은 션  
으면 션을 수복 맞이하는 筆致이다。

얼마나 含蓄性있는 句이냐? 男便이

玉關에 出征한 後 獨守空房에 오랜

동안 시름을 하고 난 妻는 전디다

못해 結局은 모든 것을 斷念하고 지

난날 그렇게 情熱的인 人生生活의

餘音에서 完全히 깨어나고 보니 모

든 것이 쓸쓸하기만 하고 寒冷하여

가기만 하드라는 것이다。

X X

初唐의 名家 張九齡의 作에 男便

을 征戰에 보내고 뒤에 남은 妻에

代하여 지은 詩가 있으니

自君之出矣 不復理殘機

思君如滿月 夜夜滅清輝

씨름에 관한 文字는 보이지 않으

나 다만 一時的인 旅行을 爲한 離別

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語感

이 너무나 노거세다。 大意를 들어 보

면

當身이 나가신 뒤로는

짜다 남은 베를에 손이 가지 않소

當身을 생각한다면

모름달이 밤이면 밤마다 이그러

지듯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워가는 몸이지요。

「思君如滿月」이란 句는 글자 그대

로 보아 치을 것이 아니다。 아기가

기한 夫婦生活을 하다가 男便을 빼

앗기고 보니 每事가 손에 걸리지 않

고 밤이면 밤마다 怨恨에 쌓인 心境

을 蒼空에 걸린 달에다 呼訴하면서

歲月를 보내는 女人의 몸은 그 달이

조금씩 조금씩 이그러져 가는 同時

에 自身도 야워지는 것을 如實히窺

知할 수 있다。 語句는 單純하나 意味

는 깊고 깊은 바 있다。 漢詩의 特徵

이란 이것이 아닐까 한다。

X X

멀리 邊域에 出征해 버린後、 國境

守備의 任務에 多忙하였음인지、 무

슨 일에 興味를 잃었음인지 해를 두

고 오랜동안 消息하나 없이 지낸 男

便으로 부터 어느날 忽然히 使人이

왔을 때의 感動을 읊은 것에 盧殷의

「遇邊使」가 있다。

累年無的信 每夜夢邊城

袖掩千行淚 書封一尺情

大意를 드러보면

消息을 모르는지 몇해이든노

밤이면 밤마다 꿈이 보이는 邊城

옷소매를 타고 가는 千줄기의

눈물 玉書에는 一尺의 情이 기

드러 있지요。

의 信은 的確한 通信、 邊域은 城砦

이며 前二句는 過去、 後二句

는 現在의 情景으로 보아야 欄

할 것이다。 累年、 每夜千行淚

一尺情等 漢字의 巧妙한 組

合은 如何間에 出征한 後 몇 將

해를 두고 消息 하나 없는 男便은 斷念할 것이 마땅하나 그때도 끝내 못 잊어 밤마다 꿈에 邊城을 보든 男便은 惡한 生活을 繼續하다가 突然히 男便으로 부러온 消息에 感慨無量하고 있는 女人의 幻影이 眼前에 재듯이 어린다.

以上에서는 後方女人에 關한 것이었으나 一便 玉門關밖의 索莫한 戰場生活을 想起시키는 것에 王翰(初唐人)의 「涼州詞」가 있다. 涼州(甘肅省)의 邊地에서 보내는 殺風景한 出

將兵欄

愁心譜

대위 최창열

고요히 가람비가 오나 불너다  
추녀 끝에 물소리가  
고칠할 모르는 그리움에  
눈물 짓나 불너다

征兵士의 生活을 慰藉하는 것이라고는 술(酒)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白玉杯에 葡萄의 美酒를 넘치도록 부어 가며 馬上에서 琵琶를 뜯어 즐기든 次 드디어는 醉에 못이져 그 대로 沙場위에 놓고 마는 等은 一旦 出征하면 다시 故郷에 生還할 수 없는 兵士들의 行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葡萄美酒夜光杯 飲飲琵琶馬上催  
醉臥沙場君莫笑 古來征戰幾人回  
大意를 드러 보면  
夜光에 어린 白玉杯에 葡萄酒를 넘

지도록 부어서  
마실라거든 馬上에 琵琶를 뜨드드라 沙場에 醉臥했  
다오 웃지를 말 것이 古來로 遠征에서 몇 사람이 將兵欄

王翰의 이 詩에는 大陸的男子의 豪快性이 表現되어 있지만 그裏面에는 어떤가 쓸쓸하기 짝이 없는 悲哀感이 숨어 있는 것을 知覺할 수 있다.  
王芝煥의 「出塞」는 詩를 보면  
黃河遠上白雲間 一片孤城萬仞山  
羌笛何用怨楊柳 春光不度玉門關  
即 黃河의 上流에 마다 胡國의 土地를 向하고 가니 白雲間에 一片孤城이 萬仞山頂에 솟아 있어 其城에서 胡人이 부는 折楊柳曲이 들려 왔다는 것이다.  
胡地는 언제나 寒地인 지라 內地의 暖和한 春風이 玉門關을 거쳐 이곳까지 다달들려 없건만 胡人이 折楊柳曲을 부는 것은 오히려 暖和한 곳에서 寒冷他帶에 遠征은 그들에게 怨恨에 저운 哀愁를 주는 고나 하는 것을 읊은 것이다.

以上에 舉例한 數首의 詩속에 後

이는 고초한 女人의 눈물을 담아  
내 가슴에 역역한 빗방울 소리.....

이 밤 따라 유달히  
외로워 지는 것은

봉오리 짓던 處女의 첫 가슴을  
풀어 헤치는 木蓮花의 우름

지름없이 窓에 기대서면  
어느 먼 나라의 故鄉을 등진

나와 같은 사람이  
이 밤의 우름을 들고 있느냐

눈물 마냥 흐른다  
흐르는 눈물에 따라서 가면

어디선가 오랜 古木까지  
遺品을 두고은 슬픈 이야기

끝끝내 못다 풀 情으로 해서  
이다지 곱게 보이자고 머리를 잠누나

고요히 가랑비가 오나 불너다  
추녀골의 물소리가

잊어지지 않는 그리움에  
눈물 짓고 뒤돌아 가나 불너다

方에 남은 女人들의 人生觀과 出征  
兵士의 生活이 如實히 表現되어 있  
으니 一旦 出征한 男便은 生還이 全  
然無可望하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면서 그래도 품없이 誠心誠意  
衣類를 지어 보내며 때로는 絶望에  
겨워 厭世하는가 하면 때로는 무엇엔  
가 생에 對한 굳은 信念을 갖는 나  
머지 感慨無量하곤 하는 後方 女人들  
의 表現하기 難한 애구운 心情과 한  
편 可愛可貴한 妻子를 後方에 남기고  
玉門關 밖으로 本意 아닌 出征을 하고  
있는 兵士들의 悲壯한 厭世의 心境  
을 잘 엿볼수 있는 바이다. 그들은  
이 世上과는 全然 離別하였다는 悲  
壯한 事實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찌  
는지는 如何間에 그 玉門關을 싸고  
도는 戰線과 後方이 絶斷되어 있으면  
서도 連繫되어 있는 情體를 무어라고  
表現해야 옳을지? 또한 편 그윽히  
생각편대 現下 我國民族이 處하고  
있는 三八線은 當時 玉門關이 다를  
수 없을 만큼 嚴然한 邊境이  
며 同族끼리 雙方에서 對敵的  
으로 불을 품고 있는 것이니  
이 邊境에 交流되는 情體를 또  
한 무엇이라고 表現해야 옳을  
지?

將 兵 欄



# 伊太利映畫界의 近況

— 그 沒落하는 原因은 무엇 —

US뉴·스·&·월드·리포트誌

第二次大戰後 「無防備都市」 「自轉車盜賊」 「구두담이」 等 感動的인 寫實主義映畫를 낳아 一躍 世界的 注目을 集中시킨바 있던 伊太利의 映畫産業은 오늘날 暗礁에 부딪히게 되었다.

「로」마 郊外에 있는 伊太利의 「허리웃드」인 「치네치타」에는 漸次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肉體美를 자랑하는 銀幕의 女王들은 그 大部分이 이곳을 버리고 美國으로 건너가 美國映畫製作者들 德分에 高級出演料를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

伊太利 最大의 撮影所의 하나는 드디어 最近에 破産하고 말았으며 많은 群小會社도 閉鎖되었다. 그 뿐아니라 다른 大小各樣의 會社들도 巨額의 借金を 질머진채 收入은 確實히 減少一路로 그 生命은 風前燈火格이라고나 할 것이다. 이와같이 얼마전만 하더라도 「허리웃드」 다음가는 世界第二의 規模를 자랑하던 伊太利映畫産業全

體가 窮地에 휩쓸려 드러 가고 있다. 伊太利에 있어서 다른 分野의 産業이 모두 好景氣를 謳歌하고 있는 現象인데 映畫産業만이 이와같은 慘狀에 놓여 있는 것이다.

× × ×

伊太利 映畫産業의 興隆相은 實로 눈부신바가 있었다. 戰後에 거기에 접이로 出發하였으면서 昨年까지에 伊太利에는 映畫製作會社가 二百六十社나 생겼다. 그리고 이들 映畫會社 全部가 「伊太利映畫産業聯盟」에 加入하였다. 또한 一九四八年에서 一九五四年에 걸쳐 撮影所에서 製作되는 映畫本數는 一週間에 平均 一本에서 三本으로 뛰어들었다. 海外市場에서도 伊太利映畫는 좋은 評判을 받았다. 例컨대 「실파나·망가노」 主演의 「손팔」이라는 映畫는 美國에서 上映된 外國映畫中 가장 人氣를 獲得한 映畫였다. 그리고 豐滿한 乳房을 자랑하는 伊太利의 「스타」들은 美國

雜誌들의 表紙를 「카바·길」로서 華  
麗하게 裝飾하였다.

이렇게 美國뿐만 아니라 中東이나  
「라틴·아메리카」 歐羅巴等地에서의  
伊太利映畫가 올린 收益은 年間約一  
千二百萬弗까지 올라갔다. 이 海外市  
場은 伊太利映畫의 有力한 支柱를 이  
두는 것이다. 그것은 映畫産業 製作  
費의 三分之一은 이것으로 充當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로·마」를 『歐羅巴의 허리  
웃드』로 만들 고저 可能한 모든 機會  
를 映畫製作者에게 賦與하였다. 거이  
모든 長篇映畫에 있어서 製作者들은  
政府로부터 入場料總額의 十八 퍼센트  
나 되는 補助金을 받았다. 이 같은  
補助金은 今年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政治的인 問題로 해서 中止되었으  
나 다시 繼續하도록 되어있다.

政府는 또한 伊太利映畫를 爲해서  
國內에 確實한 市場을 確保하려고 하  
였다. 卽伊太利的 全映畫劇場은 一

年에 적어도 百日은 國產映畫를 上映  
하도록 命令을 내리고 있다한다. 그  
뿐 아니라 製作者들은 製作費의 一部  
를 政府에 依해서 設置된 特別基金에  
서 低利로 借金할 수가 있다. 그리고  
美國의 大攝影所도 伊太利製作所와의  
共同製作 或은 單獨으로서 많은 成功  
作品을 伊太利에서 만들어 「치네췌  
라」의 名聲을 높이는 데 힘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의 成功作品으로서는 「여  
우의 王子」 「뤼·파디스」 「로·마의  
休日」 「사랑의 샘」 「旅愁」 같은 것이  
있다.

伊太利에서 일을 하고 있는 美國의  
製作者들은 美國映畫가 올린 凍結收  
益을 利用할 수 있었다. 그리고 製作費  
는 特別 人件費面에 있어서 「허리웃  
드」와는 問題가 안될 만큼 싸 것이 다  
美國映畫會社에서 볼때의 이와 같은  
財政上의 魅力은 오늘날은 存在하지  
않는다. 卽收益中에서 二十萬弗이  
所得稅의 對象에서 除外될 뿐으로 製

作費의 高騰은 製作上의 節約까지도  
別無意義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製作費가 急騰한 原因은  
伊太利的 映畫人이 極히 稀少한 것을  
보면 스스로 納得이 될 것이다. 이 점  
에 對해서 伊太利에서 가장 유명하다  
는 批評家의 한사람은 그 事情을 다  
음과 같이 要約해서 말하였다.

『우리를 이 優秀映畫를 製作코저 할  
경우 얼마만한 人材가 있을 것인가?  
「스크립트·라이터」의 數는 몇사람  
이나고요? 네사람이죠. 그러면 監督  
은? 그것도 네사람, 女俳優는? 그  
것도 네사람, 男俳優는 두사람, 이러  
한 實情입니다』

이와 같은 人材의 酷甚한 缺乏에 加  
附하여 外國觀衆에 「애필」하기 爲해  
서는 世界的인 一流스타를 必要로  
하는 結果 自他가 共認하는 몇몇有  
名한 俳優나 監督의 給料(出演料)은  
요·一·三年 사이에 「허리웃드」와 比  
肩할만한 程度로 急上昇하였다.

예컨대 「지나·로르부리자」 같은女優는 一九五五年 一年間에 작으마치 五十五萬弗을 벌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오늘날에 와서는 映畫一本에 對한 出演料로 三十萬弗을要求하고 있다. 또 한사람의 國際女優 「소피아·로렌」도 昨年度에 五十萬弗 가까운 出演料를 벌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女優는 二、三年前만 하더라도 一本에 對하여 一萬五千弗로 滿足하고 있었는데 現在에 와서는 一本에 約十萬弗을 要求하고 있다

또 하나 엄청난 事實로서 伊太利에서 가장 有名한 俳優兼 監督인 「벤틀리 오·메시카」는 昨년에 七十萬弗에 達하는 收入을 獲得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財政的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 伊太利的 映畫產業은 벌써 이러한 天文學的 數字에 達하는 出演料를 支拂할 能力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一流스타의 大部分은 「허리웃드」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스타

타의 「허리웃드」行은 伊太利映畫의 危機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것으로 伊太利映畫가 外國 「팬」들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問題는 더욱 더욱 困難性을 의게 되었으니 外國에서의 收益이 그 運命을 左右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伊太利 映畫產業의 根本的인 缺陷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質問을 받았을 境遇에 많은 斯界의 批評家들은 다음과 같이 對答할 것이다. 卽「大部分의 伊太利 映畫製作者가 眞實한 映畫人이 아니고 그야말로 一獲千金을 꿈꾸는 영타리 金鑛쟁이들같은 者들인 때문이라...」云

戰後 少數의 映畫가 저은 豫算을 짓고 大成功을 걸운데서 文字그대로 몇 百名의 이런 打算꾼들이 映畫로서 汗을 단단히 불라고 덤벼들었다. 「카메라」의 「렌즈」와 「화인더」의 區別도 못하는 이런 따위의 實業家들이 하루밤 사이에 映畫製作者로

登場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어느 齒科醫師의 境遇를 보던 約束手形과 政府의 補助金으로 映畫를 製作코저 昨년에 廢業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는 그의 英雄的인 叙事詩가 어찌서 大失敗로 돌아 가는가를 아무리해도 理解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네치타」의 景氣는 「네오·리알리즘」映畫로 해서 생겨났다. 이것은 製作費가 싸게 먹는 黑白映畫로서 世界的으로 名聲을 떨쳤다. 伊太利映畫가 그 가장 成功作品을 만들었던 一九四七年 一九四八年當時 映畫하나를 만드는데는 平均 十萬弗程度면 充分하였다. 그러나 그후 伊太利的 製作者들은 「허리웃드」와 競争을 하고져 色彩필립 「와이트·스크린」, 大規模的인 叙事詩作品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一本 平均製作費는 三十萬弗 程度이고 大部分의 映畫는 製作費가 百萬弗을 넘

고 있다.

이와같은 映畫製作費의 急上昇에 隨伴하여 製作에의 個人融資의 利子는 二割五分이나 되는 엄청난 것이 되었다. 그래서 昨年中에 만들어진 映畫中에 저어도 半은 製作費를 특별한 收益도 올릴 수가 없었다. 約三十%가 송두리채 損害를 보았으며 利益을 올린 것은 不過 五本에 一本程度의 것이었다. 그것도 映畫製作者에게는 一般的으로 政府에서 製作費의 三分之一를 補助해 주고서 그런 것이다. 나머지 三分之二의 收入은 國內과 國外에서 거의 比等하게 들어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以上에서 大略 본바와같이 酷甚한 人材의 缺乏、技術的知識의 缺如、거기다 殆半의 製作者가 經驗을 쌓은 映畫製作者가 아니고 純打算의 門外漢이라는 點等이 伊太利映畫의 質을 確實히 下落시키고 있는 原因인 것이다.

또한 伊太利映畫 「렌」들의 趣味가

달려진 데는 「레메비」의 影響도 있다. 昨年에 「레메비」熱이 伊太利를 휩쓸었다. 그 結果 오늘날에 와서 伊太利全國의 「레메비」受像機 總數는 不過三個月間에 七萬臺가 增加하여 二十七萬臺가 되었다. 이 「레메비」受像機中 約六萬臺는 茶房이나 「레스트란」에 備置되어 있는데 여기서서는 每日 不過 「키」되」한잔 값으로 「레메비」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伊太利人들은 金儲치않은 伊太利映畫를 보기 위하여 돈을 支拂하기 보다는 「레메비」로 懸賞「퀴이즈」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映畫館에의 入場數는 實際에 있어서 增加하고 있다. 卽入場總數는 一九四八年의 五億七千九百萬名에서 昨年에는 八億五千萬에까지 增加하였다. 그러나 興行主들은 이와 같은 觀客數의 增加가 전혀 美國映畫의 人氣에 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今年에 들어서서 伊太利 映畫館의

入場料 總額의 七十%는 美國映畫에 依한 收入으로 되어 있다. 昨年度에는 이것이 六〇%以下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情勢는 最近에 大製作配給會社의 하나인 「미네루바·필립」이 破産한 것으로 生생하게 浮彫되었다. 「미네루바·필립」을 破産에 몰아넣은 이같은 財政困難은 거의 모든 다른 映畫會社까지도 골치를 앓게 하고 있다. 閉鎖되는 「스타지오」의 數는 確實히 增加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것이라 할찌라도 五大會社를 包含시켜 撮影計劃을 中止하지 않으면 안될 處地에 까지 몰리고 있다. 그럼으로써 伊太利에서 製作되는 映畫의 數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生産이 絶頂에 達했던 때는 一九五四年으로서 總百五十七本이나 製作되었는데 昨年에는 百四十本으로 떨어지고 今年는 映畫關係者의 말을 빌리면 七十本이나 만들면 많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끝)



名作映畫紹介

覆面の騎士

(一名疑問의復讐者)

—The Dark Areoer—

RKO 라디오映畫

(시네마스코프—프)

十三世紀에 있어서의 英佛百年戰

爭을 背景으로 한 時代活劇。

「다니엘·B·올덴」의 原作과 脚本에서 「헨리·매빈」이 監督하였다.

撮影은 「가이그리인」作曲은 「제드릭·쓰이프·메쉬」가 擔當하였다.

主演은 『로빈훤드』의 「에들·후린」과 「조·온·드루」이며 助演은 「피터」, 「윈치」 「마이켈」, 「호더던」

「루퍼트·데이비스」等이다. 「월터」, 「미릿슈」製作에 依한 總天然色 一九五五年度 作品。

☆ 스토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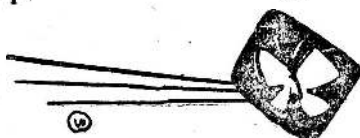
一三五八年。英佛兩國은 百年來의

오랜 戰爭에 終止符를 찍었다. 「에드워드·마이켈」, 「호더던」一世는 佛

蘭西側에 決定的인 敗北을 입히고 自己 스스로가 佛蘭西國王까지 兼하

여 皇太子 「루린스·에드워드」(에들후린)를 佛蘭西에 남겨두고 英本國으로 歸還하였다.

「에드워드」는 父王의 뜻을 받들어 善政을 베풀어 戰亂에 지친 사람들에게 平和를 約束하여 德望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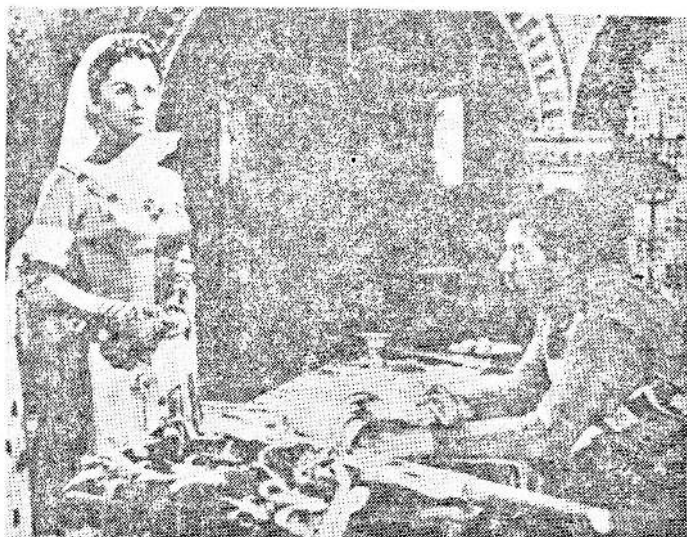


았다.

이러한때에 英國에서 어릴때부터의 벗인 貴婦人 「조·온」(조·온·드루)이 죽은 그의 夫君의 領地에서 살기 위하여 두子息을 거느리고 왔다.

「에드워드」는 危險한 佛蘭西의 事情을 說明하고 歸英을 勸告하였으나 虛事였다. 敗北한 佛蘭西의 貴族들은 「메·빌」伯爵(피터·윈치)을 中心으로 佛王 다음으로 權力을 쥐고있는 「드·게스크링」(노엘·윈맨)을 推舉하여 秘密裡에 再起準備에 狂奔하고 있었다.

「메·빌」伯爵은 「에드워드」를 除去하려고 刺客을 보내어 暗殺을 企圖하였다가 失敗하자 貴婦人 「조·온」을 家族과 함께 誘拐하였다. 「에드워드」는 救助次 出動하였으나 「메·빌」軍의 伏兵에 遭遇하여 挾擊 끝에 敗北하였다. 「에드워드」는 心腹部下인 「혼」鄉



(루피트메이비스)에게救出되어 겨우逃走에成功하였다。그러나大膽한「에드워드」는 酒店 女給의 도

움으로佛蘭西騎士로變裝하여「黑騎士」라고呼稱하면서「메이빌」伯爵의城에侵入하여 그部下로採用되었

다。「에드워드」는即時嚴禁된貴婦人「조」를救出하려하였으나警戒가嚴重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채「드·게스크링」은兵士를 모아「메·빌」伯爵軍과合流하였다。

「드·게스크링」은「에드워드」의얼굴을알고있었기때문에「에드워드」는「게스크링」과對面하는것을避하고있었는데,처음부터재로들어온「에드워드」를嫉妬하고있던騎士「러보」(알라스테어헌터)가決鬪를挑戰해왔다。

「드·게스크링」立會下에兩人은決鬪를 하였는데,

뜻하지않게「에드워드」의假面이 벗겨져身分이綻露나고 말았다。

「에드워드」와「존」卿은重包圍를 뚫고逃走하면서守備兵에게虛偽의命令으로監禁中인貴婦人「조」를救出시킨다음無事히歸城하였다。

「에드워드」의留守軍은小軍이었으나勇氣百倍하여「에드워드」의指揮下에 마침내攻擊軍을擊破하였다。이렇게해서佛蘭西에는 또 다시平和가 찾아들어貴婦人「조」은사랑하는「에드워드」에게를같은「킵스」를 보냈다。

### 離婚問題

離婚問題를 調査한 結果 그 破綻의 原因은 大概 다음과 같은 네가지다。

- 一、性的不配合
  - 二、餘暇利用에 對한 意見의 差異
  - 三、經濟的 困難
  - 四、心的, 肉의, 或은 感情的 變遷
- (美·로산젤스家庭關係學會長)

名作映畫紹介

곧건한 사나히들

—The Tall Men—

二十世紀폭스映畫

(시네마스코프)



「스타르크」(로버트·라이언)를襲撃하여 大金을 掠奪하였다. 그러나 「스타르크」는 強盜질을 하느니보다 소(牛)를 사서 「몬나타」에 파는 것이 利得이 된다고 말하자 세사 사람은 同志가 되었다.

土人の 威脅을 避하여 北「텍사스」로 가자 눈보라에 휘둘러 危殆로 있을 때에 移民團에 依하여 救助되었다. 그러자 「벤」은 그를 看護해준 아름다운 女性「네라」(제인·멧셀)에게

마음이 이끌렸다. 다음날 세사람의 同志는 그곳을 出發하였는데 土人の 移民團襲撃을

알아챈 「벤」은 單身 되돌아와서 全滅의 危機에 處한 移民團 가운데서 겨우 「네라」를 救出하여 先行하는 「클린트」와 「스타르크」를 쫓아서 「워스」(要塞)로 向하였다.

途中에서 「벤」과 「네라」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要塞에 到着하자都會生活를 憧憬하는 「네라」에게 「스

★ 「바람과 함께 살아가다」의 클라르크·게이블과 「紳士는 金髮을 좋아한다」의 제인·멧셀이 共演하는 西部開拓活劇의 「시네마스코프」版

「윌리엄·A·베이커」와 「윌리엄·B·호옥스」가 製作을 擔當하고 「타을·윌슈」가 監督하였다.

「크레이·윌셔」의 小説을 原作으로 하고 「지드너·보이엔」과 「아일랜드의 戀風」의 「프랑크·뉴젠트」가 脚色하였다.

撮影은 「테오·트위」音樂은 「白晝

의 對決」의 「윌러·영」助演은 「로버트·라이언」 「카메론·밋첸」 「후안·감시아」 「해리·세논」等이다.

☆ 스토리 —

南北戰爭에서 活躍한 「텍사스」人 中에는, 戰後 牧畜業의 不振으로 困하여 失業하고 無賴漢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벤」(클라르크·게이블)과 그의 동생 「클린트」(카메론·밋첸)도亦是 그 同類였다.

두사람은 「몬나타」國境의 어느市에서 銀行으로부터 大金을 찾아내오는

### 굳건한 사나리들의 主演者

<「클라크·케이블」과「제이·릿셀」>



타크는 巧妙하게 接近하였다.  
 「산·안토니오」에서 「스타크」는  
 四千匹의 소를 사고 北上하였는데 一  
 行의 앞길에는 兇惡한 土人地區가  
 있었다.

「클린트」는 偵察에 나가서 土人에  
 게 殺害되었다. 「벤」은 소의 大群을  
 疾走시켜서 土人을 짓밟고 헤치며  
 無事하게 目的地에 到着하였다.  
 그러나 家畜을 賣却한 「스타크」는

卑怯하게도 「벤」을 警備隊員에게 引  
 渡하고 利得을 獨占하려 하였으나  
 「벤」의 部下인 「카우보이」의 授  
 助를 얻어 利得의 分配를 받았다.  
 「텍사스」에서 牧場을 開設하기 위  
 하여 「벤」이 自己馬車에 타자 그곳  
 에는 「벤」과 生涯를 같이할 決心을  
 한 「네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 ☆ 俚諺 ☆

가운 服裝은 아름답다운 말(言)보  
 다 나은 것이다. (丁抹)

치장 아니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  
 다운 사람. (獨)

아름다운 옷이 가치없는 사람의  
 어깨에서 운다. (佛)

酒席이 길면 壽命은 짧르다. (佛)

술을 일으켜면 벌의 쓰는 것을 참  
 아야 한다. (英和)

하루 밤을 자도 험각씨. (韓)

# 新作映畫紹介

## 禁斷의 遊星

(Forbidden Planet)



M · G · M · 社製作

六〇年後의 宇宙植民地를 多들는 空想科學 스티러 1의 一大快作。

空想科學映畫는 한卷도 製作치 않

었던 M · G · M 社가 처음으로 만든

「씨네마스코프」로된 作品。空想 科學映畫로서는 「스켈」이 龐大하고

불만한 場面이 大端히 많아 좋은 話

題가 되고있다。 特別 科學映畫로서

의 特殊技術에 좋은效果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音樂에 있어서는 全面的

으로 電子音樂을 使用하는等 새로운

方面의 開拓에 큰成果를 얻어 누구

가 보드라도 興味깊은 것으로 여기  
에 『로비 1』라는 로버트의 活躍이 펴  
자미있다。

이 映畫는 「아 1 빈그 · 부록크」와

『아펜 · 에드라 1』의 原作을 『시틸 ·

휴무』가 脚色하고 『니코라스 · 나파

크』의 製作에 「프렷트 · M · 윌콕크

스」의 監督으로 「스티러 1」와 空想科

學이 잘 얹혀진 새로운 作品의 作品이

다。 撮影은 『조오지 · 폴시』 主演으

로서는 『윌타 1 · 벵손』 『안 · 프란시

스』 그리고 新進인 『메스리 · 빌젠』

等이 登場한다。

△ 스티러 V

시대는 서기 2200년경。 『아담  
스』 『메스리 · 빌젠』가 지휘하는 유성  
연합(遊星聯合)의 우주수찰선 C 57  
D는 200년전에 일단의 과학자를  
파견한 유성 「알디어 4」로부터 아무  
런 응답이 없으므로 그 조사를 명받  
고 이 유성에 도착하였다。

『아담스』는 무인(無人)이라고 생  
각하였던 「알디어 4」에 과학자단의  
일원이었던 『모 1 비아스』 박사(윌타 1  
· 벵손)가 홀로 살아 남은것에 놀랐  
다。

『모 1 비아스』 박사는 대원인 여류  
과학자(女流科學者)와 결혼하여 「알  
디어 4」에 도착하였으나 이 유성은  
2000세기 이전에 이미 우주를  
초자연적인 축신과같은 힘으로서  
지배하고있던 「구메 1 부」 족에 의하  
여 음단(禁斷)의 유성으로 되어있었  
으므로 그 노침(怒懣)을 사게되어 파

학자들은 모두 죽게 되고 지금은 자기와 이 유성에 와서 출생한 『알디라』(안·프란시스)만이 생존하였다 고 말한다.

『모-비아스』박사는 자기가 창조한 『로비-』라고하는 一八七개 국어를 해득(解得)하고 말할수 있는 정묘(精妙)한 「로보트」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아담스』는 젊은 남자를 처음으로 대하게된 『알디라』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모-비아스』박사에게 딸과 같이 지기로 돌아갈것을 간청(懇請)하나 박사는 듣지않고 오히려 C57D가 이곳에 머물으면 「구레-루」의 노염을 받게되리라 고 경고한다. 사실 그 후 C57D는 보이지않는 괴물(怪物)의 내습을 받아 기계는 파괴되고 또 대학의 일부까지도 죽었다 『아담스』가 강력한 원자병기로 응전할것을 명하였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던차에 보이지않는 괴물은 일단 물러갔다.

대학의 『뫼크·오스트로』(위-렌·스-터본스)는 『로비-』와 친하게 되어 『모-비아스』박사의 비밀을 탐지한다. 그결과 『모-비아스』가 「구레-루」의 초자연적인 힘의 비밀을 해결하고 C57D를 습격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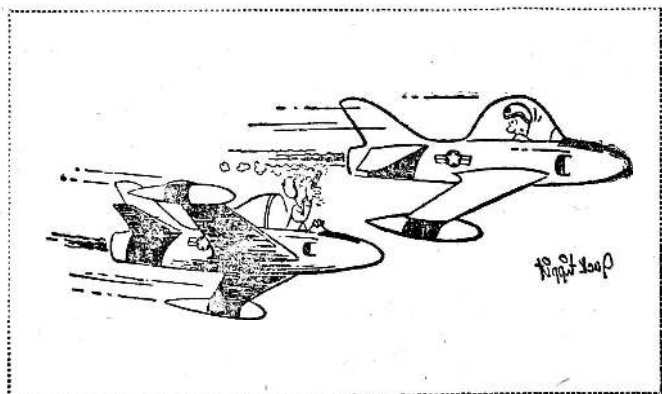
그외 뜻대로 움직일수있는 힘인것을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은 일각수(一角獸)의 변신(變身)이라고 전하여지는 『모비아스』박사가 가지고있는 범(虎)에 있다는것까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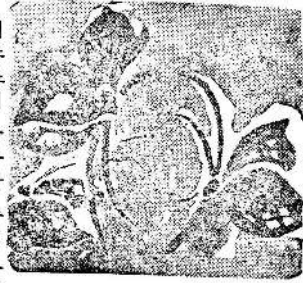
한편 『아담스』는 자기가 『알디라』와 결혼하고 싶다는것을 『모-비아스』박사에게 말하며 지기로 돌아가도록 설득시키나 미칠듯이 된 박사는 범을 풀어놓다가 오히려 죽게되고 만다. 그는 「구레-루」의 힘의 비밀을 알았으나 스스로를 과멸시킨 것이다.

『알디라』를 다리고 이 유성을 떠난 『아담스』는 얼마안되어 『알디어4』

가 폭발하는것을 보았다. 금단의 유성은 드디어 「구레-루」에 의하여 우주로부터 자취를 감춘것이다.

(映寫時間·一時間三八分)





△史話▽

# 浩亭逸事

徐泰憲

이조조에 왕릉을 중심으로 하여 왕 자사이에 숨은 반목이 있었음은 일반이 두루 아는 바이지만 소위 합종차사의 속어까지 그 당시에 생겼던 것을 짐작하는 사람으로는 이른바 태종(太宗)의 정사지공(定社之功)이라는 사건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정사(定社)의 변이 이러나기 얼마전 일이다.

당시 조정 벼슬아치 가운데에 상당한 신망과 위세를 가지고 있던 호정하문(浩亭河倫)이 뜻밖에도

관찰사로 제수되어 길을 떠나 임지에 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호정하문은 인물이 활달의락하여 조그만한 일에 구애되는 법이 없었다.

일즉이 그가 예천군수로 있을 지음에 정사를 전폐한 것은 아니지만 예천군하에 매인 판기란 판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수첩을 드리고 그야말로 매일같이 장야의 주연을 베풀다 하여 금복도사가 이것을 잠소하여 그 행장을 논박하려 할 지

음에 당시 경상감사로 있던 김주(金湊)가 그것을 알고 구구 만류하기를 『하군수의 기상을 보전해 결코 오래한 군읍의 재로 굴복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타일에 큰일을 손에 잡을 사람인즉 그만한 허물은 눈감어 두오』

라고 권하여 아모일 없이 되었다. 김주는 바로 하문의 서을집 근처에 역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후 태종의 정사지변(定社之變)이 생겼을 때 김주는 태종 반대파로 몰려서 신변이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그때 김주의 안해가 남편의 사정에 빠진 것을 알고 하문이 출타하는 말머리에 염대어서.

『나는 전일 상공이 예천군수로 계실 때에 경상감사로 있던 김주의 안해로 소이다』

하고 무언중에 남편을 구해달라고 애원한 바 있었더니 하호정(河浩亭)

은 그를 위로하여 돌려 보내고 구의  
를 생각하여 극력 김주의 목숨을 구  
출해 주었다는 미담의 소유자이다.

하호정 정계의 형세가 매우 위급  
하였고 궁중의 사정이 박두하고 있  
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지에 도입하  
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청안군(淸安君)(나중에 태  
종으로 된 본)을 비롯하여 당대의 명  
재를 초청하였다.

그가 특히 여러 왕자 중에서 청안  
군만을 청한것은 청안군이 타일 큰  
일을 할만한 인물인 것을 잘 짐작하  
고 있어서 심중에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늦은 점심때부터 대관들이  
하호정 자택으로 모여드렸다.

이리하여 연회는 바야흐로 무르녹  
아 드려갈 지음이 었다. 하호정은  
일부러 청안군 앞에 이르러서 잔을  
올리고 손수 술을 딸았다.

그런데 하호정은 술이 취해 그랫  
던지 마치 수전증 있는 사람처럼 주  
전자의 술을 잔에 붓지 않고 함부로  
짜투룩 말아서 청안군의 옷에 술이  
넘쳐 흘렸다.

『앗』하고 하호정은 놀래서 주전자  
를 든 손을 움츠러드리는 바람에 국  
그릇장그릇을 뒤집어 엎어서 청안  
군의 옷옷 앞자락은 이 국물로서 불  
저진 질태와 같이 되었다. 청안군  
은 불쾌한 그의 취태에 얼굴에 노기  
를 띄우고 필때 이르러서 『음』하고  
공자를 노며 퇴장을 하였다.

『앗』대감 대감』  
하고 하호정은 마주 이르러서 그의  
뒤를 따라 나가며

『아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꽃아가  
서 사죄를 해야지』  
하고 혼자말 처럼 중얼 거렸다.

이리하여 하호정은 청안군의 뒤를  
딸았다.

청안군의 별배구종이 이 광경을

보고  
『하감사 대감께서 뒤를 쫓아오십니  
다』하고 민망하여 주인에게 고하였  
다. 그러나 청안군은 심증이 불쾌한  
지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고 도라다 보지도 않고 말에올라  
자기 궁앞대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냥 증문을 거쳐 내문으로 드러서  
라 하였다.

하호정 역시 대문에서 말을 내려  
증문을 거쳐 내문에게까지 뒤를 쫓아  
들었다.

청안군은 심중에 의아하였다. 어  
이해서 이다지 남의집 내문에게까지  
쫓아 드는가? 하고 그제야 뒤를 들  
아다 보며

『대감은 어찌 여기까지 날 쫓아  
오는지요』

하고 흥명스럽게 질문하였다.

『잠깐 긴급히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술을 얼질러서 여기



가지 되시고 나은적이 되었읍니다。」

『일부러 입질했다.』

청안군은 그제야 모든것이 석연히 풀리어서 못 하호정을 안채 뒷방으로 끌고 들어가 좌정하였다.

『급한 일이라니?』

『네 이제 대군 신변에 위급이 박 두렸읍니다.』

하고 청안군의 귀에다 입을대고

대사의 비밀을 속삭인 후에

『이몸이 서울에 있으면 몸으로 전 하를 도울것읍니다 마는 왕명이 제 신지라 허는수 없이 임지로 가기는 해야 갓아온즉 할가지 계교를 말씀 해 드립니다. 지금 안산군수로 있는

이숙번(李叔蕃)이 정능 이안군(貞陵 移安軍)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고 있는 중이온즉 이군수를 부르셔서 대사를 맡기시면 지용(智勇)을 겸비한 위인이라 능히 대사를 완수 할것이옵고 또 일이 성사되오면 곧 신을 부르시면 후사를 계교하겠읍니

다』

다』

하고는 급히 궁을 하직하고 나와 서 시침을 두매고 충청도로 부임하였다.

호정하문(浩亭河倫)이 하직 하고

간 후에 청안군은 곧 이군수를 비밀히 불러 침실에 드러안치고 대사를 위촉하였다.

들기를 마친 이숙번은

『전하의 부탁이라면 그야말로 여

반장으로 즉시 즉행하고 말것입니 다』

하고 상당하며 나서서 수하의 이

안군수를 계동하여 먼저 군기감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궁중 종부 들을 합류시켜 계복공을 포위하고는 눈코 뜰사이 없이 대사를 거행하여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정사지변을 삼시간에 성 공한 청안군이 남문밖에 장막을 느

리어 큰 장막속에 정좌하였는데 그 장막 아래에 또한채 자그마한 장막을 꾸미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드러 앉인 사람이 없더니 거무하여 하호정이 소명을 받고 밤사이에 상정하여 곧 그 장막에 정좌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여러 사람이

『승상 한분이 벌써 생겼구나』

하고 수군뎌더니 과연 선주 수습에 공을 이루어 재상의 지위에 올랐 거니와 정사의 공은 기실 이군수 수 번의 힘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끝)— (出松崗齋叢話卷之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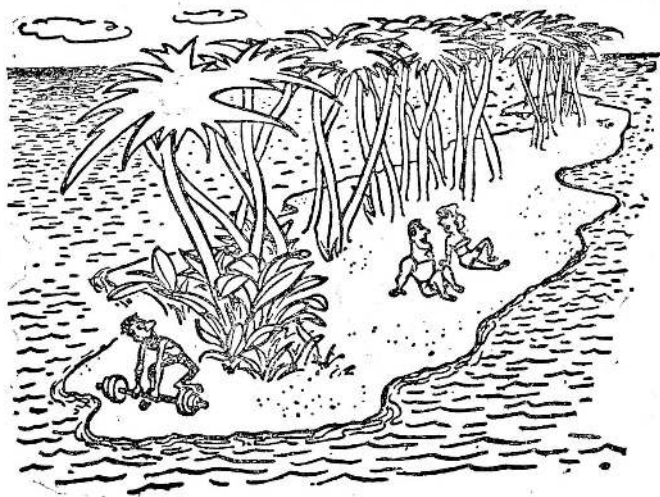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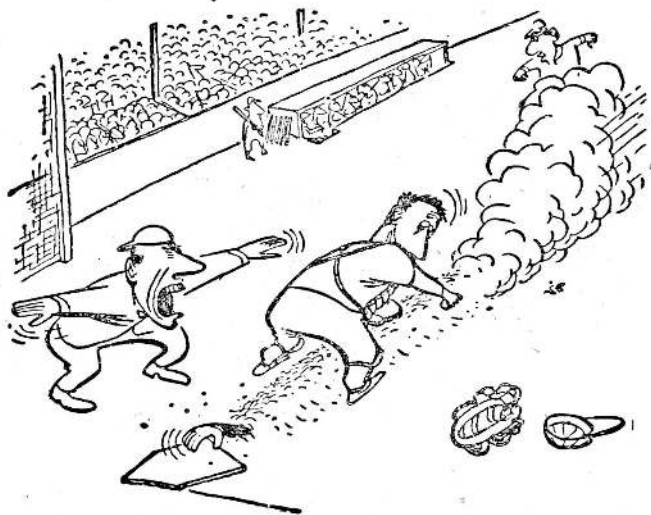
俚 諺

☆ 모든 事件의 指導者는 女子였다. (英國)

☆ 藥草와 毒草는 한뜰에서 자란다. (英國)

☆ 흠아비는 이가 서말 과부는 銀이 서말. (韓)

☆ 바늘 간대 실 간다. (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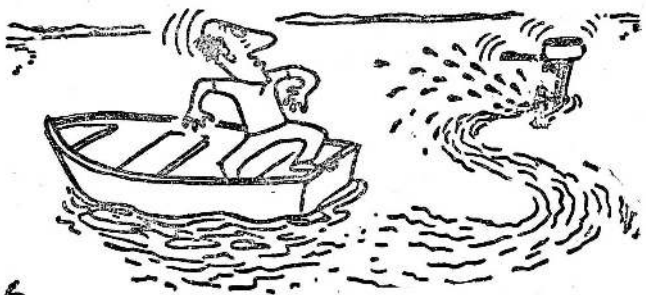




4



5



6

# 放射線의 影響



美國科學院은 이렇게 報告하였다

## 外誌에서

「워싱턴」에서 지난 六月十二日 開催된 美國科學院의 「放射線의 生物學的 影響」에 關한 報告會는 美國內에서도 相當한 反響을 이르켰다. 이와 같은 問題에 關한 報道가 從來에 是 美國原子力委員會의 樂觀的이며 또한 斷定的인 發表에 依한것이 主였는데 이번의 科學아카데미의 報告는 어지간히 警告的이며 批判的이라 는 것으로 注目을 끌고있다.

美國科學아카데미가 이 問題에 關한 委員會를 構成한것은 一九五五年이었으며 研究費는 全部 「록펠러」財團에서 支拂하고 있는것이다. 委員會는 여섯개의 小委員會로 分類되어 있는데 卽 遺傳、病理、農業및食物、氣象海洋및漁業、放射性廢棄物의 投棄、 이와 같은 六部門인것이다. 이번 美國科學아카데미에서 發表된 報告는 二種이 있는데 하나는 專門家用으로 되어있고 다른 하나가

一般公衆을 爲한것이다. 이것들의 報告에는 우선 「放射線의 生物學的 影響」에 關한 委員會의 成立經緯와 그目的을 記述한 뒤에 「放射線에 關한 어떠한 討論의 背後에도 大規模의인 原子戰이라는 怪物이 甦醒없이 醜惡하게 나타날 것이다. 原子戰은 全地球 或은 그 大部分을 살수없는 곳으로 만든다는것은 想像하기에 힘든지 아니냐」라는 書頭로 始作된다.

그러나 原子力의 平和利用에 있어 서도 放射線은 勿論 密閉되어 있다 하더라도 原子戰 以上の 放射性廢棄物의 生産이 豫想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問題는 元來 無關係한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放射線의 生物學的 影響中에서 가장 敏感한것은 遺傳에 關한것이다. 모든 사람은 벌써 天然放射線(宇宙線)이나 天然放射能)의 影響을 받아 그 結果로서 自然發生的인 突然變異

에 의한 遺傳障害가 나타나고 있다. 突然變異를 일으키지 않을만한 最少의 放射線量이라는 것은 없으며 아무 리 少量이라 할찌라도 生殖細胞에 到達한 放射線은 그것에 相當할만 한 突然變異를 招來한다. 이런 種類의 放射線障害는 積算의 인에 自己의 受胎에서 자기가 낳는 最後의 어린 아이의 受胎까지의 사이에 그 生殖器 가 받은 放射線의 全量에 依存한다.

한사람 한사람에 對해서 考察하면 遺傳的障害에는 個人差가 있으나 全 人口에 있어서는 突然變異의 數와 障害의 數는 大體로 比等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人口와 長時間에 對해 서 考察하면 多數에 對한 少量의 放 射線은 少數人에의 多量의 放射線과 同等하게 有害한 作用을 惹起시키는 것이다.

天然放射線으로 일어나고 있는 自 然發生的인 遺傳障害의 數를 二倍로 하는 線量은 大略 三十멘트겐 乃至

八十멘트겐으로 보고 있다. 美國에서 는 現在 全人口의 約二%에 遺傳障 害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美國人 全體가 三十 乃至 八十멘트겐의 放 射線에 侵襲된다면 遺傳障害는 全人 口의 四%로 增加할 것이다.

不過 十멘트겐의 線量에 있어서도 美國 全人口가 거기에 照射된다 고하 면 約五百萬이나 되는 突然變異 遺 傳因子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例컨대 齒科醫師가 使用하는 X線으 로는 患者의 턱에 一回當 約五멘트 겐이 照射된다고 한다(勿論 이境遇 에 生殖器等에 있어서는 約千分之五 멘트겐의 照射에 不過하다)

美國人の 三十歲까지의 宇宙線에 依한 照射量(生殖器 外의)은 四三멘 트겐이며 原水爆兵器로 부터의 放射 能에 依한 것은 〇〇五 乃至 一멘트 겐으로 推算되며 X線은 三멘트겐으 로 計算되고 있다.

強力한 放射線이 人體에 有害한 것

은 말할 것도 없지만 設使 強力한 放 射線에 照射된 사람으로서 放射線症 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早老하 며 平均壽命이 短縮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明白해진 事實이다. 美國人の 平均年令은(二十五歲以上의 統計)六 五·六歲인데 放射線 技術者는 平均 年令보다 五年以上이나 짧은 六〇· 五歲이며 放射線을 使用하는 醫師는 六三·三歲이고 放射線을 使用하지

않는 醫師에 있어서는 六五·七歲로 되어 있다. 全人口가 대단히 微少한 線量에 照射되었을 境遇의 平均壽命 의 變化도 豫想되나 여기에 對해서 는 아직도 明白한 것이 알려지고 있 지 않다.

環境이나 食物에 있어서는 現在로 보아서 아직 重大한 問題로 되었다 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벌써 原水爆 에서 생긴 「스트롱슘」九〇이 人體 에 含有하고 있음은 明白한 것이다. 그 러나 問題는 食物에 있어서 放射性

物質의 最大許容量이 明白치 않은 것이다.

오랫동안 放射能으로 汚染된 食物을 먹었을 境遇에 人間과 動物에 어떨한 影響이 미치는가에 對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現在 成層圈이 放射能으로 汚染되어 있어 全世界에 있어서나 放射性的의 落下物이 조금씩 더러지고 있으나 오늘날의 氣象學知識으로서 는 그것이 언제까지 繼續될 것인지 豫想할 수 없다. 原子力平和利用이 發達하면 아마도 放射性廢棄物을 바다에 버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바다 表面에 그대로 흘러 버린다면 沿岸에 흘러 버리는 것은 禁物이다. 그렇다고 해서 深海에 對해서도 거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國際的協力에 依한 深海의 研究가 要望되는 것이다.

大體로 이와 같은 報告가 끝난 뒤에 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勸告를 하였다  
一、各人이 받은 放射線量의 記錄

保持

二、醫學用 入線의 使用은 最少

必要量으로 充分할 것

三、全人口에 있어서는 受胎에서

三十歲까지 生殖器에의 照射線量

을 十렌트겐以下로 減할 것(天然放射線을 除外)

四、이 基準는 隨時로 再檢討할 것

五、個個의 境遇는 三十歲까지는

總量으로서 五十렌트겐을 限度로 하

여 三十歲에서 四十歲에 이르기까

지에 다시 五十렌트겐以上을 生殖器

에 照射치 말 것.

六、世界的規模에 依한 放射性 落

下物의 監視技術을 改善할 것

七、成層圈에 있는 放射性物質 蓄

積遺의 測定繼續과 延長

八、放射性廢棄物의 海洋投棄에 있어

서 政府機關에 依한 管理와 記錄

保存

九、國際機關으로 하여금 海洋投

棄의 安全基準 設定

一〇、海洋投棄의 研究을 國際的인 協力으로서 行할 것

十一、人口가 稠密한 地域 附近에

있는 原子爐의 封鎖

十二、다음에 列擧하는 事項의 研究을 繼續하며 促進시킬 것 卽 基礎

遺傳學、哺乳類遺傳學、人類 및 全人

口遺傳學、放射線의 病理學的의 影響、

大氣 및 海洋各部分의 混合動植物에

있어서의 放射性物質의 濃縮、人間

과 動物의 食物가운데의 放射能의

最大許容量、放射性廢棄物의 地球物

理 및 地球化學의 研究、生物學的으로

보아 妥當한 것으로 看做되는 各種原

子力施設의 位置選定、原子爐의 暴

走을 防止하는 安全裝置。

이와 같은 一連의 報告가 意味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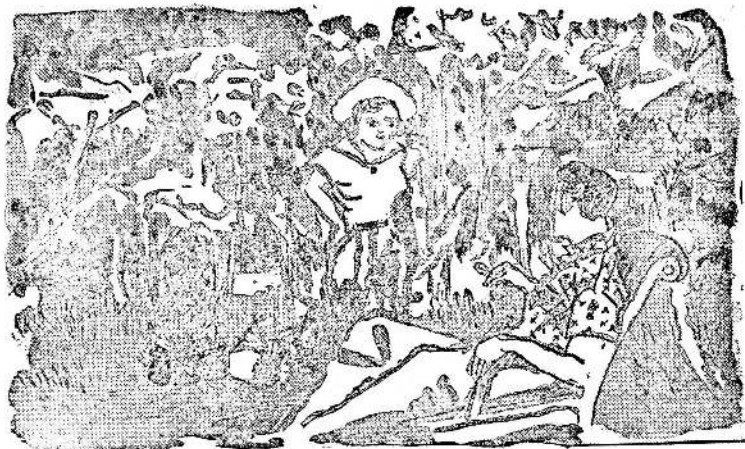
것은 이 報告에 記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放射線의 問題에 對해

서는 知性과 慎重과의 不斷한 必要

性을 아무리 強調한다 하더라도 그

것으로 充分한 것은 못된다』는 結論을 갖어 오는 것이라 하겠다.



△連載小説▽

# 키리만자로의 눈 (二)

E·헤밍웨이 作

이 기 석 譯

여자는 사적에 명수야 맞았어, 착하고 돈많은 암캐야, 상냥한 시종꾼이야,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재능의 과피자야, 맞았어. 당치도 않은 소리! 네 재산은 네 스스로가 때려붓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릴... 네 시종을 잘 든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나무랄 까닭은 없는 게 아니냐? 너는 네 재능을 썩먹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망친 것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와 자기의 신념(信念)과 이 두 가지를 다 배반했기 때문에, 너무 솔만 마셔 자기의 감수성(感受性)의 칼날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태만(怠慢)과 타성(惰性)과 속물근성(俗物根性), 그리고 자부심(自負心)과 편견(偏見) 기타 모든 시시껍저분한 것들 때문이 아니냐. 이게 뭐냐 말이다? 헌책가타로구나? 도대체 네 재능이란 뭇이 쟁이냐? 그야 물론 재능은 틀림없는 재능이지. 허나 던 썩먹는 대신에 그 재능을 미천



삼아 여지껏 그음을 팔아먹어 왔던게 아니냐. 그의 재능이란, 실지로 실천수행(實踐遂行)한 재능이 아니고 언젠가 그 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可能性)의 재능이었다. 그는 편이나 언필 대신에 판 것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는 연애를 하면, 의례 앞서 여자보다 부자가 걸리곤 한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그 여자에게 대하여, 이미 사랑도 다 없으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전 남편도 자식도 있고 몇 번만 남자를 사랑해 본 일도 있었으나 번번히 실망을 느끼다가, 지금의 그를 작가로서 남자로써 일생의 벗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소유물로써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하여 전연 사랑도 없이 거짓말만 하고 있을 때, 과거에 진실한 사랑을 하던 때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보답을! 그 여자의 돈에 대하여! 할 수 있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는 일은 모두 자기 재능이 맞기 때문에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든 거기에 자자의 재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여지껏은 어찌든 자기의 아내—자를 이렇게 저렇게 팔아먹고 살아왔던 것이다. 애정이 그다지 풍부어오르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더 값진 보답을—돈에 대

한 보답을—할 수 있다니? 이 괴상한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사실도 아예 쓰지 않으리라. 아무렴 쓸 가치가 제아무리 충분하였다 하더라도 쓰지는 않으리라.

이때 여자의 모양이 그의 시야안에 들어왔다. 공터를 건너 캠프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와이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해 두명이 웃음의 토미—(山羊)한 마리를 까꾸로 매달고 그 여자 뒤에서 팔아오고 있었다. 여자는 언제 보아도 잘 생긴 얼굴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통쾌한 육체미도 가지고 있었고 침대의 기술과 실력도 상당하였다. 그러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으나 그가 좋아하는 얼굴의 주인공이었다. 뿐만 아니라 굉장한 독서가요 승마가요 사냥꾼이기도 하였다. 확실하게 술도 파음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은 아직도 상당히 젊은 때이었다. 얼마간은 겨우 성인(成人)이 된 두 아해들에게 심신을 다 기우리기도 하였었으나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되자 애들은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을 탈락하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 여자는 승마와 독서와 술에 열중하는 수밖엔 없었다. 저녁 식사전 독서를 즐기던 것이다. 독서 하면서 스카치에소—다를 마시던 저녁식사 때 까지는 거나하게 취기가 돌아서, 상을 받고 포도

추한병쯤 더 하면 보통 마취되어 잠이 잘 들곤 하였다. 이것을 애인들이 생기기 전 일이었다. 애인들이 생긴 이후로는 그렇게 과음할 필요가 없었다. 만취하지 않아도 잠이 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애인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전에 결혼했던 남편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나 이때 들에게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다.

두 아해중 한명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은 후로는 애인같은 것을 바랄 겨를도 없었다. 술을 마셔도 조금도 기분환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생활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갑자기 고독감을 뼈저리게 느끼었던 것이다. 결국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같이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사건의 발단(發端)은 극히 단순하였다. 그 여자는 해외의 작품을 좋아하였고 그의 생활을 부러워 하였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멋대로 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것으로 만든 그 과정이며 결국에 가서는 그에게 반해버린 정로는 관에박힌 진행 이외 아무 것도 아니었다. 즉 여자가 새로운 생활을 스스로 개척하였고 동시에 그도 남은 생활의 잔재를 팔아먹은, 생활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의 남은 생활을 팔아먹은 것은 안정(安定),

다시 말하면 안위(安慰)를 얻기 위해서였다. 합은 부절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그 외에 무슨 까닭이 있었을까? 자기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자가 사출수 있으리라 하는 것만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기뻐하게 멋진 여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만어떠한 여인보다도 먼저 이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부자인 메다가 기분이 월등 좋았고 또 침상의 기술이 좋을뿐 아니라 바가지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좋았다. 그러나 지금 그 여자가 다시 출발한 이 생활은 종말에 가까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두 주일전 한배의 사슴을 촬영(撮影)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다가 가시에 무릎을 걸키었을 때 우도정기를 바로지 않은 데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그때 사슴들은 대가리를 치켜들고 코구멍으로 공기를 맡으면서, 바시락 소리만 나면 그냥 수풀속으로 줄행낭을 치겠다는 듯이 귀를 넓게 뻗치고 있었다. 그가 사건을 찍기도 전에 그들은 또한 평손이를 쳤던 것이다.

이때 막 여자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돌려 여자쪽을 보았다.

「여보,」 하고 그가 불렀다.

「로미(山羊) 한마리를 잡았지요,」 하고 여자가 사나

「이에게 말하였다. 「맛있는 국을 고풍드려야지. 크림과 함께 감자도 좀 으개라고 일러야겠어요. 근데 참 기분 좀 어떻세요?」

「힐신 나졌어.」

「어머나 좋아라. 그것보제요 제가 상상한 데로 기분이 좋아 지셨지 않아요. 제가 사냥할때에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참 잘 잤어. 당신 밀려 갔었우.」

「아뇨. 언더 뒤까지 가서 한바퀴 들았을 뿐예요. 양은 한밤에 적사예요.」

「당신은 굉장한 명포수(名砲手)로군 그래.」

「전 사냥이 좋아요. 아푸리카도 좋아요. 정말 당신만 몸이 성하셨더라면 일생에 제일 재미 있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사냥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난 이 나라가 좋아 졌어요.」

「나도 그래.」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 지신것을 보는 것이 그 얼마나 신중하고 좋은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기분 이시라면 전 정말이지 못견디겠어요. 다시는 제게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약속해 주시죠 네?」

「물라.」 하고 그는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몰라.」

「제 마음을 산산 조각해 낼 필요 없지 않아요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중년 제집이라는 것이외에 무슨 죄가 있어요? 전 이미 두세번이나 마음이 산산 조각해 깨어진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또 다시 제 마음을 깨트려주지 않으시겠지요네?」

「벧드에 누어서 두어번쯤 더 당신 마음을 악살 박살을 시키고 싶은걸.」하고 그는 말하였다.

「네 참 훌륭한 악살 박살이군요. 우리는 이같이 서로의 마음을 악살 박살을 만들 팔자니까요. 그러나 내일은 비행기가 올걸요.」

「당신이 어떻게 알어.」

「전 확신해요. 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해들은 벌써 연기를 낼 불과 나무를 준비해 두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確認)하였어요. 차륙(着陸)할 곳도 충분히 있고 벌써 공터 양끝에는 연기를 피울 마런이 다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내일 비행기가 온다는 거야?」

「전 확신해요. 이미 예정일이 지냈으니까요. 비행기가 오면, 도시(都市)에 가서 당신 다리를 꼬치고 그뎨 좀 좋은 싸음을 합시다. 이런 무시 무시한 이야기 말고

요.

「우리 한잔 할까? 해도 지고 했으니.」

「아무래도 꼭 한잔 하셔야겠어요?」

「한잔 할테야.」

「그럼 우리 한잔씩만 하십시오. 피로야, 위스키— 소  
다 두잔만 가져와!」하고 여자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 모기 한때 드끼지 않도록 장화를 신는게 좋아.」  
하고 그는 여자에게 말하였다.

「목욕하고 나서 신졌어요...」

어둠이 짙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술을 마시었다. 날이  
깜깜하게 저물기 직전—사격할 수 없으니 만큼 어두워  
졌을 무렵, 한마리의 하에나가 언덕을 돌아나와 공터를  
횡단하였다.

「저놈의 것은 매일 밤 저기를 횡단한 단 말야.」하고 사  
나이는 말하였다. 「두 주일 동안 매일같이」

「저것이 하루 밤이면 시고 더운 소리를 내는 놈이군요.  
전 별로 기분 상하지도 않은데요. 좋직한 등불이긴 하지  
만.」

이제는 같은 자세(姿勢)로 누어 있어야만 한다는 괴로  
움 이외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불을 질르는 아해들  
과 천막위로 뛰어 오르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 한  
잔의 술을 나누어 마시니, 동태한 항복자(降伏者)의 생

활을 묵종(默從)하듯 충동이 다시 그의 마음에 되살아  
나는 것이었다. 여자는 정말로 사나이의 시종할 잘 들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잔인하고 부당한 태도  
로 그 여자를 대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훌륭한 여자인  
오 진정 기특한 여자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뒤적어릴  
때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그의 머리속에 활라  
치밀어 올랐다.

공포심은 급격히 그의 마음을 습격하였다. 물결이나  
바람같은 그런 습격이 아니고, 난데없이 묘약한 범새를  
풍기며 탁아오는 공허(空虛)의 습격이었다. 그리고 기  
묘(奇妙)한 것은 그 공허의 가장 사리를 그놈의 하에나  
란 놈이 슬적 미끄러 지듯이 스쳐 갔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요 해줘?」하고 여자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하고 그는 말하였다. 「당신은 저— 쪽  
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바람쪽으로 말야.」

「모로가 봉대를 잡아 들었나요?」

「응, 지금은 봉산(彌酸)을 쓰고 있을 뿐이니까?」

「기분은 어떻세요?」

「좀 허정 허정 하는 것 같애.」

「목욕을 하러 가겠어요」 하고 여자는 말하였다. 「곧  
끝나요 당신허구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침대를 넣읍시  
다.」

그러니 싸움을 그친 것은 참 잘 한 것이었다고요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이 여자 하고는 그리 많이 싸운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사랑하던 여자와과는 지독하게 싸우곤 하였었다. 그때 그 싸움이 마음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결국에 가서는 의견이 일치된 것까지도 깨트려 버리곤 하였었다. 그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바라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만사를 다 탕진(蕩盡)해버린 적이였다.

그는 과거를 떠나기 전, 싸움을 하고 혼자서 콘스탄티노플로 달려오던 당시의 생각이 났다. 내내 오입만 하다가 이젠 그것도 다 집어 치워버리니 마음의 고독을 참을 길 없었다. 고독감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다. 그가 첫째편 여자, 자기를 차버리고 다라난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러한 심경에 빠져 있던 때이었다. 편지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래도 고독감을 참을 수 없다는 것——어느날 펜산스 교외(郊外)에서 당신같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마음이 아프고 기절할 것 같았으며 불외(不衛)에 당신 비슷한 여자가 있기에 그 뒤를 따르려다가 당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실망할 것이 몹시 두려워 고만 두었다는 것……이년 저년 다치는 데로 같이 차보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당신 생각이 점점 더 잊혀 지지 않을뿐, 사랑하는 마음

이 도저히 가지지 않을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므로 당신이 전에 헌 짓 같은 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편지를 구라부에서 썼는데 그때 진연취기(醉氣)가 없었다. 파리의 자기 사무실로 답장해달라는 부탁을 첨가(添加)하여 뉴-욕으로 발송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마음이 허전하고 떠저리게 그 여자 생각이 간절 하였으므로 택시파——앞을 지내다가 제집 하나를 잡아 끌고 나와, 저녁을 같이 하고 춤을 추려갔던 것인데 그 제집의 춤은 도무지 기분이 나지 않으므로 정열적인 아——메니아인(人)의 잠년과 상대를 바꾸었는데 그 년은 어쩌나 배대기를 그에게 비벼대는지 불이 날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여자를 겨루 끝에 영국포병 하사관(英國砲兵下士官)에게서 빼앗았다. 하사관은 그에게 밖으로 나가서 보자고 했으므로 그를 들은 킴킴한 자갈길 위에서 싸웠다. 그는 놈의 열력을 두번이나 되게 잘겼으나 놈은 쓰러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본격적 겨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놈은 그의 가슴팍이와 눈자위를 잘겼다. 그는 다시 왼손 스윙으로 놈에게 일격을 가하니 놈은 그에게로 고꾸라지며 그의 저고리를 잡어 찼었다. 그는 놈을 휘잡고 귀뿔머리에 두대를 연젼어 메기는 동시에 옳은 손으로, 그를 떠다 밀면서 후려갈겼

다. 음은 대가리를 부딪고 쓰러져 버렸으나 M·P 가오는 소리가 났으므로 그는 여자를 데리고 땀슨이를 찼다. 레시를 잡아타고 보스 포라스 해(海)에 마르는 튀미이·회사까지 차를 달렸다. 그리고 그 근방을 잃건 쓰다나다가 시원한 밤 공기 불 마시며 되돌아와 자리에 들었다. 여자는 의양과도 같이, 지나치게 무르익은 감이 없지도 않았으나 부드럽고 장미꽃잎 같고 꿀같이 미끄러운 뱃가죽에 큰 유방(乳房)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도대체 여자 행동이 애 버개를 고일 필요가 없었다. 이를날 아침 그는 여자가 깨기 전에 나가 버렸다. 아침 첫햇살이 비칠 때 제 집은 정말 불안산이 보기 싫었다. 소매 한쪽이 트어져 있었으므로 저고리를 들고서 페라·패리스에 얼굴을 나타내었다. 눈자위에는 검은 멍이 들어 있었다.

같은날 밤, 그는 아나토리아로 향발(向發)하였다. 그는 아편을 재배하는 양귀비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그 결과 감각(感覺)이 이상해져서 거리감(距離感)이 전연 뒤떨어졌던 일등이 생각났다. 이것은 그의 여행의 후반(後半)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다음 그가 도착한 곳은 몬스타친의 신임 장교들과 공격을 개시하던 지점(地點)이었다. 신임장교 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新參)들이었다. 포병대(砲兵隊)는 적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고 영국 관측(觀測)장교는 아해모양 큰소리만 질

르고 있는 판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전사자를 본것은 그날이었다. 전사자는 흰발레(용(舞踊用) 스카트 같은 것을 입고 위로 젖혀진 술 달린 장화를 신고 있었다. 토이기(土耳其)군대가 실새없이 배를 지어 왔다. 스카트로 입은 병정이 도주(逃走)하는 곳을 향하여 권총을 쏘아 대던 장교들도 나중에는 땀슨이를 쳤다. 그와 함께 관측장교도 또한 출행(出陣)했다. 숨이 차고 입에서는 동화(銅貨)냄새가 날지경이었다. 그와 관측장교는 어느 바위뒤에 숨었으나 이기군은 여전히 배를 지어 쳐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지독한 광경을 목격(目擊)하였고 좀 더 후에는 한층 더 지독한 광경들이 전개되었다. 당시 파리에 돌아갔을 때, 자기나 남이나 말하기에 도끔씩한 일들이었다. 또 그리고 길가의 카페에서는 미쿠시인(詩人)이 앞에 접시를 붙세미 같이 싸놓고 그 같자 같은 얼굴의 멍청한 표정을 지우면서, 어떤 두마니야 사람과 같이 다다이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루마니아인은 트리스란·싸라 이라는 자인데 노상 외할 안경을 쓰고 두통병(頭痛病)을 앓는 사나이 이었다. 그는 전에는 내의 싸움도 많이 하였고 미친 지랄도 굉장히 하곤 했었지만 이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고 아내와 더불어 아파트로 회송 되지 않으면 안되는 판이었다. 어

그날 아침, 여자에게서 온 편지가 장만에 받혀서(하녀에 의하여) 운반된 일이 있었는데 그는 그 필적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편지를 만 편지 밑으로 슬쩍 집어 넣으려 했으나 아내가 보고 말했다. 「여보 저 누구 편지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만사는 시작이자 끝을 맞이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는 또한 그치들과 함께 지내던 당시의 즐거움을 회상하여 보았다. 싸움도 무던히 하였었다. 그들은 장소도 언제나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싸움을 했던 것이다. 자기 의 기분이 가장 좋을 때 그들과 늘 싸움을 하곤. 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그 일에 관해서도 단 한자도 써 본 일이 없었다. 첫째로는 남을 증상하기 싫어서이요 그다음은론 그것 아니래도 얼마든지 쓸 것이 있을 상싶어서 이었다. 허나 결국 그 일을 써야지 하고 늘 생각만은 해왔던 것이다. 쓸 것은 참 많았다. 그는 세상이 변천해 가는 양상(樣相)을 보는 눈이 있었다. 표면적(表面的)인 사건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해왔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보다 세밀한 변화를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사람이 경우경우에 따라 어드면 태도를 취했던가 하는 것도 회상할 수 있었다. 그는 그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관찰해왔으므로 그것을 쓰는 것은 그의 의무이였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절대 쓰지 않으리라.

「기분이 어떻세요?」 하고 여자는 말하였다. 목욕을 다치고 렌트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좋소.」

「그럼 잠수질 수 있어요?」 모로가 그 여자 뒤에 식탁(접게 만드러진)을 들고 서있고 아해 하나가 접시를 들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였다.

「난 글을 쓰고 싶은데」 하고 그는 말하였다.

「기운 나시게 수포를 좀 드셔야지요.」

「난 오늘밤 죽을 것이니」 하고 그는 말하였다. 「기운 낼 필요도 없어.」

「해워, 제발 그런 연극같은 말씀은 그만 하세요.」 하고 여자는 말하였다.

「왜 당신 코는 뿔다 뿔에 쓸 작정야 이젠 내 녀적다 리가 반 이상 썩어 버렸는데 스—프는 먹어서 뿔에 썩머졌느냐 말야?」

「모로야, 위스키, 소—다 가져온.」 하고 여자는 조용히 말하였다.

「그럼 좋아!」

스—프는 너무 뜨거웠으므로 그는 머기에 알맞게 식을 때까지 그 컵을 들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잠시 후, 그는 곧소리 하나 하지 않고 그 컵을 다 디리켜 버렸다.

「당신은 참 훌륭한 여자야」하고 그는 말하였다. 「나 같은 것은 내버려 두어 줘요」

여자는 만인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유명한 표정을 비우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스파』 또는 『타운·앤드·칸츨리』잡지에 흔히 나오는 표정이었다. 술과 난봉때문에 약간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때도 『스파』나 『타운·앤드·칸츨리』같은 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여자이었다. 그 탐스러운 유방(乳房)이며 쓸모 있는 넓적다리이며 그 위허리를 애지중지 쓰다듬는 가벼운 숨씨이며. 그러나 그는 여자의 그 유명한 기분좋은 미소를 자세히 들여다 볼때면 다시금 죽음이 닥쳐온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번엔 죽음의 공포가 활짝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초분을 혼들 혼들하게 하고 불꽃을 길다랗게 만드는 바닷모양, 솟을 닥쳐오는 것이었다.

「이따 내 모기장을 내다가 나무에 매달구 불을 피워 줘요. 난 오늘밤에는 안들어 갈터이니 움직인대짜 별수 없구. 밤하늘도 맑고 비는 안올터이니까。」

그렇다, 이와같이 죽어가는 것이다—들리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그래서 이젠 싸우지도 않으리라—.

죽는 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전무후부(前無後無)의 유일한 이 경험—싸우지 않는다는—만은 이제는 간직하리라. 그러나 또 이것마저 깨트려 버릴지도 모르지—만

사를 다 깨트려 먹었으니까. 아마 이것만은 깨트리지 않으리라.

「당신은 받아쓰기는 못하겠지. 응?」

「해본 일이 없었어요.」하고 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좋아」

도대체 시간이 없었다—잘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한절(節)속에 압축해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호수위 언덕에, 모르탈로 회계 룬바 구니를 칠한 룬나무 오막집이 있었다. 문열기 등에는 종이 매달려 있었던

메 그것은 식사 시간을 알리는 것이었다. 집 뒤에는 밭이 있고 그 밭 뒤에는 숲이 있고 룬바르되 로르라 나무가

집에서 부터 뚝(船渠)에 이르기 까지 한줄로 죽 늘어

서 있었다. 그리고 만 포푸라 나무들은 곳(岬)에 따라

죽느라 서 있었다. 그 숲가생이에 따라 한오리 길의

언덕으로 빠져있었는데 그는 이 길을 올라가며 검은빨

기를 따먹곤 하였던 것이다. 후에 그 룬나무 오막집은 타

버리고 벽로(壁爐)위에 있는 사슴다리 총가(銃架)에 걸

려있던 총들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탄창

(彈倉)의 납(鉛)이 녹아 퍼져지고 개머리관이 타버린 총

신(銃身)이, 젓땀이 위에 나자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제

는 쇠로 만든 큰 솥에 빨래를 삶는데 쓰는, 알카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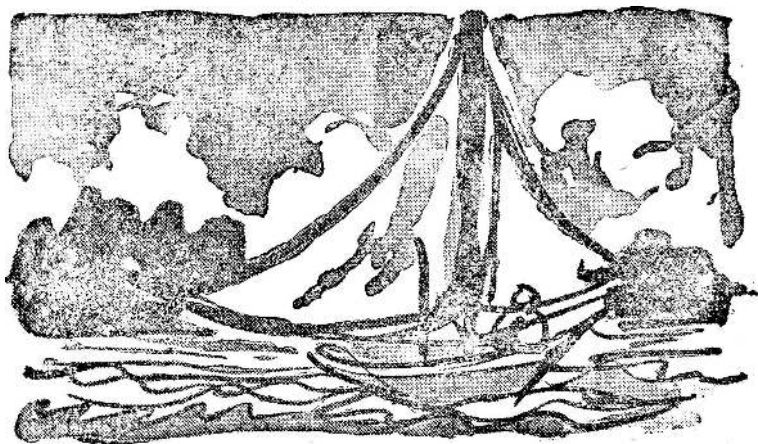
(液)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총신(銃身)을 가지고 작탄을 해도 좋으나 그 할아버지께 물은즉 대답은 「노」이었다. 타버렸을 망정 자기 총에는 틀림없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그후 노인은 총을 두 번 다시는 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는 목재로,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흰 칠을 하였다. 현관에서는 포푸라 나무와 밀리호수가 보이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보이지 않았다. 그전 몸나무 오막집 벽의 사슴다리 총가에, 걸터있던 총신(銃身)은 재떨이 위에 나자빠져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는 사람은 없었다.

전쟁후 이었다. 우리는 슈발쓰발트(獨逸西南部의 森林地帶)에서 총어 낚시장을 빌린 일이 있었는데 그 곳까지 가는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 하나는 트리베르히에서 계곡(溪谷)을 내려가는 길이였다. 계곡을 내려서서 는 하얀 길가에 따라, 나무그늘이 옥어진 골짜기 길을 들 고 슈발쓰발트 유(流)의 큰 집들이 있는 자그마한 농장

을 수없이 지내 마침내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셋길, 강을 가로질러는 곳에 이르니 그곳이 바로 낚시질을 시작하던 곳이였다.

또 하나는 숲 변두리 까지 험한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 이였다. 숲 변두리 까지 가서는 소나무 숲을 뚫고 언덕 꼭대기를 횡단하여 다시 초원(草原)의 변두리로 나와, 그 초원을 가로질러 다리 있는 데 까지 내려오면 되었다. 강변에 따라서는 벗어나가 느려져 있었다. 폭이 좁고 그 리 크지는 않았으나 물만은 맑고 재빨리 흘러나리는 강 이였다. 그리고 벗어나 뿌리밀의 물결이 중단되는 곳에 연못이 이루어져 있었다. 트리베르히의 호텔 주인은 호 경기 씨—존을 만난 것이였다. 우리의 기분은 쿨치에 달 하였고 우리는 모두 의합(義合)한 친구가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인푸메가 왔다. 작년에 번 돈을 가지고는 도 저히 이해, 호텔을 개관(開館)할 필요물자(必要物資)를 구입할 수가 없어, 주인장은 목을 매어 죽고 말았던 것이

(次號 계속)



△創作▽

# 廢墟의 獨白

柳 周 鉉

손바닥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물을 쫓아 씻으며 하늘을 쳐다보는 강문수(姜文秀), 그의 뺨에는 희고 무거운 흉터가 흡사 감과리 형구를 하고 있었다. 왼쪽뺨 입은 지리었다.

「세 피아」빛 「잠바」에 탈색한 구복 바지를 입은 강문수는 빗물이 드는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씻어 넘기며 허공을 쳐다보았다. 자욱히 가라앉은 하늘, 개일것 같지도 않았다. 여름철의 가랑비란 우울한 것, 허공을 쳐다보는 강문수의 표정도 몹시나 우울해 보였다.

상이 제대병 강문수는 현재 X X 일보사의 광고부원이다. 신일무경협외의 광고부원이다.

그는 아침부터의 활동이 저녁때가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

저 못한데 대하여 스스로 불쾌했다. 수월하게 성과를 올  
리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마분한 일임을 깨  
닫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문수, 그는 부지중에 입맛을 한번 짝 다시며 차도  
(車道)쪽으로 몸을 돌렸다. 차도를 건너야 할 필요를 느  
꼈다. 그러나 연이어 닦쳐오는 자동차들로 말미암아 좀  
체로 인도(人道)를 내려설 수가 없어 잠시 우두머니 서  
있었다.

그러자 때마침 지나던 「택시」 한대가 앞에 와서 스트  
르 멈춘다. 조수대에 앉은 열댓살 난 아이늬이 강문수의  
눈치를 살피다가 피하하고 비웃는 듯한 눈총을 남겨 놓  
고는 다시 미끄러져 갔다.

강문수는 문득 자기가 무심결에 손가락 하나를 앞에  
펴놓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자 아랫입술을 씩 내밀며  
불현듯 차도를 횡단해서 명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강문수, 그는 길을 걸으며 역시 처음에는 좀 창피하  
드라도 친지들을 찾아 한편으로 부탁해 보는 방법이 효  
과적이 아닐가? 생각했다. 아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 법도 한데 좀체로 머  
리에 떠오르지 않을었다.

강문수는 꽤 굵어진 빗발을 고스란히 맞으며 걷고 있  
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편입을 깨달았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걷고 있는 사람은.

강문수는 주위를 돌아 보았다. 오라는 곳도 없는 데 왜  
이리 비를 맞은 것인가. 그러나 그는 그대로 걸었다. 아  
침부터 내리는 비다. 조만히 그칠것 같지도 않은데 차마  
딜으므로 들어 선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명동 어귀에 접어 서자 그는 어깨에 축축한 감촉을 느  
꼈다. 팔목의 시계를 본다. 세시를 지난지 십분, 아직  
시간은 덜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허릿증을 느낀다. 시  
계를 보니 까 갑자기 허릿증이 일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잠시 후 강문수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어느 벨당 앞에  
서 발길을 멈췄다. 그는 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의  
빗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건물을 훑어 본다.  
이층 「라이프」의 건물, 삼영 제약(三永製藥)이라는 네모  
진 간판이 반듯하게 매달려 있다.

이윽고 강문수는 삼영 제약의 좁다란 총계를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증간쯤 올라 가다가 마침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한천으로 비켜섰다. 젊은 여자였다. 그는  
여자의 무릎동갈이 쪽 뺨은 종아리를 툭툭 훑쳐 보았  
다.

『지배인 계신가요?』

『올라가 보세요!』

여자는 대수롭지도 않게 뗏구를 하며 또 각 또 각 총계를 내려가고 있었다.

강문수는 유쾌하지 않았다. 있었다는 가 없었던가 대답해 줄 일이지 올라가는 사람에게 올라가 보라는 말은 물어 본 말의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유쾌하지 않았다.

강문수는 자기가 초라한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것 같아 불현듯 총계 아래를 내려다 보았으나 그녀나 이미 그의 눈이 닿는 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강문수는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진종일 헛탕을 치고서 생각코 망서리다가 아는 사람이 있는, 이 삼영 계약을 찾은 것만큼 그 태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총계를 올라가다 작으나마 이런 유쾌하지 않은 일 이 생겼으니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배인 배준결은 형 빈 사무실에 덩그마니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뜻밖에도 강문수가 얘기했던 이상으로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잠시 세상 이야기를 하던 끝에 강문수가 X X 일보사 광고 부원이라는 자기의 직업을 밝히니까, 그는 적잖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강문수의 동정을 눈여겨 살핀 다음 침착하게 말을 꺼낸다.

『허기야 그것을 자네 같은 지식청년이 정상적인 직업으로야 치겠나만... 그러나 허는 수 없지 뭐, 현재의 환경은 현재 가능한 방법으루 타개해야 하니까, 그때 생활은 될 수 있겠나? 그걸루?』

강문수는 덤덤히 편전을 보며 뗏구했다.

『아직 침이니까 모르지만, 남들루 그걸로 사니까 되겠지.』

강문수는 이 중학 동창의 호의적인 말이 꼬마웠다.

그때 솔직히 배준결에게 말했다.

『그때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도 실은 그런 용건 일세. 나를 도와 주는 셈치고 광고나 하나 내라구.』

배준결은 강문수의 말을 듣자 결결 웃었다.

『말세, 그것루 좋은 얘기네만 뭐 광고를 널만 하게 있어 야지. 광고를 내야만 팔리는 문건은 애당초 만들지 않으니까.』

배준결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혼잣 말처럼 말을 또 이었다.

『영업부 지원할 데다 세금등쌀에 쉬쉬 하는걸.』

강문수는 잠잠히 배준결의 다음 말만 기다렸다. 완전히 거절하는 뜻으로 들을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참, 세상루... 전시라고는 하지만 자네 같이 유능한 사람이 그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더구나 상이 용사인테

.....「배준결은 반 개란조로 말을 하며 차타에서 일어 섰다.

「어디 나가나?」

장문수도 따라 일어나며 물었다.

「음, 나 좀 급한 물일이 있어 나가 봐야겠어. 담에 또 들리게.」

배준결과 장문수가 밖으로 나왔을때 「벨딩」앞에는 젊은 여인이 우두머니 서있었다.

잠시전 장문수가 총계를 올라 가다가 만난 바로 그 여인이 배준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여일하게 내리고 있었다. 비 맞은 옷에 장문수는 가슴을 피고 어깨를 울렸다. 비 맞은 옷에

죽쳐진 어깨란 초라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리에 매이 하나도 없었다. 벌써 연사출제나 다리품

만 팔았을뿐 소득이라고고는 없으니 매이 안풀릴 수도 없었다.

장문수는 잠시 쉬어 보려고 가까운 다방문을 열었다. 몇번 드나든 일이 있는 곳이라 무의식 중의 좌석을 죽-

살피 보았으나 별로 낯익은 사람이란곤 있는것 같지 않았다.

장문수는 자리에 앉자, 우선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신문을 집었다. 시선은 자연 광고란으로 갔다. 가지각

색의 광고가 오만으로 파 차 있는 신문, 그것은 도하(都下)에서도 우수한 신문이 었다.

장문수는 그 광고란을 세세히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는 일일히 그 광고주들을 기억해 두려는 듯이 차근 차근

점토해 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 보는 사이에 점점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정기는것 같았다. 결코 나심은 되지 않았다. 아직 이 사회에서는 신문 광고의 선전가치를 잘 모르는

기업주들이 많으리니 앞으로 개척할 영역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휴간 하다가

달포전에 다시 재발족한 삼류 신문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광고부원 들에게는 커다란 핸드캡이기는 하지만, 그

래도 남들은 매일 몇번씩이라도 물어 들이길때 받들 먹을 것이 었다.

—남들이 하는 일을 못한될 수야 있는가!— 장문수는 신문을 땡개쳤다. 하품이 짝 갔다. 시장끼가

하품으로 변했는지, 하품을 하니까지 시장끼가 더했다. 「메지가」차를 날라왔다. 인제 차를 시켰던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손을 바라보았다. 「커피」를 랍고 있는 「메지」의 몽실하게 살찐 손등을.

종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메지」의 피라지 같은 종아리를.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득

신임을 깨닫는다.

폭격으로 대전(大田) 집에서 죽었다는 아내가 머리에  
떠올랐다. 결혼해서 여섯달 밖에 살지 못한 아내다. 신접  
살림이라 이웃에 벌로 아는 사람도 없었다. 죽었다고 들  
하니 까 죽은 줄 알뿐, 구태여 이웃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  
볼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다만 처음에는 미칠것 같이  
그렇기도 했지만 마음을 도사려 단념하려고 노력하니 불  
가능한 일도 아닌 듯 싶었다. 시일이 지날수록 눈 앞의  
현실과 대결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 전쟁  
으로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런가 했으나 한편 망각(忘  
却)이란 신(神)이 인간에게 배운 가장 큰 관용의 선물인  
니 있을 때 잊고 생각날 때 생각하는 정도로서 마음 괴로  
울바 없었다. 정육이 발동할 때도 죽은 아내가 그림고  
속웃이 더러워졌을 때도 그가 아취였으나 그런 필요성  
에 따른 그러움과 아쉬움이 구태여 부자연 하다고 뒤우  
쳐진 일도 없었다.

어차피 인간이란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니까.

여자를 보니까 아내의 생각이 난 것이다. 「폐지」의 손  
등이 엉뚱한 상념을 자아냈던 것이다.

강문수는 무심히 자기 얼굴의 상처를 만지고 있었다.  
중공군의 칼에 맞은 상처다. 그 당시의 육탄전이 머리에

문득 떠오른다. 그는 당시의 소름 끼치는 광경을 아내

머리에서 지워버렸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싸움이 끝  
나기 전에는 생각을 말자고 결심하고 있다. 침략해 와서  
큰 체를 하는 놈들을 제오장에서 불리치지 못한채 군부  
을 벗었으니 아무래도 동 누고 밀 안씻은 격이다. 솔직  
히 말해서 군복에 미련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 당시는  
혼자만 겪는 일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일단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든 이상 그 길에 충실 하려고 최선  
은 다했다. 그러는 동안에 인생관이 달라졌다. 침략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격퇴하고 말살해야 한다는 적개심만이  
몸을 활발 태웠다. 군인이니, 민간인이니, 전선이니, 후  
방이니, 하는 관념조차 머릿에서 사라져 버렸다. 남들  
은 자기더러 용감한 군인 이라고 칭송을 들었다. 그 중  
거를 가슴에 달고 다니라고 훈장을 주었다. 미국에서도  
조국에서도 여태개의 훈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녀 본 일은 없다. 미국도 조국도 훈장이  
다는 것을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기에게  
준 것이 겠지만, 별로 반갑지도 싫지도 않았다. 훈장이  
병정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 훈장을 바라고 목숨을 버리는  
일빠진 놈은 없다. 침략군의 병정은 혹 훈장을 바라고  
총칼을 들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략자를 막는 군대에  
게 훈장이란 필요 없다. 막아야 살겠으니 막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이니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게, 칭찬이요 보상이요 필요할 까닭이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영광이나 자랑이 될 수도 없었다.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게.

『메지』의 손동으로 말미암아 잠시도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고 뉘우친다.

강문수는 차를 한모금 마신 다음 다시 신문을 집었다. 시선은 또 광고란으로 갔다. 그래도 학벌을 따지자면 대학을 나왔다. 삼류 신문사의 광고부원이라는 직업이 결코 흉주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들어선 길이니 최선을 다해야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문득 앞「쓰파」에 와서 털석 주저앉는 사람이 있었다. 강문수는 쓸쓸히 웃었다. 앞에 와 앉은 사람은 얼굴이 볼파이었다.

『낮부터 귀했군 그래!』 강문수는 신문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앞에 와 앉은 사람에게 말했다. 그는 민영민(閔榮敏)이었다.

민영민은「테이블」위에 놓였던 강문수의 담배곽을 집어 한개 되어 물었다.

『낮이고 밤이고가 있다. 사시사철 취해야지.』 민영민은 연기를 주머니 뽕으며 지극히 유쾌한 표정을

한다. 그는 자기가 지금 취해 있는 것이 꺾이나 유쾌한 모양이다.

『자네를 축하하군 그래. 어디 가서 한잔 더 할가?』

『글세……. 밤도 못먹었는데 술을……』

『강군도 무식한 소리를 하네그려. 밤 먹어서 기분이 유쾌해 지나? 한껏 배나 불르지.』

『그건 자네들이나 할말이구. 화가와 노동자와는 생각이 다르니까.』

『아이르니칼한 말일세 그려. 세태가 강박할수록 정신의 유열을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게야, 저어도 인테리겐차란.』

민영민은 지극히 위엄있게 말을 하면서 강문수의 담배를 또 한개 꺼내 불을 잇는다. 그는 강문수의 대학 일년 선배다.

『강군도 사람이 변했다 말야. 자네가 신문의 광고를 얻으러 다니다니 그게어디 될말인가. 인테리의 마지막 미천은 자존심이야. 뱃속에 동만든 놈들에게 머리를 굽히다니. 차라리 요새 한참인 국회의원 임후보나 해서 된 놈덜된놈 찾아 다니다가 권리금이나 슬쩍 받구 임후보 포기공요나 내면 유명이나 해지지 안나!』

민영민은「메지」를 불러「커피」를 주문하고는 또 말을 계속한다. 그는 강문수가 일언 반구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 모양이다.

『뭐, 되놈들 하구 주먹질을 해가며 싸웠대구? 영광일세. 훈장도 많이 받았지. 육탄의 용사니까 허허허허... 기막힌 년센스란다. 수소탄 두개면 한국 전체가 무인지경이 될텐데 육탄전이 다 뭐야! 허허허허 그것도 일종의 모로코트였다. 냉전의 시험대 위에 오른...』

강문수는 줄줄줄 말을 흘리는 민영민의 입만 우두머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영민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인정했다. 확실하게 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실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소위 지식인 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무시하려 하는 절름바리이론에 불과 하였다. 그야말로 개체의 자유를 피하기 위하여는 전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도 알바아니라는 주체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강문수는 지금 심경으로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잠자코있기도 싫었다. 잠자코 있으면 민영민의 말이 정당한 것이 되어 그는 더욱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없었다.

강문수는 낮속하나마 침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자네를 지식인도 현실적 활동을 배울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설혹 자네를을 귀족적인 특권 계급으로 이사회가 용납 하더라도 자기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기 행동의 비판만은 해야 하네. 지식만 풍부하고 이론만 발달되면 지식인 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전체적 의식을 잃은 개인주의 일체. 적어도 자기 지식을 토대로한 현실적인 활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네. 자네는 원자시대니 수소탄 시대니 하여 그것을 순전히 인간 종연의 비극 으로만 규정하여 행동의 의무를 잃고 있는 듯 하네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세계를 피하려는 행동이야 말로 인간의 종연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보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민을 해결 하려면 단순히 지성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대담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단 말일세.』 항상 과묵한 강문수는 한번 말을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의견을 타월어 놓는 일면도 있었다.

그는 현재 자기가 신문사의 광고부원 이라고 해서 나에게 조소를 당해야 할 이유 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자기가 할수 있는일이 그것이라면 그만 못한 지게 벌이나 거리의 소매부 노동도 달게 해나갈 자신이 있었다. 그것은 광고 모집이나 지게 벌이를 하는배에 근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도이니 만치 부끄러울 까닭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영민은 강문수의 말이 끝나자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내 이론에 대한 자네의 의견일세.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문제를 제시하는 데만 능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때에는 무력한 것이니 어찌나. 六·二五사변을 일으킨것은 六월二十五일 이지만, 그것을 해결한 날자는 계획적으로 미리 정하지 못할게야. 자네가 총칼을 들고 싸워 상이 군인이 되었지만 그 의생이 현세계의 방향을 조금이나 변경시킬 수 있었느냐 말야. 하하하하.』

민영민은 호기 있게 웃어버렸다.

강문수는 민영민의 말에 결연히 대결했다.

『불행한 일이야. 많은 청년들이 자네말에 감채를 보낼테니. 허나, 자네는 자네로서 최선의 길을 걸게. 자네도 집단 사회의 한 분자야. 집단이 움직이는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존재 조건을 잃는 것일세. 자네는 현재의 불합리(不合理)와의 접촉을 피하려 고만 하네만 그것은 결국 그 불합리를 조장하는 길밖에 안되네. 화재 현장을 보고 탄식 하기전에 물 한사발이라도 아직 타지 않은 곳에 다 끼우는 것이 연소를 방지 하는 데 도움이 될것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이 시키기를 기다려 행동 하지만 지식인은 자기 지성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해야 하네.』

강문수가 혼자 열중하여 말을 하다 보니, 그때 민영민은 강문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딴 짓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민영민은 흰 종이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이따금 강문수 자기를 힐끗 힐끗 바라보며…….

강문수는 말을 중단하고 그 종이쪽을 넘겨다 보았다. 『자네 초상화를 하나 푸메센트 하지……』

민영민은 연상 연필을 놀리고 있었다. 그림이 되는지 안되는 지는 몰라도 운필(運筆)에 멋이 있었다. 손을 좌우전후로 휘휘 쳐드는 것이 흡사「콘택트」를 놀리는 것 같았다.

강문수는 멀전히 앉아 승낙하지 않은 모델이 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잠시 후에 민영민은 연필을 테이블 위에 탁! 놓으며 그런 그림을 쳐들고 자신이 감격한 표정으로 들여다 본다. 그는 쌍웃으며 그림을 강문수에게 내밀었다.

『자! 어떨가? 이만하면 됐지!』

강문수는 받아들이고 잠잠히 들여다 보았다. 도무지 된 것 같지 않았다. 누구를 그런 것인지 모를 그림이었다.

『누군가? 이게.』

강문수는 좀 지긋은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을 보게, 눈 중에 또 그 꼬리를 보란말야, 눈꼬리를. 칼 끝처럼 날카롭게 찢어 진것이 자네 눈아닌가 보란말야. 어차피 남을 본다는 것은 어느 일부분 뿐일

세. 전체를 알되,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적은 부분이라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일세.』

민영민은 또 다시 등의 만만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장군! 자네 얼굴의 흉터는 안그렸네. 일부러 안그렸어. 그건 자네 것이 아니니까. 그건 자네의 타고난 운명을 해할 농은 아귀들의 손톱자국야.』

장문수는 민영민의 말을 들으며 헛어늘고 있던 그림 쪽을 착착 접어 포켓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일어서며 그는 말했다.

『원형에만 충실한 것은 현대 예술이 아닐세. 자네가 화가라면 내 얼굴에서 다 빼놓더라도 흉터만은 그려야 하네, 이유를 묻나? 내 인생은 이 흉터로 말라졌네. 이 흉터는 이번 전쟁이 나에게 준 훈장일세. 자신의 일생을 개척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훈장일세. 그때 나는 가끔 거울을 들여다 보며 이 흉터를 쓰다듬어 보네, 자랑삼아서.』

장문수가 일어선 것을 보자 민영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나? 비가 저렇게 오는데?』

민영민이 밖을 내다 보며 말했다. 『나가 봐야지. 비가 와두.』

장문수는 차값을 계산하며 냇수했다.

『난 소주 한잔 더 해야겠어.二百환만 주게나!』

민영민은 계면적은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내○○신문 사회부에 자리 없나 알아 봄세. 편집국장 김××군은 내 말을 팔세 못할 처지지. 허허허...언제쯤 또 만날가?』

『고맙네. 자주 만나지.』 장문수도 민영민도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오자 민영민은 돈이백환을 받아 포켓에 넣으며 장문수의 팔을 잡는다.

『가세! 존 메가 있어. 꼭 한잔씩만 하세나.』 잠시후 장문수는 전차 정류장에서 있었다. 아침에 동료가 보라고 일러주던 용산××공작소, 마음에 도끼기는 무엇이 될듯 싶은 예감이 들었다.

장문수의 심정은 꼭 일선에서 공격명령을 받고 막 동개시를 하려는 순간의 그것과 똑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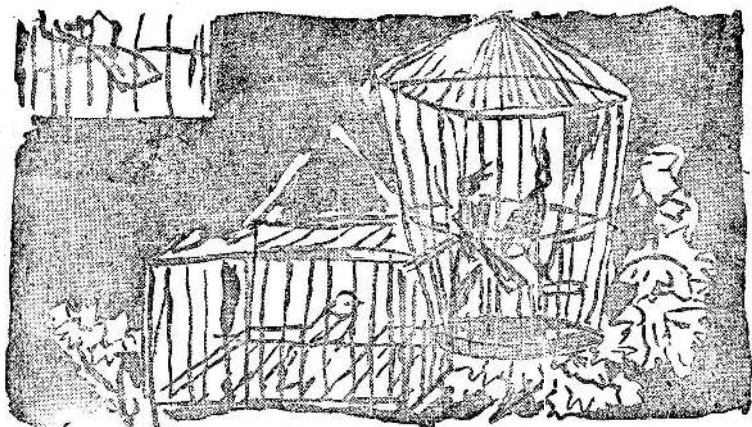
장문수는 「피쓰」를 기다리면서 혼자서 있자니 어쩔지 슬프도록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술기차게 흘러가는 행렬에서 자기만이 튀어나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안이 움직이는 데 열에서 이렇듯 민영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소에 찬 눈초리로 자기를 흘려보며 가면 안될 곳으로 지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까였다.

장문수는 마음속 도사리기 위하여 눈을 딱 감고 몸을 들었다. 몸을 돌리며 감았던 눈을 뜨니 거기에는 형편없이 파괴된 폐허가,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허망한 폐허가, 전개되어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폐허에도.

(끝)



# 葉篇二題

郭 夏 信

## 第一題 어딘少女

「남양」다방(茶房)에서 일하고 있는 영희는 성질이 괘뚱하기로 소문이 났다. 열골과 몸터가 이쁘게 생긴 관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주 바라보기도 하고 쫓아 다니기도 하였지만 영희 당자는 아무리 지근거리더라도 결코 거를 때 보는 일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값진 물건을 사다가 슬그머니 「카운터 어」 밑에 끼워 두고 가기도 하였으나 그런 짓을 하면 이제까지 꼬마운 손님이라고 매하던 터라도 지체 없이 타악 쓰아 붙이고 마는 것이다. 도도하더니니, 건방지다니니, 어디 두고 보자니니 — 별의 별 욕을 다 퍼붓는 축도 있었지만 영희는 조금도 눈치지 않았으며 기껏이 집에서 쫓겨 나가기 밖에 더하랴고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는 터였다. 그러나 아무리 괘뚱하고 쌀쌀히 굴어대도 누구에게 손찌검질을 당한 일도 없었고 다방에서 쫓겨 나게 되지 도아니하였다. 도리어 그런 까다로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배기

라는 뜻, 모두를 하인처럼 고분고분히 끌고, 눈치를 살피고, 부지런히 드나들며 친절을 베풀고들 하였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에 윤식이는 결코 그렇게 굽히지 아니 하였다. 영회가 이곳으로 들어 오기 전부터 단골로 다녔고, 그때서 다른 사람들이 영회를 꺼내려고 재주를 다 짜내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그들 축에 끼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거나 누가 말려서 아니라고 영회와 아름다음에 비기어 자신이 너무나 처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구태어 못난이라고 관에 박히울 형편은 아니었지만 윤식은 결국 남들을 밀쳐 버리고 영회와 맞서 불용모도, 체격도, 몸차림도, 언변도 모두 부족하였다. 윤식은 차라리어떻게 되어 가는가 구경이나, 실권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예 영회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였다. 거들떠 보지 않고 구경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지극히 외롭게 여겨지는 하였지만 차라리 그런 편이 마음이 편하였다.

두달, 석달, 반년이 지났다. 날마다 다방 한구푼이에는 윤식이 앉아 있었고 그동안 영회를 피어 내려는 젊은 축들이 몇차례씩 갈리고 영회는 영회대로 팔꿈치고 새침한 자세를 그대로 부러나가는 반년이였다.

(지독한 처녀두 다 있다!)

윤식은 정말 영회를 사모하였다. 그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여인은 세상에 다시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윤식은 태도에서나 말에서나 결코 영회에게 반가운 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윤식의 의결상 앞에 영회가 나타나났다. 이미 늦어 있는데, 다방에는 한사람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았다.

『여쭙 말씀이 있어요, 줌.』  
『내게요?』

『춤... 이것춤 보아 주세요.』  
영회는 조그만 편지 쪽지를 내어 준다. 영문을 모르면서도 뜰어 보려고 하는 윤식의 손을 가만히 잡아 누르며 영회는

『있다가 댁에 가서서 보아 주세요.』

집에 와서가 아니라 다방 문밖을 나서자마자 윤식은 편지를 펼쳤다. 잠깐 놀랄만한 내용이였다. 그 자체 결코 연애감정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감정에 가까워 있다는 행적이 되기에 는 남음이 있었다. 유독 윤식에게 편지를 주었다는 사실이 이미 윤식의 승리와 환희를 약속해 주는 노릇이었다. 다른 여러 청년이 재주를 다아 짜내도 되지 않던 노릇이었던 것을 도리어 일이 뒤집혀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천출기 자체가 무지개로 변하는 기이(奇異)가 솟아났다.

집에 들어가서 윤식은 잠을 자지 못하고 뜯는으로 밤을 새웠다. 영희와의 찬란한 광경이 서서서 머리속을 감돌았고 그 때 윤식은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잠을 자라 싶었다.

이튿날부터 윤식은 더 일찍 다방에 나가갔고 갈때마다 조그만한 물건을 사들고 갔다. 이제야말로 버젓이 물건을 주고 받고 할수 있으리라 여겼고 누가 어떤 짓을 하여도 자기를 누를 수는 없으리라 싶었다. 오래지 아니하여 윤식은 진정 승리자로서 다른 음행이의 안타까운 태도를 불쌍하다고 여겨주었다.

일주일 이 지난날 밤, 그날밤도 손님이 없을 때를 가려 영희가 찾아 왔다.

『고맙습니다 윤식씨, 비싼 시계를 사보내시고!』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것 그만 두세요, 앞으로.』

『그만 돌진 뛰었어요? 그런것쯤!』

『알겠어요, 그 뜻은. 그렇지만 그만 두세요, 정말.』

『로 받으세요, 이것 모두.』

영희는 윤식의 눈앞에, 이 지막 사다 주었던 가지가지의 선물들을 다 아껴쳐 놓았다.

『왜 그러우? 이진. 아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는 윤식의 귀가 가까이 영희는 나즈막하게 일러 주었다.

『윤식씨에게 애뜻한 호감을 가졌던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끝이 났다고 봐요. 보세요, 나의 성격을 모르구 어떻게 물건을 사오고 하심척째 윤식씨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어디 있겠어요?』

『아아!』

『그것뿐이라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겠어요. 윤식씨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나의 편지를 받으신뒤, 이제는 안전하리라 하는 시기에가서 선물을 사오시는 그 공리성이 차라리 더욱 불쾌하게 느껴지는군요.』

윤식뿐 아니라 영희도 얼굴이 빨개해 있었다. 영희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윤식은 이미 종막인 것을 알고 쪼수처럼 고개를 푸욱 숙였다.

第二題 通禁時間以後

날마다 마시는 술이 시작만 되면 언제나 앞뒤 없이 곤드레가 되어 버리는 K씨였다. 오늘은 좀 걸려 볼까, 오늘 저녁만은 얼마쯤 일찍 들어가서 식구들과 단 한 번이라도 저녁을 함께 먹어 볼까, 아침에 회사에 나오기만 하면 단단히 새겨 두는 것이었으나 K씨는 어느 하루도 술

에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본일이 없다. 진정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꼭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싶은 날도 어째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이 K씨는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동행금지 시간 이 넘을라 말라해서야 대문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

『이놈의 문안 열레냐?』

하고 대문을 발길로 차면 부인은 그때까지 앉은채 기다리고 있다가 울상이 되어 대문고리를 쫓기는데 K씨는

『은나와라! 와라! 똑딱! 이놈의 대문!』

동리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는 하는 것이다.

『오늘은 꼭 일직들어 오리라. 술은 입에 대지두 않구  
!』

아침이 되면 열불의 우뚝 부인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그

날도 여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오오는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늬때와 마찬가지로 시작된 술이었다.

『어디 가서 한잔 할까? 꼭 한잔, 막걸리라두.』

『한잔만 하지. 또오, 예에, 대추나무 집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회사에 드나드는 친구 서니명과 어울렸는

데 시작이 한잔이었지 벌써 대접으로 사발로 독한 술이

왔다 갔다 하였다.

『오늘은 이만 하세! 불일이 있어, 집에.』

K씨의 말은 정말이었다. 시골계시는 백발엄친이 꼭

一년만에 아들의 집을 찾아와서 틀림 없이 일찍 들어가  
겠노라는 약속을 단단히 하고 있는 K씨였다.

『불일 보지 말랬나? 누가. 어서 마시구 나서  
불일.』

친구들은 전날과 조금도 다름 없이 잔을 입에다 치켜  
댄다.

『지랄서 아버지가 올라 오셨어. 정말일세, 오늘은.』

『술 먹는 아들 두기가 잘못이지 누가 뭐라겠나? 그게  
불일이라는 건가? 이사람.』

『이러다 동행금지 시간 넘어면 큰 일 나네. 대강이  
쯤 해 두세.』

『동금시간 넘어문 자구 가문 되지 않나? 워연. 마누  
라가 짱짱대는 것이 그리 무서워?』

『글세 그렇지 않대두. 벌써 열시 반일세. 어서 일어  
나세들. 곧 동행금지 시간 싸이렌이 부네.』

『동행 금지가 그렇게 두 무서워? 가마안히 있자, 동  
행금지가 넘어두 적정 없는 수가 있어. 열려만구 마시  
게.』

『무슨 수가 있는가? 이사람들. 어서 일어나세.』

『이렇게 하계. 옷을 훌쩍 벗고 뛰계. 마라손 선수처럼  
만화에두 나 있지 않던가? 이사람.』

『어서 일어나세! 진짜로 옷을 벗구 뛰계 되겠네.』

결국 남어지만다 마시고 일어나기로 다차운 보기는 보았으나 남어지를 마시고 일어섰을 때는 벌써 동행금지 시간이 반시간이나 넘어 있었다.

(큰 일났다! 으음! 큰일이 나긴 했는데 모한 방법 이 없나?)

거리에 나오니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아 가고 화살처럼 달리는 「찌요」차들이 벌뚱처럼 작게 보인다. 아직 집에 다다르지 못한 행인들이 경중전음을 치며 눈이 부시게 오고 간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담뱃대를 들고 방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늙은 아버지의 모양이 「찌요」차의 사이사이에서 어른거린다.

(살려 줘쇼! 아버지! 가만 있자, 가기는 가야 될 텐 데…….)

K씨는 옷을 벗고 「마라손」선수처럼 뛰어들어 가면 되지 않는냐는 친구의 소리가 머리에 퍼 울었다. 그 뿐 아니라 이 더운 여름날 술이 잔뜩 올라오고 보니 도대체 더위가 북바쳐 더 걸을 수가 없다. 잘 되었다. K씨는 샤쓰와 양복바지를 벗어서 허리띠로 졸라매고 등에 메었다. 그것으로 몸은 거의 알몸이 되어 있었고 알몸이 되자 걸음이 저절로 앞으로 달려 나간다. 「파나마」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은 「마라손」선수가 밤길을 뛰고 있었다.

『누구야!』

과할소 앞이었다.

『누구나라? 「마라손」선수다!』

『마라손 선수? 하, 하, 하!』

『마라손 선수다! 길 비켜라!』

『이리 들어 오십시오! 영감!』

『뭐? 왜 들어 오라우?』

『어딜 가는 길입니까?』

순경이 정색을 하고 묻는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용서해 주우.』

『이름이 뭐니까?』

K씨는 술이 바짝 깨는 것을 느꼈다. 이름을 묻는 것

은 하룻밤 재워 보내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다.

『아니, 날 재울 모양이요? 동행금지 시간 넘겼다 구재울 모양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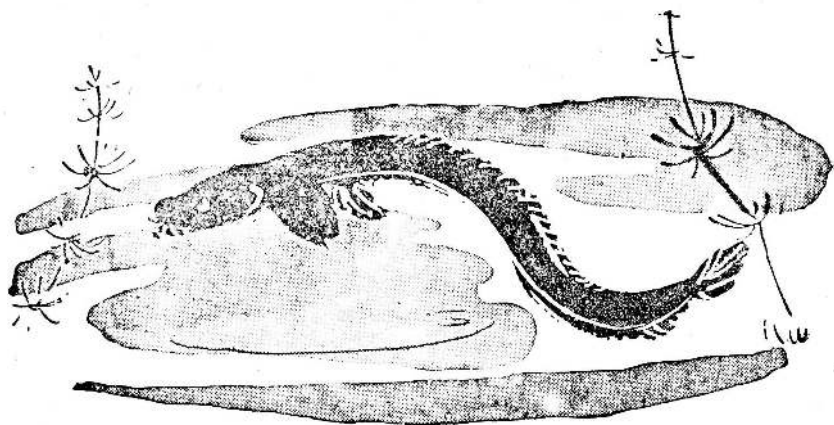
K씨는 목소리가 떨렸다.

『주부셔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름이 뭐니까?』

『동행금지물 어기면 꼭 자구 가야 되는지요?』

K씨가 울멍거리는 소리를 하자 순경은 딱하다는 듯이 그러나 툭툭히 말하였다.

『동행금지 시간을 어긴 때문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많은 거리를 빌거벗고 다녔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가 없읍니다.』



△小説▽

不具者

崔泰應

일일이 자기 방(病室)에 불일이 있을 경우 마다. 녹크 할 필요가 없  
이 그냥 출입을 하라고 했다.

자기가 서울을 올라 와 있다는 소식부터 알면 매일이라도 찾아 올 친  
구들이 허다한 것이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느라고  
준석은 입원을 하던 첫날, 미리 부탁을 해 놓은 것이었다.

녹크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드나들수 있는 사람이 해야 그러니 병원 원  
장이며 주치의인 백박사와 간조원 영육이.

입원 하자 즉일로 수술을 받은 지 어느덧 석달 — 준석이는 이미 환자  
라고 할 것도 없으나 늘려 아무에게도 기별을 많고, 아무도 찾아 오는 사  
람이라고는 없는 채 의로운 속에서 말꺼없이 지내고 있을 따름이었다.

백박사는 준석이의 맞춤형 준석이의 친구이며 동창생이었다.  
가뜩이나 나이의 차이가 먼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면 속질간이나 부자간



으로 까지 짐작을 하기가 일쑤인 준석이의 형 준길이의 동창이니 옛날 친구니 하는 밑위를 떠나서 백박사는 또한 준석이가 어렸을적 부터 구면일뿐 더러 집안 끼리 내왕이 있고 남달리 친밀 해서 준석이는 백박사를 보고는 『형님』이라 부르는 사이였다.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잔잔 동생이라고 해도 될 욕을 나는은 동기간인만큼, 준석이 병을 얻어 잘못 판결(關節)이 붙어서 병신이 된 이래 거의 해마다 재발할 하고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같은 윗과요 박사연만, 대개 백박사에게 갖다. 마침으로써 과히 긴요한 일이라도 생기기 전에는 준석이를 그리 자주 드려다 보는 예가 없었다.

준석이로서도 그편이 좋고, 편한 것이라 했다. 친형이라고 바로 앉아서, 공연히 잔참견을 든다거나, 서둘러 위로를 주려 했다가 너무나 예민하고, 병적인 준석이의 신경을 건드리는 날에는 실로 피차간의 막대한 손해와 온집안에 미치는 영향(라경)이며 슬픔이나 이르키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또한 일수인 까닭이었다.

— 석달. —

『그새 석달이 차는만요 준석씨 입원하신지가:』

아름, 검은을 와서 팔복에 팔닥 지리는 맥박을 재고 쳐 드랑이에 끼어 준 체은제를 기다리며 영우는 입을 배었다.

『그렇죠 아마, 내가 여기 오면, 처음날, 저 현관밖에 있는 포도 나무에서 얼핏 봐 두었던 포도알들이 겨우 녹두알만 밖에 안했던것 같았는데 그게 벌써 익었다나.....』

『내애 인젠 포도도 제철을 지났어요, 음덕으루 구월인 절요 머!』

『그렇구만요 그새』

『참 지루 하셨죠..... 외로운시구:』

『.....네!』

준석은 잠시 입을 다문채 무어라고 대답을 할것인지 망서렸으나 차라리 나오는 대로 끄덕이며 수긍해 버렸다. 『남들 처럼, 찾아오는 이들 두벌두없이 석달씨이나:』

:: 정말, :::::』

순간 영우이 북쪽 창밖을 내어다 보는 체 하며 외면을 하고, 중얼거리는 말소리에서 준석이는 정작 외롭고 지루했던 사실을 느끼는 동시에, 정작 외롭고 지루했던 사람은 자기였는데, 영우이 저다지나 동정을 하는가——했다.

『그동안 참, 많은 수고를 끼쳐 드렸읍니다. 신세를 지고』

『아이 천만요, 준석씨 형님이랑 원장님이랑 두 침부더 절 보구 남달리 간호를 해 드리구 위로를 해 드려

라구 말씀을 허셨지만 제가 워낙 될 알아야, 어떻게 허죠? 간호부부나 그냥 인간으루나 도대체 아는 것이라곤 통 없는 데다가 경험 꺼짐 없는 형편이 왜 되셔요.』

『네이?』

『정말예요, 명색이 간호부라고 이러구 있긴 해주전, 통아는게 없거든요, 이번만 해두 준석씨 덕분에 석달 동안은 분에 넘친 호사를 현 셈이랍니다. 호? ! 한가하게 놀기만 허구』

『진도?』

『이병원 입원실이 열셋이나 있지만 간호원이 저 꺼정 세사람이나 있거든요 근데 준석씨 입원 허신 뒤루는 전 특별히 준석씨 별실 하나만을 도맡아 보도록! 그러구 잔혹 수술실이나 의료품 소독 허는 일 같은 것만 거를 기루 분담을 식혀 주셨답니다. 물론 그전에부 남할 처럼 고된 일을 맡기시질 않으셨지만 서두……』

『아 참! 언젠가 내형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것 같습니다. 영옥씨는 보통 직업으루다가 이면에 간호부로 있을 분이 아니라는……』

『아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구 말씀이죠, 어쨌든 제가 너무나 서툴구 상식이 없구……』

『글세 일일이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이 지금 생각을 하니깐 하여튼 영옥씨가 온 서른네 기라면서 내기요 여태 사회에 대한 경험이니 상식이니 그런것들이 없다면 없는——말하자면 임시 간호원에 어자 대학생에 그러시단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

『난고만 입원을 하자마자 당장 그날루 수술을 받고, 가뜩이나 신경질에 영옥씨, 불시에 곤란하게 해드리고 내뱃대로 부러 버고,…… 때로는 마구 없선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태도 까지 취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구만요,…… 미안합니다.』

『아이 또, 그런 말씀을! 저야 말루 여태 정맥주사 하나를 바로 놓을 자신이 없구 원장님 봉대교환을 허실 때에두 //핀셋트//를 들구 처치 섬길줄을 못해서……』

『영옥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깐 더욱 새롭게 떠올라서 말씀입니다 마는 언젠간 내가 추사 한번을 맞는데 세 번씩이나 남의 팔을 되찌른다구 영옥씨 면전에다 대고 짜증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그러구 한번은 허리가 백허서 좀 돌아눕는지 허리 밑에다가 펄 좀 피어 주는지 어떻게 할때에다 한번 걸터앉아 보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옥씨가 혼자 담을 흘리기 까지 하셨전만 아프다구 야단을 치고, 나중

에는 애매한 영육체를 보고 랫을 잡고, 두덜거린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어쩔, 그렇게 아프실때 일들을 꼬대루 기억히 구제서요? 아이 부끄러워... 지금 생각 해두...!』

『정말 부끄럽다기 보다는 내가 민망스럽습니다. 미안하요,』

『아네요, 그런일이 있을적 마다 전 혼자 돌아가서 다른 익숙한 간호원들을 부르고 물어 보기 두허구 실지 다른 병실엔 가서 연습을 허듯 준석씨 비슷한 환자를 상대로 몇번씩이나 정립을 쌓느라 구해 봤지만 막상 준석씨 병실엔 들어와 보면 웬일인지 여걸 채 들어 오기도 전에 그냥 쾅기구 자신이 없어지구 해서...』

『그러니 글세 미안하달 밖에 있습니까? 원체 사람이 신경질인 데다가 참을성이라고는 없고 남은 거라고는 그야말로 악(惡)밖에...』

『어머나 준석씨 두...:..:..:..: 그런게 아네요 절대루...:..:..: 병서 여기 입원 허시는 첫날 맨 처음으로 만난 분이지만 제겐 첫눈에 준석씨가 어떤 분이라는걸 담박에 알수 있었어요』

이야기에 팔려서 항목 二, 三분이면 특한 체은계를 十분이상이나 그냥 두었다가 그나마도 보나마나 형식에 불과한 눈으로 비쳐본 다음, 준석이의 //카르테//에 평은

(平溫)임을 기입한 영육이가, 화제를 들려

『몇일 내루 퇴원을 허신 다구요...』

저우이 쓸쓸한 빛으로 마조 보는 것이었다.

『글세요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쥬, 사실상 수술 자리도 거진 향창이 되고, 인제 고약이나 갈아 매는 정도니깐』

『내! 다른 환자를 갈으려면야 버얼서 퇴원을 허구 하루 한번이나 하루 걸어서 한번씩 와서 //꺼스// 만갈아 부치면 그만이신걸』

『난 원래 일단 퇴원을 한 마에는 그 다음 입원을 다시 하기까지는 아조 발길을 끊도록 철저히 치료가 끝난 다음에야 퇴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을 다시...:..:..:』

『그렇쥬. 잘 해야 내년 무사히 돌아다니면 다행이라 할런지, ...:..:..: 보나마나 일년 안짜에 또 재발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간요』

『...:..:..: 그 아픈 수술을...:..:..:』

영육이는, 남달리 눈치가 빠르고 경우가 밝은 여자인 까닭인지 아니면 미리 준석이를 상대로 직접 간접 예비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속살인지, 그 이상 지지하게 말을 전하지 않았다.

결결 뒤던, 청년이 딱히 알수도 없는 원인이나 동기에

의해서, 끝내내 대퇴에 관절이 끊기고 뿌셔지고, 여지없  
 는 강직(強直)으로 비통다리가 되었다는 사실만 해도 어  
 리가 없는데 그렇게나마 아주 병균만은 깨끗이 떨어져 버  
 린게 아니라 더 깊은 골수에 들어박혀 있다가 시시로 재  
 발을 하고, 화농작용에 이르게서 정작 『그 아픈』 수술을  
 해마다 1- 때로는 일년에도 두세 번씩 1- 되풀이 하  
 는 불행을 놓고 10년 넘어의 세상을 살아온 준석에게만  
 약에 그 이상 무는 말을 더 식힌다거나 서둘러 동정 같  
 은 것을 드러내거나 했다면 제아무리 영육이라 해도 그  
 리 신통한 결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떤 봉변에 속하는  
 비극을 초래했을런지도 모르는 때문이었다.

그렇듯 다행할 수 있는 조건 1 내력 1 이 영육에게  
 는 골고루 안팎으로 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였다.

그의 말대로, 생전 처음 만나서 한번을 마조 본 첫날  
 부러 영육이는 준석이 불인상 좋게 보았을뿐 아니라 심  
 상치 않게 여김으로써 관심과 호의물 기우뚱던 것이며,  
 하로 잇들 1 한달 두달 1 상종하는데 따라서 또한 남  
 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육이 만은 오로  
 지 준석이가 보통 병고(病苦)에서 이물기는 보통 남자 1  
 환자 1 들이나 매일반인 신경질에 자포자기로서 (혹은  
 비판과 긴장한 사람에 대한 도전적이며 비굴한 결투 등  
 등) 최은한 마음과 동정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종류

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욱 고집이 많을 수는 없으나마, 상종 하고 접  
 촉하는 시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도 틀리지 않는 세  
 로운 발전(發見)을 더해 가면서 준석이의 참된 위인과 남  
 이 불출 모르는 진가(眞價)를 영육이 혼자서 드러다 보  
 고, 저울에 없쳐 놓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양 기쁘고 자  
 랑스럽게도 했다.

가끔 찾아 와서 허물없이 원장부터 만나 보고 준석이  
 가 낫잖을 잔다거나 무엇을 읽는 다거나 쓰는 일에 열중  
 해 있다면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준석이의 형, 준석이의  
 말에서 첫째로 통기간이오 나이 어린 동생이건만 준석이  
 가 까다롭고 무섭기 까지 하다는 사실과 둘째로 누구 보  
 다도 근본을 잘 아는 형으로서 조금도 보람이 없이 준석  
 이는 남달리 온순하고 침착하고 재질이 풍부한 어린이  
 로 태어나 있건만 그다지나 약독스럽고 지긋지긋한 육체  
 적 고통이 가다가 그의 근본성격을 여지 없이 둘러엮어  
 버리는 마(魔)의 순간과 감정과 행동까지 안겨주는 경  
 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재로, 가장 중대 하고 우려  
 되는 바 만약에 지금껏 도사리고 버티어 온, 인내와 의  
 지와 이성(理性)이 무참히도 흐려지는 날 준석이가 저렇  
 듯 태연한 속에서 기실은 감쪽같이 비판과 절망과 도대  
 체 인생과 세상에 대한 1 나아가 자신의 운명과 신에 대

한 탄받이나 복복으로 여짐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자살  
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더욱이 집안이오 형제의 사이로서는 어느 집안 어느 형  
제만 못할 까닭이 없건만 어쩌다가 이야기 가 무심결에 비  
두로 번어 나가서 과학자 1의사 1로서의 입장에 준걸  
이가 서게 되는 경우 준석이는 실로 미칠듯이 진지 하고  
열렬한 환자 1 병신 1의 처지에 자처 해서 참아 들을  
수 없는 호소와 론리를 퍼 가며 형을 울리고 자기도 울  
다 못해 수습하기 곤란할 지경으로 걸잡할수 없이 물고  
들이 가는 수가 있었다.

두사람의 의학박사, 두사람의 형이 할수있는 원장(백  
박사)과 준걸이 사이에 오락가락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영육이는 다만 제3자로써 어쩔지 준석을 놓고 자기야  
말로, 혈육이니 동기간이니 하는 관계보다 더한 거리와  
인연을 지니고있는 사람이거나 한듯, 가슴이 답답하고 눈  
시울이 축축해지고 입술을 피나게 깨물어도 시언치않을  
을 어찌할수 없었다.

영육이는 그다음으로 준석이의 병실 까지 달려가지 않  
을수 없는 충동에 사로 잡혀 발소리를 죽여 가며 문소리  
를 내지 않도록 애써 준석이의 머리맡 까지 들어가 보고  
야 견디었다.

『……—』

세상을 잊은듯 비웃는듯 깊은 잠에 파묻혀 있는 준석  
이의 애기 같은 얼굴을 영육이는 그대로 잊으려 볼을 맞  
후거나 와락 젓가슴에 끼안고 혼들어 주고 싶어서 온몸  
을 후들후들 떨기도 했다.

참아 그럴수도 없는 바에는 자칫 돌아 나가는 인기척  
에 단잠을 깨울까 두려워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그자  
리에 직혀 선채 준석이가 싫건 자고 기지개를 켜는때까  
지 오뎀하니 서있는 날도 있었다.

눈을 뜨고 한번 불라는 빛을 피우기는 했으나 준석이  
는 그 이상 별다른 느낌도 없다는양 덤덤 한채 부시시 일  
어나 높은 침대에 걸터 앉으며

『웨 거기 앉으시든지 곤하실런데 거기 쓰.과.에.라.도  
느.

으시질 않요:』

혼자말 하듯 중얼거렸을 따름이었다.

영육이도 기껏

『아까 벽에서 형님이 다너가셨어요.』

『네에, 형님이……. 그럼 날 깨우시지 않요……. 하긴  
별로 할말도 없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한가한 틈을 보아 준석이의 기본도 어둡지 않은 눈치를  
보아 백박사가

『뒤병원이니 입원 환자니 그런 관념을 떠나서 여기나

자네 형님 집이나 매일반이나 언제까지는지 구태어실  
 증이 나기까지는 이때부터 휴양을 허두록 허란말야,  
 그러구 저너무 혼자서 책만 읽구 글만 쓰구 그럴질말  
 구 인젠 한참씩 운동, 산보를 허는게 자네 몸애두 퍼  
 종구 그러니깐 혼자 심심허질랑 저영욱이 허구태두가  
 꿈거리두 나가서 바람을 쐬구 극장구경두 다니구 좀  
 그러란 말야 뭐? 자네 기분만 나구 스스로 자신만 있  
 질랑 좀더 면테라두" "드라이브"를 허는지 소규모" 하  
 이킹"을 허는지 다아, 상관이 없으니깐 말이지 응?"

『네,』  
 『영욱이 나 좀 봐, 어째거 그렇게 귀어다 놓은 보릿자  
 무 모양으로 그러구 있지만 말구 우리 준석일 갖다가  
 좀더 어떻게 안되나?』 "씨! 뷔스" 라든지 우정이라  
 든지 허?』

『은형님두...: 그렇잖어도 영욱씨 신세를 과히 저서  
 장차 잘못 도리가 막연한때 왜니』

준석이도 진즉 전에 없으리 만큼, 명랑한 얼굴에 웃  
 음 섞진 말투로 대꾸를 했다.

그 바람에, 영욱이 까지  
 『선생님 말씀 마세요 워낙 저 같은 정도의 자격이나』

씨! 뷔스" "좁은 준석씨 앞에 아무런 효력도 반응도  
 바랄수 없나본걸요 호?"

『은 저런 영욱씨도 그런줄 몰랐드니 여간 내기가 아니  
 지구만요,』

『하 뭐 그대야지 하여튼 영욱이 잘 부탁 해 알었어?  
 가만 있자 그러구 보니깐 부탁은 준석이 헌데다가 해  
 야 할것 같기두 허구...: 예라 그런 양쪽 다아 잘 부  
 탁을 헌다! 그렇지 우리 응? 허허허』  
 김재를 보아 백박사가 밖으로 나간 다음

『준석씨!』  
 『네?』

무요한 침묵을 깨트린다기 보다는 잠시 생각에 잠긴 준  
 석이의 입에서 불현듯 무슨 말이 튀어 나올런지 모른다  
 는 두려움에서 먼저 영욱이가 입을 떼어

『아가 농담은 용서 해 주세요 원장선생님 바람에 그만  
 합부부...:』

『어 어디요 농담이야 누군 안했읍니까? 사실상 원장  
 형님이 그 나이에 주책없는 말씀을...:』

『아네요 그 어른이야 워낙 준석씨를 애끼구 사랑 허시  
 니깐 그러신거죠 언제나 진찰실이건 응접실이건 준석  
 씨 아는이만 있으면 걱정이 오죽 허시다구요』  
 『!.....』

『준석씨 참, 해복허셔요, 친형님만 해두 그만 허신때  
 그렇게 또다른 분들 걱정 진심으로 걱정을 해 주시면

서 극진극진히 돌봐 주시길 않나.....!』

『또, 문수 없고 무기력 하고 한심스런진 모르겠습니다  
만 영옥씨! 나는 이미 내게는 그렇게 모두를 남이  
아닌그런 본들의 걱정이랴든지 돌봐 주는 일이다든지  
도대체 동정, 아니 사랑이라는게 모름직이 필경은 나  
를.....그들 몰래...』

『내애?』

『참말입니다. 내게 필요 하다가 보라도 내가 백배 거  
정이나 돌봐 주는 일이나 도대체 사랑 같은것 터럭끝만  
큼도 받지 않고 살드래도, 어떨든 꼭 살 자신을 가지  
고 살수 있는 일은 내 육체에 있지 이대로 이 켜그러  
지고 좀잘하고 있는 육체와 병을 지닌 체로는.....사  
는 일은언제 어느 시각에 없어질런지.....』

『가만 계세요 준석씨!』

『네?』

『저두 좀 기란 없는 애길 여쭙겠어요, 이왕 허물릴 사  
이두 아니구 헌테다가 준석씨가 끌끌내저 같은 인간  
쯤은 여자나 이성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태두 아주,  
전적으로 무시를 허실분만 아니라 영영 저같은것은 심  
장두 없구 감정두 없구,.....정말이지 상대조차 해  
주실려구두 안하시니!』

『네? 아아니!』

『글세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  
부 뛰이러니 저러니 험하게 없이 말씀이죠 준석씨! 준석  
씨께선 하여튼 죽으시죠?』

『?.....』

『언제든지 제명껏 사시겠다는 마음이나 희망 같은건 통  
없으시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언제든지 자살할 허실  
작정이시구 실상 자살을 허셔야만 되겠는데 그 시기,  
그 기회만을 엿보구 노리구 계시단 말씀 아네요?』

『!.....』

『참말투 그러시다면 말씀주세요..... 실례구 뛰구 없이 저  
저를..... 제발..... 살려 주시는셈 치시구 설랑은  
저허구... 함께 죽!』

『영옥선 패니... 무슨 말인가 했드니 이제야 말로 옹허  
볼없는 사이니 기만 없는 말이니 해가지고 나를 놀  
려대고 비웃고 아주 특특히 멸시를 하자는 속살이시  
구려!』

『거 보시래두요 준석씨야 말부 하여튼 하나에서 백까  
지 그저 저타구만... 제 의사제 말이타구만 허편  
트리 무조건 허구..... 저두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  
리구 저두 사는때 꺼정은 살어 보려구 고향을 잃구 부  
모형제 다 잃구..... 그때두.....』

『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옥씨!』

차라리 오늘은 이쯤서 그만해 두는게 옳을런지도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 이상 영육씨의 말을——그 태도, 그 심리를……』

『아네요 아네요 배연히 아시면서 그러시는거예요 전 그제분해요 까짓거 다른문제는 제가 짝사랑을 허다가 실연을 당했다두 그만이에요……저 혼자서 죽죠.』

『허어——이전 정말 너무 하신대요? 나같은 환자, 나위없는 병신, 불구자를 상대로 영육씨가…….』

『저야 말두 병든 사람인걸요……대판절이 세상애 병신 불구자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이 병원애 간호부두 취직을 헌 이래두 느끼구 인식헌 문제지만요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광범위헌 얘기를 할필요가 없어요 그저,……준석씨 허구저 허구 단 두사람의 일만 가지구 따진다는지』

『따지긴도 될, 따질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태요 뭐 따질것두 없어요 인제 일은 끝장이 났으니깐요』

『자아 이런은 무슨 일이 어떻게 끝장이 났다고 그러시는겁니까? 끝장이 나길 영육씨』

『그럼요, 이 이상 얘기를 할것두 없어요……전……,……전 가겠어요,』

가는 것쯤이야 인제나 날마다 가고오고 하기를 몇번

몇십 차례씩이라도 들라날라 해온 준석이의 병실에서 영육이가 어디를 가건 병실 밖으로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었을까 마는 힐끗 쳐다본 준석이의 눈에 영육이는 그날따라 너무나 불안하고 비장한 빛을 띄우고 있었다.

마치 그길만은 한번 가면 영원히 두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는 물론이려니와 준석이의 병실로만 발걸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 안에도 서울 천지에도 도시 이 세상에도…….

『영육씨!』

『…….』

『영육씨! 이왕 가시드라도 구태어 석탈 남쫓한 동안 전애 없이 그렇게 가셔야만 맞일게 있읍니까?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그냥 앉아서 숨을 태워 가지고 가시드라도 내 침을 들여 거기 좀 앉으십시오,……어쩐지 내가 무얼 잘못 했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나 역시 전에 이래본 경험이라고는 없는것 같은 괴로움이 차꾸만 가슴을……아니 가슴 속에서 지랄거리 나오는것 같습나다 아——』

준석이는 실상 정신이 멀어 지는것 같았다.

늘어트렸던 발들을 울려 누르려고 버둥거리면서 준석이의 얼굴은 핏기를 잃은듯 창백해지고 가뜩이나 움푹 들어간 눈알들은 무엇을 찾으려는 듯이 감았다 땀다 했



어나 현기증이 앞을 가리우고 시력은 멀어진것 같았다.

『영우 씨! 나를 좀 눕혀 주세요: 내가 도무지 보이  
질 않습니 다 그 리고: : : 내 발이: : : 말을: : :』

지나간 석달 동안의 의리나 습성이나 본능으로만 보드  
라도 영우이로서 그 말에는 오죽 그때로 추종할 밖에도  
리가 있는가

『아——』

허나, 어찌된 영문인지 준석이의 목을 안고 활개를 띄  
서 한쪽 발—다리—까지를 킁껏 안아서 제자리로 들어  
눕혀주는 다음 순간 영우이는 이번에는 자기의 차례라는  
양 그대로 준석이의 가슴위에 옷뿔을 마주 얹드린채 한

참이나 몸짜를 얹고 있었다.

준석이의 몸부림이 떨쳐 내고 손짓으로 떠다 밀고 받  
길질로 걸어 차일것 까지라도 상상을 하고 작오 하고 기  
다리는듯 그때로 타섰던채 팔을 둘러 준석이의 허리를 감  
아 보기도 했던만 뜻밖에도 한참동안을 가만히 첫눌려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움직 몸을 놀리는 다음 순간에는

『바보! : : : 바보! : : : 병신! : : :』

달사달사 입술이 오물거리며 들썩 시체모양 느러트렸  
던 팔이 살아 허공을 더듬는 다음, 영우이의 머리를 부  
러 안으며 설레설레 험할어진 머릿채 속으로 손을 파물  
는 것이었다

(筆者——小說家)

931

코 메 트

發行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李鍾勝  
印刷處·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印刷人·空軍中領崔枝洙

祝

航空日  
(10月1日)

國 防 部  
陸 軍 本 部  
海 軍 本 部  
海 兵 隊 司 令 部